

韓國漢文教育學會

2015年 夏季學術大會

## 한국한문교육학회 2015년 하계학술대회

---

# 2015 한문과 교육과정을 위한 교수·학습 이론과 사례

---

- 일시 : 2015년 6월 20일(토) ~ 21일(일)
- 장소 :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소강당 (111호)
- 주관 : 영남대학교 한문교육과, 영남대학교 한자문화연구소
- 주최 : 한국한문교육학회
- 후원 : (재)국제교류진흥회

韓 國 漢 文 教 育 學 會



# 韓國漢文教育學會 2015年 夏季學術大會

## □ 대회 개요

- 일 시 : 2015년 6월 20일(토)~21일(일)
- 장 소 :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소강당 (111호)
- 주 제 : 2015 한문과 교육과정을 위한 교수·학습 이론과 사례
- 주 관 : 영남대학교 한문교육과, 영남대학교 한자문화연구소
- 주 최 : 한국한문교육학회
- 후 원 : (재)국제교류진흥회

## □ 행사 일정

6월 20일(토)		발 표 및 내 용	사 회
기획 주제 발표	13:00~ 13:10	<b>개회식</b> - 개회사 : 송 병 렬 (한국한문교육학회 회장)	양 원 석 (단국대)
	13:10~ 13:30	<b>기조강연 : 한문과 교수·학습 이론과 사례 연구</b> 발표 : 진 재 교 (성균관대)	
	13:30~ 13:50	<b>기획주제 ① : ‘主題’ 파악하기 教授·學習 方法 試論</b> 발표 : 김 왕 규 (한국교원대)	
	13:50~ 14:10	<b>기획주제 ② : 한문과 문화 영역의 성격과 교육 방향</b> 발표 : 류 준 경 (성신여대)	
	14:10~ 14:20	휴 식	김 봉 남 (영남대)
	14:20~ 14:40	<b>기획주제 ③ : 漢文科에서의 問題中心學習法 研究</b> 발표 : 백 광 호 (전주대)	
	14:40~ 15:00	<b>기획주제 ④ : 한문과 ‘배움의 공동체’ 수업의 실천적 모색</b> 발표 : 권 영 미 (장곡중)	
	15:00~ 15:20	<b>기획주제 ⑤ : 어휘 교수·학습 방법 연구</b> 발표 : 정 효 영 (등촌중)	

기획 주제 발표	15:20~ 16:00	<b>【한문과 교수·학습 방법 사례 발표】</b> - 김 은 정 (대진고) : 한문과 융·복합 창의 인성 교수 학습 사례 - 오 예 승 (송내중양중) : 한문과 창의·인성 교수·학습 사례	김 봉 남 (영남대)
	16:00~ 16:20	휴 식	
	16:20~ 18:00	<b>종합토론</b> - 좌장 : 김 혈 조 (영남대) - 토론 : 박 영 호 (경북대), 이 병 주 (경문고), 김 경 익 (울산여고), 최 현 선 (창일중), 김 성 중 (계명대)	

6월 21일(일)		발 표 및 내 용	사 회
기획 주제 / 자유 주제 발표	09:30~ 09:50	<b>기획주제 ⑥ : 한자 교육에서 행복 찾기</b> 발표 : 이 미 애 (경북대)	이 돈 석 (한국고전 번역원)
	09:50~ 10:10	<b>자유주제 ① : 漢字教育,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b> 발표 : 김 봉 남 (영남대)	
	10:10~ 10:20	휴 식	
	10:20~ 10:40	<b>자유주제 ② : 『孟子』 「梁惠王」篇의 構成에 대한 研究</b> 발표 : 송 병 렬·양 재 성 (영남대)	
	10:40~ 11:00	<b>자유주제 ③ : 江上四宰와 그 漢詩에 대하여</b> 발표 : 박 상 환 (영남대)	
	11:00~ 11:20	휴 식	
	11:20~ 12:20	<b>종합토론</b> - 좌장 : 김 미 선 (청주대) - 토론 : 한 은 수 (서울난향초), 양 원 석 (단국대), 김 종 구 (경북대), 감 지 연 (경북대)	
	12:20~ 12:30	연구윤리 교육	송 병 렬 (영남대)



## 目 次

### 【 기조강연 】

한문과 교수·학습 이론과 사례 연구 .....	진 재 교	7
---------------------------	-------	---

### 【 기획주제 발표 】

‘主題’ 파악하기 教授·學習 方法 試論 .....	김 왕 규	23
한문과 문화 영역의 성격과 교육 방향 .....	류 준 경	33
漢文科에서의 問題中心學習法 研究 .....	백 광 호	53
한문과 ‘배움의 공동체’ 수업의 실천적 모색 .....	권 영 미	77
어휘 교수·학습 방법 연구 .....	정 효 영	103
한자 교육에서 행복 찾기 .....	이 미 애	115

### 【 자유주제 발표 】

漢字教育,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김 봉 남	161
『孟子』「梁惠王」篇의 構成에 대한 研究 .....	송병렬·양재성	195
江上四宰와 그 漢詩에 대하여 .....	박 상 환	213

## 【한문과 교수·학습 방법 사례 발표】

한문과 융·복합 창의·인성 교수·학습 사례 .....	김 은 정	259
한문과 창의·인성 교수·학습 사례 .....	오 예 승	283

## 【토론문】

〈‘主題’ 파악하기 敎授·學習 方法 試論〉에 대한 토론문 .....	박 영 호	353
〈한문과 문화 영역의 성격과 교육 방향〉에 대한 토론문 .....	이 병 주	355
〈漢文科에서의 問題中心學習法 研究〉에 대한 토론문 .....	김 경 익	359
〈한문과 ‘배움의 공동체’ 수업의 실천적 모색〉에 대한 토론문 ...	최 현 선	361
〈어휘 교수·학습 방법 연구〉에 대한 토론문 .....	김 성 중	365
〈한자 교육에서 행복 찾기〉에 대한 토론문 .....	한 은 수	367
〈漢字敎育,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문 .....	양 원 석	371
〈『孟子』「梁惠王」篇의 構成에 대한 研究〉에 대한 토론문 .....	김 종 구	377
〈江上四宰와 그 漢詩에 대하여〉에 대한 토론문 .....	감 지 연	379

## 【 기조강연 】

# 한문과 교수·학습 이론과 사례 연구

－ 법고창신의 관점 －

진 재 교\*

### • 目 次 •

- |                         |        |
|-------------------------|--------|
| 1. 머리말                  | 3. 맺음말 |
| 2. 創新을 위한 法古의 교수-학습 사례들 |        |

## 1. 머리말

교육학에서의 교수-학습 이론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과에서의 학습 목표와 내용을 두고 교수자와 학습자가 수업을 통해 학습목표를 완전히 이해하고 체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학습 목표를 두고 어떤 방법으로 학습자의 능력을 증진시킬 것인가라는 것이 바로 교수-학습의 핵심이다. 대개의 경우, 그 지향은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 소통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실현되지만, 과정상에서 교수자와 학습자는 敎學과정을 통해 영향을 상호 주고받기도 한다. 이를 두고 敎學相長이라 규정한바 있다.

그런데 교육학에서의 교수-학습 이론은 모든 교과목에 전일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구현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특히 한문 교과의 경우는 더욱 예외적이다. 다른 교과와 달리 기본적으로 고전어를 중심에 두고 교수-학습하기 때문에, 교육학에서의 이론을 접목할 때 적실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실제 교육학 이론을 적용할 때 적지 않

---

\* 성균관대학교 교수

은 난점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한문과의 교수·학습 방법은 체계화가 미흡하게 보일 수도 있고, 다양한 유형과 모형, 기법을 개발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한문과 교수·학습 방법론의 연구는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지만, 대체로 전통적인 교수·학습을 그대로 현재로 이월시킨 것이나, 일반적인 교육학의 교수·학습 방법론을 학교 현장에 적용한 것이 대부분이다.<sup>1)</sup>

교육학 이론을 한문과에 적용할 때,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점은, 서구에서 고전어의 역할을 한 라틴어다.<sup>2)</sup> 과연 서구에서는 어떠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라틴어 교육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sup>3)</sup> 한문과 교수·학습 방법을 고찰하기 위해 서구에서의 라틴어를 교수·학습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sup>4)</sup> 하지만 서구의 라틴어 수용과 라틴어 교육에 비해 한국에서의 한문수용과 한문 교육은 사뭇 다르다. 특히 한문 교육은 단순 표기체계를 넘어 어문질서와 문화에서 결정적 영향을 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문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서구 교육학 이론의 단순 적용보다 라틴어 교육에서 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한편으로는 조선조 학인들이 실행한 교수-학습의 방안을 확인하고, 그것을 지금 어떻게 創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재examine할 필요가 있다.

1) 한문과에서 교수·학습의 이론적 성과와 방법의 가능성, 그리고 그 실제의 경우, 송병렬, 『漢文科 教授·學習의 理論과 方法』, 『漢子漢文研究』 第5號, 2009, 55~86면 참조. 한문과에서 교수·학습의 연구 방법론의 성과를 정리한 바 있다. 이는 송병렬·진철용 외 지음, 『한문과 교수 학습 방법론』 보고서, 2012년 참조. 논저 목록을 훑어보면 크게 전통적인 교수·학습 방법과 교육학의 일반이론을 적용하거나 IT의 기술과 사이버를 활용한 것 등이 대부분이다.

2) 일반적으로 서양의 17세기까지의 중세에 라틴어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테면 운문과 산문에 쓰는 문학 언어인 고전 라틴어와 일반 대중이 쓴 민중 라틴어가 그것이다. 동아시아에서의 한문은 그 중 고전 라틴어의 기능과 비슷하다. 한문은 동아시아 각국에서 표기 수단으로 수용하였지만, 한문학의 경우 주로 문학 언어 내지 표기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라틴어와 한문의 근본적 차이는 언어와 표기 수단의 차이에 있다. 라틴어는 언어로도 존재했지만, 한문은 언어와 표기 모두 존재하였고, 특히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과 베트남의 경우 표기 수단으로 기능하였다는 점이다. 모두 고전어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서구의 중등학교와 대학교의 라틴어 수업은 일차적으로 라틴어 텍스트를 현대어로 번역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라틴어 회화는 거의 하지 않으며, 따라서 읽고 쓰는 것이 중시되며 듣고 말하는 것은 중시되지 않는 것일 일반적이다. 물론 일부 언어생활에서 라틴어를 사용하자는 운동도 있지만, 이는 극소수다.

3) 반성완, 「독일에서의 라틴어 교육과 한국에서의 한문 교육」, 『한문교육연구』 3호, 1989년, 92~101면 참조.

4) 김태호, 「독일 라틴어 교육의 위상과 현황」, 『敎員敎育』 第23卷 第4號, 2007, 85~98면 참조.

## 2. 創新을 위한 法古의 교수-학습 사례들

조선조 학인들은 효과적인 한문 학습과 교육을 위하여 고심하였다. 고심의 결과 지식과 제자를 위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고안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도 이러한 교수-학습 방법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전통 한문 학습과정에서 교수-학습 방법으로 거론할 수 있는 사례를 모두 제시함으로써 創新을 통한 현장 적용의 가능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1) 近趨遠慕의 교수-학습

한문 교과는 문장을 창작하여 교과 내용을 구성하거나, 한문 고전 텍스트를 변개하여 교과를 구성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한문 원전을 토대로 교과를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위해 옛 학인들은 학습자의 눈높이를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이는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재의 구성 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조 후기 張混(1759~1828)의 『兒戲原覽』<sup>5)</sup>은 당대의 일상과 문화를 대폭 수용하고, 이를 통해 교수-학습 방법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를테면 장혼은 『兒戲原覽』에서 제기蹴鞠, 연紙鳶, 골패[骰牌], 투전[鬪錢], 쌍육(雙陸), 투호(投壺) 등 당시 유행하던 다양한 놀이를 교재 내용에 담았다. 뿐만 아니라, 장혼은 신화나 전설 등의 유교 이념에 사뭇 배치되는 내용 등도 대폭 담는 등, 교화적 유교 이념에서 벗어나 민간의 서사나 속담 등을 통해 학습자의 지적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한다. 이러한 내용의 배치는 기본적으로 당대 질서의 순응이나 가치 체계를 옹호하는 여느 교재와 다르다는 점에서 매우 파격적이다. 지금 시각에서 보자면 아이들의 기호와 교수-학습을 고려한 글감의 선택이다. 실제 이러한 내용을 통해 교수-학습을 거론할 경우, 실제 흥미와 내용 전달이 원활하고 당대 질서나 가치를 단순 옹호하는 관념적 글감에 비해 교육적 효과는 물론 교수-학습 방법을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아희원람』은 학습자와 교수자의 일상과 쉽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일단 학습자들에게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은 쉽다.

5) 장혼의 『아희원람』은 방각본으로 간행이 되어 당대 널리 팔려 유포될 수 있었던 것도 교재 내용이 당대 학습자의 기호에 부합되고, 당대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수-학습'이 가능한 교재였기 때문이다.

「兒戲原覽引」에서 장혼은 “처음 배우는 어린 학생들은 귀에 들리는 것은 귀하게 여기고, 눈에 보이는 것은 천하게 여기며, 가까이 있는 것은 업신여기고, 멀리 있는 것을 쫓고자 하니, 내 항상 화려한 것은 많고 실질이 적은 것을 병통으로 여긴다.”<sup>6)</sup>라 하여 가까운 것을 쫓고 멀리 있는 것을 업신여기는 近趨遠藐을 주장한 바 있다. 실제 눈앞에 있어 보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관념적으로 귀로 듣는 것을 천하게 여겨 近趨遠藐을 해야만 실질이 있는 것을 가르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 近趨遠藐을 위한 교수-학습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는 교수자의 눈높이와 교수자의 실질적인 학습을 위해 천근하고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예를 들어 학습자에게 학습의 동기를 유발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천근한 서사를 활용하여 교수-학습에 접목한 것이 그 예다.

농가의 어떤 소가 새끼를 낳았다. 농가 노인이 아이를 시켜 송아지를 두 손으로 들어 올리게 했다. 해 돋을 무렵에도 들어 올리게 하고, 해질 무렵에도 들어 올리게 하고, 어둑어둑할 때도 들어 올리게 하고, 밤중에도 들어 올리게 하였다. 하루 십 수 회를 들어 올리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몇 년을 쉬지 않았다. 소가 자라 千觔에 이르자, 아이 또한 千觔의 힘을 가지게 되었다. 이 일화는 옛날의 속담으로 그것을 古人의 學과 知의 성장과 習과 性의 완성하는 말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초학자에 그 방법을 옮겨 아이들에게 스스로 魯와 魚를 분별하도록 하되, 시속의 속된 말로 귀와 눈에 익은 것으로 이야기해주어 아이들에게 글 짓는 법을 가르쳤다. 대체로 차근차근 차례로 배우고 끊임없이 학습하는 것을 寓意한 것이다.<sup>7)</sup>

시골에서 실제 있을 법한 천근한 이야기의 통해 학습자들에게 일단 흥미를 줄뿐만 아니라, 목표한 바를 스스로 깨우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가르치는 것을 실제와 연결시킨 것으로 관념적이지 않다. 학습자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생활과 쉽게 연결시킬 수 있고, 교수자들 역시 수업 내용이 실제적일 수 있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더욱이 여기서의 실재는 학습자들의 실생활과 내용을 결합하는 것이어서, 학습자 자신

6) 『而已廣集』卷12, 「兒戲原覽引」, “矧爾初學蒙孺, 貴耳賤目, 近藐遠趨, 余常病其多華少實. 要稗古今事文, 最切攷据者, 蒐諸家撫羣書.”

7) 『而已廣集』권12, 「俚諺引」 “田舍有牛生犢, 其舍翁, 教兒子使兩手扛犢, 听而舉, 哺而舉, 嚙而舉, 宵中亦然. 日十數度. 以爲常, 累年無間斷. 牛大至千觔, 兒亦有千觔之力. 此古諺也, 可譬之於古人學與知長, 習與性成之語也. 吾移其術於初學者, 使兒曹自辨魯魚, 談之以俚語之慣耳爛目者, 教之綴文. 蓋寓其盈科數飛之義.”

의 삶과 쉽게 연계될 수 있는 내용이어서 동기유발은 물론 수업도 흥미진진할 개연성이 높다. 현재 교과와 내용 중에 ‘~실제’라는 과목명도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것과 통하는 것이다.

## 2) 도설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

河圖洛書 이후 한자문화권에서 도설로 개념을 나타내거나, 난해한 설명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도설을 활용한 바 있다. 도설을 활용한 것은 초학자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종종 거론이 된다. 그 예다.

洪武 庚午年(1390) 가을, 내가 金馬郡에 유배되었을 때, 初學者 한두 사람이 찾아와서 『大學』과 『中庸』을 배웠는데, 정성을 다해 반복 설명해 주었는데도 여전히 한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이에 周敦頤의 『太極圖』를 근본으로 하고 주자의 中庸章句의 설을 참작하여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고 다시 先賢들의 格言을 취해 그 뜻을 풀이해 주었다. 그리고 초학자들이 질문한 바를 계기로 또 거기에 대답해 주었다. 이제 그 문답한 말을 기록하여 그림의 뒤에 붙이고 『入學圖說』로 이름 하였다. 그밖에 다른 經書의 내용 중에서도 그림으로 그릴 만한 것을 두루 취하여 그렸고, 때로 각 그림마다 내 나름의 견해를 덧붙여 놓았다.<sup>8)</sup>

위에서 밝힌 바 있듯이 양촌 권근은 익산 유배지에서 초학자의 학습을 위해 『入學圖說』을 저술했다. 실제 『入學圖說』은 性理學의 기본원리를 그림과 함께 제시한 圖說書다. 권근은 周敦頤의 『太極圖說』과 朱子の 설명을 참조하여 그림을 그린 후, 先賢의 격언을 인용하여 그 뜻을 풀이하였다. 초학자들에게 반복적인 설명과 풀이로 쉽게 전달하지 못하는 『大學』과 『中庸』의 기본 원리에 쉽게 입문하기 위하여 그림을 활용한 것은 새로운 방식의 입문서다. 그것은 설명과 함께 그림을 제시함으로써 초학자의 눈높이와 지적 수준에 적합한 방안을 창안한 권근 특유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림을 활용한 권근의 ‘교수-학습’ 모델은 학습 효과가 뛰어났음을 스스로 밝

8) 『入學圖說』, 「入學圖說序」, “洪武庚午秋, 謫在金馬郡, 有一二初學輩, 來讀庸學二書, 語之諄復, 尚不能通曉. 乃本周子之圖, 參章句之說, 作圖以示, 又取先賢格言, 以釋其意. 學者, 因有所問, 又隨而答之, 仍記其問答之言, 以附其後, 名之曰入學圖說. 旁取他經凡可作圖者, 皆圖之, 往往各附臆見之說.”

했거니와, 이처럼 학술의 중요한 개념과 난해한 분야의 입문을 돕는 ‘교수-학습’ 방법은 이후 다양하게 활용이 되었다. 국가에서 간행한 『東國新續三綱行實圖』도 그러한 사례로 들 수 있다.

### 3) 놀이를 결합한 ‘교수-학습’ 방법

조선조 학인들도 초학자들의 한문 학습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한문 학습에 놀이를 결합한 ‘교수-학습’방법이 그것이다.

근세에 好事家들이 成佛圖를 만들고 從政圖를 만들었는데, 모두 주사위(骰子)를 사용하는 것들이다. 權探 선생이 作聖圖를 만들었는데 그 항목을 보면, - 열세 가지로 되어 있다. 이 또한 주사위를 사용하는 것으로 여섯 면에다 誠·敬·邪·僞라는 네 글자를 쓰는데 성과 경은 두 번씩 쓰고 사와 위는 한 번씩만 써서, 分數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進修의 次第로 삼는다. 이 작성도는 본래 놀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즐거워하는 바를 통해서 이들에게 공부에 대한 길을 열어 주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것이 주사위를 사용하고 있어서 장기나 바둑과 같은 雜技에 가깝다고 하니, 그 소견이 깊지 못하여 생각하지 못함이 심하다 하겠다.<sup>9)</sup>

정승 河崙이 從政圖를 만들었는데, 9품으로부터 1품에 이르기까지 관직의 차례가 있고, 주사의 육 면에 德·才·勤·堪·軟·貧 등 6자를 써서 덕과 재면 올라가고, 연과 빈이면 그만두기를 마치 벼슬길과 같이 하였다. 提學 權遇는 作聖圖를 만들기를 9分으로부터 1분까지로 하여, 사람의 어질고 어리석음과 마음의 맑고 흐림이 같지 않음에 따라, 1분을 좇으면 올라가기 쉽고, 9분을 좇으면 올라가기 어려웠다. 주사위 육 면에 誠·敬을 두 자씩, 肆·僞를 한 자씩 써서 던지는 대로 가는 것은 成佛圖의 규칙과 같았다.<sup>10)</sup>

成俔은 하륜이 조선의 관직체계를 활용하여 승경도를 창안하였음을 기록하였다. 이

9) 한국고전번역원, 국역 『林下筆記』 제15권, 「文獻指掌編」, 「作聖圖」 참조.

10) 한국고전번역원, 국역 『慵齋叢話』 제10권.



것은 주사위 또는 5각형의 나무막대인 輪木을 굴러 나온 수대로 말을 이동하는 것인데, 운목을 굴러 奉朝賀에 먼저 도착해 관직에서 물러난 사람이 승리한다. 지금의 놀이를 통한 교수-학습하는 것과 동일하다. 얼핏 놀이로 보이지만, 수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놀이와 공부를 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이 놀이가 후대로 오면서 한갓 놀이로 전락하여, 정신을 소모하고 뜻을 어지럽히며 공부를 해치고 품행을 망치며 경쟁을 조장하고 邪氣를 기르는<sup>11)</sup> 역기능을 낳았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 창안했을 때 이 놀이의 순기능이다. 초학자들은 이 놀이로 관직의 종류와 기능을 익히거나, 관직을 외면서 科擧 시험과 학문에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순기능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놀이와 공부를 결합시킨 하륜의 ‘교수-학습’ 방법과 그 정신을 創新하여 한문교육에 맞는 ‘교수·학습’법을 창안할 필요가 있다.

#### 4) 단계적 ‘교수-학습’ 방법

菊下 梁柱學(1850~1923)은 『免懷初訓』라는 아동을 위한 한문교재를 만든 바 있는데, 이 교재의 서두에 「免懷初訓教法」이라는 글을 따로 두었는데, 그것은 「면회초훈」의 교수-학습 방법이다. 그 전문이다.

5·6살 되는 아이가 일상적인 말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먼저 4음을 익히도록 하되, 모름지기 많은 양을 욕심내지 말아야 할 것이니, 그 지혜로운 힘은 1, 2구면 충분할 것이다. 반드시 먼저 글자를 읽고(讀字), 다음으로 뜻을 읽고(讀義), 다음으로 음을 읽으면 된다(讀音). 그런데 중국 아이들은 음을 읽으면 뜻이 저절로 드러나, 다시 뜻을 읽는 수고가 없으나, 우리나라 아이들은 비록 음을 읽더라도 거기에 무슨 뜻이 있는지 모른다. 그러니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음독으로 일삼을 필요가 없다. 다만 뜻을 읽는데 마치 여항의 노래하듯이 해서 반 년 정도 공부시키면 通達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에 음을 잇는 방법을 하여 다시 첫 구부터 음과 뜻을 겸해서 읽으면, 다시 반 년 정도 해서 음과 뜻을 함께 통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르치는

11) 이덕무는 『士小節』 권8 「童規」에서 “어린이들은 거개가 글 읽기 싫어하고 어른이 시키는 일 하기는 창피스러워 하면서, 모든 오락에서는 권하지 않아도 잘하고 가르치지 않아도 열심히 한다. 장기(象戲)·바둑(圍棋)·雙陸·骨牌·紙牌·윷놀이(擲擲)·意錢·從政圖·擲石毬·八道行成 등을 모두 환히 알면, 부형과 벗들은 재주가 있다고 그를 칭찬하고 잘하지 못하면 모두 그를 조소하니 어찌 그리 고질스러운지? 이러한 놀이들은 정신을 소모하고 뜻을 어지럽히며 공부를 해치고 품행을 망치며 경쟁을 조장하고 邪氣를 기른다.”라 하였다. 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참조.

자가 음과 뜻의 사이에서 절대로 미리 아동들에게 모두 설명해 주어서는 안 되고, 그 大綱과 가까운 데까지만 대략 열어주고 스스로 이해하기를 요구하고, 오래도록 통하지 못한 뒤에야 부득이 말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비록 더디고 느리더라도 훗날 그 힘을 얻음이 다른 아이에 비해 수십 배는 될 것이다. 4言이 끝났으면 演義를 읽게 하되, 다시 앞에서 말한 방법을 쓴다면 이것들이 아이의 마음과 눈에 이미 반은 생경하고 반은 익숙해져서 저절로 어긋나고 막히는 근심이 없게 되어 즐겁게 그것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다.<sup>12)</sup>

‘교수-학습’법이다. 梁柱學는 어당 이상수의 제자다. 그는 학습 단계를 설정하여 그것에 맞는 방법으로 교수할 것을 언급하였다. 이를테면 그는 讀字→讀義→讀音의 순서로 반 년 정도 가르칠 것을 제시하고, 이어서 다시 음과 뜻을 겸하여 반 년 정도 읽을 것과 4言이 끝나면 演義를 읽게 하는 등 구체적인 시간과 방법을 모두 거론해 두었다. 여기서 讀字란 낱글자를 짚어가면서 음과 훈을 初讀하는 것이며, 讀義란 글자의 뜻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고 讀音은 讀字와 讀義를 마친 다음 짧은 문장을 음으로 읽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음과 뜻을 겸하여 이어서 읽는다고 한 것은 음과 뜻을 차례대로 하는 것인 바, 이는 구두를 붙여 읽고 다음 뜻을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sup>13)</sup> 양주학은 이 과정을 약 1년 정도로 보았다. 이 과정 이후에 각각 4言에 附記된 演義<sup>14)</sup>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교수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讀字→讀義→讀音에서 演義까지의 단계적 ‘교수-학습’ 방법은 학습자가 비교적 한자를 정확하게 체득하고, 단문을 스스로 익히는데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12) 「免懷初訓教法(庚申)」, “五六歲兒可與酬酌常談者, 先以四言習之, 而不須貪多量. 其智力, 止於一兩句, 足矣. 必先讀字, 次讀義, 次讀音. 然中國之兒, 讀音則義自見, 不復有讀義之勞. 朝鮮之兒, 雖讀音, 而不知有何義. 然則自覺之前, 不必以讀音爲事, 但使讀義, 如里巷歌謠, 費半年工, 則可達通無難. 於是, 是其續音之法, 更自首句, 兼讀音義, 又費半年工, 則音義并可達通. 然教者於音義之間, 切勿先兒說盡無餘, 但其大綱近境, 略略開路, 責其自解, 久而不通然後, 不得已言之. 若是則雖若遲緩, 後日之得力, 百十倍於它兒矣. 四言畢後, 使讀演義, 又用前法, 則此於兒之心目, 既是半生半熟者, 故自無齟齬扞格之患, 而樂爲之從事也.”

13) 이를테면 양주학의 이 말을 자신의 저작인 『면회초훈』 치구절인 ‘天覆地載, 戴天踏地’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天·覆·地·載, 戴·天·踏·地’에서 讀字란 낱글자를 짚어가면서 ‘하늘 천, 덮을 부, 땅 지, 실을 재, 일 대, 하늘 천, 밟을 답, 땅 지’하는 것이다. 다음 讀義란 ‘하늘은 덮어주고 땅은 실어주니, 하늘을 이고 땅을 밟는다.’라 하는 방식이다. 다음 讀音이란 ‘천부지재, 대천답지’로 읽어 나가는 것이며, 음과 뜻을 겸하여 이어서 읽는다는 것은 ‘천부지재하고 대천답지라/하늘은 덮어주고 땅은 실어주니, 하늘을 이고 땅을 밟는다.’는 방식인 것이다.

14) 演義는 10여자 내외의 풀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實例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天覆地載의 경우, “天覆而地戴, 無偏厚於百物.”로 덧붙이고, 戴天踏地의 경우, “戴天而踏地, 不可逃於兩間.”로 덧붙여 연의한다. 『免懷初訓』의 구체적인 분석과 특성은 조창록, 「菊下 梁柱學의 한문교육론과 『免懷初訓』, 『한문교육연구』 제 22호, 2004, 325~345면 참조.

## 5) 반복 성독법<sup>15)</sup>

한문은 문언문에 가까운 고전어로 표기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한문으로 대화를 하거나 의사를 표기할 수 없다. 이를 교수하는데 낭독을 통해 입으로 익혀 체득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교수-학습’에 낭독을 통한 다독은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다. 실제 한문을 익히는데 소리 내어 많이 읽고 듣는 것은 훌륭한 ‘교수-학습’법임은 지금의 학교 현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그 중 하나다. 영조는 장헌세자를 교육할 때, 이 방법을 적극 권장하였다. 誦聽이 뛰어나 암기에 능했던 장헌세자는 겨우 10번을 읽으면 모두 기억하였다고 한다.<sup>1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독하며 외운다하더라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정해진 횟수를 정해 반드시 채워서 읽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한 예다.

신이 “평소에 몇 번 읽으면 외워집니까?” 하니, 저하께서 답하기를, “열 번 읽으면 외워집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또 “열 번 읽어 외워진다면 총명이 남달리 탁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읽는 횟수는 몇 번으로 한정하였습니까?”하니, 답하기를, “외워지면 그만합니다.”하였습니다. 신이 이에 신이 어렸을 때의 일로 우러러 아뢰기를, “무릇 독서할 때 다독을 하지 않고 단지 암송하는 정도에 그치면, 비록 師長에게 不通을 받지는 않더라도 곧 망각되어 자기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00번이나 50번을 채운다면 문리가 진전됨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고 혹 지금까지도 잊어버리지 않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저하께서 독서함이 빈객과 궁료에게 불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일취월장하여 성인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입니까? 배워서 성인이 되고자 하시면, 어찌 열 번 읽음으로 그 효험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옹희 관통하고 폭 익혀서 끝까지 잊지 않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50번을 기준으로 삼아야 마땅합니다.”하였습니다.<sup>17)</sup>

15) 본디 낭독은 音讀의 하나로 소리 내어 읽는 것을 말한다. 음독에는 朗讀·朗誦·朗詠 등이 있으나 흔히 이를 모두 낭독이라고도 한다. 음독의 경우도 혼자 소리 내어 읽은 경우와, 타자에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나직한 소리로 읽은 경우나, 낭랑한 음성으로 글의 이미지나 정서를 표현하여 남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낭독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독은 낭독과 흡사하지만 전통적인 한문 학습에서 익힌 글을 재음미하며 소리 내어 읽는 것을 말한다.

16) 『승정원일기』 영조 23년(1747) 4월 24일조.

17) 『승정원일기』 영조 20년(1744) 11월 3일조.

영조는 장헌세자의 학업을 신장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侍講院의 師傅와 문답한 내용이다. 시강원에서는 장헌세자가 博覽強記하여 몇 번 읽으면 그 내용을 금방 외우고, 그 후에 더 읽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영조에게 아뢰고, 외우더라도 횃수를 정하고 정해 진 횃수는 반드시 읽게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기계적으로 외워는 것도 중요하지만, 익힌 글을 체득하기 위해 일정한 횃수를 정하고 반복 읽어 融會·貫通함으로서 한문의 생리는 물론 학습한 의미를 완전히 체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강원에서 세자를 위한 효과적인 ‘교수-학습’법으로 제시한 반복 성독법은 반복 성독하지 않고 단지 외우기만 하는 세자의 학습 방법의 시정을 위한 것이었다.<sup>18)</sup>

영조는 이러한 세자를 위한 시강원의 ‘교수-학습’법에 적극 공감을 표하고 시행을 명하였다. 이는 영조가 스스로 체험한 바 있었기 때문이다. 영조는 “내가 잠저에 있을 때는 『소학』의 주석까지 곁하여 읽기를 100번 하였고, 세자가 된 뒤에도 『소학』을 강하면서 주석까지 함께 읽었다. 하루 세 차례 문후하고, 두 차례 講을 하느라 잠이 없다고 생각 들면서도 오히려 50번을 채워 읽었다. 더구나 좋은 부분에 이르면 100번이나 200번까지 읽기도 하였다.”<sup>19)</sup>라 고백한 것은 이를 말한다. 이는 ‘교수-학습’법에서 반복하는 성독의 효과를 체험한 결과였다. 영조는 단순 암기보다 횃수를 정하고 정해진 횃수만큼 성독할 때, 느낄 수 있는 체득의 즐거움은 물론, 학습의 효과 역시 훨씬 크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세자를 위한 ‘교수-학습’법으로 적극 권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반복 성독은 학습자 자신만이 아니라 함께 배우는 학습자에게도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위에서 성독하는 소리는 학습에 참여하는 다른 학습자에게 재미와 함께 공부의 욕구를 북돋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역시 영조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제기한다.

사람은 보통 타인이 독서하는 소리를 들으면 독서하고 싶은 생각이 솟아난다. 九容齋는 내시들이 독서하던 곳과 멀지 않았다. 나는 春邸에 있을 때에 그 도움을 많

18) 장헌세자를 위한 전통적인 ‘교수-학습’은 학습과정에서 반복해서 성독하는 것은 물론,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시각으로 세자를 위한 전통 학습법의 사례를 제시하고 분석한 것은 신영주, 「전통 시대 한문 학습법에 관한 일고찰: 영조의 장헌세자 교육을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제31호, 2008, 245~275면 참조. 여기서 반복 성독법은 이 논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19) 『승정원일기』 영조 20년(1744) 11월 3일.

이 받았다. 그러나 元郎에게 어디에 이런 여건이 있겠는가. 향차 아이에게는 함께 어울리고 함께 독서하는 무리가 있다면 스스로 흥기하는 도리가 있는 법인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여 의관을 차려 입고 독서만 하고 있다. 이로부터 아이에게는 대단히 괴로운 일이다.<sup>20)</sup>

영조는 본인이 세자 시절에 내시들이 독서하던 근처에서 글을 읽어, 내시들의 독서 소리에 자신도 그 성독 소리를 듣고 흥을 내어 글을 읽고 싶은 생각을 가졌음을 기억하고 남이 성독하는 것을 듣는 것 역시 학습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영조는 자신의 세자 시절의 체험을 통해 글을 읽고 혼자 암기하는 것보다 남에게까지 들리도록 성독하는 효과를 십분 공감하고, 이를 ‘교수-학습’법의 하나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다수의 학습자와 함께 배운 것을 성독하는 것 역시 학습의 욕망을 분발시키는 것은 물론 실제 학습의 효과 또한 적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반복 성독은 영조뿐만 아니라 당시 적지 않은 학인들도 그 효과를 인지하고 있었다. 李德懋(1741~1793)는 자신의 유년 시절의 학습 방법을 두고 “일과를 정해 읽는 횟수와 시간을 배정하는 일을 넘나들어 불규칙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어릴 적에 하루도 일과를 거른 적이 없다. 아침에 4,50줄을 배워서 50번을 읽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섯 차례로 나누어 한 차례에 열 번씩 읽었다.”<sup>21)</sup>고 언급한 바 있다.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구체적으로 방법을 강구하였다. 그는 하루 동안 읽을 분량과 성독의 횟수는 물론, 학습을 위한 구체적인 시간대까지 정하고, 이를 적극 실천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조선조 후기 효과적인 한문 학습을 위한 ‘교수-학습’으로 제시한 반복 성독은 지금 학교 현장과 덜 어울릴 수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한문을 읽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반복 성독에 기대어 새로운 것을 창신하는 것은 현장의 몫일 수도 있는 바, 이는 현대 서구 교육학에서 산생한 ‘교수-학습’ 이론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20) 『승정원일기』 영조 20년(1744) 11월 4일.

21)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 종합DB, 李德懋, 『士小節童規』, 「教習」 참조.

## 6) 更辛苦와 循繩尺의 교수-학습 방법

嵒堂 李象秀(1820~1882)는 동몽을 위해 자신만의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更辛苦와 循繩尺을 제시하였다.

1) 그렇다면 更辛苦를 하려고 하면 어찌해야 하는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칠 때 먼저 법을 정하되, 대체로 구두가 평이하여 알만한 것은 반드시 먼저 스스로 풀도록 하고 급하게 풀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 풀이가 맞지 않으면 고치도록 하고, 또 맞지 않으면 다시 고치도록 하여 두 세 번 하면 통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이같이 해서 점차 익숙해지면 차츰 문장을 푸는 일반적인 규칙을 알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 행수를 감하여 가르쳐야 하니, 예컨대 5행을 감당할 수 있으면 3행을 수업하는데 그치는 것이다. 능히 12~13행을 감당하는데 이르면, 내일 배울 내용을 아이들에게 먼저 이 해시키고 그 구두를 확정하여 한번 通하게 한다. 그런 뒤에 와서 배우는 것을 허락하도록 결정한다. 판단하여 알 수 있는데도 귀찮아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물리쳐서 다시 하게하고 꾸지람과 벌을 주어서 힘써 반드시 자득하도록 하고서는 그만두었다.<sup>22)</sup>

2) 循繩尺을 하려고 하면 어찌해야 하는가? 아이에게 글을 가르칠 때 먼저 방법을 정해주되, 암송을 완벽하게 한 연후에 가르쳐 준다. 암송이 완벽하지 않으면 물리쳐 다시 읽게 하고 이를 뒤에도 거듭 틀리는 경우는 반드시 가차 없이 벌을 주고, 또 그 풀이도 아울러 외우게 해야 한다. 외울 때는 반드시 등지고 앉고, 글을 배울 때는 반드시 꿇어앉아 막대기로 글자를 하나하나 짚게 한다. 하루에 몇 번 읽을지를 정해주고, 한 번 읽을 때 몇 회를 읽을지를 정해주되, 어기면 벌을 주어야 한다. 가령 20회를 정한 기준으로 했을 경우, 그 횟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안 되고 그 수를 넘어도 안 되는 것이다. 어째서 그런가? 한번 정해진 기준을 넘기게 되면 반드시 미치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엄하게 규제를 하여 어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야 하니, 이것이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는 繩尺인 것이다. 字義와 字音, 釋文과 訓義 같은 데 이르러서는 명확하고 확실하게 이해하고 엄하게 일정한 법도를 두는 것 또한 繩尺 중의 일이다.<sup>23)</sup>

22) 같은 책, 같은 곳, “然則欲其更辛苦, 奈何. 授小兒書, 先定法. 凡句讀淺易可知者, 必令自釋而勿遽爲之釋, 不中則令改之. 又不中, 又令改之, 再三則無不通. 如是漸馴, 稍知釋文法例矣. 必減其行數, 如勝五行者, 止授三行. 至能勝十二三行, 將明日所當受者, 使先理會, 定其句讀一通, 然後許來受. 有決定可知, 而因厭煩不肯尋思者, 斥之使復, 譴罰隨之, 務必自得乃已.”

이상수는 무엇보다 교수자의 풀이에 의지해 글을 읽지 말고, 자기 능력에 맞는 평이한 것부터 스스로 학습하여 이해하는 것을 익혀 나가는 것을 제시하였다. 학습자의 학문적 성숙성을 고려하여 스스로 학습을 시키되, 그 능력을 넘어 무리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 과정에서 학습자의 성취감을 위하여 어려운 것도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완전히 익혀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엄정한 평가로 자득에 목표를 두고 끊임없이 분발을 촉구하는 것이 갱신고의 핵심이다.

循繩尺은 학습자를 위해 학습 목표량을 정한 다음,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을 체득하도록 하는 것이 요점이다. 이를 위해 동몽을 교수할 적에 원칙을 정한 다음 가르치고, 스스로 분발하여 풀 수 있도록 학문적 끈기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 요컨대 갱신고와 순승척 동몽의 능력에 맞추어 스스로 익히는 습관과 꾸준히 익혀나가도록 하는 방법을 이르기니와, 그 교수·학습 방법이 지금 한문교육에 접목하더라도 손색이 없을 만큼 효율적이다.

### 3. 맺음말

한문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은, 전통 방법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교수자가 앞서 제시한 전통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그대로 묵수하고 따르는 것은, 학교 현장을 고려할 때, 적실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이를 활용하여 실제 현장에 맞게 고안하고 재가공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장에서 착근시키는 것은 어찌 보면 교수자의 몫이다. 이를테면 교수자는 학교 내지 학급의 상황과, 학습자의 수준, 그리고 시간 등의 여건을 십분 고려하여, 그 방법을 그때그때 찾아 創新할 필요가 있다.

사실 교수-학습 방법의 현실적 가능성은 현대 교육학을 통해 실현하는 것 못지않게 전통적 교수-학습 방법을 준거로 삼아 학교 현장에 맞게 착근시키는 것도 유용하다.

23) 같은 책, 같은 곳, “欲其循繩尺, 奈何. 授小兒書, 先定法. 必誦念精通, 然後授之, 不通則斥令改讀, 而進二日重犯者, 必罰無姑息. 且并誦其釋, 可也. 誦必背坐, 受書必跪, 必以搥按字. 一日定讀幾巡, 一讀定幾遍, 違者罰. 假如二十遍爲程, 則不及數固不可, 過數亦不可也. 何也. 一越程限有過, 必有不及也. 嚴爲之制, 不許有違, 此訓蒙之繩尺也. 至若字義字音釋文訓義, 明核瞭然, 斬斬有常度, 亦繩尺中事也.”

오히려 이 방안은 서구의 일반 교육학 이론을 현장에 적용하는 것보다 학습자의 호응을 쉽게 받고 효율성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사실 한문이 오랜 시간 역사의 시공 속에서 역할을 한 고전어의 성격을 십분 고려하지 않고, 다른 교과에 적용한 이론을 한문 교육에 비판 없이 적용할 때, 그 실효성은 적다. 더욱이 학교 현장에서 교수-학습 방법으로 뿌리내리기도 어렵다. 이 점에서 한문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은 전통적인 것으로부터 범고창신하는 것이 현장과 적실하게 접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 한다.





# **기획주제 발표**





# ‘主題’ 파악하기 敎授・學習 方法 試論

金 王 奎\*

## •目 次•

- |                          |                          |
|--------------------------|--------------------------|
| I. 問題 提起                 | III. 주제 파악하기 관련 교수·학습 내용 |
| II. 한문과 교수·학습 방법의 概念과 原理 | IV. 주제 파악하기 교수·학습 방법     |
|                          | V. 餘 言                   |

## I. 問題 提起

이 글은 두 개의 질문에서 始作된다. 첫째는 “한문 교사가 주제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이고, 둘째는 “한문 학습자가 주제를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이다. 두 개의 질문은 “주제를 어떻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가?”로 통합되는데, 바로 이 글의 연구 과제인 ‘주제 파악하기 교수·학습 방법’이다. 이 연구 과제는 현장 교사의 목소리로부터 生成되었다. 들어본다.

“한문 수업에서 학생들은 산문을 풀이하는 동안 주어진 정보들을 토대로 스스로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 보지도 못 할 뿐만 아니라, 수동적으로 풀이 후에 주어지는 교사의 일방적인 주제 전달을 기다릴 뿐이다. 혹은, 단순히 교과서에 제시된 글의 주제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마는 수업이 이루어진다. 결국 많은 시간 산문의 풀이에 매달려 있던 교수·학습 과정이 마치 정상에 이르지 못하고 돌아오는 하산 길처럼 아쉬움을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다.”<sup>1)</sup>

\* 韓國敎員大學校

1) 김주영(2014), 2면, 참조.

연구 과제 수행을 위해, 힘에 부치지만 한문과 교수·학습 방법의 개념과 원리를 論議한다. 개념 규정에 절차와 과정을 重視했다. 원리는 특성이라고 보면 된다. 주제 파악하기 관련 요소를 整理했다. 그리고 주제 파악하기 교수·학습 절차와 방법을 構造化했다. 이 과정에 몇 개의 圖式을 활용했다. 개념, 원리, 절차와 방법 모두 試論에 不過하다. 한편, 이 방면의 연구로 한 두 편의 선행 연구가<sup>2)</sup> 이 글을 引導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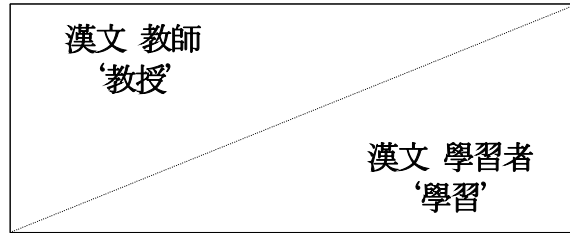
## II. 한문과 교수·학습 방법의 概念과 原理

이 글에서 한문과 교수·학습 방법은 “한문 교실 수업 場面에서 한문 교사와 한문 학습자가 漢文을 가르치고 배우는 節次와 技法”으로 定義한다.<sup>3)</sup> ‘한문 교실 수업 장면’은 학교 교육 차원으로 제한한다는 점과 교육 대상이 한문 수업이라는 점을 考慮했다. ‘한문 교사와 한문 학습자’는 主體를 말한다. ‘漢文’은 교육 대상을 말하는데, 교육 과정 내용 체계에 제시된 모든 영역을 包括한다. ‘가르치고 배우는’은 교수·학습을 일컫는다. ‘節次’가 중요한데, ‘段階’, ‘過程’과 換置할 수 있으며, 절차로서의 방법은 단위 수업 시간 전체의 흐름이나 수업 전개 방식에 중심축으로 作動함을 強調한 것이다. ‘技法’은 수업의 특정 국면에 ‘部分的’으로, 혹은 ‘技能的’으로 동원되는 각종 활동을 이른다.

한문과 교수·학습 방법의 특성 내지 원리에 焦點을 두고 논의를 계속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다음 〈그림 1〉을 참고한다.

2) 김정미(2012); 김주영(2014). 참조.

3)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하여 方法, 模型, 理論, 戰略, 技法 등의 용어가 두루 사용된다. 용어마다 含意하는 뜻과 重點이 다르다. 이 글에서는 ‘方法’이란 용어를 쓰기로 한다. 필자의 경우, 방법이란 용어가 가지고 있는 ‘節次, 過程, 段階’를 중시했다. 이에 반해, ‘技法’은 특정 단계나 절차에 동원될 수 있는 ‘部分的’, ‘技能的’ 특성에 重點을 두었다. 한편, 국어과의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한 논의는 정구향 외(2002); 서혁(2005); 최지현 외(2007). 참조.



〈그림 1〉 한문 교실 수업에서 教授와 學習의 상호 작용

다시 한문 교실 수업 장면을 上程했는데, 〈그림 1〉에서 바깥 테두리가 이에 해당한다. 한문 교실 수업 局面에 동원되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은 한문 교사와 한문 학습자 사이의 線上에 위치한다. 교사의 教授와 학습자의 學習은 分節的이거나 獨立的이지 않다. 교사와 학습자는, 그리고 교수와 학습은 한문 교실 수업 속에서 相互 連繫되고 相互 作用한다. ‘상호 작용의 원리’를 말하는데, 〈그림 1〉에서 點線의 기능이 이를 나타낸다. 활동량과 활동 시간에 있어서 때론 교사가, 때론 학습자가 특정 교수·학습 방법을 주도하기도 하지만, 늘 相互 作用하고 相互 調律한다.

‘방법’은 텍스트를 통해 구현되는 목표와 내용, 그리고 到達點을 확인하는 평가와 연계되거나 통합된다.<sup>4)</sup> 한문 교사는 목표와 내용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자유롭게 運用할 수 있는데, 운용은 방법들의 選擇, 變容, 組合 등을 이른다. 또한 절차로서의 방법은 교수·학습에 투입되는 자료와 활동으로서의 기법을 통합한다. 각 단계에 적합한 기법을 동원하거나 자료를 공급하게 되는데, 기법과 자료는 절차에 따라 取捨選擇된다. ‘상호 통합의 원리’를 이른다.

장기적으로 보면, 교수·학습 방법은 한문 교사에게서 한문 학습자로 그 責任이 移讓된다. 책임 이양의 양상은 다양한데, 예컨대 직접 교수법의 경우, 안내하거나 시범보이기 등은 교사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고, 연습하거나 적용하기 등은 학습자에게로 수행의 책임이 漸進的으로 이양된다.<sup>5)</sup> 협동 학습 형태의 경우, 학습자의 몫이 크다.

4) 교육과정의 목표·내용, 평가, 방법의 연계는 김왕규(2015). 참조.

5) 이른바, 읽기 모형의 하나인 ‘책임 이양 모형’을 가르킨다. 이 글에서는 교수·학습의 원리 내지 특성을 설명하는데, 이 모형을 援用했다. 읽기 모형으로서의 책임 이양 모형에 관한 논의는 노명완·박영목·권경안

바로 교수·학습에서의 ‘책임 이양의 원리’를 말한다.

### Ⅲ. 主題 파악하기 관련 교수·학습 내용

주제 파악하기 관련 교수·학습 내용을 공부해 보기로 한다. 공부의 핵심은 주제와 주제 파악하기이다. 먼저 主題에 대해 살펴본다.

- 글의 중심적인 내용이나 중심 생각(main idea) 또는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나 세계관의 반영체, 작품에 반영된 중심 사상을 말한다. 주제는 보통 글의 내용을 통합하는 중심 의미이며, 전체 글의 含意 혹은 그 글이 설명하는 세상이나 삶에 대한 일반화라고 할 수 있다.<sup>6)</sup>
- 국어교육에서 주제는 일반적으로 ‘중심내용 혹은 중심 생각(main)’으로 정의되고 있다. (중략) 중심내용을 대표하는 것이 주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sup>7)</sup>
- 글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 글이 나타내고자 하는 중심적인 의미, 내용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내용을 말한다.<sup>8)</sup>

중심 내용, 중심 생각, 작가의 의도, 중심 사상, 핵심 내용 등을 동원하여 주제의 개념을 설명했다. 中心 內容, 中心 意味가 중요한데, 작가(필자, 화자)의 意圖와 상호 작용하면서, 주제를 형성한다. 다음으로 주제 파악하기란 용어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자. 주제 파악하기란, 텍스트가 갖고 있는 주제를 학습자가 이해하는 것이다. 이해 [파악]한 뒤에 주제를 담화나 글로 표현한다.<sup>9)</sup> 이렇게 본다면, 주제 파악하기란 글의 주제를 학습자가 이해하는 층위와 표현하는 활동을 함께 이르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전자에 焦點을 둔다.

---

(1988), 221~223면. 참조.

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1999), 692면. 참조.

7) 서혁(1996), 109~110면. 참조.

8) 교육과학기술부(2008), 169면. 참조.

9) 서혁은 이를 ‘주제구성’이라고 명명했고, 주제구성은 주제 발견, 해석, 구성의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주제 파악하기는 바로 주제구성의 주제 발견에 해당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서혁(1996), 131면. 참조.

한문과의 주제와 주제 파악하기 관련 교수·학습 내용을 검토해 보자.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 한문 단문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
- 한문 산문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
- 한시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sup>10)</sup>

를 영역별 내용으로 記述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텍스트별로 주제를 말했는데, 주제 파악하기와 관련하여, “한문 단문의 내용과 주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문 단문 속에서 사용된 단어나 구절의 구체적인 의미, 한문 단문의 구조와 분위기 등 한문 단문의 내용을 그 주제와 관련지어 바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sup>11)</sup>라는 기술이 注目된다.

한편,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 글을 읽고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글을 읽고 지은이의 의도를 알 수 있다.<sup>12)</sup>

를 이해 영역의 학습내용 성취 기준으로 제시했다. 2009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중심 내용’과 ‘지은이의 의도’란 용어를 사용했다. 중심 내용은 “글이 나타내고자 하는 중심적인 의미, 내용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내용, 곧 주제를 말한다.”<sup>13)</sup>고 했다. “글 가운데는 지은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주제를 이해하는 데 긴요한 경우가 적지 않다.”<sup>14)</sup>라고 말하여, 주제와 지은이의 의도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강조했다.

위의 내용을 고려하여, 주제 파악하기에서 ‘주제’와 관련 있는 요소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10) 교육과학기술부(2008). 참조.

11) 교육과학기술부(2008), 169면. 참조.

12) 교육과학기술부(2011), 8면. 참조.

13) 교육과학기술부(2011), 8면. 참조.

14) 교육과학기술부(2011), 8면. 참조.

시대적[정치·문화·사회·역사적] 배경			제목	중심 내용 중심 생각
창작 동기	主題			핵심어
작가의 생애, 사상	지은이의 의도	출전	텍스트 : 文種	글의 구조 내용 전개 방식 서술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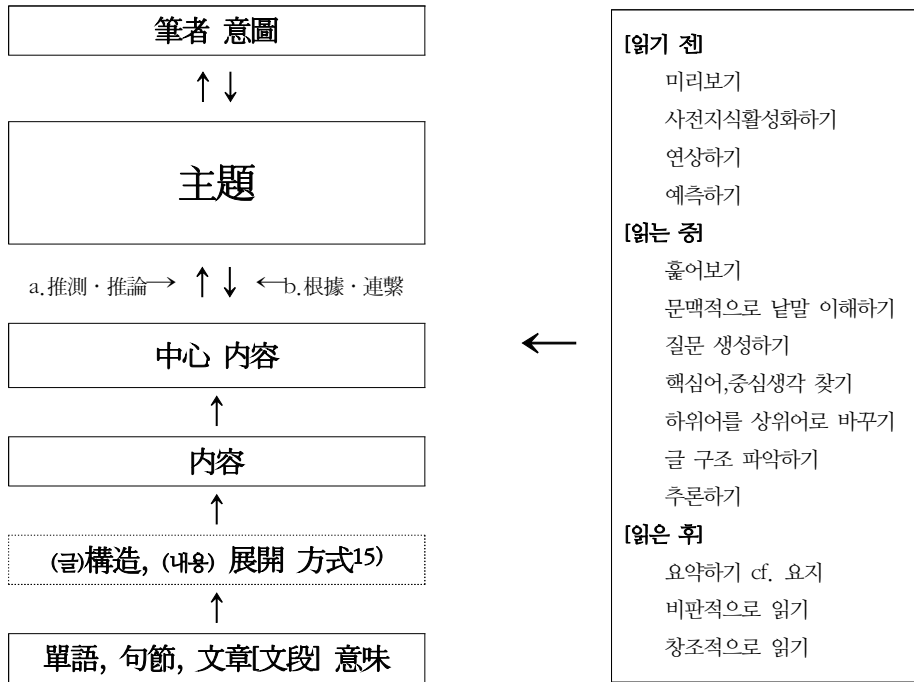
〈그림 2〉 글의 주제 관련 요소

‘주제’를 중심으로, 오른쪽은 글 내부 요소이고, 왼쪽은 글 외부 요인이다. 제목은 주제와 긴밀히 呼應한다. 중심 내용이나 중심 생각을 대표하는 것을 주제로 볼 수 있다. 핵심어는 중심 내용과 연계되면서 주제와 直結된다. 텍스트[文種]의 장르적 성격, 글의 구조, 내용 전개 방식, 그리고 서술 방식은 상호 연계되면서 주제를 構造化한다. 시대적 배경은 작가를 規定하는데, 작가가 특정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에도 영향을 끼친다. 창작 동기와 지은이의 의도는 글 밖에서 글의 주제를 형성하는데 일차적 원인으로 作用한다. 작가의 생애, 사상 또한 글의 주제와 무관하지 않으며, 글의 出典은 개별 텍스트의 주제와 일정한 관련이 있다.

#### IV. 주제 파악하기 교수·학습 방법

주제 및 주제 파악하기와 관련된 논의를 綜合해 보면, 주제 파악하기의 주요 절차는 다음 〈그림 3〉과 같다. 질문을 통해 논의를 전개한다.





〈그림 3〉 주제 파악하기 절차와 교수·학습 방법

주제 파악하기 절차는 一方的, 直線的인가? 학습자의 글의 주제 파악하기 과정이나 활동이 반드시 일방적이지만은 않다. 예컨대, 제목을 보고, 독자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글의 주제를 추론하거나 미리 예상하는 활동 등은 오히려 독자 중심적 읽기라는 점에서 ‘하향식 모형’에 가깝다. 그런 점에서, 글의 주제 파악하기는 ‘상호 보완 모형’<sup>16)</sup> 곧, 글 중심적 읽기와 독자 중심적 읽기가 상호 작용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은데, 〈그림 3〉의 경우, 상향식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주제의 層位에 따라 주제 파악하기 過程이 다른가?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 근거하면, 短文의 경우, 明示의 주제와 暗示的[含蓄的] 주제로 구분하여 기술했다. 이른바, 表面的 주제와 裏面的 주제를 가리킨다. 전자의 경우, “말해진 내용 중에서”, 후자의 경우, “말해지 내용으로부터” 주제를 “합리적으로 추측하여” 파악해야 한다고 말

15) 글의 구조, 내용의 전개 방식 항목의 기술 여부와 위치에 대해 고민 중이다. 현재로서는 點線으로 처리한다.

16) 상호 작용 모형이라고도 하는데, 최현섭 외(1999: 263)에 따라 여기서는 상호 보완 모형으로 쓴다.

했다.<sup>17)</sup> 텍스트의 표면적 층위는 逐字的·사실적 이해와 내면적 다층성은 해석적, 추론적, 비판적 이해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sup>18)</sup>

주제 파악하기 과정은 텍스트에 따라 다른가? 2007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경우, 한문과의 텍스트를 단문, 산문, 한시로 크게 구분했고, 각각의 내용과 주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sup>19)</sup> 기술 내용을 근거로 할 때, 텍스트 별 주제 파악의 공통 경로로 단어나 구절의 의미 파악, 구조와 전개 방식 등을 들 수 있다. 한시의 경우, 시어나 시구의 의미 파악에 더해, 특별히 작가와 작품에 대한 事前的인 배경 지식을 거론<sup>20)</sup> 했는데, 사실 이 요소는 다른 텍스트에도 적용된다.

한편, 〈그림 3〉의 오른쪽은 주제 파악하기에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의 例示인데, 언어 교과의 읽기 과정을 기준으로 분류했다.<sup>21)</sup> 비록, 읽기 전·중·후로 구분했지만, 한문 텍스트의 특성과 수업 목표에 따라 자유롭게 개별로 뽑거나 혹은 통합으로 묶어서 쓸 수 있다. 한문과의 경우, 주제 파악하기와 관련된 ‘이해’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강의법, 토의 학습법, 토론 학습법, 역할놀이 학습법, 독자 반응 중심 학습법, 그림을 활용한 학습법 등을 擧論했다.<sup>22)</sup>

17) 교육과학기술부(2008), 169면. 참조. “한문 단문의 주제는 문장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도 있고 잘 드러나 있지 않거나 숨겨져 있는 경우도 있다. 한문 단문의 주제가 문장의 표면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말해진 내용 중에서 주제를 합리적으로 추측하여 파악하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문 단문의 주제가 문장의 표면에 잘 드러나 있지 않거나 숨겨져 있는 경우에는 말해진 내용으로부터 그 이면에 함축되어 있는 주제를 합리적으로 추측하여 파악하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18) 서혁(1996: 111~116)에서 주제의 다양성과 다층성을 논의했는데, 주제의 다층성은 텍스트의 외적, 내적인 주제의 층위를, 다양성은 텍스트 해석의 층위에서 독자의 관점의 차이를 반영해 주는 개념으로 파악했다.

19) 교육과학기술부(2008), 169~172면. 참조. 한문 단문의 경우, 각주 17)번 참조. 한문 산문의 경우, “한문 산문의 내용과 주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 속에서 사용된 단어나 문장 또는 문단의 의미, 글의 구조와 내용의 전개 방식 등 글의 내용을 그 글이 나타내고자 하는 중심적인 의미, 곧 주제와 관련지어 바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기술했다.

20) 교육과학기술부(2008), 172면. 참조. “한시의 내용과 주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가와 작품에 대한 사전적(事前的)인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한시에서 사용된 시어(詩語)나 시구(詩句)의 의미와 이미지, 한시의 구조와 사상(詩想)의 전개 방식 등 한시의 내용을 한시의 주제와 관련지어 바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21) 노명완 외(1988); 최현섭 외(1999); 이경화(2001). 참조.

22) 교육과학기술부(2011), 16면. 참조. “독해 영역의 ‘이해’는 강의법, 토의 학습법, 토론 학습법, 역할놀이 학습법, 독자 반응 중심 학습법, 그림을 활용한 학습법 등 다양한 수업 방법을 적용하여 한문 단문, 한문 산문, 한시를 바르게 풀이하여 글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V. 餘言

試論을 理論 차원으로 그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필자는 다음 몇 가지 과제를 생성했다. 후속 연구 과제로 自任한다. 첫째, 실제 한문 학습자들의 주제 파악하기 양적·질적 접근 방식의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이 때, 학습자의 주제 표현 문제에 초점을 둘 수 있다. 둘째, 텍스트의 종류에 따른 주제 파악하기 경로를 구안하고, 이를 실제 한문 교실 수업에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문 학습자의 주제 파악하기 沮害 요인<sup>23)</sup>을 발견하고 이를 처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연구 방법론에 대한 공부가 緊要하다.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08),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V-한문』  
교육과학기술부(201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한문』  
김왕규(2015), 「한문과 평가의 위상과 연구 동향」, 2015년도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춘계 학술대회 기조 강연 발표 원고, 『2015 한문과 교육과정을 위한 한문 문법 교육과 한문과 평가론 사례와 이론 연구』,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김정미(2012), 「한문 텍스트별 주제 파악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청주(한국),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김주영(2014), 「학습 단계별 산문 주제 파악 활동 연구」, 청주(한국),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노명완·박영목·권경안(1988), 『국어과교육론』, 갑을출판사. 221~223면.  
이경화(2001), 『읽기 교육의 원리와 방법』, 박이정.  
서혁(1996), 「주제 구성 능력의 실태와 교수·학습 방안」, 『국어교육학연구』 6, 서울(한국), 국어교육학회.  
서혁(2005),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의 구성의 원리」, 『국어교육학연구』 24, 국어교육학회.  
정구향 외(2002), 『초등학교 국어과 교수 학습 방법과 자료 개발 연구』 5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최지현·서혁·심영택·이도영·최미숙·김정자·김혜정(2007), 『국어과 교수 학습 방법』, 역락.  
최현섭·최명환·노명완·신헌재·박인기·김창원·최영환(1999), 『(제2판)국어교육학개론』, 삼지원.

---

23) 예컨대, 김주영(2014)은 誤譯, 잘못된 推論, 先入見 등을 거론했다.



# 한문과 문화 영역의 성격과 교육 방향

류 준 경\*

##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3. 언어문화로서의 ‘한문 문화’  |
| 2.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문화 영역의 위상 | 4. 한문과 문화 영역 교육의 방향 |
|                         | 5. 결 론              |

## 1. 들어가며

교육과정이 또다시 개편된다. 지난 5월 2015년 한문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2015년 9월이면 2015년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이 발표될 것이다. 이번 교육과정 개편의 방향은 역량 중심, 학생 참여 중심의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한다. 특히 과도한 학습량의 적정화, 문제 풀이 위주의 수업이 아니라 학생 참여 중심 학습법 개발, 과목간의 유기적 연계 및 융합 등이 교과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이라고 한다.

사실 한문과의 경우, 역량 중심, 학생 참여 중심, 과목 간의 유기적 연계 등의 실현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개념어가 한자어이고, 전통시대 공용어가 한문이었기에, 현재와 과거의 모든 내용을 포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말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일 수도 있다. 중심이 없는 무한한 확장은 소멸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등학교 교과교육에서 한문 교육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정

---

\* 성신여대

말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과교육으로서 한문과 교육이 어떠한 방향성을 지니고 나아가야 하는지 그 정체성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과 모색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이번 한문교육학회의 기획주제는 2015년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을 위한 교수 학습이론과 사례이며, 본 발표자가 맡은 부분은 한문과 문화 영역의 교수 학습 방법이다. 사실 교수학습방법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중등학교 현장교원이 아닌 발표자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주제이지만, 앞서 말한 문제의식에 따라, 한문과 문화영역의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이론과 사례를 검토하기보다는 한문과 문화영역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모호할 수밖에 없는 ‘문화’라는 영역에서 한문과 교육에서 반드시 주목해야만 하는 성격은 무엇인지에 대한 점검과 공유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현행 교육과정 내용 체계의 문화 영역은 ‘전통문화의 이해와 계승’, ‘한자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가 그 주요한 내용이다.<sup>1)</sup> 곧 한문과 문화 교육에서 ‘전통문화’와 ‘한자문화권’을 중심으로 교육해야한다는 것이다. ‘전통문화’와 ‘한자문화권’이 한문 교과 문화 영역의 주요 내용이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지만 그 구체성은 상당히 모호하다. 전통문화나 한자문화권 문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 영역의 교수학습방법을 개발,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문화영역의 교수학습방법에 앞서 한문과 문화 영역의 성격과 그 방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교육과정에서 문화 영역의 자리가 어떻게 마련되었고, 어떠한 위상을 지니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한문과에서 주목해야 할 문화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한문과 문화의 교육 목표의 방향에 대한 문제의식의 공유와 적합한 교육방법의 모색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

1) 이하 한문과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은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NCIC National Curriculum Information Center: <http://www.ncic.re.kr/>)의 교육과정 원문자료실에서 제공하는 1~9차 교육과정 원문을 참조하였다.

## 2.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문화 영역의 위상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문화 영역의 위상을 검토하기 위해 먼저 현행 한문과 교육과정(2009년 개정)의 내용체계를 살펴보기로 하자. 현행 한문과 교육과정의 영역은 독해, 문화, 한문지식으로 나뉘는데, 문화 영역의 내용체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009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문화 영역〉

영역	내 용		비 고
문 화	한자 문화	전통문화의 이해와 계승	
		한자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	
	언어생활과 한자 문화	언어생활 속의 한자 어휘 알고 활용하기	
	(한문학의 이해)	(한문학 고전 작품 이해하기) (한문학 고전 작품 감상하기)	한문Ⅱ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 영역의 내용은 한자 문화, 언어생활과 한자 문화, 한문학의 이해 세 가지로 구성된다. 그리고 구체적 내용요소는 전통문화의 이해와 계승, 한자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 언어생활과 한자 어휘, 한문학 고전 작품의 이해와 감상으로 정리된다. 그런데 이상의 내용요소들은 새롭게 추가된 것은 아니다. 이전시기 교육과정에 그대로 있던 내용이거나 혹은 재배치된 것이다. ‘전통문화의 이해와 계승’ 및 ‘한자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는 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서 그대로 확인 가능한 것이고, ‘언어생활과 한자 문화’는 7차 시기 ‘한자’, ‘한자어’ 영역과 2007년 개정 시기 ‘한문지식’ 속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 재배치된 것으로 판단되며, ‘한문학의 이해’는 7차 시기 ‘한문고전’의 ‘한문 익히고 활용하기’ 및 ‘한시 익히고 활용하기’의 내용이 강화되어 2007 개정 시기에 ‘한문Ⅱ’의 ‘한국 한문학의 흐름’으로 이어졌다가 2009년 개정 시기에서 ‘한문학의 이해’로 이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7차 교육과정시기부터 2009년 개정 시기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요소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확인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영역 설정과 관련해서는 2007년 개정에서 큰 변화가 나타난다. 7차 교육과정은 한자, 한자어, 한문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었는데, 2007년 개정 시기에 ‘한문’, ‘한문지식’의 영역으로 변화한다. 그리고 ‘한문’ 영역은 다시 ‘독해’와 ‘문

화'로 구성되었다. 여기에서 '문화'라는 영역이 처음으로 한문과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2009년 개정 시기에는 대영역이 '독해', '문화', '한문지식'으로 구성되는데, 이전 시기 중영역이었던 '독해'와 '문화'가 대영역으로 그 위상이 변화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문과에서 '문화'라는 영역이 점점 중요하게 이해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문과의 교육에서 문화적인 성격을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의식이 교육과정의 개편에 반영된 것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하였듯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한 것은 아니다. 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이미 존재했던 내용요소가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문화 영역에 재배치된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물론 한자에 담겨 있는 문화적 요소와 고전어휘 속에 담겨 있는 문화적 성격에 유의하여 '언어생활과 한자 문화'가 문화 영역의 내용요소로 자리매김하고, '한국 한문학의 흐름'이 담기 어려운 共同文語文學으로서의 한문학적 성격과 그 속에 자리 잡은 문화적 요소를 주목한 흐름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여전히 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적 성격이 대부분인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문교육에서 '한문 문화'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 영역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으나 구체적으로 한문 문화에 대한 교육의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흐름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가시적으로 드러났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영역 설정은 기본적으로 7차 교육과정에서 마련된 '한자-한자어-한문'의 영역 구성방식의 비체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한문과의 정체성을 보다 뚜렷하게 드러내려는 경향의 반영이기도 하였다. 국어 어휘 교육보다는 문어로서의 한문에 보다 주목하고 싶은 욕구이며, 동시에 국어과의 보조적인 성격 혹은 고대중국어로 인식되는 경향에 대한 반발이 일정정도 내재해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중등학교 한문교육의 현장과는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는 듯하다. 교과서가 문장 중심으로 구성되는 현상에서 나타나듯이 한자어 교육이 경향적으로 약화되어 현장 교사들이 애로를 토로하는 경우가 종종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문화가 중시되는 분위기는 한문학 연구 경향과도 연결된다. 여전히 내용학이 중시될 수밖에 없는 한문과의 상황에서 한문학 연구가 문화 연구의 경향이 강화되는 것이 한문과의 교육과정 구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한문학'이라는 학문은 기본적으로 한국고전문학의 한 분야로 출발하였다. 한국



문학 연구는 국문문학 중심일 수밖에 없었던 초창기 국문학연구에서 운문인 고전시가와 산문인 국문소설이 고전문학 연구의 중심이었다. 소설과 시가라는 장르 중심의 국문학계에서 ‘한문학’은 잉여의 영역으로 출발하였다. 문학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장르 중심으로 진행되기에 詩歌文學의 하위에 국문시가와 한시가 배치되어야 함에도 문학의 기본적인 속성인 장르 중심이 아니라 문자표기로 전공영역이 설정된 것은, 잉여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한문학 연구 초창기에, 학문으로서 성립 가능성조차 회의되기도 하였다. 한국한문학회[한국한문학연구회]의 창립을 주도한 이우성 선생이 학회 창립 30주년 축사에서 학회 발족 당시 “한문학이라는 학문이 과연 제대로 정립될 것인가에 대해서조차 회의적”<sup>2)</sup>이었다는 발언에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 고전문학 연구에서 현재 가장 영향력이 강하고, 활성화되고 있는 분야가 한문학이다. 한문학 중심의 학회가 고전시가나 고전소설 중심의 학회보다 훨씬 많으며 새로운 지식 중심의 독서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는 분야가 한문학 분야인 것이다. 이렇게 한문학 분야가 여타의 고전문학 학문분야보다 활성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한문학’이 漢文으로 된 文學이라는 성격에 머물지 않고, ‘漢文’學적 성격을 강화하였기 때문이었다. 문예학으로서의 문학에 집중하기보다는 한문으로 기록된 문헌 전반을 학문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보다 다양한 담론이나 현상을 보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곧 한문학은 근대적 분과학문 체제에서 회수되지 않는 잉여의 자리에 위치하여 근대적 문학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에 보다 활기찬 연구 경향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근대적 문학 범주에 갇히지 않았기에 새로운 경향을 드러내기는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무한히 확장되기만 하는 경향도 동시에 나타났다. 풍속학, 문화학적 경향이 강화되면서 한문으로 기록된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경향 또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한편으로 한문학의 학문적 정체성이 오히려 모호해졌다. 근대적 문학 관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문학 관념의 구축 혹은 한문학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을 모색하기 보다는 신변잡기적인 지식의 나열 경향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학문적 정체성을 다지기보다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하는 한문학의 연구경향은 한문과의 교육과정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판단된다. 한문학의 학문적 영향력이

2) 이우성, 「한국한문학회 창립 30주년 축사」, 『한국한문학연구』 37, 한국한문학회, 2006, 10면.

증대되는 상황이 중등학교 한문 교과에서 ‘한문’의 성격을 보다 강화하기를 요구하였고, 동시에 문학에 한정되지 않고 한문으로 기록된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소개하는 문화학적 연구 경향이 한문과의 정체성에 문화적 성격을 부여하려는 의도로 작동한 것이다. 이 경우, 무한히 확장하여 그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한계를 노정할 수 있는 한문학의 경향이 한문과 교육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새로운 논의가 공유되고, 토론을 거쳐 수렴되기보다는, 문화라는 이름하에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한문학의 연구 경향과 연결되어 한문과 교육과정의 문화 영역 역시 그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하고 확장하기만 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한문 교과는 한문학과 다른 현실적 기반을 지닌다. 한문학의 연구 성과에 종속되어 한문의 교과 내용이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한문 교과는 현실의 교과로서 한문 교과학의 학적 기반을 가지고 그 학적 논리에 따라 교과 내용이 구성된다. 따라서 한문 교과의 ‘문화 영역’은 한문학이 문화 중심으로 확장하는 경향과 달리 한문 교과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문화 영역의 교육 목표와 방향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한문과 교육과정의 문화 영역의 기본 성격이나 핵심적인 교육방향이 모호하게 나타나는 점은 한문과 교육과정의 문화 영역이 교과서에서 구현되는 양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문화영역이 교과서에 반영되는 양상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 정리된 바 있는데, 그에 따르면 교육과정에서처럼 교과서에서도 문화 영역의 위상이 변화가 발견되지만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 문제점은 ① 교수-학습 목표의 비구체성, ② 교수-학습 내용의 편중, ③ 적합한 교수-학습 활동의 부재, ④ 자료의 남발 등의 네 가지로 제시되었다. 교수-학습 목표의 비구체성은 교과서에 제시된 문화영역의 학습목표가 교육과정의 학습내용 성취기준을 그대로 진술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 교수-학습 내용의 편중은 문화영역의 내용요소 중 전통문화의 이해와 계승 부분이 문화 영역의 대부분(77%)을 차지하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적합한 교수-학습 활동의 부재는 문화 영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수-학습 활동이 별로 드러나지 않는 현상을 지적한 것이며, 자료의 남발은 민속학 또는 전통문화 관련 내용을 흔히 ‘문화란’이라는 곳에 백과사전식으로 나열된 현상을 지적한 것이다.<sup>3)</sup>

이러한 교과서의 문제점은 뚜렷한 문화 영역의 교육 목표와 방향이 수립되지 못한

3) 배희정, 「漢文科 ‘文化’ 領域 教育 現況과 方向」,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27~39면.

현실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한문과에서 한문 문화 영역의 성격과 방향을 수립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화라는 이름 아래 거의 모든 것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해답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다양한 방식의 시도는 언제나 필요하고, 꼭 해야 하는 것이지만 한문 문화영역 교육의 핵심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도 아울러 진행해야만 한다. 문화라는 이름 아래 파편적 지식을 나열하기만 하는 교육은 한문과의 존재를 흐리게 만들고, 아울러 여타 교과와의 중복성, 나아가 비전문성으로 교과로서의 위상이 무력해질 수 있다.

### 3. 언어문화로서의 ‘한문 문화’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서 한문 문화를 대영역으로 설정한 것은 한문과의 정체성이 바로 문화 영역에 있음을 암묵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한문 문화’는 한문과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 영역이지만, 그 구체적 내용에서는 거의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있기에 무한한 확산의 과정에서 그 정체성이 無化되어 버릴 위험도 존재한다.

한문 문화 교육의 의의나 방향성을 “자본주의의 반인륜성에 대한 정신적 저항”, “공동체적 삶의 구현”, “생태적 사고”, “세계화와 탈식민으로 상징되는 제국적세계 지배에 대한 저항”, “문화적 완결성을 통한 한 국가의 경제나 정치의 자율적 독립성 제고”, “문화적 능력 배양” 등으로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바 있다.<sup>4)</sup> 이것들은 한문 문화 교육이 지향해야할 가치이면서 동시에 한문 문화 교육의 가능성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충분히 공감되지만, 한편으로 공허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sup>5)</sup> 현실 한문교육에서 감당할 수 있는 크기를 넘어서며, 동시에 ‘한문과’가 담당해야 할 과제인가도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많은 것을 담으려다 아무것도 못 담게 되는 우려를 지울 수

4) 박노자(2000), 한예원(2007), 송병렬(2007), 윤채근(2007, 2009, 2012) 등. 이에 대해서는 김왕규,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文化’영역 內容 分析과 向後 課題」, 『한문교육연구』 39, 한국한문교육학회, 2013, 133~135면 참조.

5) 이상의 선행연구들에 대해서 “문화 영역의 교육목표는(...) 선언의 문제가 아니라, 늘 실행의 문제이며, “한문과 교육과정 영역의 하나인 ‘문화’가 한문과가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비의 묘약은 아니다. 영약은 없고, 기대는 무용하다”고 언급된 바 있다.(김왕규, 위의 논문, 134면)

없게 된다.

그렇다면 한문 문화 영역이 지향하고 감당해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 국어, 윤리, 국사, 중국어 등과 구별되는 한문과의 정체성을 구현할 수 있는 ‘한문 문화’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교과와 명칭인 ‘한문’의 성격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sup>6)</sup>

‘한문’이 언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한문 문화’는 ‘한문’이라는 언어문화를 의미한다. 동시에 ‘한문’이라는 언어는 과거에 우리가 사용했던 공식 ‘文語’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한문이라는 문어가 우리의 삶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의미이다. 이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언어문화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보자.

언어는 음성언어와 문자언어로 구분된다.<sup>7)</sup> 인간은 음성언어나 문자언어로 정보와 가치를 교환하고 생각을 표현해왔다. 이때 동일한 음성언어나 문자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이 언어공동체가 되고, 그 언어공동체가 언어사용을 통해 축적한 문화를 언어문화라고 한다. 따라서 한문 문화란 곧 한문이라는 문자언어를 사용하는 집단 ‘한문공동체’-이, 한문이라는 언어사용을 통해 축적한 문화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한문공동체’라는 말은 어색하다. 왜냐하면 한문을 사용하는 집단을 공동체라고 묶게 되면, 한문을 사용한 전통시기 ‘한국’의 문인들은 당대 중국, 일본, 월남의 문인계층과 동일언어공동체이지만 한문을 사용하지 못한 ‘한국’의 민중들과는 동일한 언어공동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 ‘한문 문화’의 공유정도<sup>8)</sup>를 따진다면, 우리의 문인들과 우리 민중들의 한문 문화적 동질성이 중국, 일본, 월남의 문인들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따라서 ‘한문 문화’라고 지칭되는 것은 단순히 한문 문어를 사용하는 집단들이 공유하는 문화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한문 문화’를 한문이라는 문어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음성언어까지 아울러 고려하는 시각이 마련되어야 한다. 음성언어와 문자언어

6)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층위에서 접근 가능하다. ‘한문과’라는 교과교육이 실천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향과 ‘한문과’의 내용을 규정하는 ‘한문’ 혹은 한문 문화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향이다. 전자는 사회학문적 성격이 강하다면, 후자는 인문학문적 성격이 강하다. 본고에서는 후자의 방향에서 접근하도록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문 교육의 성격을 정리한 것은 류준경, 『한문교육의 성격과 방향』, 『한문고전연구』 28, 한국한문고전학회, 2014 참조.

7) 현대적 맥락에서 언어는 음성언어와 매체언어로 구분되고, 매체언어는 다시 문자언어, 영상언어, 전자언어 등으로 구분된다. 영상언어, 전자언어 등의 미디어언어는 근래에 들어 새롭게 나타난 매체이기에 여기에서는 일단 제외하고 음성언어와 문자언어로만 구분하였다.

8) 한문의 이해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들의 ‘언어문화적’ 동질성을 말하는 것이다.

를 조망하는 시각에서 문자언어를 주목하는 시야를 확보해야만 하는 것이다. 구어로 사용되는 언어를 배제한 채, 문어만으로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구어로서의 민족어와 문어로서의 민족어,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문어인 한문의 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한문 문화를 주목하는 시각을 마련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주목해야하는 것이 바로 ‘이중언어체계’(diglossia)이다. 우리의 한문 문화를 적절히 해명하기 위해 이중언어체계로 존재한 우리의 언어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제 이에 대해 간략히 검토하도록 하겠다.

### 1) 중세적 이중언어체계와 한문의 지위

이중언어체계(diglossia)란 한 언어 사회 안에서 서로 다른 언어가 엄격한 위계를 지니면서 존재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는 일찍이 Ferguson이 아랍어권, 스위스 등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언어가 위상을 달리하면서 엄격히 구분되어 사용되는 현상을 분석하면서 사용한 것이다.<sup>9)</sup>

이중언어현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Diglossia 외에 Bilingualism이 있는데, Bilingualism은 위상의 차이가 크지 않은 두 가지 언어가 사용되는 현상, 혹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현상을 가리키는데 비해, Diglossia는 위상의 차이가 있는 두 가지 언어가 사용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중언어체계의 전형적인 예로 Ferguson은 아랍어권의 언어문화를 제시하였다. 아랍어권에서는 고전(코란)아랍어와 대중들의 일상 아랍어가 모두 사용되는데, 그 언어가 사용되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를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10)</sup>

9) “이중언어체계”에 대한 내용은 이익섭, 『사회언어학』, 민음사, 1994; Brigitte Schlieben-Lange, 『사회언어학 개론』(정은이 옮김), 인하대 출판부, 2003; 박순함, 「양층언어구조(Diglossia) 연구의 역사」, 『사회언어학』 5권 1호, 한국사회언어학회, 1997 등 참조.

10) 박순함, 위의 논문, 62면.

상	황	고전아랍어	대중아랍어
교회 혹은 회교사원에서의 설교		○	
하인, 식당종업원, 일꾼, 점원 등에게의 지시사항			○
사적인 서신		○	
의회에서의 연설, 정치적인 연설		○	
대학강의		○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대화			○
뉴스방송		○	
라디오 연속극 종류			○
신문의 사설이나 뉴스내용, 사진 표제		○	
정치풍자 만화의 표제			○
시		○	
민속문학			○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한 사회에서 두 가지 언어가 위상을 달리하면서 사용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면모는 스위스에서 표준 독일어와 스위스 독일어가, 아이티에서는 불어와 아이티 크리올이 각각 상위와 하위의 변이형으로 나타나는 모습에서도 확인된다.

그런데 이러한 “이중언어체계”는 중세시기 각 문명권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한문과 한글의 이중언어체계를 이루었다. 다만 한문의 경우 문어로만 사용되기에, 라틴어권과 아랍어권 등과는 다른 면모를 보였다. 구어에서는 단일한 언어가 사용된 것이다. 그럼에도 한문과 민족구어가 서로 다른 위상을 지녔다는 점에서 이중언어체계의 전형적인 예로 거론할 수 있다.<sup>11)</sup>

한문이 공식문어로 사용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긴 시간을 단순히 정리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한문과 민족구어 간의 위상을 글쓰기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철학적인 글쓰기는 오로지 한문으로만 이루어졌다. 민족어로 철학하기는 근대에서나 나타난 산물이다.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사고를 담아야만 했던 철학

11) 우리나라의 이중언어체계 현상에서는 서구 학계 쪽에서 오히려 더욱 주목 받다가, 최근 들어 국어학 및 국문학계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정다함, 『麗末鮮初의 동아시아 질서와 朝鮮에서의 漢語, 漢吏文, 訓民正音』, 『한국사학보』 36, 고려사학회, 2009, 280면; 이강옥, 「이중언어 현상과 고전문학의 듣기·말하기·읽기·쓰기에 대한 연구」, 『어문학』 106, 한국어문학회, 2009, 57~58면 참조.

은 오로지 한문으로만 가능했던 것이다. 나라 사이의 공식적인 교류 역시 한문으로만 이루어졌다. 공식 외교어는 한문이었기에, 공식문서는 한문으로 작성되었다.<sup>12)</sup> 한 나라 안에서의 공식적인 문서 역시 한문으로 작성되었다. 역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에서 간행하는 공식적인 역사서뿐 아니라 개인이 편찬한 역사서 역시 모두 한문으로 작성되었다. 역사서 글쓰기도 한문이 담당했던 것이다. 그런데 문학어의 경우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한문을 사용한 시문도 발달하였지만, 향가를 표기한 향찰이 일찍부터 존재하였고, 조선시대 훈민정음이 창제되어 국문을 활용한 문학이 조선후기에 들어서 크게 발달하였다. 곧 문학어는 한문과 ‘국문’이 함께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후기 이전 시기까지 문학어 역시 한문이 핵심적인 영역을 차지하였고, 국문(민족구어)에문학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다. 문학어로서 민족어가 그 위상을 높여갔지만, 여전히 이중언어체계에서 높은 위상을 지닌 한문이 주류였던 것이다.

이상의 사실로 볼 때, 기본적으로 한문은 전통시기 높은 위상을 지니는 언어로 글쓰기의 대부분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상적인 언어로는 민족구어를 사용하면서 공식적인 글쓰기의 대부분의 역할을 한문이 담당하였던 것이다. 철학, 문학, 역사 등에 사용된 언어는 기본적으로 한문이었다.

## 2) 한문과 (민족)구어의 관련

동아시아의 각 나라들은 이중언어간의 위상과 역할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한문과 ‘민족어’라는 이중언어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우리나라가 가장 전형적인 상황을 보였다. 그런데 동아시아 각 나라가 공동으로 사용한 문어인 ‘한문’이 처음부터 이중언어체계로 나타난 것은 아니다.

동아시아 각 나라들이 사용한 ‘한문’은 대략 춘추 말엽부터 한나라 무렵까지(B.C.600 ~ A.D.1세기) 중원 지역에서 사용되었던 언어를 기초 언어로 형성된 문어이다. 이 시기 언어는 『논어』, 『맹자』, 『좌전』 등의 경전과 『장자』, 『순자』, 『한비자』 등의 諸子書, 『국어』, 『전국책』, 『사기』 등의 역사서 등에 사용되었고, 이것은 후대 지식인들의 규범으로 인식되어 지속적으로 학습되었다. 동시에 자신들의 언어를 기록할 서사 체계

12) 물론 외교문서에 사용된 표현이나 어휘가 전통한문이었던 것만은 아니다. ‘漢吏文’이라는 독특한 문체의 글이 외교문서에 사용되었고, 시대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

를 갖지 못한 동아시아의 여러 민족 역시 이 언어를 수용하였고, 그렇게 ‘한문’은 동아시아의 공동문어가 되었다.

중국의 경우, 동일한 어휘와 문법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 ‘한문’ 외에 구어를 반영하면서 구어의 변화와 함께 발전한 문어인 ‘백화’가 있다. 백화의 출현이 東漢 이후인 점으로 보아, ‘한문’은 B.C 6세기~A.D 1세기까지의 구어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이후 그 어휘와 문법 체계를 변화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다. 중국 내부의 시간적, 공간적 차이를 뛰어넘는 보편어(Lingua Franca)로 사용된 것이다. 현재 ‘漢語’는 다양한 개별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sup>13)</sup> 두 언어의 친소관계를 파악하는 年代言語學에 의하면 北京語와 福建語의 차이는 영어와 독어의 차이보다도 크다.<sup>14)</sup> 또한 이들 언어의 사용인구 수로 본다면 북경어[官話, 普通話]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이고, 상해어[吳語]가 7천 7백만명이 사용하는 세계 10위의 언어이며, 광둥어[粵語]는 6천 6백만명으로 세계 16위의 언어이다.<sup>15)</sup> 한어에 속하는 개별어는 세계 30위권의 언어가 7개나 된다. 그럼에도 이들 언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문어를 발전시키진 않았다. 소설의 경우 부분적으로 남방의 언어를 반영한 표현들이 사용하였다고 보고되는 정도이다. 유럽의 경우 분화된 개별 언어 사용자들이 자신의 구어에 적합한 문자체계를 발전시키고, 개별 민족어문학도 발전시킨 것과는 다른 길을 걸었다. 중국의 경우도 서로 다른 개별어를 바탕으로 지역적 문학을 발전시켰을 터이나 그에 대한 연구성과는 미비하다. 지방 演戲나 구비시가에서 개별언어를 바탕으로 하는 문학이 발달되었을 것이지만, 이에 대해 아직 중국 내부에서도 제대로 보고되고 있지 않다.<sup>16)</sup>

그러나 우리의 시조나 일본의 和歌, 월남의 國音詩와 같은 민족어시와 같은 뚜렷한 갈래를 형성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개별어 문화권이 중국 주변 국가처럼 보편문어인 한문과 개별 지역의 개별구어의 이중언어체계를 이루었으나, 민족구어를 바탕으로 한 문화를 크게 일으키지는 않았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한문을 사용하는 한나라의 지배로 한문이 본격적으로 전파되었지만, 그 지배영역이 크지 않아 한나라의 지배에 따른 전파보다는 삼국을 중심으

13) 한어의 ‘개별언어’를 중국에서는 방언으로 파악하지만, 서양에서는 개별어로 파악하는 경향이 강하다.

14) 무라타 유지로오(村田雄二郎), 「문언·백화를 넘어서 - 근대 중국에서 ‘국어’문제」, 『중국현대문학』 36호, 한국현대중국문학학회, 2006, 167면.

15) 조동일, 『동아시아문명론』, 지식산업사, 2010, 117~118면.

16) 조동일, 위의 책, 116~120면.



로 주체적으로 한문을 수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고유의 문자체계가 없었기에 문자사용을 위하여 한문을 수용한 것이기도 하며, 동시에 앞선 문화를 주체적으로 소화하기 위하여 받아들인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주체적 한문 수용은 우리의 문화 수준을 높이는 작용을 하였다. 한문을 수용하였다고 해서 민족문화가 위축된 것만은 아니다. 이른 시기 우리의 대표적 문화적 성과인 <광개토대왕비>는 한문으로 기록된 것이다. 한문으로 민족적 주체성을 드높인 예를 보인 것이라 하겠다. <광개토대왕비>에서 광개토대왕을 칭송하는 것은 주위 나라를 누르고 드높은 무력을 자랑한 점이 아니었다. 은혜와 위업을 두루 갖추어 백성을 돌보고 농업에 힘쓰며 세상을 평화롭게 하였다는 점을 칭송하고 있다.<sup>17)</sup> 보편적 이상을 실현한 면모를 부각하여, 고구려의 주체성을 드높인 것이다. 이는 한문 수용으로 민족적 주체성이 억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편적 가치로 고양되었음을 보이는 증거인 것이다.

한문을 수용함으로써 민족문화가 억압된 것이 아니라, 민족문화에 새로운 자극이 되어 갱신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한문의 규범과 격식이 수용됨에 따라 민족구어도 자극을 받아 세련된 민족구어시기를 만들어 진 것이다. 민요의 단계에 머물러 있던 우리말 노래가 세련된 규범을 지닌 한시의 영향으로 새로운 서정시 형식을 만들고 발전시켰다. 鄉歌가 그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假名으로 쓴 和歌, 월남의 경우 字喃으로 쓴 國音時가 여기에 해당된다. 10구체 향가의 세련된 구조는 한시의 충격으로 민족구어 노래가 세련된 서정시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sup>18)</sup> 더 나아가 세련된 구조 뿐 아니라 사상적 깊이를 동반하는 격조 높은 시상까지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는 이황의 <陶山十二曲跋>에서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도학자로서 자연 속에서 이치를 발견하고 그 흥취를 한시로 노래한 이황이었지만, 말과 글이 다른 우리의 상황에서 구어의 진실한 느낌을 구현할 수 없었기에 시조를 창작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동시에 이전에 존재한 <翰林別曲>과 李龜의 <六歌> 등이 방탕하거나 玩世不恭하여 ‘溫柔敦厚’함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였음을 아쉬워하면서 ‘溫柔敦厚’한 시조인 <陶山十二曲>을 창작한 것이다.<sup>19)</sup>

17) 조동일, 한국문학통사(제4판), 지식산업사, 2005, 119~122면.

18) 동아시아 각 민족어시가 한시에 대응하여 발달한 양상은 조동일, 『하나이면서 여럿인 동아시아문학』, 지식산업사, 1999, 311~389면.

19) 李滉, <陶山十二曲跋>, “吾東方歌曲, 大抵多淫哇不足言. 如翰林別曲之類, 出於文人之口, 而矜豪放蕩, 兼以褻慢戲狎, 尤非君子所宜尚. 惟近世有李龜六歌者, 世所盛傳, 猶爲彼善於此, 亦惜乎其有玩世不恭之意, 而少溫柔敦厚之實也.”

한시의 드높은 경지인 溫柔敦厚를 우리말 노래에 실현하여, 이항은 격조 높은 시조 창작을 시범하였던 것이다. 한시의 높은 경지를 민족구어시에 구현하고, 나아가 구어에 밀착하지 못하는 한시의 한계를 극복하는 민족어시의 전범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도산십이곡>이 주희의 <武夷九曲>의 자연 속에서 심성을 도야하고 그 흥취를 표현한 경지를 이으면서, 구어와 밀착한 시 형식을 마련할 수 없었던 중국의 경우와 다르게, 더욱더 일상적 체험에 밀접한 작품을 구현한 성과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한문 문화와 민족어문화가 서로 영향을 강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이중언어체계의 특성에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한문문어와 민족구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사례는 많다. 한문학의 경우, 악부시와 야담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의 악부시라도 그 창작의 전범이 중국의 樂府 전통과 연결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말 노래나 우리의 구체적 현실경험을 한시의 시적전통에서 탈피하여 노래하였다. <小樂府>나 柳振漢의 <春香歌> 등은 우리말 노래를 한역하여 한시를 민족어에 가깝게 하였고, 많은 ‘紀俗樂府’와 ‘詠史樂府’ 작품들에서 민족의 역사와 현실을 구체적으로 담아 한문의 민족문학적 성격을 극대화하였다. 야담 역시 민족구어로 펼쳐진 이야기판과 한문 문화가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다. 이야기판에서 다양한 지역과 계층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였고, 사대부 문인들이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야담이다. 사대부 문인들은 때로는 단순기록자로서 때로는 적극적 개작자로서 자신을 위치시키면서 한문으로 야담을 창작하였다. 민족 구어의 이야기판과 한문글쓰기 문화의 결합에서 새롭게 나타난 현상인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한문 문화는 민족구어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지속되었다. 때로는 중국에서 마련된 고전적 전범을 재생산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적극적 수용과 변용의 과정을 거치기도 하였으며, 동시에 민족구어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민족문화적 성격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한문은 이중언어체계에서 높은 위상을 지니며 중세시대 내내 지속되었지만, 동시에 낮은 위상의 민족구어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나라의 독특한 한문 문화를 지속해왔던 것이다. 우리 한문 문화는 중국의 한문 문화의 수용과 재생산의 과정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문질서 속에서 우리의 구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자신의 위치를 조정해 왔던 것이다.

### 3) ‘국어’의 성립과 한문의 성격 변화 - 이중언어체계에서 단일언어체계로

근대에 들어 이중언어체계는 단일언어체계로 변화한다. 보편어의 위상을 지닌 한문과 민족구어의 이중체계가 민족어중심의 단일어체계로 변화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문과 민족구어가 새롭게 인식된다.

이전에는 ‘文’이지만 했던 글을 ‘漢文’으로 인식한 것은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국문’이라는 용어와 함께 ‘한문’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우리와 달라진 사정은 강호도조약(1876) 제3조에 명확히 나타나는데, 두 나라가 서로 왕래하는 문서를 일본은 자신의 국문(其國文)으로 작성하고 ‘한문’ 번역본(譯漢文) 1통을 첨가하기로 하고, 조선은 ‘眞文’을 사용한다고 하였다.<sup>20)</sup> 동일언어에 대해 일본은 ‘漢文’이라 하였고, 우리는 ‘眞文’이라고 하였다. 여전히 한문이 보편어의 지위를 지니고 있었기에 나타난 면모인 것이다. 이후 갑오개혁(1904)에서 공식적으로 보편어의 지위를 ‘국문’이 차지하게 된다. 한문은 ‘文(眞文)’에서 ‘한문’으로 그 위치가 변화하고, ‘諺文’이 ‘국문’의 위상을 지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때의 ‘국문’은 지금의 국문과 동일한 것이 아니었다. 문자표기를 한자에서 한글로 바꾸는 것만이 아닌, 새로운 글쓰기의 방식이 필요하였다. 한문문장을 우리말 순서로 현토하여 드러내는 듯한 국한문체가 한동안 사용되다가 언문일치 운동으로 지금과 같은 구어체의 국어로 변화하였다. 이는 한문의 전통에서 국문이 자신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동시에 여전히 한문의 전통을 적절히 변용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마련해 가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재의 한문의 자리에서 국문이 대체된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을 공용어의 대체과정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지극히 일면적이다. 이중언어체계에서 단일언어체계로의 전환 과정임을 이해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이중언어체계는 민족구어와 한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지속해온 과정이다. 그 지속의 과정에서 민족구어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는데, 그것은 한문을 배제하는 과정이 아니라 한문을 점점 받아들이는 과정이었다. 민족구어 속에 한문을 녹여나가는 과정이었으며, 동시에 한문 역시 민족구어의 영향을 받아들여 새로운 한문 문화를 형성해나갔던 과정이었던 것이다.

중세적 언어체계에서 근대적 언어체계로의 전환은 개화기와 일제강점기 등의 정치적

20) 嗣後兩國往來公文, 日本用其國文, 自今十年間, 別具譯漢文一本, 朝鮮用眞文.(朝日修好條規 第三款)

혼란기에 갑작스럽게 진행되었다. 이 시기의 사회문화는 이전과는 완전히 단절된 듯한 면모가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근대사회로의 진입과정은 과거와의 단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전 사회의 전통이 계승되기도 하였다. 언어문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갑작스런 사회 변화로 근대적 단일언어체계가 성립되는 과정이 중세적 이중언어체계와의 단절적인 면모가 부각되지만 단일언어체계의 형성과정에서 이전시기 언어문화의 특징이 면면히 이어지기도 하였다. 국문의 형성과정은 한문에서 ‘국문’으로 단선적 대체과정이 아니라 한문과 민족구어의 이중언어가 결합하여<sup>21)</sup> 단일언어체계를 형성한 과정이었던 것이다.

#### 4. 한문과 문화 영역 교육의 방향

현재 학교교육의 차원에서 한문과의 위상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중등학교 보통교육 속에 한문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 곧 한문 교육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말의 70%가 한자어이기 때문이라는 수 십 년 째 판에 박힌 말만 지속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현실 한문과 교육에서 한자어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현실 언어생활에서 한자, 한자어의 위상도 정확하지 않고, 시문으로서의 한문 학습의 의미도 뚜렷하지 않다. 이전에 비해 많이 약해지긴 하였지만, 한문하면 과거회귀, 극단적 보수의 이미지가 섞여있기도 하다. 어쩌면 이후 한문은 실제적 삶과는 동떨어진 영역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남을지도 모른다. 로마자 표기 방법을 사용하는 월남에서처럼 대학에서 극히 일부분에서만 한문 교육이 존재하는 것처럼.

한문이 언어교과인 한 실제적 언어생활과 유리되면 그 존립근거는 약화되기 마련이다. 한글전용이 일반화된 현실에서, 일본이나 중국처럼 표기문자로 한자를 사용하지 않는 한, 월남과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 현재의 관점에서 볼 때, 문언으로서의 한문은 역사적 생명을 다한 死語이다. 지금의 언어생활 속에 ‘한문’을 확인시키지 못하는 한, 한문 교육은 보통교육의 장에서 멀어지고 전문가의 세계에서만 명맥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21) 물론 일대일 결합이 아니라, 민족구어가 한문을 통합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언어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부분은 한문 지식의 어휘 영역과 문화의 언어생활과 한자문화 정도이다. 이 부분도 사실 매우 간접화되어 있다. 언어생활 전반 혹은 핵심과 직접적 관련이 드러나지 않는 한, 어렵기만 한 불필요하게 여겨지는 심화학습으로 이해되기 십상이다.<sup>22)</sup> 실제 언어생활에 직접 개입되지 않는다면, 예컨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언어생활을 바로 잡거나 혹은 어휘를 확장하거나 활용하는데 효율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크게 문제될 것 없는 특별 활동처럼 이해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과정의 개편 과정에서 문화 영역이 강조되는 현상은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의도가 기저에 깔려있다고 판단된다. 전통시대 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한문의 특성을 활용하여 한문 교육의 다양한 가능성을 확보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장 교육이나 교과 교육에서 한문 문화 영역과 관련된 많은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문화유산이나 지역문화를 활용하거나<sup>23)</sup>, 전통적인 독서법을 교육의 제재로 활용하거나<sup>24)</sup>, 여타 교과와의 접목을 시도하는 등<sup>25)</sup> 다양한 방법으로 한문과 교육의 또 다른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이 집적되고 확산된다면 새로운 탈출구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모색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은 한문과 문화 영역 교육의 방향에 대한 점검과 문제의식의 공유이다. 방향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만 교과의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문 교과가 언어 과목인 한, 한문 문화는 한문으로 이루어진 고전문화라는 맥락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언어생활에서 한문의 위상과 역할을 주목하는 언어문화적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 다른 과목과 구별되는 한문과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사회에서 언어문화가 특히 중요시되는 이유는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적 영역이

22) 예컨대, 고전에서 유래한 어휘를 그 문화적 맥락과 함께 교육하는 것은 새로운 교육내용으로 충분히 시도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언어생활과 한자문화'의 주요한 내용이 되기 어렵다. 교육의 범위와 내용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23) 김정란, 「書院踏査를 통한 고등학교 한문과 개발활동 수업 방안 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손진희, 「지역문화를 활용한 한문과 수업자료 개발: 영일만을 中心으로」,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1.

24) 김은경, 「朝鮮時代 讀書論과 漢文教科 活用方案 研究」, 교원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6; 김혜진, 「李德懋의 讀書論을 活用한 漢文科 教授·學習 資料 開發」,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0.

25) 고려진, 「인성교육을 위한 한문-도덕 연계수업 지도방안 연구: 중학교 한문 교과서를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석사논문, 2012.

기 때문이다. 얼마 전 ‘국사’ 과목의 필수 여부가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다. 논란의 결과, 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이었던 국사가 필수교과가 되고 나아가 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필수과목이 되었다. 사회적으로 국사 교육을 더욱더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되는 이유는 그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 영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국어가 중요시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이다.<sup>26)</sup>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영역이 바로 ‘국어’이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문은 전통시대 보편어로서의 지위를 지니며 우리의 삶과 사유를 기록하고 표현하였으며, 동시에 일상구어인 민족어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때로는 민족어문의 발달을 촉진하기도 하였고, 민족어적 특성을 한문에 수용하기도 하였다. 동시에 근대어문으로서 ‘국어’가 성립되는 과정은 한문을 철저히 배제하는 과정이 아니라 한문을 포함한 민족어가 ‘국어’의 위상을 점유하게 되는 과정이었다. 따라서 한문 교과목의 문화 영역에서 언어문화로서의 한문 문화의 교육은 우리 언어문화에서 한문 문화가 차지하는 위상을 이해하고, 우리 언어문화의 주체성의 본질적 성격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언어문화의 주체성을 민족어의 자기 실현과정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한문과 민족어가 상호관계를 맺으며 진행해 온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금의 우리 모습을 이룩해온 과정인 우리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듯이, 지금의 우리 언어문화를 이룩해 온 과정도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한문과 문화 영역의 교육에서 중요시해야 할 점은 바로 이점이다. 한문 문화가 우리의 문화를 구성하는 핵심이었음을 언어문화적 맥락에서 확인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적 교육목표인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통시대 언어문화에서 한문의 위상을 이중언어체계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나아가 현재 단일언어체계가 이전 이중언어체계를 계승한 점을 분명히 이해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진정한 언어문화적 주체성을 함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문과 교육의 문화 영역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이 우리 언어 문화적 주체성을 확인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언어 문화적 주체성을 새롭게 구성하기 위한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국어과의 국어문화 교육에서 실시되는 언어 문화적 주체성 교육의 방향과 또 다른 의미의 방향성도 아울러 지녀야 하는 것이다. 한문과의 특성을

26) 물론 국어는 실제적 언어활동의 측면과도 연결되기에, 주체성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바탕으로 국어과에서 실시하기 힘든, 동시에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교육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근대에 들어 이중언어체계가 단일어문체계로 변화하고, ‘국어’가 보편어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국어의 어법과 표기법을 정리 발전시키고, 지역과 계층적 언어 차이를 극복한 표준어를 제정·보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에게 ‘국어’ 교육을 실시하여 이전 시기 일부 계층만이 문자생활을 영위하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모든 지역, 모든 계층에서 함께 사용하는 ‘국어’를 통하여 어문생활의 민주화를 이룩한 것이다. 이전 시기 일부 계층이 문자를 독점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신분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문자생활을 영위하게 된 것은 ‘국어’ 교육의 크나큰 성과라 할 것이다.

그런데 단일한 ‘국어’를 통한 어문생활의 민주화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먼저 지역의 언어문화가 약화되는 점을 거론할 수 있다. 표준어가 지방어보다 높은 지위를 차지하여, 지방의 언어 문화적 다양성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제는 다원성을 바탕으로 한 어문 생활의 민주화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단일화된 ‘국어’ 중심의 일원적 민주화가 이전 시기의 과제였다면, 이제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 다양한 언어문화들이 존중되고 공존하는 국어 교육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이는 다문화 사회를 진입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도 연결된다.

다문화사회에서는 단일성을 신봉하는 민족주의적인 ‘국어’ 관념은 사회 통합에 질곡으로도 작용한다. 다문화사회에서는 언어적 다양성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근대적 ‘국어’ 관념은 다양성을 수용할 여지가 없다.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국어 관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전 시기 이중언어체계의 언어문화적 특징이 좋은 참조가 된다. 일부 계층이 문자문화를 독점한 문제는 당연히 지적되어야 하지만, 한편으로 한문과 민족구어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발전하였던 언어생활의 역사나 한 개인이 한문과 민족어문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모습 등에서 새로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중언어체계의 과거 유산을 재발견하고, 현재 우리의 언어문화 속에 한문과 민족어의 자질이 함께 녹아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언어문화적 주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것이다. 한문 문화 영역의 교육 방향은 이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 5. 결론

(생략)



# 漢文科에서의 問題中心學習法 研究

白光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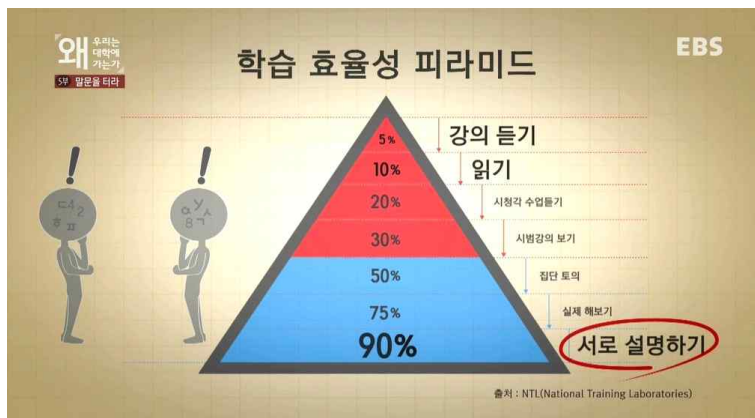
## •目次•

I. 들어가며

II. PBL과 漢文科 教育의 접점

III. PBL을 적용한 漢文科 授業

IV. 맺으며



〈그림 1〉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 (출처: EBS 다큐프라임)

## I. 들어가며

이 글은 〈2015 한문과 교육과정을 위한 교수·학습 이론과 사례 연구〉라는 주제로 열리는 한국한문교육학회 학술대회의 기획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2015 한문과 교육과

\* 全州大學校

정을 염두에 두고, 한문과에 적용 가능한 교수·학습 방법을 정리하고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질문이 있는 교실’<sup>1)</sup>, ‘학생 중심 교육과정’<sup>2)</sup>, ‘학생 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 인재 양성’<sup>3)</sup> 등 교수자 중심이 아니라 학습자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이 주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탐색하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것이다. 한문과도 이에 걸맞은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自己 告白을 하고자 한다. 2000년에 「한문과에 적용 가능한 웹기반수업과 문제중심학습」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 논문 제목에 ‘웹기반수업’이나 ‘문제중심학습’이라는 용어가 노출되어 있기는 하지만 ‘문제중심학습’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고, 연구 내용도 부실해서 중등학교 현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논문이다.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 “문제중심학습”이 등장하였고,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한문 교사들에게 ‘문제중심학습’이라는 교수·학습 방법이 참고가 되었다는 점 정도의 연구 의의만 있지 않을까 自慰한다.

이 발표는 한문과에 적용 가능한 문제중심학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2000년에 발표한 논문의 후속 연구라고도 할 수 있다. 어떤 주제에 대한 尖銳한 논점을 가진 글이라기보다는 2015 한문과 교육과정에 등장한 “핵심 역량”을 구현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 개발에 참고가 되기 위한 기초 연구의 성격을 가진 글이다. 금일 발표되는 논문의 대부분이 이러하리라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우선 문제중심학습과 관련된 선행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 문제중심학습(이하 PBL)의 특징과 漢文科 教育課程과의 관련성을 概觀한 후, PBL을 적용한 漢文授業 事例와 教授·學習 設計案을 살펴보겠다.

특히 학회로부터 이 연구 주제를 의뢰받을 때, 가급적 대학에 있는 연구자와 중등학

1)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교육방향 교육지표

([http://www.sen.go.kr/web/services/page/viewPage.action?page=kor/intro/intro\\_04.html](http://www.sen.go.kr/web/services/page/viewPage.action?page=kor/intro/intro_04.html))

2) 경기도교육청(2015), 「경기교육 8대 중점정책」, 『2015 경기교육 기본계획』, 13면.

3)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교육의 기본방향(<http://www.pen.go.kr/down/2015-1.jpg>)

교 현장에 있는 실천가가 협력하여 이론과 실천을 함께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부합하기 위해 우선 고등학교 교사와 함께 한문 교과서에서 PBL을 적용할 만한 글감이나 단원을 선별하였다. 다음으로 대학의 연구자는 한문과에 적용할 만한 문제 상황을 개발하고, 현장 교사는 개발된 문제 상황을 중등학교 현장에 적합하게 수정한 후 그에 맞는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고 PBL 수업을 진행하였다. 대학의 연구자는 이를 이론적으로 보완하여 발표문으로 구성하였다.

이 발표에서는 아직 수업에 투입되지 않은 ‘한문 산문’ 영역 PBL 교수·학습 설계안과 수업에 투입된 ‘한자’ 영역·‘어휘’ 영역 PBL 수업 사례를 간단히 소개한다. 논문으로 투고할 때는 오늘 학술대회에 참석한 同學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후, 학생들의 수행 양상과 현장 교사의 수업 성찰까지 담도록 노력하겠다. 이 발표가 자신의 수업에 PBL을 적용하고자 하는 한문 교사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Ⅱ. PBL과 漢文科 教育의 접점

이제 선행 연구 성과와 PBL의 특징, 그리고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PBL과 관련된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한문과에서 PBL을 다룬 연구 성과는 많지 않다. 학술논문은 全無하고 학위논문으로 송분화의 『문제중심학습을 활용한 故事成語 교육 방안』이 있다. 선행 연구 성과가 적은 이유로는 PBL이 한문과 교육과 맞지 않은 것이라 여겨서 그럴 수도 있고, 연구 주제로 삼기에 매우 지엽적인 것이라 여겨서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PBL과 같은-꼭 PBL이 아니더라도- 학습자 주도의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고, 적용하고 난 뒤의 학습자 반응 양상을 소개하고, 학습 결과를 공유하는 것은 한문 교과교육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한문과에서는 PBL이 활발하게 연구되거나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타 교과와의 연구 성과는 비교적 풍부하다. 다양한 교과에서 교과별 특성에 맞는 PBL 연구 성과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실제적인 ‘문제’를 제시한 후 학습자의 ‘자기 주도 학습’과 ‘협동 학습’을 반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갖추고 있다. 추후 논문을 투고하게 될 때 타

교과에서의 PBL 연구 성과를 보완하도록 하고, 이 발표문에서는 교육공학 분야의 연구 성과 하나를 살펴보겠다. 조혜경에 따르면, 문제중심학습에서 그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문제는 “학생들이 실생활이나 가까운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학생들은 학급 단위 보다는 개별적이거나 소집단 별로 각각의 수준에 맞는 활동을 하되, 그 구성원들은 문제중심학습을 하는 과정 전체에 대해 일정 수준의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sup>4)</sup> 한문과에 맞는 PBL 문제를 개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다.

문제중심학습은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므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중심학습에서의 ‘문제’의 특징은 선행 연구에 기술되어 있다.<sup>5)</sup> 다만 선행 연구에서 놓친 부분은 그 당시 개발한 ‘문제’가 문제중심학습이라命名할 만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문제중심학습’은 “학습자들에게 실제적인(authentic) 문제를 제시하고, 그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들 상호간에 공동으로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개별 학습과 협동 학습을 통해 공통의 해결안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학습방법”이다.<sup>6)</sup> 오늘 발표를 통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이 ‘문제’이다. PBL을 위해 개발될 문제 상황은 재미있는 문제, 문제를 위한 문제가 아니다. 그 문제는 해당 수업을 통해 도달해야 할 학습목표와 관련되어야 하며, 수업 시간에 다룰만한 가치가 있어야 하며, 진정성 있는, 진짜 같은 문제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통해서 학생들은 과제를 수행하게 되고,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각하면서 배우는 힘, 예를 들어 문제해결능력, 창의적 사고, 의사소통능력, 프리젠테이션 능력, 협업 능력 등을 기르게 되는 것이다.

PBL은 일반적으로 Barrow 모형(1993)이 많이 활용되는데, 이 모형은 문제 해결 과정을 세분화하여 능동적인 학습 형태를 유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개별 교과와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수정·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다.<sup>7)</sup>

4) 조혜경(2002), 「PBL 활용 수업에서 자기규제학습 능력에 따른 성취도, PBL 학습요소별 인식의 차이 및 성취도와 인식차의 관계분석」, 『이화교육논총』 제12권,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442면.

5) 백광호(2000), 「漢文科에 적용가능한 웹기반수업과 문제중심학습」, 『한문교육연구』 제15호, 한국한문교육학회, 456~457면.

6) 이재경(2015), “Flipped classroom과 PBL의 접목”, 〈학습자 중심의 창의적 교수법〉 워크숍 발표자료, 24면.

〈표 1〉 PBL 전개 과정

수업전개			
1. 수업소개 2. 수업분위기 조성(교사의 역할 소개)			
문제제시			
1. 문제제시 2. 학생들이 문제를 내재화하도록 문제에 대한 주인(소유)의식을 느끼도록 한다. 3. 마지막에 제출할 과제물에 대한 소개를 한다. 4. 모둠 내 각각의 역할을 분담시킨다.			
생각(가정들)	사실	학습과제	실천계획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기록 : 원인과 결과, 가능한 해결안 등	개인 혹은 모둠 학습을 통해 제시된 가정을 뒷받침 할 지식과 정보를 종합한다.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 자신이 더 알거나 이해해야 할 사항을 기록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야 할 구체적 실천 계획
5. 주어진 문제의 해결안에 대하여 깊이 사고를 한다. : 칠판에 적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연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본다.			
생각(가정들)	사실	학습과제	실천계획
확대/집중시킨다.	종합/재종합한다.	규명과 정당화한다.	계획을 공식화한다.
6. 가능할법한 해결안에 대한 생각을 정비한다. 7. 학습과제를 규명하고 분담한다. 8. 학습 자료를 선정, 선택한다. 9. 다음번 토론시간을 결정한다.			
문제 후속 단계			
1. 활용된 학습 자료를 종합하고 그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한다. 2.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다시 새롭게 접근을 시도한다. : 다음 사항에 대하여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			
생각(가정들)	사실	학습과제	실천계획
수정한다.	새로 얻은 지식을 활용하여 재종합한다.	(필요하다면) 새로운 과제 규명과 분담을 한다.	앞서 세웠던 실천안에 대한 재설계
결과물 제시 및 발표			
조사한 내용에 대해 각자 돌아가며 발표를 한다.			

7) 이재경(2015), 위 자료, 27면.

### 문제 결론과 해결 이후

1. 배운 지식의 추상화(일반화)와 정리작업(정의, 도표, 목록, 개념, 일반화, 원칙들을 만들어 본다.)
2. 자기평가(모둠원들로부터의 견해를 들은 후에)
  - 문제해결과정에 대한 논리적 사고
  - 적합한 학습 자료를 선정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어 냈는가?
  - 주어진 과제를 잘 수행함으로써 모둠원들에게 협조적이었는가?
  - 문제해결을 통해 새로운 지식 습득이 이루어졌는가? 혹은 심화학습 되었는가?

그렇다면, 한문과 교육과정 문서에는 PBL이 어떻게 서술되어 있을까? 2007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는 PBL에 관련된 내용이 서술되어 있지 않다.<sup>8)</sup>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는 PBL에 관한 언급이 있지만,<sup>9)</sup> 이를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한문과 교육 목표는 “중·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를 바탕으로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와 언

8) 2007 한문과 교육과정 해설서에 PBL과 관련된 내용은 없지만, 협동학습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간략한 설명이 있다. 2015 한문과 교육과정 문서에도 이러한 해설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교사는 학습자의 흥미와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문’·‘한문지식’의 영역에 알맞은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되, 학습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강의 학습 : 교사가 모든 학습 내용을 언어를 통해 전달하는 학습법이다.
- 2) 현장 학습 : 한문 문화의 현장을 방문하여 체험하는 학습법이다.
- 3) 협동 학습 : 모둠별로 협동을 통해 내용을 습득하도록 하는 학습법이다.

9) 교육과학기술부(2011), 『한문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교육과학기술부, 45~46면. ‘중학교 한문’, ‘고등학교 한문 I’에도 나와 있지만, 문제중심학습법이 가장 많이 언급된 ‘고등학교 한문 II’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1) 학습자가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교수·학습 방법을 계획한다.  
(중략)

문화 영역의 ‘한자 문화’는 토론 학습법, 비교 학습법, 웹 기반 중심 학습법, 문제 중심 학습법 등 다양한 수업 방법을 적용하여, 전통문화의 이해와 계승 및 한자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중략)

- (2) 학습자의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강의법, 토론 학습법, 현장 학습법, 협동 학습법, 웹 기반 중심 학습법, 문제 중심 학습법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지도한다.

(※) 문화 영역의 ‘한문학의 이해’는 토의 학습법, 토론 학습법, 독자 반응 중심 학습법, 웹 기반 중심 학습법, 문제 중심 학습법 등 다양한 수업 방법을 적용하여 한국한문학의 대표적인 고전 작품을 문체와 형식, 주제와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며 작품의 주제와 가치를 일상생활과 연계하여 감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어생활에 활용하며, 한문 자료를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고,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계승·발전시키며,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는 데”에 있다.<sup>10)</sup> 여기에 등장하는 ‘언어생활 활용’, ‘한문 자료 이해 및 향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 함양’, ‘전통문화 이해 및 계승·발전’, ‘한자문화권 내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 등은 교사가 관련 지식 그 자체를 전달해 주기 보다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 지식을 구성해 가는 데 필요한 창의성, 사고력, 문제해결 능력, 정보 분석 능력, 정보 처리 능력 등을 기르게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따라서 PBL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자기 주도적 학습과 문제 해결 능력은 한문과의 목표나 한문과에서 다루는 내용과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2015 한문과 교육과정 시안에 따르면, “2015 교과 교육과정은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흥미도를 제고하고, 창의·융합적 사고와 바른 인성 등 핵심 역량 함량이 가능’하도록 개발”된다.<sup>11)</sup> 2015년 9월에 고시될 예정인 2015 한문과 교육과정은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한문 교과 역량 요소 및 의미, 하위 요소를 <표 2>와 같이 소개하고 있다.<sup>12)</sup>

<표 2> 한문 교과 역량 요소 및 의미, 하위 요소에 대한 세부 설명 자료

역량 요소	의 미	하위 요소
의사소통 능력	한자와 한문 자료 및 언어생활에서 사용되는 한자 어휘를 활용하여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며 소통하는 능력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한문 고전 작품 이해

10) 교육과학기술부(2011), 위의 책, 19면.

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5), 『2015 한문과 교육과정 시안 검토를 위한 공개 토론회』(연구자료 ORM 2015-3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면.

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5), 위의 책, 5면.

창의·융합 사고 능력	한자와 한문 자료에 담겨 있는 다양한 영역의 폭넓은 지식과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소양을 바탕으로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해 내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창의적 사고기능(인지적능력):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유추성 창의적 사고성향(정의적 특성): 민감성, 개방성, 독립성, 자발성 타 교과 학습 용어의 이해·활용 능력
정보처리 능력	한자와 한문 기록에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그 의미를 평가·선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활용하는 능력	논리적, 비판적 사고를 통한 문제 인식/정보 수집, 분석, 활용 등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의 탐색/해결 방안의 실행, 평가/매체 활용 능력
자기관리 능력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기초적 능력 및 자질을 지속적으로 계발·관리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자아정체성 확립, 자기 절제, 기초 학습능력, 자기 주도 학습능력, 기본 생활 습관, 진로개발능력
공동체 의식	한문 기록에 담긴 전통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며,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수용·실천함으로써, 공동체의 문제 해결 및 발전을 위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능력	윤리의식, 봉사정신, 환경 의식, 규범 및 질서 의식, 협동, 배려, 참여와 책임, 가치 다양성의 이해와 존중, 타 문화와 다 문화 이해
심미적 감성	다양한 유형의 한문 고전 작품이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에 대한 향유를 통해 삶의 질과 행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정서적 안정감, 예술적·문화적 감수성과 상상력, 타인의 경험에 대한 공감 능력

선행 연구 성과에 따르면, PBL은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 방법보다 학습자들에게 더 많은 지식을 획득하게 하고 기억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표 1>에 제시된 전개 과정을 한문 수업에 맞게 재구성하여 PBL을 적용한다면,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는 활동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특히 PBL에서는 실제 문제 상황이 주어지고, 학생들은 그 탐구 문제를 자발적인 발견과 사고에 의해 해결책을 마련하여 실제 생활에 적용해 보는 경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2015 한문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한문 교과 역량 요소를 기르는 데에 적절하다.

<표 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2015 한문과 교육과정은 교과 수업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 창의·융합 사고 능력, 정보처리 능력 등을 기르도록 되어 있는데, 한문과에서 이러한 능력이 어떻게 길러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아래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PBL은 의사소통 능력이나 창의력과 같은 사고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습 기능과 연구 기능을 훈련할 수 있기 때문에,<sup>13)</sup> 문제중심학습을 통해서 2015 한문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다. 다만 한문과에 맞는 PBL을 적용하기에 앞서서, 선행 연구에 드러난 PBL의 여러 난점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sup>14)</sup> 이러한 난점들은 PBL을 적용하고자 하는 한문과 수업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문과 수업에 PBL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교수·학습 과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표 3> PBL에서의 훈련 기능

훈련 기능	내 용	훈련 기능	내 용
사고력 훈련	창의력	연구기능 훈련	도서관 기술 <sup>15)</sup>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력		커뮤니티 자원
	비판적, 논리적 사고력	의사소통 훈련	서면
학습기능 훈련	듣기, 관찰, 지각하기		언어
	읽기, 필기, 요약		시각
	면담, 조사		
	데이터분석, 구성		

13) 손정우(2015), 「자기 주도적 학습 지원을 위한 과학교과서」, 『교과서 연구』 제79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33면.

14) 최연주(2014), 『PBL 적용 난점을 보완한 효과적인 음악과 수업 모형 개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13면.

문제중심학습이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이지만 수업 적용 과정에서의 난점도 있다. 난점들은 여러 연구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습자는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

둘째, 소극적이고 의존적인 성격과 성향의 학습자들은 수업 참여도가 낮다.

셋째, 모듈별 과제 해결 시 높은 능력 학습자에게 묻어가려는 무임승차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넷째, 교사는 PBL 문제를 개발하고 PBL 수업 평가 방법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

다섯째, 교사는 PBL 수업에서 학습 능력이 다른 각각의 학습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개입을 해야 하는지 어려움이 있다.

여섯째, 교사들은 PBL 수업으로 인해 학업 성적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

15) ‘도서관 기술’은 참고문헌을 찾고, 인터넷을 검색하여 정리할 수 있는 기술이다. ‘커뮤니티 자원’은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는 메일 쓰기, 전화 걸기 등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다. ‘서면’ 훈련은 계획서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훈련할 수 있고, ‘언어’ 훈련은 결과 발표하기 과정을 통해서 훈련할 수 있고, ‘시각’ 훈련은 시각적 효과를 동원한 발표 자료를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훈련할 수 있다.

### Ⅲ. PBL을 적용한 漢文科 授業

이제 PBL을 적용한 漢文科 授業을 소개해 보겠다. 이 수업은 2015학년도 1학기 수업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학생들에게 투입된 상황이다. 즉, 현재 진행 중인 교수·학습 사례이다. 이 발표문에서는 이미 개발은 완료했지만 아직 수업에 투입하기 전인 교수·학습 설계안과 1학기 수업 시간에 투입을 해서 학생 활동까지 마친 2개의 수업 사례를 소개한다. 논문 투고 시에는 1년 동안 수행된 사례를 보다 풍성하게 추가할 예정이다.

#### 1. 教授·學習 設計案: ‘漢文 散文’ 領域

함께 과제를 수행할 모둠을 4~6명으로 구성하고, 친근하고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학습자들의 학습능력을 파악하여 모둠 내에 리더 역할을 할 학습자, 내성적/외향적 학습자, 학습에 대한 의욕이 높은/부진한 학습자 등으로 적절히 분배하여 상호 학습을 꾀한다. 효과적인 PBL 수업이 되기 위해선 적절한 문제 개발이 중요하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이때의 문제는 도달해야 할 학습목표와 관련되어야 하며, 학습자가 언젠가 경험해봄직한 진짜 같은 문제이면서도, 학습자의 학습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표 4〉 ‘한문 산문’ 영역 PBL 문제

교육과정	한문자료 이해 및 향유	대단원	역사와 소설
PBL 훈련 기능	학습기능 훈련 - 데이터분석, 구성 의사소통 훈련 - 시각	소단원	고구려의 시조 주몽
<p style="text-align: center;"><b>【 PBL 문제 】</b></p> <p>드라마 〈주몽〉은 4만 5천 평 대지 위 오픈 세트에서 한민족 역사에 얹힌 이야기를 담아내고자 하였다. 일대일 대결 장면에서 느껴지는 긴장은 영화처럼 잘 계산되었고 대형 전투 장면 스케일 역시 웅장했다. 최완규 작가는 “비밀 언덕이 없었다.”며 참고 자료 부족과 고증의 어려움을 토로했다.</p> <p>제작진은 고대 문헌의 몇 줄 기록이 전부인 고구려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개연성 있는 상상력’으로 채워 넣어 달라고 ‘스타 청소년 프로덕션’에 주문하였다. 이 드라마에 주몽이 자신을 해치려는 이복형제들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고 탈출하는 장면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지 대본을 작성하시오.</p>			

드라마 〈주몽〉을 감상한 뒤, 문제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표 5〉와 같은 ‘가정→사실→학습할 내용’의 형태로 정리하며, 실천 계획을 세우고 학습내용 추론을 진행한다.

학습 내용 추론은 모둠 내에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다. 우선, 학습할 내용을 분담하고, 모임 시간 및 자료 공유방법을 결정한다. 다음으로, 모둠원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한편 모둠 내에서 나온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동의 여부나 추가 의견을 제시한다. 이때 모둠원들은 두 명씩 짝을 이루어서 서로 질문하고 상대방의 질문에 대답한다.<sup>16)</sup> 자신이 담당한 부분에 대해 분석한 자료가 있을 경우, 다른 동료 모둠원에게 제시하고 모둠 구성원들의 발표 내용을 분석하고, 모둠에서 공동으로 작성할 하나의 모둠안에 대해서 조직·재검토·수정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제 수행 활동을 통해 하나의 모둠안을 완성한다.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주도적으로 인터넷, 참고문헌, 사전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조사한다. 그 후 모둠별로 문제에서 요구한 해결안을 작성하며 과제를 수행한다. 개인별·모둠별 작업이 완료되면 하나의 모둠안으로 요약·종합하여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발표하도록 한다. PBL에서의 평가는 과제 수행의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평가로, 문제 분석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과제 수행 과정이나 결과를 평가하고, 여기에 교사 자신의 교수·학습 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첨가될 수 있다.

〈표 5〉 과제 수행 계획

가정	사실	학습할 내용
역사 드라마 고구려 주몽이야기 드라마 대본	왕자 주몽이 처한 상황 추격 병사 물고기와 자라	삼국사기 주몽이야기 해석 역사적 인물 분석 장르에 맞게 상황 재연
↓		
주어진 문제가 드라마에서 어떻게 표현 되어야 하는가와 연관시켜 과제 수행		

16) 유태인들의 학습 방법 가운데 ‘하브루타(HAVRUTA)’라는 것이 있다. 별도의 연구 주제로 수행 중이지만, 한 문과뿐만 아니라 餘他 教科에서도 매우 유용한 학습 방법이다. 하브루타에서 가장 중요한 motto는 “말로 할 수 없으면 모르는 것이다.”이다.(출처: 〈EBS 다큐프라임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 5부 말문을 터라 (2014.1.28~2014.1.29 방영)〉)

## 2. 敎授・學習 事例1: ‘漢字’ 領域

이제 이미 수업을 실시한 교수·학습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漢字’ 영역을 대상으로 PBL을 적용한 것인데, <표 6>은 한문과 교육과정의 ‘漢字’ 영역을 대상으로 PBL을 수행한 교수·학습 과정안이다. 해당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의 첫 대단원인 ‘I. 한자의 주춧돌’을 대상으로 한다. 이 수업의 학습목표는 ‘한자의 짜임을 알고 한자의 3요소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이다. 학생들은 문제중심학습 모형을 통해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특히 이 수업에서의 문제 상황은 학생들이 광고 회사에 취직했을 때 자신이 고등학교 때 배운 한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한 것으로, 해당 수업의 학습목표가 잘 녹아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PBL의 ‘문제’로 적합하다.

〈표 6〉 ‘한자’ 영역 PBL 교수·학습 과정안

대단원명	1. 한문의 주춧돌	지도교사	○○○	
		장소	2-□ 교실	
소단원명	2. 한자의 구조	차시	2차시(50분)	
		대상	2-□	
학습 목표	■ 한자의 짜임을 알고 한자의 3요소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수업모형·형태	■ 문제중심학습	PBL 훈련기능-내용	사고력 훈련 - 창의력	
학습 자료	교과서, 유인물, 자전			
학습단계		활동내용		시간
배움 열기	전시 학습 확인	· 이미 만들어진 한자의 음, 뜻을 활용하여 새로운 한자를 만드는 원리인 회의, 형성에 대한 질문을 통해 배운 내용을 확인한다. · 한자의 짜임은 한자의 3요소를 익히는데 도움이 됨을 상기시킨다.		5'
	동기 유발	· 기존의 한자를 활용하여 새로운 회의자와 형성자를 만들어 보면서 한자의 짜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한자의 3요소에 대한 학습 흥미를 높이도록 한다.		
	목표 제시	· 한자의 짜임을 알고 한자의 3요소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배움 활동	문제 제시	<p>여러분은 한국 최고의 광고 회사인 한국기획에 이제 막 입사한 인턴 사원이다. 국내 잡지의 지면 광고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된 여러분은 이제 막 새로운 광고 기획을 맡은 B팀에 소속되었다. B팀은 이번에 탈모샴푸 회사로부터 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홍보할 지면 광고를 의뢰받았다. B팀은 아이디어 회의를 거쳐서 동아시아의 보편 문자인 한자를 이용하여 지면 광고를 만들기로 하고, 각자 다음 주까지 새로운 한자를 만들어 와서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B팀 팀장은 아래와 같은 한자를 보여주면서, 각자 개발할 한자는 이처럼 1차적으로 친숙한 한자를 결합하되, 결합한 글자를 보고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쉽게 떠오르면서도 아이디어가 참신한 글자를 개발하는 것으로 정하였다.</p> <p>여러분은 예전에 고등학교 때 한자의 짜임을 배우면서 기존의 한자를 활용하여 새로운 한자를 만드는 회의 원리나 형성 원리를 배운 경험이 있기에,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한자를 새롭게 개발할 자신이 있다. 어떤 한자를 새롭게 만들 수 있을까?</p> <table> <tr> <th>男 女</th> <th>目光</th> </tr> <tr> <td>뽀뽀하다(뽀)</td> <td>(장님)눈뜨다(광)</td> </tr> <tr> <td>남자와 여자가 함께 걷고 있는데 더 이상 걸을 힘이 없다며 남자가 여자에게 뽀뽀하게 업어달라고 해서</td> <td>눈(目)이라는 뜻과 光(광)이라는 음이 만나 장님이 눈을 뽀했다는 글자가 됨</td> </tr> </table>	男 女	目光	뽀뽀하다(뽀)	(장님)눈뜨다(광)	남자와 여자가 함께 걷고 있는데 더 이상 걸을 힘이 없다며 남자가 여자에게 뽀뽀하게 업어달라고 해서	눈(目)이라는 뜻과 光(광)이라는 음이 만나 장님이 눈을 뽀했다는 글자가 됨	10'
	男 女	目光							
뽀뽀하다(뽀)	(장님)눈뜨다(광)								
남자와 여자가 함께 걷고 있는데 더 이상 걸을 힘이 없다며 남자가 여자에게 뽀뽀하게 업어달라고 해서	눈(目)이라는 뜻과 光(광)이라는 음이 만나 장님이 눈을 뽀했다는 글자가 됨								
	<div>학습 내용 추론</div> <p>(수업 소개) 교사는 학생들이 회의와 형성의 원리를 이용해 창의적인 한자를 만들고 같은 반 학생들과 공유할 예정임을 공지한다.</p> <p>(가정) 학생들은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한자의 뜻 혹은 음을 생각하고 정리한다.</p> <div>개별 학습 - 소그룹 활동</div> <p>(사실) 학생들은 부여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한자를 자기 주도적으로 한자 사전이나 전자사전,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조사한다.</p> <p>(학습할 내용) 회의자는 이미 만들어진 한자의 뜻과 뜻을 조합해서 만들어야 하고, 형성자는 이미 만들어진 한자의 뜻과 음을 조합해 만들어야함을 정확하게 알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한자를 만든다.</p>	25'							
배움 정리	<div>결과물 발표·평가</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별적으로 만든 문자를 공유하고 학생의 개성과 창의성이 잘 표현되었다고 생각되는 결과물에 대해 스티커를 붙여 주어 칭찬하도록 한다.(자기 평가, 동료평가)</li> </ul>	10'							

〈표 7〉은 ‘한자’ 영역을 대상으로 PBL을 수행한 후, 수업활동 모습과 학생 결과물, 학생 소감, 그리고 수업을 실시한 교사의 수업 성찰이 담겨 있는 수업 일지이다. 〈표 8〉은 학생들이 만든 창의 한자이다.

〈표 7〉 ‘한자’ 영역 수업 일지

수업일지																				
대상	2-0, 00명	일시	2015년 0월 0일 0요일 0교시																	
수업 활동 모습	<div></div>																			
결과물	<div><div><table><tr><td>훈(음)</td><td>사랑할 것</td></tr><tr><td>비유</td><td>(로맨스 소설처럼) 사랑의 시작, 사랑의 이유</td></tr></table></div><div><table><tr><td>훈(음)</td><td>적(敵)을 향해</td></tr><tr><td>비유</td><td>(로맨스 소설처럼) 적(敵)을 향해</td></tr></table></div><div><table><tr><td>훈(음)</td><td>지극히 높음</td></tr><tr><td>비유</td><td>(로맨스 소설처럼) 지극히 높음</td></tr></table></div><div><table><tr><td>훈(음)</td><td>귀문</td></tr><tr><td>비유</td><td>(로맨스 소설처럼) 귀문</td></tr></table></div></div>				훈(음)	사랑할 것	비유	(로맨스 소설처럼) 사랑의 시작, 사랑의 이유	훈(음)	적(敵)을 향해	비유	(로맨스 소설처럼) 적(敵)을 향해	훈(음)	지극히 높음	비유	(로맨스 소설처럼) 지극히 높음	훈(음)	귀문	비유	(로맨스 소설처럼) 귀문
	훈(음)	사랑할 것																		
	비유	(로맨스 소설처럼) 사랑의 시작, 사랑의 이유																		
	훈(음)	적(敵)을 향해																		
비유	(로맨스 소설처럼) 적(敵)을 향해																			
훈(음)	지극히 높음																			
비유	(로맨스 소설처럼) 지극히 높음																			
훈(음)	귀문																			
비유	(로맨스 소설처럼) 귀문																			
<table><tr><td>我</td><td>我</td><td>多</td><td>心</td></tr><tr><td>(불에) 데이다(아)</td><td>부유하다(생)</td><td>잔소리(잔)</td><td>혹심(혹)</td></tr><tr><td>뜻+음 𠂇(불) + 我</td><td>뜻+음 貝(재물)+生(생)</td><td>뜻+뜻 言(말)+多(많다)</td><td>뜻+뜻 玄(검다)+心(마음)</td></tr></table>				我	我	多	心	(불에) 데이다(아)	부유하다(생)	잔소리(잔)	혹심(혹)	뜻+음 𠂇(불) + 我	뜻+음 貝(재물)+生(생)	뜻+뜻 言(말)+多(많다)	뜻+뜻 玄(검다)+心(마음)					
我	我	多	心																	
(불에) 데이다(아)	부유하다(생)	잔소리(잔)	혹심(혹)																	
뜻+음 𠂇(불) + 我	뜻+음 貝(재물)+生(생)	뜻+뜻 言(말)+多(많다)	뜻+뜻 玄(검다)+心(마음)																	

학생 목소리	<p>그 동안 상형자, 형성자, 회의자, 지사자 등 이론으로만 배워왔던 한자의 제자원리를 직접 적용하여 창의적으로 나만의 글자를 만든다는 것이 흥미로웠다. 처음에는 상식으로 알고 있던 한자가 부족해 회의자, 형성자를 만들기 어렵기도 했지만, 한자 교과서와 사전을 찾아보며 내가 표현하고 싶은 한자를 만들 수 있게 되어 만든 뒤에 뿌듯함도 느꼈다. 다른 친구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한자까지 함께 공유하는 재미도 있어 즐겁고 유익한 수업이었다.</p>	
수업 성찰	장점	한자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보다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다. 특히, 회의자를 만드는 것이 형성자를 만드는 것보다 쉬웠는지 제출된 문자수가 월등히 많았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문자를 표현해내었다.
	단점	회의자와 형성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 만들어진 기본 한자를 많이 알고 있을수록 유리한데, 사전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은 조금 어려워하였다.
	보완할 점	학생들에게 한자 사전, 전자사전, 인터넷 등을 이용해 필요한 한자 조사 시간을 좀 더 넉넉하게 제공해서, 보다 창의적인 한자를 만들 수 있는 수업 환경을 조성해주어야겠다.

〈표 8〉 ‘창의 한자’ 학생 수행 작품

𡵓	宀	男 <sub>心</sub> 女	𡵓	侈
잠재하다(재)	소름끼치다(소)	썸타다(썸)	(문)에 끼어죽다(사)	봄비다(봄)
금이 아직 캐지지 않고 흙 안에 묻혀 있듯이. 재능이 아직 발굴되지 않았다.	집안에 귀신과 사람이 함께 산다고 하니 소름이 끼치다.	남자와 여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까워지고 있어서	문이라는 뜻과 사라는 음이 만나 문에 끼어 죽을 사가 만들어짐	사람이 많아 봄비다...라는 뜻이 만들어짐
𡵓	𡵓	𡵓	𡵓	𡵓
희망있다(희)	결혼하다(혼)	위태롭다(위)	쓰다듬다(다)	눈부시다(팡)
재앙이 있어도 그 위에는 해가 있다는 뜻으로 희망이 있다는 뜻이 되었다.	문 앞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서 있는 모습을 통해 결혼할 때 남자가 부모님께 허락받는다는 의미로 만들었다.	모래로 만든 집이라 언제 무너질지 몰라 위태롭다.	하는 행동이 기록하여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는다는 뜻이다.	해가 세 개나 있어 빛이 너무 강해서 눈이 부시다는 뜻의 글자가 되었다.
𡵓	𡵓	𡵓	𡵓	𡵓
매정하다(매)	신발(국)	햇불(목)	중요하다(수)	땀다(땀)
심장이 없는 것처럼 정이 없고 쌀쌀하다는 뜻이다.	발을 감싸는 것은 신발이기 때문이다.	나무막대기 위에 불이 붙여진 것은 햇불이고 소리는 木에서 빌려 왔다.	사람의 몸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것이 물이므로 물은 중요하다라는 뜻이고 소리는 水에서 빌려 왔다.	입에 불이 난 것처럼 땀다.

### 3. 敎授·學習 事例2: ‘語彙’ 領域

다음으로 한문과 교육과정의 ‘語彙’ 영역 가운데 成語를 대상으로 한 PBL 교수·학습 사례이다. ‘Ⅱ. 성어로 세상 보기’ 단원에 나온 성어 가운데 고사성어를 대상으로 하여 관련 유래를 가지고 있는 성어는 성어의 겉 뜻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성어가 가지고 있는 故事와 관련 속뜻을 함께 알아야 한다는 것을 학습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학생들이 국립국어원 학예사가 되었다는 상황을 설정하고, 옛일을 배경으로 하는 고사성어가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현재를 배경으로 한 성어를 새롭게 구성하는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것으로 문제 상황을 개발하였다. 하지만 과연 이 문제가 PBL의 ‘문제’에 적합한 ‘문제’일까 하는 고민은 여전하다.

이처럼 성어 학습은 PBL의 ‘문제’에 적합한 문제 상황을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성어뿐만 아니라 ‘독해’ 영역도 그러하다. 한문과의 기본 목표인 ‘한문독해능력 신장’을 실제적인 상황으로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 ‘한문학과 신입생인 여러분은 입학 전 O.T 기간에 며칠 동안 서당에 들어가 『大學』을 배우게 되었고, 학우들과 돌아가면서 성독하고 문장을 풀이해야 한다.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 정도가 될 것이다. 타 교과에 비해 한문과는 PBL에 맞는 문제 상황을 개발하는 데에 隘路 事項이 많기에, 여러 명의 한문 교사가 머리를 맞대고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표 9〉 ‘어휘’ 영역 PBL 교수·학습 과정안

대단원명	Ⅱ. 성어로 세상 보기	지도교사	○○○
		장소	도서관
소단원명	5. 백아, 거문고 줄을 끊다.	차시	3, 4차시(100분)
		대상	2-□
학습 목표	■ 성어의 유래를 알고 속뜻을 말할 수 있다.		
수업모형·형태	■ 문제중심학습	PBL	사고력 훈련 - 창의력
학습 자료	교과서, 자전	훈련기능-내용	의사소통 훈련 - 시각
학습단계	활동내용		
전시 학습 확인	· 성어는 유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관련해 속뜻이 있음을 배웠으므로 성어 학습을 할 때는 단순히 겉 뜻만 아는 데 그치지 말고, 그 고사의 내력이나 고문헌에서 유래된 속뜻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시간



배 아 리 기	동기 유발	· 가상의 이야기를 만들고 거기에서 유래된 한자 성어를 창의적으로 만들어 보면서 성어의 특징을 이해하고 속뜻을 알고 언어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5'																							
	목표 제시	· 성어의 유래를 알고 속뜻을 말할 수 있다.																								
배 아 리 기	문제 제시	<div><p>여러분은 한 나라의 국어를 연구하고 사전을 편찬하는 국립국어원의 학예사입니다. 이번에 주어진 과제는 국어사전에 등재할 주제별 성어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성어를 주제별로 정리한 후, 주제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난 후, 여러분이 만든 주제문을 가장 잘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는 창의 한자 성어를 만들어 봅시다.</p><div><p>望雲之情</p><p>輾轉反側      伯牙絕絃</p><p>燈火可親      韋編三絕      昏定晨省</p><p>寤寐不忘      管鮑之交</p></div><table><tr><td rowspan="2">해당 성어</td><td>表裏不同(표리부동)</td><td></td><td></td><td></td><td></td></tr><tr><td>口蜜腹劍(구밀복검)</td><td></td><td></td><td></td><td></td></tr><tr><td>주제</td><td>겉과 속이 다름</td><td>효도</td><td>우정</td><td>그리움</td><td>학문에 힘쓰</td></tr><tr><td>주제문</td><td colspan="5">선생님 앞에선 Good Girl, 친구들에겐 Bad Girl.</td></tr></table></div>	해당 성어	表裏不同(표리부동)					口蜜腹劍(구밀복검)					주제	겉과 속이 다름	효도	우정	그리움	학문에 힘쓰	주제문	선생님 앞에선 Good Girl, 친구들에겐 Bad Girl.					10'
	해당 성어	表裏不同(표리부동)																								
		口蜜腹劍(구밀복검)																								
	주제	겉과 속이 다름	효도	우정	그리움	학문에 힘쓰																				
주제문	선생님 앞에선 Good Girl, 친구들에겐 Bad Girl.																									
학습 내용 추론	(수업 소개) 교사는 모둠별로 창의 한자 성어를 만들고, 관련 유래를 네 컷 만화로 표현하여 다른 학생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창의 한자 성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설명한다. 물론 제시된 주제 외에도 모둠별로 표현하고 싶은 주제를 정해도 무방하다.					25'																				
개별 학습 - 소그룹 활동	(가정) 주어진 문제에 대해 모둠별로 협의 및 역할 분담을 한다. (사실) 창의 한자 성어를 만들기 위해 가상의 이야기(유래)를 만들고, 관련 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한자를 한자 사전, 인터넷 등을 활용해 조사·정리한다. (학습할 내용) 학습 자료를 종합하고 그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여 모둠별 과제물을 정리하고 체계화한다. 유래와 창의 한자 성어를 한글로 작성하고, 네 컷의 만화로 유래를 표현한 후에 작업한 출력물에 붙인다.																									
배 아 리 기	결과물 발표· 평가	· 모둠별로 돌아가며 대표적인 창의 한자 성어를 1개씩 발표한다. 모둠은 자기평가, 구성원간의 평가를 한다. 교사는 관찰 평가를 하고, 다음 문제해결 과제수행에 반영한다.					10'																			

〈표 10〉 ‘어휘’ 영역 수업 일지

[illegible]

결과물	창의 한자성어	借物我不宿 (차물아불숙)
	내가 만든 유래	직장에 다니던 박OO 씨는 그의 친구에게 좋은 아이টে를 추천받아 회사를 그만두고 아내 몰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팔천만원을 사채로 빌렸다.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사실 그 아이টে는 이윤이 별로 없고 너무 흔해서 쏙딱 망했다. 그래서 그는 팔천만원 빌린 것에 또 오천만원의 빚이 생기게 되었다. 그의 아내는 아직 그 사정을 모르나 사채업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의 목숨까지 빼앗을 거라고 협박하며 매일 밤 그의 집 문을 두들겨서 그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주제	걱정으로 잠을 못 자다.
	주제문	빌린 돈은 나를 잠 못 자게 한다.
학생 목소리	평소에 지금 쓰는 고사성어가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했고, 그 유래가 무엇인지 등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 활동을 통해 옛 사람들이 어떠한 내용을 표현하고 싶었는지와 많은 한자 중에서 어느 한자를 써야하는지 등의 고민을 했었겠구나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또 재미있는 유래를 통해 성어를 만든다는 점이 창의성을 자극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주제로 한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수업 성찰	장점	성어의 겉뜻뿐만이 아니라, 유래를 통해 그 속 뜻을 알아야함을 확실히 알려주었다. 3~5자 정도로 가상의 이야기(유래)를 함축하여 표현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옛 성현들의 지혜로움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단점	학생들이 글자 수에 얽매이다보니 다양한 유래를 만드는 데 한계를 보였다. 또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한자를 찾고 조합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보완할 점	학생들이 먼저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유래)를 만들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한자를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로 제한하여 평소 보지도 못한 어려운 한자를 찾아 쓰지 않도록 해야겠다. 오히려 생소한 한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그리게 되면서 한문학습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는 것 같았다.

〈표 11〉 한자 성어 예시

창의 한자 성어	유 래	주제문
餓死危機 (아사위기)	점심시간 전에 매우 배고파서 한 학생이 죽을 뻔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배고픈 것만큼 위급한 상황은 없다.
慈愛慈冊 (자애자책)	한 책을 여러 번 읽어서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책을 자주 봐서 애인을 매일 보고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이다.	애인을 사랑하듯 책을 사랑하라.
授業中起 (수업중기)	내가 수업시간에 자면서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종소리가 울려서 수업이 끝난 줄 알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수업이 끝나지 않았었다. 몹시 창피해서 다음부터는 수업시간에 자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지 말고 공부합시다.
時不待汝 (시부대여)	지나친 학습과 공부로 인해 수업시간 졸음을 참지 못하고 아주 짧은 시간동안 잠이 들어버린 학생이 있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을 땐 이미 수업 진도는 많이 나가 있었고, 시간을 잃어버림과 동시에 진도가 뒤쳐져버린 학생은 흘러가버린 시간을 원망하였다.	시간은 네가 공부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지 않는다.
可見可行 (가견가행)	비를 맞으며 채소를 팔던 길거리 할머니에게 한 아이가 우산을 씌워주었다. 이전엔 아무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사람은 없었다.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한 것을 아이 혼자서 실천하였다.	보기에 옳은 것은 행동하기에도 옳다.
不捨必成 (불사필성)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보고 자극 받은 학생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많이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목표를 이루었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뭐든 이룰 수 있다.

#### IV. 맺으며

이상으로 한문과에서의 PBL 연구 성과와 PBL과 한문과 교육과정과의 관련성, 그리고 PBL을 적용한 고등학교 한문 수업 사례를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타 교과의 PBL 관련 연구 성과에 비해 한문과에서의 PBL 연구 성과는 매우 적지만,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하는 2015 한문과 교육과정이 교과 수업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 창의·융합 사고 능력, 정보처리 능력 등을 기르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PBL을 적용한 한문과 수업은 앞으로 많은 연구와 실천 사례가 축적되어야 함이 분명하다.

PBL을 적용한 고등학교 한문 수업 사례는 아직 실제 수업에서 진행 중에 있다. 학기 중의 모든 수업에 PBL을 적용하여 진행할 수는 없다. 물론, 그럴 필요도 없다.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능숙하게 갖춘 후, 어떤 글감이나 주제는 강의식이나 토의·토론 학습법으로, 또 다른 글감이나 주제는 역할놀이 학습법이나 PBL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학습자 스스로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학습자가 1시간의 수업을 통해 아무리 작은 내용이라도 수업을 듣기 전에 비해 얻은 것이 있고, 지식이든 태도이든 변화된 것이 있다면, 그 수업은 충분한 의의가 있다. ‘들어가며’에도 나와 있듯이 학습 효율성은 ‘강의 듣기’가 5%이고, ‘실제 해보기’가 75%이다. 한문과 수업의 나아가야 할 길은 학생이 수업을 통해 배움을 경험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실제 해보기’ 교수·학습 방법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장 교사들이 安住하지 않고 ‘學師’가 되어 주길 기대한다.<sup>17)</sup>

이 발표문을 학회에 투고하게 되는 시점에는 준비된 교수·학습 설계안이 수업 시간에 모두 실행되고, 학습자의 수행 양상 수집도 완료될 것이다. 따라서 논문을 투고하게 될 때에는 ‘결론 및 제언’ 부분이 보다 풍성해지리라 예상하면서, 2015 한문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 개발을 염두에 두고 ‘한문과에서의 문제중심학습법’을 정리하는 것으로 이 발표문의 결론을 삼고자 한다.

## 1. 문제중심학습법의 정의

문제중심학습(Problem Based Learning)은 학습자들에게 실제적인 문제가 발생한 상황을 제시하고, 학습자는 개별 학습과 협동 학습을 통해 공통의 해결안을

17) 學師: ‘배우는 교사(stucher)’라는 의미로, 새롭게 創案한 용어이다. 「漢文 教科의 教授學的 內容 知識 開發을 위한 中學校 漢文 授業 理解」(백광호, 『청람어문교육』 제38집, 2008)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59면. 참조. ‘學師’는 學生과 教師를 합친 용어이다. 외국에서 들어온 표현인 ‘교사 연구자(Teacher as a researcher)’에 사용된 ‘researcher’는 실천을 보다 중요시하는 현장의 교사들에겐 뭔가 모를 거부감이 있어, 발표자가 생각해 낸 신조어이다. ‘saladent(샐러던트)’라는 신조어처럼 ‘stucher(스투처)’로 표현할 수도 있다. 『두산세계대백과사전』에 따르면, ‘saladent’는 ‘월급 생활자’를 뜻하는 ‘Salaried man’과 ‘학생’을 뜻하는 ‘Student’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로 ‘공부하는 직장인’을 의미한다.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방법이다.

## 2. 문제중심학습법의 절차 및 고려사항

- 1) 초기 활동: 모둠 구성, 친근하면서 허용적인 분위기 조성, 역할 부여
- 2) 문제 제시 및 문제에의 접근: 학습목표와 연관되면서 실제적이며 수업 시간에 다룰 가치가 있는 문제 상황 제시
- 3) 문제에서 요구하는 학습내용 추론: 과제수행계획서(가정, 이미 알고 있는 사실, 더 알아야 할 것, 실천계획) 작성
- 4) 자기주도학습: 실천계획에 따라 개인별·모둠별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
- 5)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지식 적용 및 문제해결계획 반추: 수집한 자료를 종합하고 그에 대해 의견 교환, 주어진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시도
- 6) 문제 해결안 작성 및 발표: 모둠별로 통일된 하나의 결과물 제시 및 발표
- 7) 종합 정리: 교수자의 총평 및 강의

## 3. 문제중심학습법의 유의점

- 1)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개발이다. 이때의 문제는 문제중심학습법에 적합해야 한다.
- 2) 모든 학생이 문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분담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전체를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한다.
- 3)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모둠 내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급우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핵심 역량인 ‘사고 능력, 의사소통 능력, 정보처리 능력, 공동체 의식’ 등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한다.
- 4)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중에 ‘한문독해능력신장’이라는 한문과의 기본 학습 목표를 충분히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 4. 문제 예시

여러분은 한국 최고의 광고 회사인 한국기획에 이제 막 입사한 인턴 직원이다. 국내 잡지의 지면 광고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된 여러분은 이제 막 새로운 광고 기획을 맡은 B팀에 소속되었다. B팀은 이번에 탈모샴푸 회사로부터 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홍보할 지면 광고를 의뢰받았다. B팀은 아이디어 회의를 거쳐서 동아시아의 보편 문자인 한자를 이용하여 지면 광고를 만들기로 하

고, 각자 다음 주까지 새로운 한자를 만들어 와서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B팀 팀장은 아래와 같은 한자를 보여주면서, 각자 개발할 한자는 이처럼 1차적으로 친숙한 한자를 결합하되, 결합한 글자를 보고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쉽게 떠오르면서도 아이디어가 참신한 글자를 개발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여러분은 예전에 고등학교 때 한자의 짜임을 배우면서 기존의 한자를 활용하여 새로운 한자를 만드는 회의 원리나 형성 원리를 배운 경험이 있기에,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한자를 새롭게 개발할 자신이 있다. 어떤 한자를 새롭게 만들 수 있을지 작성해 보자.

#### 5. 교수·학습 과정안 예시

〈표 9〉 참고.

#### 참고문헌

본문 각주로 대체.





# 한문과 ‘배움의 공동체’ 수업의 실천적 모색

— 장곡중학교 한문교과의 사례를 중심으로 —

권 영 미\*

## •目次•

- |                        |                        |
|------------------------|------------------------|
| 1. 머리말                 | 2) 한문과 교육과정 재구성        |
| 2. 학생 중심의 ‘배움의 공동체’ 수업 | 4. 한문과 ‘배움의 공동체’ 수업 사례 |
| 1) 장곡중학교의 수업혁신 과정      | 1) 교과 내 교육과정 재구성 사례    |
| 2) ‘배움의 공동체’ 수업 설계     | 2) 교과 간 통합수업 사례        |
| 3. 한문과 교육과정의 재구성       | 3) 독서수업과 연계한 통합수업 사례   |
| 1) 교육과정 재구성의 필요성       |                        |

## 1. 머리말

敎學相長, 가르치고 배우는 가운데 서로 성장한다는 말이다. 교사는 수업 속에서 학생과 함께 성장해가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수업은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행위로 교사의 교육활동 중 가장 본질적인 영역이다. 모든 교사는 수업을 제대로 잘 하고 싶은 열망이 있다. ‘제대로 된’ 수업에 대한 생각은 각자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수업의 중심에 학생이 있고, 교사와 학생, 학생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의 배움이 삶에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교사는 열심히 교수하지만 학생들이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희박하거나 없음을 느낄 때 교사는 좌절한다. 또한 배움을 거절하는 학생들을 억지로 가르칠 수는 없다는 사실에 교사들은 고통스럽고 교사로서의 존재 이유에 대해 회의하게 된다.

한문교과는 다양한 이유에서 학생들이 배움의 필요성을 깊이 느끼거나, 흥미 있어

\* 장곡중학교

하는 교과가 아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유머나 개성으로, 혹은 흥미 있는 영상물이나 재미있는 게임 등과 같은 ‘스킬’로 수업을 진행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많은 한문교사들은 수업의 방법 ‘어떻게’에 대해 고민한다.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면 아이들이 한문과 한문 수업에 흥미를 느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한문 문장을 잘 풀이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이처럼 교과 내용을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업의 방법과 방식에 대해 고민한다. 즉 학교 현장에서는 ‘What’보다 ‘How’에 집중하고 있으며 교사의 역할은 교과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 또는 ‘잘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이는 서경혜가 좋은 수업에 대해 제시한 전달, 구성, 관계, 결과의 4가지 관점<sup>1)</sup> 중 전달 관점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과서나 교육과정에 명시된 교육 내용을 전달하기만 하는 수업으로는 앞으로의 사회를 살아갈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학교는 실질적으로 배움의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상실<sup>2)</sup>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며 동아시아 교육 패러다임 전반에 나타난 문제로 사토 마나부(佐藤學)는 이를 ‘압축적 근대화와 경쟁’으로 대표되는 동아시아 교육 모델이 실제적으로 한계에 부딪힌 것이라고 보고 있다.<sup>3)</sup> 그는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공부’가 지배해온 교실문화를 ‘배움’을 중심으로 하는 교실문화로의 전환을, 교실을 배움의 공동체로 만드는 일에서 출발하여 학교를 아이들이 서로 배우면서 성장하는 장소로 개혁하기를 주장하였다<sup>4)</sup>

오늘날 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개인 및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자 가치 창출의 근원이 되는 지식 정보화 사회이며 우리 사회는 정보화 및 세계화의 홍수 속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지식은 완성되고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변화하고 새롭게 창조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수집, 처리 및 활용 능력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된다. 이러한 시대가 요구하는

1) 서경혜, 「좋은 수업에 대한 관점과 개념: 교사와 학생 면담 연구」, 『교육과정연구』22-4, 2004, 165쪽.

2) 조용한, 「교실붕괴의 교육인류학적 분석: 학교문화와 청소년 문화의 갈등을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3-2, 2000, 60쪽.

3)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혁신학교에 대한 교육학적 성찰』, 살림터, 2014, 150쪽.

4) 한대동 외, 『배움과 돌봄의 학교공동체』, 학지사, 2009, 112쪽. 사토 마나부는 공부와 배움의 차이를 ‘만남과 대화’의 유무에 있다고 가정한다. ‘배움’이란 대상세계(사물)와의 만남과 대화, 다른 학습자의 인식이나 교사의 인식과의 만남과 대화, 새로운 자기 자신과의 만남과 대화로 특징짓고 있다. 즉, ‘배움’은 세계 만들기과 동료 만들기와 자기 만들기의 3가지 차원에 걸친 대화적 실천에 의해서 수행되며, 이 3가지 대화적 실천이 삼위일체가 되어 ‘의미와 관계를 엮어 가는 연속적인 과정’이 배움이라고 정의한다.(115~116)

인간상은 이해력, 응용력, 문제 해결력, 창의력 등의 고급 사고력을 지닌 인간이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에서, 특히 수업에서는 단순히 교과 내용의 전달에 국한되지 않고 학생들이 사회 변화 및 새로운 지식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이 요구된다. 그 일환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교사들에게 교육내용의 재구성, 학생 참여형 수업, 학습과 성장을 돕는 평가의 실시를 통해 학생들이 미래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요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분절된 교과나 단편적인 지식 중심의 교육에서 삶의 교육, 공동체적 인격 교육, 고등 사고력을 중시하는 교육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필자가 장곡중학교에서 실천한 한문과 교육과정의 재구성과 그에 기반 하여 전개한 ‘배움의 공동체’ 수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학생 중심의 ‘배움의 공동체’ 수업

### 1) 장곡중학교의 수업 혁신 과정

과거 몇 년 동안 교육개혁이 진행되었으나 사회적 합의나 아래로부터의 동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만 키웠으며 그로인해 사교육의 폭발 및 교육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소, 교사의 불필요한 잡무 감소를 위한 행정 인력 지원,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는 민주적인 학교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혁신학교 정책을 2009년 추진하였다.

2009년 장곡중학교 역시 학생들이 배우는 목적과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수업을 거부하고 옆드려 자거나 교사에게 적대감을 표현하는 학생들이 있었으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던 학교였다. 여기에 상처받고 좌절한 교사들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학생도 교사도 행복하지 않은 학교를 바꾸기 위해 혁신학교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2010년 1월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sup>5)</sup>

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장곡중학교는 학교 혁신의 1차 목표를 ‘수업 혁신’에 두고 사

5) 박현숙, 『희망의 학교를 꿈꾸다』, 해냄, 2013, 23쪽.

토 마나부의 ‘배움의 공동체’ 수업을 도입하여 기존의 수업을 바꾸고자 하였다. 교무행정업무전담요원을 충원하여 교사들의 잡무를 대폭 줄이고, 교사들은 수업 준비와 수업 연구 활동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있으며, 학생들은 ‘배움의 공동체’ 수업을 통해 서로 협력하며 학업을 수행하는 즐거운 배움의 과정에서 학습능력이 향상되고 있다. 이런 수업의 변화는 장곡중학교만의 독특한 교육과정을 생산하는 밑거름이 되어 교과 간 통합 수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 2) ‘배움의 공동체’ 수업 설계

장곡중 수업의 형태는 사토 마나부의 ‘배움의 공동체’ 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공부로부터 ‘배움’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수업 활동이 ‘디자인’된다. 이하에서는 사토 마나부의 이론을 정리하여 장곡중학교의 배움 수업의 이론적 기초를 밝히고자 한다.<sup>6)</sup> 사토 마나부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일본의 학교교육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주어진 교과서 내용을 효율적으로 습득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공부 문화에 지배되어 왔다고 한다. 공부는 아무 것과도 만나지 않으며 누구와도 어떤 일에 대해서 대화하지 않고, 좌학(座學)<sup>7)</sup>에 의해 오직 뇌 시냅스의 결합을 도모하는 활동이었다. 이처럼 대상 혹은 경험과의 관련이나 맥락을 잃은 지식은 지식이라기보다 정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정보의 습득으로 정의되는 공부를 학생들의 ‘배움’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매개된 활동’을 조직하는 일이다. 관찰하고 조사하고 실시하고 토의하고 표현하는 구체적인 작업이 수업에 조직되지 않으면 안 된다. 매개된 활동을 조직하는 일은 교실에 배움이 성립하는 첫 번째 요건이다. 교사가 전달하는 대부분의 지식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조직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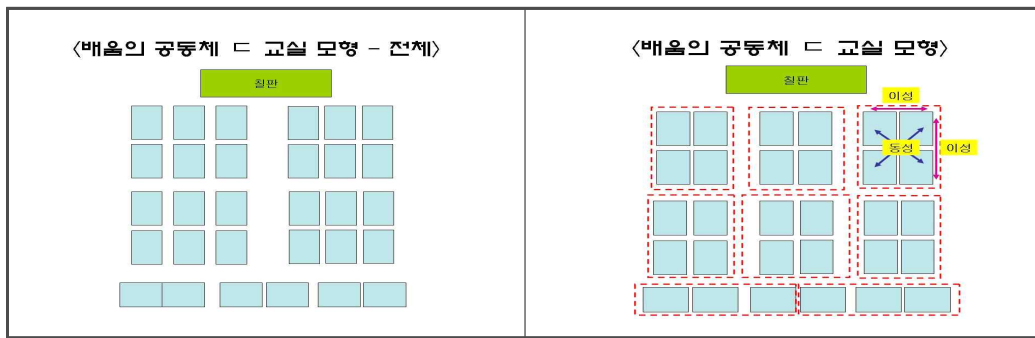
두 번째 과제는 ‘협동(모둠활동)’을 실현하는 일이다. 공부는 개인적 활동이지만 배움은 협동적 활동으로 성립한다. 지금까지 자립해결이나 자학자습을 내건 공부문화에서

6) 이하에서는 사토 마나부의 연구(사토마나부 저 손우정 옮김 『수업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 에듀시티, 2011)를 요약, 정리하였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용된 쪽수는 밝히지 않도록 하겠다.

7) ‘座學’이란 앉아서 하는 학습을 의미하는데, 적당한 번역 용어를 찾을 수 없어 원래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는 누구의 도움도 빌리지 않고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 학습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배움의 문화에서는 타자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아낌없이 제공하여 서로 배우는 ‘호혜적인 배움’이 추구되어야 한다. 배움은 하나하나가 서로 부딪치면서 다시 맞추어 가는 것을 수행하는 ‘협동’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다. 배움의 공동체에서는 협동적인 배움을 실현하기 위해 ‘ㄷ’자 모형으로 교실을 배치한다.<sup>8)</sup>

〈표 1〉 배움의 공동체 ‘ㄷ’모형 교실 배치도



세 번째 과제는 지식이나 기능을 ‘획득’하여 ‘정착’시키는 학습으로부터 ‘표현’하고 ‘공유’하는 학습으로 이행시키는 일이다. 배운 것을 표현하고 친구와 공유함으로써 아이들은 지식이나 기능을 반성적으로 음미하고 확실한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 표현과 공유에 의한 반성적인 사고는 배움의 최대의 추진력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세 가지 과제가 잘 이행되어 수업에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 이때 1단원 단위로 수업을 설계하며 45분 단위로 수업이 완결성을 지니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과서는 참고용일 뿐 교사들은 자신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수업에 필요한 자료들을 별도로 만든다. 그 시작이 〈표 2〉와 같은 교육과정 재구성에 바탕을 두고 교사가 제작한 수업 활동지라고 할 수 있다. 수업 활동지를 제작할 때는 수업이 지식 창조의 과정이 되도록 학생들 간 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수업 활동지 제작에 중점을 둔다.

8) 손우정, 『배움의 공동체』, 해냄, 2012, 80쪽.

〈표 2〉 배움으로의 전환을 위한 활동지 예시

[illegible]

〈표 2〉는 필자가 제작한 ‘회의’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가는 과정 활동지이다. 1과 2의 활동은 교사의 강의식 지식 전달에 의해서 개념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은 개별 활동으로, 2는 모둠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한자가 만들어진 방법을 관찰하고 함께 토의하여 찾아나갈 수 있는 활동으로 조직하고 있다. 또한 3의 활동에서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자신의 말로 정리하고 공유하게 함으로써 회의의 원리를 자신의 배움으로 만들어가게 했다. 마지막으로 4의 회의한자 만들기 활동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배움을 확실한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하였다.

### 3. 한문과 교육과정의 재구성

#### 1) 교육과정 재구성의 필요성

최근 교육과정 재구성이 학교 현장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제6차 교육과정시기부터 시작되어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국가와 지역, 단위 학교가 상호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시되었으며,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단위 학교의 자율권을 보다 강조하였는데 교육과정 의사 결정 분권화의 체제 속에서 단위 학교에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권한을 부여하여 교육의 효율성과 적합성을 제고하고 교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과서 중심 학교 교육’에서 ‘교육과정 중심 학교 교육’으로의 전환을 추구한다. 이때부터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이 강조되었고, 교육의 3주체라 할 수 있는 학생·학부모·교사가 이를 함께 실현하도록 요구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단위학교의 자율을 더욱 더 강조하여 학년군, 교과군, 집중이수제, 국가 교육과정 중 20%를 학교 자율로 증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교육과정 자율화 조치는 국가 교육과정이 지니고 있는 규제적 속성을 완화하고 단위 학교가 자율성을 발휘하여 학교의 특성 및 학교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기반으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다.<sup>9)</sup>

이는 과거와 같은 형식과 방법으로는 국가와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세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과 다양한 사회단체에서는 학교 교육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학교에서도 ‘혁신’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와 실천의 일환으로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교육과정의 재구성이다.

교육과정의 재구성이란 교과서가 교육과정 그 자체라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교과서의 내용을 교사와 학생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재구성이란 단순히 교과서 단원을 재배열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9) 정영근 외,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운영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연구보고 RRC』 2, 교육과정평가원, 2010, 참조.

것이 아니라 새로운 텍스트를 선택하고, 학습 내용을 재배열하고, 다른 학년의 내용과 비교하여 학습 내용의 심화 수준의 깊이를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등 교과서를 뛰어넘는 과정을 요구한다.<sup>10)</sup>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하는 것은 다음의 몇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교육의 다양성 측면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이 필요하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수준, 우리나라의 여건, 교육 동향 등을 반영하여 탄생한 것이다. 이러한 표준화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개발되지만 이는 표준화된 것이지만 개별 학교에 딱 맞는 맞춤형 도구가 아니다. 더구나 동일한 목표, 방법, 평가를 통해 동일한 능력을 강요하는 것은 창의성이 강조되는 21세기의 패러다임과 교육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시대에 역행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이 비 개성화 교육이라는 비판을 종종 받는 근본적인 이유를 학생 개개인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중앙집권적 교육과정에서 유래한다고 말하기도 한다.<sup>11)</sup> 교육과정은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교과 교육과정 운영을 본다면, 교사는 주어진 교과 교육과정을 학교 현장에 맞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교사는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교육 내용과 수준이 적절한가를 판단하여 그것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교재를 편찬, 사용할 수도 있다. 즉 교과서를 유일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가르치려 하기 보다는 교과서를 하나의 학습 자료로 보고 교과서 이외에도 다양한 교육 자료와 교구를 활용하여 교수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교육과정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둘째, 통합적 사고력과 협력 능력을 키우기 위해 교육과정 재구성이 필요하다. 교육과정 재구성은 교과 간 서로 중복되는 학습내용을 줄여주므로 학생의 수업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분절된 개별 교과 중심의 수업이나 단편 지식 중심의 교육을 넘어서 체험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삶의 능력, 통합적이고 창의적인 고등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장곡중학교와 같은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최근에는 수업의 혁신을 모색하면서 수업의 내용과 진행도 달라지고 있다. 이는 각 교과가 분절된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던 방식에서 교과통합 프로젝트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10) 박현숙·이경숙, 『어! 교육과정? 아하! 교육과정 재구성!』, 맘에드림, 2014, 18쪽.

11) 김인숙·황윤한, 「주제단원중심 통합교육과정 개발-교육과정 재구성을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13-1, 1998, 14쪽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은 물론 사회를 둘러싼 다양한 가치에 대한 인식과 소통, 참여와 협력 없이는 풀 수 없는 새로운 문제들이다. 그러므로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통합적 성찰,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참여와 협력의 능력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분절화된 교과 지식의 교육과정만이 아니라 미래에 닥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사가 수행해야 할 교수방법으로서 교과간 통합 수업이나 프로젝트 수업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같은 교과 통합 수업을 위해서 교육과정 재구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배움과 삶의 연결 짓기를 바탕으로 한 ‘자기생각 만들기’를 위해 필요하다. 듀이는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갖게 된 자신의 경험을 교육의 장에서 탐구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sup>12)</sup>한다고 하였다. 즉 듀이의 학생의 경험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은 경험 그 자체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전체적인 삶의 조망 속에서 성찰하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성장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업은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이 그 사회에 적응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수업에서 만들어진 능력과 생각으로 학생들은 자신과 사회, 더 나아가 국가와 세계에 기여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속에서 ‘지식’만을 다루고, 암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지식의 가치가 어떠하며, 그것을 현실과 연결 지어 생각하는 사고의 확산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현행 교육과정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학생들의 배움이 지식의 습득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업을 계획해야 한다. 이는 후술할 2015년 4월 13일~17일까지의 세월호 사건 1주년 추모기간에 행한 프로젝트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삶이 현실 사회나 사회적 가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자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사의 입장에서는 교육이 지향하는 목적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학생들의 바람직한 세계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2) 서용선, 『혁신교육 존듀이에게 묻다』, 살림터, 2012, 12쪽

## 2) 한문과 교육과정의 재구성

앞 절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장곡중학교는 2010년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혁신학교 지정 이후 장곡중학교의 한문교과는 ‘배움의 공동체’ 철학에 바탕을 두고 공부로부터 ‘배움’으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을 시도해왔다. 본고에서는 필자가 부임한 2013년 이후 현재까지의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과정 상 선택 교과에 들어가 있는 중학교 한문 교과는 대체적으로 집중이수제로 1개년에서 수업이 이루어진다. 한문 교과서는 단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교과서의 학습량이 매우 많은 편이다. 더욱이 집중이수제가 실시되는 학교에서는 이를 1년 만에 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교과서를 재구성하지 않으면 교과서 앞쪽의 내용만을 수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었다.

그러나 교과 컨설팅을 목적으로 현장의 동료 교사들을 만나보면 아직도 ‘교과서가 교육과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교과서를 마치 성전으로 여기고 교과서 재구성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부터 각 교과의 전문가인 교사들은 자신의 전문성에 기초하여 교과서의 내용 모두를 가르치지 않아도 되며, 불편한 부분은 교과서를 재구성할 것을 요청받고 있었으나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역시 현실이다.

장곡중학교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10년에 이미 혁신학교 지정을 받은 후 교육과정의 재구성에 진력하였다. 먼저 1년의 흐름을 세우는데 교육의 목표를 염두에 두고 상황에 맞게 흐름을 구성하였으며 이 때 교과서만 텍스트라는 생각을 버리고 동료와 함께 수업을 설계하였다. 장곡중학교에는 학년별 교육철학이 있다. 집중이수제로 진행되는 한문과의 경우 2학년에 교과가 개설되어 있다. 2학년의 학년 철학은 배려이며, 학년 전체의 교육활동이 학년철학에 바탕을 두고 진행된다. 교육과정을 재구성은 학년 철학과 연계되어 있으며, 중학교 2학년 학생의 나이 대에 나타나는 특성을 염두에 두고 한문 교과서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장곡중학교 한문교과 교육과정은 한문교과의 교육목표 및 성취기준 도달을 목적으로 하면서 주제별로 크게 나(我) - 우리(가족, 우정) - 사회(전통, 역사) - 공존(자연)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나는 누구인지?’, ‘내가 왜 사

는지?’, ‘어떻게 살아야하는 지?’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하도록 재구성하고 있다. 2015년  
장곡중 한문과 교육과정은 <표 3>과 같다.

〈표 3〉 한문과 연간 지도 계획

1학기	주	단원명	(핵심)성취기준	평가 및 교과통합
3월	1	한자와 한문 이야기	한9212-1~한9212-2	
	2	한문 학습의 필요성	한9212-1~한9212-2	
	3	한자의 부수	한9313	
	4	자전에서 한자 찾기	한9313	자전찾기 수행평가
4월	1	한자의 탄생 상형, 한자 조합하여 일상어 찾기	한9315/한9221-1~ 9221-2	
	2	한자의 탄생, 지사	한9315,	
	3	맹자의 4단을 통해 ‘세월호’사건 돌아보기	한9211-1/한9221-1~ 2	논술형평가1-1, 교과 통합 프로젝트
	4	한자의 진화 회의	한9315	
	5	한자의 진화 형성	한9315	
5월	1	4자 성어 만들기(교과통합 프로젝 트:새로운 세상을 향한 발걸음)		교과통합 프로젝트
	2	我 1. 자존감과 자존심	한9221-1~9221-2	
		我 2. 나의 장점	한9122/9123-1	
	3	我 3. 다시 생각해봐요	한9122/9123-1	
6월	4	我 4. 내게 필요한 덕목	한9122/9123-1	논술형평가2(한자성 어 활용)
	1	我 5. 나는 누구인가	한9211-2/한9212-1	
	2	我 6. 나만의 호를 지어보자(교과 통합 프로젝트)	한9211-2/한9212-1	호짓기(수행평가), 교과통합 프로젝트
	3	가족이 된다는 것은 1	한9122/9123-1/9322 -1~2	
7월	4	가족이 된다는 것은 2	한9122/9322-1~2	
	1	가족이 된다는 것은 3	한9122/9123-1	논술형 평가1-2
	3	학년말 교과통합 프로젝트	한9122 ~ 한9332	꿈·끼 탐색주간 프 로젝트

2학기	주	단원명	(핵심)성취기준	평가 및 교과통합
8월	3	한시의 이해(독서지도사 연계)	한9122/9123-3	독서 연계 통합 프로젝트
	4	한시의 형식	한9124-1~3	
9월	1	한집에서 자식 셋을 낳으니	한9122/9123-3/9125	
	2	가을밤 비는 내리고	한9122/9123-3/9126-3	
	3	우연히 읊다	한9122/9123-3/9125	
	4	한시 감상평 쓰기	한9126-3	논술형 평가1-1
	5	배려 관련 성어 학습 (교과체험의 날)		학년 통합프로젝트
10월	1	友 우정이란	한9323/9322-1~2	
	2	友 벗을 사귀는 방법	한9323/9322-1~2	
	3	友 참되게 사귀는 가치	한9323/한91211-2	논술형 평가1-2
	4	실학용어 수업	한9311-1~3	실학 교과통합 프로젝트
11월	1	선인들의 계산과 풀이	한9122/한9123/한9211-2	실학 교과통합 프로젝트
	2	선인들의 계산과 풀이	한9122/한9123/한9211-2	실학 교과통합 프로젝트
	3	傳統 세시 풍속의 멋	한9122/한9211-1~2	논술형평가2 문자도 만들기
	4	傳統 육십갑자 이야기	한9122/한9211-1~2	
12월	1	共存 숲에 서면 사람도 나무일 뿐	한9113/9123-1	
	2	共存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한9111/9322-1~2	
	3	독도 이야기	한9122/9123-1	학년 프로젝트 연계
	4	역사 앞에서	한9122/한9123/9322-1~2	
	5	학년말 교과 통합 프로젝트	한9122 ~ 한9332	꿈·끼 탐색주간 프로젝트

또한 성취기준에 제대로 도달하기 위해서라도 교육과정 재구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교과서는 단원을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취기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교수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한9221-1 언어생활에 사용된 한자 어휘의 뜻을 말할 수 있다’와 ‘한9221-2 한자 어휘를 뜻에 맞게 언어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와 같은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단위마다 ‘단어의 활용’을 제시한다. 이는 한자어를 포함시킨 문장 학습을 통해 성취기준을 도달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문장 속 한자어를 풀이하면서 학생들이 한자 어휘의 뜻을 알고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필자의 경험으로는 요즘의 학생들은 수동적인 방법을 통한 학습보다는 자기들이 직접 참여하는 능동적인 학습 방법에 더 익숙하고 흥미를 느낀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 수업은 학생들의 능동성을 살리기보다는 여전히 강의식의 전통적인 수업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한문 수업은 지루하고 따분한 수업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그렇다면 이 성취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어떻게 수업을 설계해야 할 것인가? 국어사전, 자전 등의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 관찰하고 조사하고 토의하도록 수업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모둠별로 수업을 조직하고, 수업의 순서를 바꾸어 아이들이 매 과에서 제시된 한자를 이용해 한자를 조합하는 활동을 통해서 언어생활에 활용되는 어휘를 찾아보게 한다. 그리고 찾은 어휘들이 한자어인지 아닌지를 국어사전을 통해 확인하게 한 후 자전을 활용하여 정리하게 한다. 그때 한자어의 새로운 의미까지 정리하도록 하면 학습의 효율을 보다 높일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경험이다. 이러한 수업의 설계를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동음이의어에 대해 학습하게 되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방식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우리말 중 한자어가 70% 이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게 되면서 한문 학습의 필요성도 저절로 깨닫게 되어 “한문 왜 해요”와 같은 질문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 4. 한문과 ‘배움의 공동체’ 수업 사례

### 1) 교과 내 교육과정 재구성 사례

#### ① 주제별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 사례

인지적 영역의 성취기준은 교과서나 보완 텍스트 정도만으로 도달할 수 있으나 정의적인 영역은 교과서나 보완 텍스트만으로는 도달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 교사는 교과서나 보완 텍스트만으로 할 수 없는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 과제와 과제 수행을 위

한 여러 단계의 활동을 제시하고, 일정기간 동안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체험을 통해 성취기준을 도달할 수 있도록 기획한다. 한문과 문화영역의 한9211-1의 성취기준은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다’이다. 또한 장곡중학교 2학년 학년 철학이 배려이다. 배려는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을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자존감이 높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타인도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알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한문교과 교육과정을 나-우리-사회-공존의 주제로 정하여 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존중을 시작으로 타인, 사회, 국가, 세계, 더 나아가 자연과도 공존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다. ‘나(我)’를 주제로 설계한 ‘나 사랑 프로젝트’ 진행 순서는 <표 4>와 같다.

<표 4> ‘나 사랑 프로젝트’ 진행 순서

주제	나 사랑 프로젝트
교과 학습내용	1차시: 我1, 自尊心과 自尊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존감과 자존심의 한자를 자전을 이용해서 찾고 난 후 모둠별로 두 단어의 차이점을 국어사전을 활용하여 확인하기</li> <li>- 吾唯知足에서 足의 여러 의미를 자전을 활용하여 찾아 문장을 풀이해보고 함께 공유하기</li> <li>- 吾唯知足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를 모둠별로 의논한 후 학급 전체가 공유하기</li> </ul>
	2차시: 我2, 나의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문 문장 풀이하기 및 속뜻이 무엇인지 모둠별로 이야기 나눈 후 공유하기</li> <li>- 맥스루케이도의 ‘너는 특별하단다’를 듣고 주제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기</li> <li>- 내가 가진 나의 장점 적기</li> <li>- 나의 장점 덕목 한자로 표현하기</li> </ul>
	3차시: 我3, 다시 생각해봐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시된 대화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자신의 생각 정리하기</li> <li>- 나의 단점을 적고 그것을 장점으로 바꾸어 표현해보기</li> <li>- 학급 전체가 공유하면서 자신의 것 수정해보기</li> <li>- 덕목 한자로 표현하기</li> </ul>
	4차시: 我4, 내게 필요한 덕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란 뜻을 가진 한자를 제시, 한자들의 음과 뜻을 찾아 공통점을 알아내기</li> <li>- 한자성어 大器晚成을 모둠별로 풀이하고 공유하기</li> <li>- 덕목 한자에서 나에게 필요한 덕목 한자 고르고 이유 적어보기</li> </ul>

교과 학습내용	5차시: 我5, 나는 누구인가 - 나의 이름 한자로 쓰기 - 나의 이름을 왜 그렇게 지어주셨는지 적어보기 -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생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보기 - 내가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한자 고르고 이유 적어보기
	6차시: 호 짓기 수업 - 역사 속 등장인물들의 여러 가지 이름 알아보기 - 옛 사람들의 호 살펴보기 - 호 짓는 법과 순서 알기
	7차시: 호 짓기 수행평가
교과 통합 프로젝트	<b>* 호 도장 만들어 고지도에 낙관으로 사용하기 *</b> : 호 도장으로 2학년 교과통합 프로젝트 ‘흙 속의 낯선 기억을 찾아서’에서의 고지도에 낙관으로 사용하기 - 한문과에서 호짓기 수업 후 미술과에서 호 도장(전각) 만들기 - ‘흙 속의 낯선 기억을 찾아서’의 결과물 고지도에 호 도장을 낙관으로 찍어서 작품 완성하기

## ② 삶과 배움의 ‘연결짓기’를 통한 자기 생각 만들기 수업 사례

한문교과에서 ‘자기 생각 만들기’는 무엇일까? 문장을 읽고 풀이하거나, 고사성어의 유래와 의미를 알아보는 활동이 주를 이루는 텍스트 풀이 중심의 현장 수업을 ‘자기생각 만들기’라고 할 수는 없다. 텍스트 이해에서 한걸음 나아가 텍스트를 통해 현재 삶과의 ‘연결짓기’가 이루어져야한다. 텍스트를 활용하여 ‘왜?, 지금의 나는?, 나라면 어떻게 할까?’ 등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현재의 나를 성찰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교사는 자신의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변형하고 새롭게 창조하면서 수업설계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지도대상인 학생들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미리 활동지를 제작하는 것은 무리이며 학생들 간에 대화를 만들어 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한 단원 단위로 그때 그때 활동지를 제작하는 것이 좋다. 또한 활동지 수업이 교사의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바로 수업 설계를 조정하여 활동지를 수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래의 <표 5>, <표 6>의 자료가 그 예이다. <표 5>의 ‘2번 다음 글을 읽고 주제를 말해봅시다’에서 학생들이 주제를 찾는 것을 어려워해서 3번과 연결하고자 했던 교사의 의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필자는 동료교사와 논의하여 <표 6>처럼 2번과 3번의 순서를

바꾸어 학생들이 텍스트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현재의 삶과 ‘연결 짓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지를 수정하였다. 이와 같이 활동지를 수정하고 수업을 진행하자 학생들은 모둠간의 의견 나누기를 활발하게 전개하였으며, 전체 공유 과정에서도 학생들 간에 다양한 토론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깊이 있는 공유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표 5〉 ‘자기 생각 만들기’ 활동지 예시(수정전) 〈표 6〉 ‘자기 생각 만들기’ 활동지 예시(수정후)

개별&모듬활동지 17

2학년 반    번 이름:    (    )모듬

1. 나만의 학습목표

①  
②

2. 다음 글을 읽고, 주제를 말해 봅시다.

전날과 평일이 여러 신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술자리가 무르익었을 때, 평일이 문득 한숨을 쉬며 탄식하듯 말하였다.

“왕궁이 되었다고 해서 특별히 어질다 할 즐거움이 있는 건 아니네. 다만 무슨 소리를 하든지 그 말을 거역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좋구나.”

장님 역시 사람이 앞에서 왕궁을 모시고 앉아 있다가 거문고를 반박 불어 평일을 짜르려고 했다. 평일이 웃음을 잡고 금히 피하지 거문고가 벽에 부딪혀 부서졌다.

평일이 말하였다. “너는 누구를 짜르려고 했느냐?”

사람이 말하였다. “왕궁 소인배들이나 하는 웃은 말을 하는 자가 얹어 있기에, 그를 짜르려고 한 것입니다.”

평일이 말하였다. “내가 그 말을 하였다.”

사람이 말하였다. “아아—그런 말은 임금으로서 하실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신하들이 흥피 난 벽을 고치기를 청하자 평일이 말하였다.

“그대로 두어라. 나의 고충으로 삼겠다.”

주제: \_\_\_\_\_

3. 良藥은 瘡口而利於病이요 忠言은 逆於耳而利於行이다.

良(    )	藥(藥)	瘡(    )	利(利)
瘡(    )	藥(    )	利(    )	行(    )
病(    )	忠(    )	逆(    )	行(    )
[중]			
[말]			

良藥 瘡口而利於病 忠言 逆於耳而利於行

모듬 불이 : (독음:    )

비문 불이 :

개별&모듬활동지 17

2학년 반    번 이름:    (    )모듬

1. 나만의 학습목표

①  
②

2. 良藥은 瘡口而利於病이요 忠言은 逆於耳而利於行이다.

良(    )	藥(藥)	瘡(    )	利(利)
瘡(    )	藥(    )	利(    )	行(    )
病(    )	忠(    )	逆(    )	行(    )
[중]			
[말]			

良藥 瘡口而利於病 忠言 逆於耳而利於行

모듬 불이 : (독음:    )

비문 불이 :   

3. 다음 글을 읽고, 모듬문장과 주제를 해결해봅시다.

전날과 평일이 여러 신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술자리가 무르익었을 때, 평일이 문득 한숨을 쉬며 탄식하듯 말하였다.

“왕궁이 되었다고 해서 특별히 어질다 할 즐거움이 있는 건 아니네. 다만 무슨 소리를 하든지 그 말을 거역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좋구나.”

장님 역시 사람이 앞에서 왕궁을 모시고 앉아 있다가 거문고를 반박 불어 평일을 짜르려고 했다. 평일이 웃음을 잡고 금히 피하지 거문고가 벽에 부딪혀 부서졌다.

평일이 말하였다. “너는 누구를 짜르려고 했느냐?”

사람이 말하였다. “왕궁 소인배들이나 하는 웃은 말을 하는 자가 얹어 있기에, 그를 짜르려고 한 것입니다.”

평일이 말하였다. “내가 그 말을 하였다.”

사람이 말하였다. “아아—그런 말은 임금으로서 하실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신하들이 흥피 난 벽을 고치기를 청하자 평일이 말하였다.

“그대로 두어라. 나의 고충으로 삼겠다.”

① 위 글에서 忠言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밑줄을 그으시오

② 사람은 평이한 .....하는 덕목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③ 이 글의 주제는 .....이다

④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자세’는 무엇인지 모듬별로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이와 같은 수업 설계와 수업 방식의 변경을 통해 ‘나 사랑 프로젝트’ 5차시 ‘我- 나는 누구인가’ 수업에서 자신의 이름을 쓰게 하고 왜 나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셨는지 적게 하였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준 후 이를 토대로 자신의 좌우명을 만들어보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성찰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교사가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되는 한자를 학생들에게 제시한 후 학생 각자에게 5개의 한자를 선택하도록 하고, 그중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1개의 한자를 고른 후 이유를 적어보게 하였다. 그리고 이어 모둠활동으로 이유의 글에서 한자어를 한자로 바꾸게 하였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선택한 한자가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가를 전체 학생들과 공유하도록 수업을 진행하였다.

## 2) 교과 간 통합 수업 사례

### ① ‘실학의 시대를 만나다’ 프로젝트(2013~2014년 수업 사례)

2013년 2학년 교과 담당 교사 간 대화 중 국어과 교사가 ‘고전과 시대’라는 단원에 대한 수업의 고충을 말하면서 역사과에 조선 후기 실학에 대해 수업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 역사과에서는 한문으로 된 용어를 설명하는 것에 어려움을 토로하며, 한문과에서 그 용어들을 먼저 설명해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하였다. 이 결과 국어과·역사과·한문과는 교과통합 프로젝트를 구성하였다. 먼저 한문과에서 실학 관련 용어를 교수한 후 역사과에서 실학에 대해 수업하기로 하였고, 다음으로 국어과에서 실학자 박지원이 쓴 『양반전』을 가르치기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문과 교사로서 필자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교과통합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단순히 실학용어를 교수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한문교과의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활동에 대해 고민하였다. 그 결과 이익의 『성호사설』에 나오는 방정식 관련 내용의 한문 산문인 ‘鷄兎算’을 찾아 수학과와 함께 하자고 제안하여 ‘한문+수학 팀티칭’ 수업이 이루어졌고, 이후 과학과와 미술과도 통합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한문과·국어과·역사과·수학과·과학과·미술과의 6개 교과로 구성된 ‘실학의 시대를 만나다’라는 통합프로젝트로 확대되어 한문과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계획은 <표 7>과 같다.

〈표 7〉 교과통합 프로젝트 ‘실학의 시대를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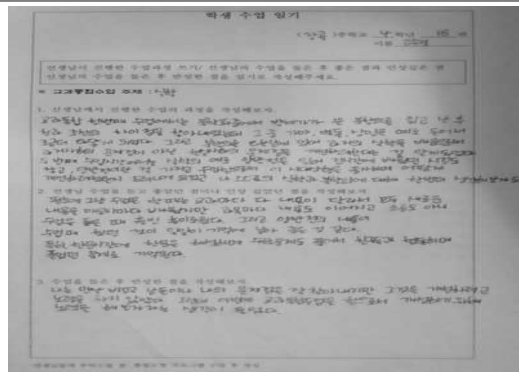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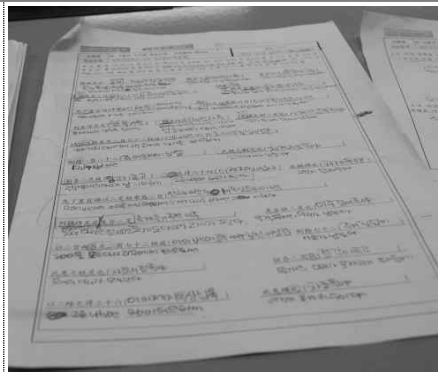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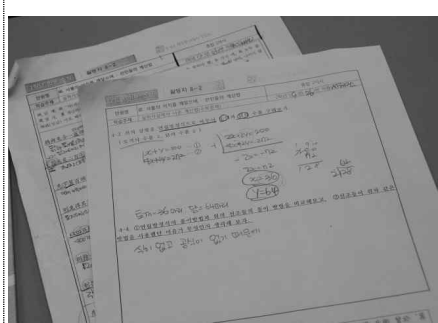
융합 주제	교과	단원 (차시)	학습 주제	수업방법		
				수업목표	방법	평가
실학의 시대를 만나다	(2) 도덕	7. 고전과 그 시대 (1) 북학의 (3차시)	실학에 담긴 개혁 사상 및 정신 총체적 으로 이해하 기	▶ 박제가의 〈북학의〉와 박지원의 〈양반전〉을 감상하고 고전에 담긴 그 시대 지식인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 이 시대의 실학과 나의 삶에 대해 한편의 글을 쓸 수 있다.	모둠 토론	과정 평가 및 수행 평가 에 반영
	(2) 역사	I. 조선 사회의 변동 1. 사회경제적 변동과 사회 개혁론 등장(5차시)		▶ 조선 후기 실학의 등장 배경 및 개혁사상을 이해할 수 있다. ▶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통해 오늘날의 문제를 찾아보고, 개혁안을 작성할 수 있다.		
		역사		▶ 실학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학이 양명학과 고증학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2) 한문 + 수학	III 사물의 이치를 깨달으며 (4차시)		▶ 실학 용어를 사전에서 찾고 형·음·의를 말할 수 있다.		
		한문 + 수학		▶ 鷄兎算의 해석을 통해 그 당시 수학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 현대 수학과 비교를 통해 우리의 수학적 자산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2) 미술	풍속화 감상. 우리 시대 풍속화 제작		▶ 조선후기 풍속화 감상을 통해 그 시대의 생활상 및 변화를 읽을 수 있다. ▶ 이 시대의 풍속화를 그릴 수 있다.		
	(2) 과학	5. 태양계		▶ 홍대용의 천문학에 대한 열정을 본받고 당시 주장했던 이론과 현대 천문학 이론을 비교하며 이해할 수 있다.		

필자가 프로젝트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 프로젝트가 학생들이 한문 학습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느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문 수업 첫 시간에 ‘한문 학습의 필요성’에 대해 수업을 하지만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한글만 알면 되지, 왜 한문을 배워야하느냐?”, “수능에 나오지 않는데 한문 수업을 꼭 해

야 하느냐?” 등의 질문을 수시로 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삶 속에서 한문에 대한 배움의 필요성과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선조들의 문화가 지금 우리 문화의 바탕이 되며, 우리 선조들의 학문도 서양에 못지않게 훌륭하며, 선조의 삶과 전통을 이해하려면 한문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수업을 통해 깨닫게 하고 싶었다. 이러한 고민의 바탕에서 이루어진 이 프로젝트의 사후 평가 과정에서는 <표 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교사의 의도가 구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 학생 수업 일기 및 활동지

(예)  
학생  
수업  
일기

평소에 그냥 수업을 들을 때는 교과마다 다 내용이 달라서 모두 새로운 내용을 매 교시마다 배웠지만 과목마다 내용도 이어지고 흐름도 이어져 수업을 들을 때 훨씬 흥미로웠다. 그리고 양반전의 내용이 일일이 기억에 남아 좋은 것 같다. 특히 한문시간에 한문을 해석하며 수학문제도 풀어서 친구들과 협동하며 풀었던 문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 2학년 4반 ○○○

한편 2014년에는 역사과가 실학 수업을 하기 전에 실학 관련 용어를 수업하는 것은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지만 수학과와 함께 진행했던 鷄戔算 수업은 역사과 실학 수업 이후 한문과에서 정약용의 애절양을 풀이하고 조선 후기의 시대상을 알아보는 수업으로 바뀌어 진행되었다. 작년 2학년 학생들과 한 학기 한문 수업을 하면서 지켜본 학생

들의 학습 능력을 바탕으로 동료교사와 논의 후 문장 수업 보다는 2학기에 진행된 한시 수업에 연계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 ② ‘세월호’ 프로젝트

지난 4월 13일~17일까지가 세월호 사건 1주년 추모기간이었다. 국가적인 아픔인 세월호 사건을 수업으로 다루어야한다는 생각으로 1학년은 416.프로젝트 「기억의 벽을 만들며」, 2학년은 416.304 프로젝트 「노란 리본을 묶으며」, 3학년은 「세월호 문제의 해결을 촉구한다」는 주제로 전학년 ‘세월호’ 교과통합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세월호 1주기(4.16)를 맞이하여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해 공감하거나 비판할 줄 아는 태도를 길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배움과 삶의 연결짓기를 바탕으로 한 ‘자기생각 만들기’ 교육과정을 만들기로 하였다. 모듈별로 이루어진 2학년 세월호 프로젝트 내용은 다음의 <표 9>와 같다.

<표 9> 세월호 프로젝트 ‘노란 리본을 묶으며’



<표 9>의 흐름에 따라 이루어진 이 프로젝트에서 한문교과의 경우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맹자의 四端을 통해 ‘세월호’ 사건에서 보여진 우리사회의 모습을 성찰하도록 하였다. 1학년 도덕 시간에 仁義禮智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 있었으므로 수업을 진행

먼저 사단의 한자를 찾고 한자어 해석을 통해 사단의 뜻을 풀이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세월호’ 사건에서 보여진 우리 사회의 모습을 사단에 비추어 성찰하도록 하였다. 이미 첫 시간인 창체시간에 영상자료나 읽기자료를 통해 ‘세월호’ 관련 사전 통합 수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본차시의 수업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모듈별로 진행된 토론의 결과를 학급 전체가 공유하면서 학생들 각자 자신들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하였다. 이 수업은 논술형 수행평가로 실시해 과정중심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참고로 세월호 프로젝트 한문과 수행평가지와 결과물은 〈표 10〉과 같다.

## 〈한문 논술형 평가〉

다음은 '세월호'를 소재로 쓴 시이다.

비바람 겹쳐내며  
황홀계, 동물이 자아있던 물  
그 물결이 겹쳐나이다.

물 있으면 어떤 열매를 맺을 줄이  
기다란 팔에 하얗게 기다리다  
열매도 맺지 못한 적 겹쳐나이다.

○단시 **살릴 수 있는 물이**  
**우리의 실수로**  
**미안한단 말만 듣고 겹쳐나이다.**

그 물결이 지는 동안  
우울들은 비 맞았다, 내 뜻이었다  
구별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물은  
물이 없게 있습니다.

- 학생 작품 -

이 시의 화자는 '세월호' 사건을 겪어낸 '우리의 실수'로 빗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평자의 <단시(短詩)>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세월호' 사건에서 보여준 우리 사회의 모습을 성찰하고, 우리 사회의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지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단시>에 맞게 서술하시오.

한자적 표현을 쓴, "사건은 드르 다"와 "아비 하지 못하는 마음(無心)"을 가지고 있다. 혹은 지심(慈悲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소오지심(小惡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사할지심(殺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시비지심(是非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사건(事件)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마치 사람이 물이 성체(性體) : 두 팔과 두 다리 즉 사지를 가지고 있는 것과도 같다.

〈단시〉

-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것.
- 자신의 의견을 대항 근거를 제시할 것.
- 제시된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쓰지 않을 것.
- 세월호 사건에서 보여준 우리 사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
- 선택한 단어를 반드시 한자로 쓰고 내용 안에 그 의미를 풀이할 것.

## 〈한문 논술형 평가〉

문자수행평가 2학년 (2. 판) (23. 판) 서문 권세영

시 **세월호**를 소재로 쓴 시이다.

비바람 겹쳐내며  
황홀계, 동물이 자아있던 물  
그 물결이 겹쳐나이다.

물 있으면 어떤 열매를 맺을 줄이  
기다란 팔에 하얗게 기다리다  
열매도 맺지 못한 적 겹쳐나이다.

○단시 **살릴 수 있는 물이**  
**우리의 실수로**  
**미안한단 말만 듣고 겹쳐나이다.**

그 물결이 지는 동안  
우울들은 비 맞았다, 내 뜻이었다  
구별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물은  
물이 없게 있습니다.

- 학생 작품 -

이 시의 화자는 '세월호' 사건을 겪어낸 '우리의 실수'로 빗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평자의 <단시(短詩)>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세월호' 사건에서 보여준 우리 사회의 모습을 성찰하고, 우리 사회의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지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단시>에 맞게 서술하시오.

한자적 표현을 쓴, "사건은 드르 다"와 "아비 하지 못하는 마음(無心)"을 가지고 있다. 혹은 지심(慈悲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소오지심(小惡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사할지심(殺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시비지심(是非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사건(事件)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마치 사람이 물이 성체(性體) : 두 팔과 두 다리 즉 사지를 가지고 있는 것과도 같다.

〈단시〉

-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것.
- 자신의 의견을 대항 근거를 제시할 것.
- 제시된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쓰지 않을 것.
- 세월호 사건에서 보여준 우리 사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
- 선택한 단어를 반드시 한자로 쓰고 내용 안에 그 의미를 풀이할 것.

한문과 수행평가지

수행평가 결과물

교과 재구성을 바탕으로 한 교과 간 통합 수업 사례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홀 속에 담긴 낯선 기억을 찾아서’라는 고고학 프로젝트 수업을 들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역사의 개념을 교수하기 위해 조직된 것이었다.

한문 교과는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참여하였으나 필자는 2013년 본교에 부임하면서부터 참여하였다. 2013년에는 국어교과에서 작성한 가상 설화의 내용에 적합한 한문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학습 목표 아래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2014년에는 국어과에서 작성한 설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 장소, 유물에 적을 글귀 등을 한문으로 변환하는 수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는 교과 재구성을 통해 ‘나 사랑 프로젝트’ 주제 수업의 마지막 활동으로 진행되는 ‘호 짓기 수업’과 연계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호 짓기 수업 전 일단 학생들은 미술과의 도움을 받아서 자연물이 상징하는 의미에 대해 배운 후 한문시간에는 이를 토대로 ‘나사랑 프로젝트’ 과정에서 얻어진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호를 짓도록 하였다. 이어 미술시간에는 자신의 호를 가지고 圖畧를 만들어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고지도 만들기’에 낙관으로 사용된다. 결국 미술과의 통합 수업을 통해 한문 교과의 수업이 좀 더 충실하고 알차게 될 것이며, 호 짓기 수업이 보다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이다.

#### ④ 과학교과와의 통합 수업

이 수업은 과학과 사람의 기관명 수업과 연계한 통합수업이다. 2014년 10월 과학과 제안수업을 참관하였다. 소화기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 수업이었는데 거의 모든 용어가 한자어였다. 心房과 心室을 설명하는데 사실 房과 室의 한자만 알아도 학생들은 신체 구조도를 보면서 쉽게 구별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필자는 과학과에 교과통합 수업을 제안하였다. 과학과에서도 학생들이 신체 각 기관의 명칭에 대해 어려워하고 있으며, 과학과에서도 용어 설명이 어렵다면서 교과통합 수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였다. 그 결과 2015년에는 과학과에서 소화계, 순환계, 배설계, 호흡계 수업을 하기 전 한문과에서 신체 각 기관의 명칭에 대해 한자어 수업을 먼저 진행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학생들은 자신의 삶과 연계될 때 배움에 적극적이다. 이 교과통합 수업 역시 그러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앞에서 살펴본 몇 개의 교과 간 통합 수업에서 다 같이 확인되는 것은 교과 간 통합 수업이 학생들에게 한문수업의 필요성에 대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고, 학생들을 한문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과 간

통합 수업에 대해 한문 교사가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

### 3) 독서수업과 연계한 통합수업 사례

독서를 많이 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기본적인 어휘력이 좋고, 생각하는 힘이 있으며,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수업, 학생들의 배움이 교과서 밖으로 다양하게 연결되면서 보다 질 높은 배움을 이루는 수업, 깊이 있는 배움을 고민하는 수업을 위해서는 독서 교육이 중요하며, 이것이 수업에서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한시 수업을 진행하기 전 학생들에게 한시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하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 『정민 선생님이 들려주는 한시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읽히기로 하고 방학 과제로 내고 수업을 진행했지만 효과가 없었으나 2013년부터 독서 지도사(사서교사)의 도움을 얻는 것이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으로 독서 연계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독서 지도사(사서교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 내가 독서연계 수업에서 얻고자하는 것과 독서 지도사(사서교사)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다. 특히 『정민 선생님이 들려주는 한시 이야기』 텍스트를 어떤 방식으로 읽히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해 논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읽기자료를 함께 만든다. 그런 후 사전에 기획한 대로 서로의 역할을 하며 수업을 진행한다. 한문과 독서 연계 수업 지도 계획은 <표 12>과 같다.

<표 12> 한시-독서 연계 수업 지도 계획

학년	단원	수업 목표	수업 주제	독서 요소	차시
2	한시의 이해	독서를 통해 한시의 특징과 감상법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해 교과서 속 한시를 감상하는 감상평을 쓸 수 있다.	한시의 특징과 감상 방법을 요약하며 책 읽기 (독서지도사와 팀티칭)	『정민 선생님이 들려주는 한시 이야기』	1~2
			한시 세 편 감상하기		3~6
			한시 감상평 쓰기 (수행평가)		7~8

하나의 예를 더 든다면 앞에서 다룬 ‘나사랑 프로젝트’ 수업의 2차시 我(나의 장점)에서도 『너는 특별하단다』(맥스루케이도)를 자료로 활용한다. 정의적인 영역의 경우는 교과서만 가지고서는 성취기준에 도달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동화책의 내용을 스캔하여 PPT 자료로 만들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PPT 자료를 시청하게 하며 교사가 직접 학생들에게 동화의 내용을 읽어서 들려준다. 이렇게 독서와 연계한 수업 계획을 통해 정의적 영역의 성취기준 도달을 꾀하고 있다.

## 5. 맺음말

대부분의 한문교사들이 수업 중에 학생들이 수업 참여를 기피한다고 한다. 이는 한문은 어렵다, 쓸모가 없다는 등의 학생들의 선입견에 근거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더 나아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수능시험에 선택하는 학생이 극소수이므로 공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선이다. 필자 역시 이와 같은 경험을 하였고, 그 원인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그러나 한문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와 같은 현실에 한탄하고 실망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면 학생들을 한문수업에 집중시킬 수 있을까?’ 하는 교수 학습 방법에 중점을 두고 고민했다. 그러나 단계별로 잘 짜여진 수업 계획도 학생들을 수업 속에 들어오게 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그 한계에 답답해하면 방법을 찾고 있던 중 배움의 공동체 수업을 알게 되었다. 그 결과 혁신학교인 장곡중학교에서 라면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동료를 만날 수 있고,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관리자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장곡중학교로 내신을 내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여전히 한계가 있고 매시간 수업에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의식 수업이 아닌 학생 중심의 ‘배움의 공동체’ 수업, 교육과정 재구성 및 그에 맞는 학습 활동지 설계, 학습과 성장을 돕는 평가 실시를 통해 학생들이 배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수업, 교사와 학생, 학생 간 역동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배움이 이루어지는 수업, 그것이 학생들의 발달과 성장으로 나타나는 수업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수업을 디자인하고, 실천하며, 반성의 과정을 거치지만 혼자만의 작업이라는 점이다. 올해 한명의 교사가 TO감 되어 학교에 한문교사가 혼자인 관계로 상호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보다 나은 수업을 만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이는 대부분의 한문교사가 겪는 어려움인 만큼 이 사례의 공유가 함께 연대하여 수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끝으로 장곡중학교의 혁신수업을 대상으로 참여, 관찰, 연구를 수행한 한 연구자가 수업 참관 결과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관찰되어야 하는 수업의 원리를 몇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과정 재구성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이것이 학습 활동지를 통해 구현되어야 한다.

둘째, 45분 단위로 수업이 완결성을 지녀야 한다.

셋째, ‘교사의 강의-학생의 개별학습-학생의 협력학습-발표 및 공유-연결하기, 되돌리기, 확장하기’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넷째, 모듈편성은 매시간 1~2회 정도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다섯째, 모듈활동을 할 때에는 이에 적절한 협력적·도전적 과제가 제시되어야 한다.

여섯째, 학생들이 발표를 할 때 다른 학생들이 잘 경청하도록 지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학생들의 발표를 교사가 반복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에게 잘 공유되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학생들의 발표에 교사가 충분한 피드백(연결하기, 되돌리기 등)을 제공하면서 사고력 신장을 유도해야 한다.<sup>13)</sup>

---

13) 이형빈, 「장곡중학교 교육과정-수업-평가 개선방안에 대한 참여관찰연구」(장곡중학교 연구과제 보고서), 2014, 153쪽.



# 어휘 교수·학습 방법 연구

정 호 영\*

## •目次•

I. 들어가며	III. 어휘 교수학습 방법
II. 어휘 교수학습 내용	IV. 나오며

## I. 들어가며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교사들에게 숙명이다. 학교 현장에서 ‘어휘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어휘의 개념에 대한 정리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한문과의 어휘 교육은 한문 문장에서의 어휘 교육과 언어생활 속의 어휘 교육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한문과의 정체성에 맞는 어휘 교육을 위해서는 어떠한 교수·학습 방법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고민까지 이어진다. 언어생활 속의 어휘 교육은 다른 교과와는 차별화 된 한문과만의 교수·학습 방법이 필요하다.

한문과에서 ‘어휘’라는 용어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 등장한다. ‘한자, 한자어, 한문’ 영역이 ‘한문, 한문지식’으로 바뀌고, ‘한문지식’의 하위영역에 ‘한자, 어휘, 문장’이 설정되었다. ‘한자어’가 삭제되고, 그 자리를 ‘어휘’가 차지하였다.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어휘’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이에 본 고에서는 ‘어휘’의 개념과 한문교과서에서 ‘어휘’ 영역이 어떠한 방식으로 서술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한문 학습에서의 어휘 교육과 언어생활에서의 어휘 교육의

\* 서울 등촌중학교 한문교사 / peter79@sen.go.kr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 Ⅱ. 어휘 교수학습 내용

어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에 앞서 어휘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병주(2014)는 교육과정 내용에서 ‘단어’의 개념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다.

필자는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단어가 ‘언어생활의 한자어’인지, ‘한문 문장에서의 어휘’인지 구분하기 힘들었다. ‘단어는 문장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데, 그 용례는 한자어로 제시하여 여기서 말하는 단어는 한자어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품사의 종류와 특성’의 용례는 문장 속 어휘로 예를 들었다.<sup>1)</sup>

이는 교육과정 내용 체계에서 사용하는 어휘의 개념이 모호하여 발생하는 문제로 학교 현장에서 많은 한문교사들이 ‘어휘’라는 용어를 낯설어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를 대체할 적절한 용어가 있다면 적극 고려하여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용어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김왕규(2014)는 어휘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였고, 송병렬(2013)은 ‘한자 어휘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한문 등의 어휘 부류 중 한자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말에서 유래한 단어’라고 하였다<sup>2)</sup>. 허철(2013)은 ‘한자계 어휘’라는 용어를 제안하였다. 정재철(2012)은 어휘의 개념을 그림과 같이 제시하였다<sup>3)</sup>.

---

1) 이병주(2014), 132면.

2) 김왕규(2014), 245면, 재인용.

3) 정재철(2012), 385면, 재인용.



〈그림 1〉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용된 어휘 관련 용어의 관계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문과의 교수·학습에서 ‘어휘’의 범주에 포함되는 ‘단어’, ‘품사’, ‘성어’, ‘허사’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개별적 또는 통합적 교수·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한문과 2009 개정 교육과정 내용체계의 문화, 한문지식 영역은 다음과 같다<sup>4)</sup>.

〈표 1〉 2009 개정 교육과정 내용 체계의 문화, 한문지식 영역

영역	내용	
문화	한자 문화	전통문화의 이해와 계승
		한자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
	언어생활과 한자 문화	언어생활 속의 한자 어휘 알고 활용하기
한문지식	한자	한자의 특징
		한자의 짜임
	어휘	단어의 짜임
		단어의 갈래 <sup>5)</sup>
		성어의 의미
	문장	문장의 구조
		문장의 유형

4) 교육과학기술부(2011), 5면. 참조.

5) 한문II의 경우, 어휘 영역의 내용으로 ‘단어의 갈래’만 제시되어 있다.

어휘 영역의 내용은 ‘단어의 짜임’, ‘단어의 갈래’, ‘성어의 의미’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어휘 학습이라 함은 ‘문화-언어생활과 한자 문화’의 ‘언어생활 속의 한자 어휘 알고 활용하기’로 인식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이러한 혼란은 교과서에서도 나타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한문 교과서의 어휘 관련 진술 방식을 살펴보면 ‘단어의 짜임, 단어의 갈래, 성어 관련’과 ‘언어생활 속 어휘 활용’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한문 문장 학습에서 ‘어휘’라는 개념으로 ‘단어의 짜임, 갈래, 성어’ 등을 학습하고, ‘어휘의 활용’ 부분에서는 이와는 무관한 언어생활 속에서 어휘의 활용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한다. 또한, 언어생활 속에서 어휘 활용 부분은 어휘를 단순히 한자로 표기했을 뿐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있지 않아 한글로 표기하여 사용하고 있는 어휘를 굳이 漢字로 표기하여 읽고 배워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어휘 교육이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독자성을 구축할 만한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sup>6)</sup>.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김성중(2014)은 언어생활 한자 어휘 영역의 대단원을 독립 구성해서 교과서의 이원화 단계까지 나아갈 것을 제안하였다. 이동재(2012)의 논의를 바탕으로 어휘를 선정하여, 언어생활 한자 어휘 단원을 설정하는 교과서가 구성된다면 이러한 혼란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Ⅲ. 어휘 교수학습 방법

2009 개정 교육과정 ‘어휘’ 영역 학습내용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6) 김대희(2013), 6-8면, 참조.

〈표 2〉 2009 개정 교육과정 ‘어휘’ 영역 학습내용 성취 기준

과 목	‘어휘’ 영역 학습내용 성취 기준
한문 <sup>7)</sup>	(1) 단어의 짜임을 알 수 있다.
	(2) 품사의 종류와 특성을 알 수 있다.
	(3) 성어의 겉뜻과 속뜻을 이해할 수 있다.
한문 I <sup>8)</sup>	(1) 단어의 짜임을 알고 문장 독해에 활용할 수 있다.
	(2) 품사의 활용을 알 수 있다.
	(3) 허사의 쓰임을 알 수 있다.
	(4) 성어의 유래를 알 수 있다.
한문 II <sup>9)</sup>	(1) 유의어를 이해하여 문장 독해에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어휘 교수·학습 방법은 이러한 성취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되어야 한다. 다음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어휘’ 교수·학습 방법이다.

- (라) 문화 영역의 ‘언어생활과 한자 문화’는 조어(造語) 분석법, 비교 학습법 등 다양한 수업 방법을 적용하여 언어생활 속의 한자 어휘를 잘 이해하도록 하며, 언어 활용법, 색출(索出)법 등의 다양한 수업 방법을 적용하여 언어생활에서 그 뜻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sup>10)</sup>
- (바) 한문 지식 영역의 ‘어휘’는 조어 분석법 등의 수업 방법을 통하여 단어의 짜임을 지도하며, 언어 활용법, 색출법, 비교 학습법 등 다양한 수업 방법을 창의적으로 적용하여 단어의 갈래, 성어의 의미 등을 지도한다.<sup>11)</sup>

하지만 그 내용이 상세하지 않아 실제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어휘 관련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한 논문들을 조사하고, 그 중 특징이 되는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어휘 교수·학습 방법은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한문 문장 학습 속의 어휘 교수·학습 방법, 언어생활 속의 한자 어휘 교수·학습 방법, 성어 교수·학습 방

7) 교육과학기술부(2011), 13-14면. 참조.

8) 교육과학기술부(2011), 32면. 참조.

9) 교육과학기술부(2011), 45면. 참조.

10) 교육과학기술부(2011), 16면, 참조.

11) 교육과학기술부(2011), 16면, 참조.

법이다.

김진아(2012)에서는 어휘 교수·학습 방법을 ‘단어의 짜임’, ‘품사의 종류’, ‘성어의 의미’ 학습으로 나누어 각각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단어의 짜임’에서는 千字文, 類合, 訓蒙字會의 용례를 참고하여 조어분석법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東西南北’이라는 어휘를 훈몽자회에 나오는 ‘東夷, 西戎, 南蠻, 北狄’ 등의 어휘를 활용하는 것이다. ‘단어의 갈래’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언어 활용법’, ‘색출법’, ‘빈칸 채우기’를 제안하였고, ‘성어의 의미’ 교수·방법은 ‘비교 학습법’, ‘스토리텔링’ 등을 제안하였다.

이미훈(2013)에서는 Keller의 ARSC 학습동기의 수업단계 모형을 통한 어휘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였다. ‘ARSC’는 주의집중(Attention), 관련성(Relevance), 자신감(Confidence), 만족감(Satisfaction)으로 동기의 유발과 계속된 유지를 위해 어떻게 교수·학습 상황을 전개해 나가느냐에 관심을 둔 교수·학습 전략이다.

이주선(2010)에서는 효과적인 한자 어휘 교수·학습 방법으로 ‘의미망 만들기’, ‘빈칸 메우기’, ‘한문 문장 쓰기’를 제안하였다. 의미망 만들기는 한 주제를 중심으로 관련된 낱말을 모두 동원하여 범주화하는 것으로 ‘동의관계’, ‘반의관계’, ‘인접관계’, ‘분류관계’, ‘자유연상’을 활용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중요한 어휘가 생략된 문장에서 학생들이 지식을 동원하여 빈칸을 메우는 과정과 한문 문장 쓰기를 통하여 어휘력 향상과 한문 문장 독해 능력 신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다.

진철용(2010)에서는 어휘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어휘의 의미를 이해시키는 과정에 중점을 둔 기법과 어휘의 의미를 활용하는 과정에 중점을 둔 기법으로 나누어 제안하고 있다. 전자에 속하는 기법은 조어분석법, 조각난 카드 맞추기, 한자어 만들기, 퍼즐을 이용한 한자어 익히기, 카드를 이용한 한자성어 익히기, 단어의 나무 활용하기, 의미지도 그리기, 반의어 이용하기, 유의어 이용하기 등이고, 후자에 속하는 기법은 언어활용법, 색출법, 비교학습법, 빈칸 채우기, 짧은 글짓기, 문장 짓기(글쓰기), 그림그리기 등이다.

김재영(2007)에서는 ‘新聞·放送’을 활용한 어휘(한자·한자어)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였다. ‘단어의 나무’를 통한 신문 활용 한자어 수업과 ‘의미 지도 그리기’를 통한 TV프로그램 활용 한자어 수업이 그것이다. ‘단어의 나무(Word Family Trees)’는 Doug Buehl의 『협동적 학습을 위한 45가지 교실수업전략』 중에서 44번째 전략으로,



주로 용어에 대하여 그 단어의 어원, 어근이 같은 단어들, 비슷한 기능을 하는 단어들, 그 단어가 쓰일 만한 상황 등을 학생들이 직접 찾아보게 하는 전략이다<sup>12)</sup>. ‘의미지도 그리기(Mind Mapping)’은 22번째 전략으로, 흔히 ‘마인드맵’으로 중심개념과 그 관계를 좀 더 쉽고 구체적으로 연결해주는 시각적인 표시 방법이다<sup>13)</sup>. 협동학습과 개별학습을 적절히 융합하여 의미 있는 교수·학습이 되도록 하였다.

강훈구(2014)에서는 ‘e-NIE’를 활용한 한자 어휘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였다. ‘e-NIE’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을 교사 주도형과 학생 참여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신문 제시의 방법과 학생 활동을 기준으로 하였다. 역시 매체를 활용한 어휘 교수·학습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송분화(2008)에서는 ‘문제중심학습(PBL)’을 활용한 고사성어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였다. ‘학습 환경 조성 단계(전체활동)-학습 동기 유발(전체활동)-문제 제시 단계(전체활동)-잠정적 문제 해결 시도 단계(조별학습)-자유학습 단계(개별학습)-협동학습 및 토의학습 단계(조별학습)-토론 결과 발표학습 단계(전체활동)-정리 및 평가(조별, 개별학습)’의 단계별 교수·학습 과정을 통하여 고사성어 교수·학습을 진행한 결과,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흥미와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고 하였다.

정연희(2009)에서는 ‘협동학습’을 활용한 고사성어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였다. ‘도입-개인 활동-모둠 활동-교사 정리’의 방법으로 교수·학습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결과, 자전 찾기로 수업이 활성화되었으며, 학생들이 문장 독해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고, 언어생활에 활용이 가능하였으며, 교사는 학생 개인차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은희(2014)에서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고사성어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였다. ‘학습목표 제시(도입)-고사성어/단문 한자의 뜻과 음, 풀이, 유래(전개)-시나리오 작성, 분석, 발표, 공통점 찾아 속뜻/주제 도출하기(집중)-언어생활에 활용·내면화하기(확장)-수업일기 작성, 마무리(정리)’로 이어지는 스토리텔링 과정 설계를 통하여 교수·학습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내용 이해도를 높이고 한문 교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꾀하였다.

이기화(2014)에서는 고사성어 속뜻 알기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였다. ‘속뜻 제시

12) 김재영(2007), 15면.

13) 김재영(2007), 18면.

형’, ‘속뜻 활용형’, ‘속뜻 탐구형’으로 나누었다.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속뜻의 의미를 학생들의 탐구와 토론과 질문을 통해 알아갈 수 있는 이러한 교수·학습은 지식과 이해 단계를 뛰어넘는 매력적인 과정이라고 하였다.

송정혜(2010)에서는 고사성어 지도방안으로 ‘역할극’, ‘만화그리기’, ‘토의 수업’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교수·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은 고사성어의 유래와 역사적 배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언어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하였다.

전국한문교사모임(2001)에서는 수업사례 및 지도안을 모아서 『한문교육의 실제』라는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여기에 소개된 ‘직업과 관련된 한자어’, ‘만화를 이용한 한자어 수업’, ‘이야기를 통한 고사성어 학습’, ‘대중가요로 배우는 고사성어’, ‘영화로 배우는 고사성어’, ‘라디오를 통한 성어수업’ 등의 교수·학습 방법은 여러 해가 지난 현재에도 유효하다. 또한, 전국한문교사모임에서 발간하는 『한문교육』에도 교수·학습 방법이 꾸준히 소개되고 있다.

이외에 다른 교과에서 연구한 성어 관련 교수·학습 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

장월(2013)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사자성어 비교를 통한 사자성어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였다. 한국과 중국에서 쓰이는 사자성어를 비교하여 제시한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최화신(2013)에서는 영상 매체를 활용한 성어 지도 방안으로 중국의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한국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였다.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중국의 드라마(步步惊心, ‘刁蛮公主’, 北京爱情故事)나 애니메이션(九华小和尚, ‘快乐东西’)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보경(2011)에서는 『삼국지』에 나오는 성어를 ‘스토리텔링’, ‘역할극’, ‘소집단 협동학습’, ‘시청각 교육’, ‘장면별 통합 지도’ 등의 방법을 통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였다. 삼국지의 주요 내용을 고사성어로 제시하여 학생들이 탐구하도록 한 교수·학습 방법은 한문과에서도 참고할 만하다.

우영란(2015)에서는 사자성어를 활용한 컬리그래피 수업을 제안하였다. 이는 미술과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한문과에서는 ‘컬리그래피를 활용한 사자성어’ 교수·학습 방법으로 제안해 볼 수 있겠다. 미술과와 통합 교육 소재로도 적당하겠다. 시각적인 것

에 먼저 반응하는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 효과도 높일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IV. 나오며

어휘 교수·학습 방법은 한문 문장에서의 어휘 교수·학습 방법과 언어생활 속 한자 어휘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과거에 쓰인 한문 전적의 어휘 교수·학습과 현재의 언어생활 속 어휘 교수·학습이라는 점에서 어휘 교수·학습은 한문과가 현재에도 의미를 가지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하지만 ‘어휘’에 대한 정의라든지, 교과서 내용 구성에서 아직 확고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한문과의 어휘 교수·학습이 다른 교과에서의 어휘 교수·학습과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한문과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여야 한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많은 어휘 교수·학습 방법을 체계화하여 현장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한문』 13종.  
교육과학기술부(201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별책 17] 한문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강수정(2011), 「성어 교수 방법론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중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강훈구(2014), 「e-NIE를 활용한 ‘漢字 語彙’ 교수·학습의 실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한문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김대희(2013), 「한국어 교육에서의 한자·한자어 교육의 발전 방향」, 『漢字漢文教育』 제32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김성중(2014), 「언어생활에 대한 한문교육의 효용성과 교육방안」, 『漢文教育研究』 제43호, 한국한문교육학회.  
김왕규(2014), 「漢字 語彙 意味 把握 經路」, 『漢字漢文教育』 제35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 김재영(2007), 「新聞·放送을 活用한 漢字·漢字語 教授·學習 方法」, 한자한문교육 제18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 김진아(2012), 「한자 어휘의 교수·학습법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한문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송병렬(2012), 「漢文科 教授·學習 方法 研究의 成果와 方向」, 『한문과 교수·학습 방법론』, 보고서.
- (2013), 「漢字 語彙 教育의 方法 摸索과 實行 方案」, 『漢字漢文教育』 제31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 송분화(2008), 「문제중심학습(PBL)을 활용한 故事成語 교육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한문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송정혜(2010),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 고사성어 지도모형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한문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우영란(2015), 「사자성어를 활용한 컬러그래피 프로그램 개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이기화(2014), 「故事成語 속뜻 알기 教授·學習 方法」,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한문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이동재(2011), 「漢字語 教育의 成果와 과제」, 『漢文教育研究』 제37호, 한국한문교육학회.
- (2012), 「중학교『漢文』1, 2, 3 교과서에 수록된 語彙의 한자·한문과의 相關性 연구」, 『한문학논집』 제35집, 근역한문학회.
- 이동재·허철(2012), 「한자 어휘 교육의 성과와 과제」, 『한자 어휘 교육론』, 보고서.
- 이미훈(2013), 「漢字語 教育과 漢字 文化 教育의 相補的 教授學習方法 研究」,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한문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이병주(2014), 「한문 교과 위상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선에 관한 제언」, 『한문교육 88호』, 전국한문교사모임.
- 이은희(2014),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故事成語 및 短文 교수·학습 방법」,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한문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이주선(2010), 「漢字語彙 教授·學習 方案 研究」,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한문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장윤희(2013), 「한·중 사자성어 비교를 통해 한국어 사자성어 교육 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전국한문교사모임(2001), 『한문교육의 실제』, 전국한문교사모임, 2001.
- 전국한문교사모임(2014), 『한문교육 88호』, 전국한문교사모임, 2014.
- 정연희(2009), 「협동학습을 활용한 고사성어 지도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한문교육

전공 석사학위논문.

정재철(2012), 「중학교 한문 교과서에서의 어휘 교육의 위상」, 『한자 어휘 교육론』, 보고서.

진철용(2010), 「한문과의 영역별 내용·텍스트 유형에 따른 교수·학습 방법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교과교육학과 한문교육학전공 박사학위논문.

최화신(2013), 「영상매체를 활용한 성어 지도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철(2013), 「한국어 교육에서 학습자의 특성에 따른 한자계 어휘 학습 전략 설계를 위한 통합 어휘 비교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일견」, 『漢字漢文教育』 제32집, 한국한자한문 교육학회.



# 한자 교육에서 행복 찾기

이 미 애\*

## •目次•

- |                     |             |
|---------------------|-------------|
| I. 머리말              | IV. 분석 및 결과 |
| II. 행복과 한자교육        | V. 결 론      |
| III. 행복 한자교육 지도의 실제 |             |

## I. 머리말

유엔이 23일(현지시간) 발표한 ‘2015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58개 국가를 상대로 국민의 행복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10점 만점에 총 5.984점으로 47위를 기록하여 2013년에 비해 6위 하락하였다.<sup>1)</sup> 한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를 조사해 봤더니 물질적 행복과 행동, 생활양식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작 아이들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은 OECD 23개 나라 중 꼴찌, 3년 연속 최하위였다. 주로 청소년들은 학업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가족이나 친구들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적지 않기 때문에 행복지수가 낮다고 하였다<sup>2)</sup>. 최근에 미국 허핑턴 포스트가 조금 더 행복해지기 위해 버려야 할 습관을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 행복해 지기 위해서는 자존심과 긍정적인 생각, 남과 비교하지 않는 적극적인 인간관계 등이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sup>3)</sup>고도 하였다. 이렇게 요즘에 행복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높아지고 있으며

\* 경북대학교

1) 이도연(2015), 연합뉴스.

2) 이지혜(2014), 조선일보.

3)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2015).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이러한 행복에 대해 교육에서도 관심과 집중이 쏠리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중등교육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과 진로의식, 창의적 체험 활동 및 자유학기제 등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중심으로 행복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각 교과에서도 행복교육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및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문교과에서의 행복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좀 더 범위를 좁혀서 한자교육에서는 어떻게 행복을 찾을까?

이러한 연구를 위해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본교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무작위 추출로 2개 반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조사해 보았다.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란 질문에 첫째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는 것, 두 번째는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이 실행되는 것, 세 번째는 마음 편하고 아무 걱정 없이 여유롭게 사는 것이며 기타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 자유시간 등을 대답하였다. “어떤 때에 가장 행복한가?”에서는 첫 번째로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두 번째는 누워서 폰을 만질 때, 세 번째 좋아하는 친구랑 놀 때, 기타응답에는 방학할 때, 건강하게 가족끼리 있을 때 등이라고 하였다.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불행할 때는 언제인가”하고 했을 때, 첫째 공부할 때, 둘째 친구 간에 어색할 때, 셋째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와 나의 존재감이 없을 때라고 하였다. 이는 선행연구<sup>4)</sup>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도 인간다운 삶과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각 교과별로 행복교육에 대한 각론과 마틴 셀리그만(Martin Seligman)의 긍정심리학<sup>5)</sup>에 기반을 두고 몰입, 자아존중, 관계, 책임, 긍정적 정서, 배려와 관련된 다양한 행복 교수학습자료를 마련하였다.<sup>6)</sup> 여기에는 한문교과<sup>7)</sup>에서의 행복에 대한 각론도 서술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한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지적역량, 선인들의 삶의 지혜와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위해 도덕적 역량, 한자문화권내의 상호 교류를 위해 사회적 역량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행복교수학습방법 및 자료는 미흡하며 더욱이 한자 교육과 관련된 교수학습자료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4) 임영진(2015), 58면.

5) M. Seligman & M. Csikszentmihalyi(2000), p.37.

6) 대구시교육청(2014), 참조.

7) 대구시교육청(2014), 64면.



그렇다면 한자교육에서 어떤 목표와 내용 성취 기준과 어떤 교수학습방법과 자료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떤 한자 요소를 추출하여 수업을 진행하면 학생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자영역에서의 행복감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자료를 구안하고 구안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교육현장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을 진행한 후에 학생들의 행복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2009개정교육과정의 한자영역에 의거하여 중학교 한문교과서를 중심으로 한자 행복 교수학습 자료를 구안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가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행복의 요소는 여러 요인 중에서 중학생에게 알맞게 재구성하여 요소를 추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마틴 셀리그만(Martin Seligman)의 긍정심리학을 근거로 하였다. 즉, 감사, 존경, 용서, 배려와 같은 긍정적 태도를 뜻하는 긍정적 정서, 인간은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일에 깊숙이 몰입할 때 느끼는 몰입의 행복감, 타인과의 빈번한 교류를 통해 행복을 느끼는 긍정적 인간관계, 긍정적 의미를 갖고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자아존중감에 대한 행복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중학교 3학년 2개 학급을 선정하여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으로 나누었으며 연구의 기간은 2015년 3월 10일~5월 21일까지로 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자교육에서 행복과 관련된 한자교수학습방법 및 자료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여 중학생의 행복한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집단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행복감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인구통계적 특성은 개인별, 남녀별, 한자학습 시기별, 학부모 직업별, 한자자격증 소지 여부에 따른 행복감의 변화를 살펴본다.

둘째, 행복한자수업을 적용한 실험집단과 강의식 수업의 통제집단 간에 행복감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 II. 행복과 한자교육

### 1. 청소년기의 행복

‘행복(幸福)’을 사전적으로 풀이하면 삶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sup>8)</sup>이라고 한다. 행복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는 행복을 설명하는 주요요인은 ‘삶의 상황’과 같은 외적 변인 10%, 유전적 요인 50%, 의지적 활동 40%로 나타났다<sup>9)</sup>. 이는 행복이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도 40%이상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행복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데 오랫동안 철학자들은 행복을 최고의 선이며 인간 행위의 궁극적인 동기라고 생각했으나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sup>10)</sup>

Diener(1984)는 행복에 관하여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째 소득교육 수준, 여가시간, 건강상태의 행복감을 나타내는 외부적인 기준의 행복, 둘째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 셋째 부정적인 감정보다 긍정적인 감정이 행복하다<sup>11)</sup>라고 하였다.

DeNeve · Cooper(1998)은 메타분석을 활용하여 137개의 인성특성을 찾아내었는데 이 중에서도 행복감을 구성하는 5가지 인성적 특성요인에 대하여 외향성, 대인관계, 자신의 감정통제, 정서적 안정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언급하고 있다<sup>12)</sup>.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 Martin Seligman(2002)은 인간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 ‘진정한 행복’이론을 제시하였는데 진정한 행복 이론에서 제시하는 행복한 삶의 조건은 즐거운 삶, 몰입하는 삶,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그는 최근에 기존연구에도 약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긍정 심리학의 주제를 진정한 웰빙이라고 하였으며 웰빙을 측정하는 기준은 긍정적 정서, 긍정적 관계, 몰입, 의미, 성취라고 주장하였다.<sup>13)</sup>

한편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복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훈구(1997)<sup>14)</sup>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소득, 직업의 전문성, 연령, 교육수준과 같은 인구사회

8) 네이버 어학사전

9) 박선민(2013), 13면.

10) 박선민(2013), 14면.

11) 박선민(2013), 14면.

12) 유지혜(2012), 40면.

13) 이해정(2015), 11~14면.

14) 이훈구(1997), 45~60면.

적요인은 행복감을 7% 설명하는 반면 심리적 요인이 행복감을 19% 설명하고 있다. 이정화(2005)<sup>15)</sup>는 행복감 검사지를 개발하면서 행복감 구성요인으로 가정환경, 자아특성 능력 그리고 대인관계를 확인한 바 있다. 또 김종백과 김태은(2008)<sup>16)</sup>은 요인분석방법을 통하여 청소년의 학교행복감 구성요인으로 친구관계, 교사관계, 학습활동, 즐거움, 자아효능감, 환경만족과 심리적 안정을 확인하였다. 강영하(2008)<sup>17)</sup>는 암묵적 접근을 통하여 행복감의 구성요인으로 자기존중, 낙관성, 친구관계, 가정환경에 대한 긍정적 지각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성별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에서는 노인층이 가장 행복하고 고등학생이 가장 행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가 긴밀하고 가치지향적일 때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 때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좋을 때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관계에 따라 행복감에 매우 많은 영향을 주며 친구관계가 긴밀할수록 더 행복감이 높다고 했다.<sup>18)</sup> 따라서 행복감과 관련된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행복감의 구성요인은 낙관성, 자기존중, 인간관계, 긍정적 정서, 가정환경, 대인관계, 학습활동, 교사관계, 개인요인, 학교요인, 또래요인, 가정요인 등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청소년기의 행복감에 관한 연구는 청소년이 미래에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청소년기에 학교나 가정에서 성숙한 인간관계, 긍정적인 정서의식이 충만하고 건전한 청소년기를 바탕으로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할 때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고 결과적으로 그 사회는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추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문교과에서도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행복교육을 위해 다양한 교수학습방법과 자료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2. 행복과 한자교육과의 관련성

청소년들의 행복감은 개인요인, 학교요인, 가정요인, 친구관계 등 여러 요소들이 영

15) 이정화(2004), 참조.

16) 김종백·김태은(2008), 참조.

17) 강영하(2008), 159~177면.

18) 유지혜(2012), 42면.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한문교육부분에서 행복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우선, 한자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sup>19)</sup>에서는 한자에서 행복감을 길러주기 위해 행복 융합한자, 행복 인성한자, 행복 창의한자 등을 구분하여 행복 한자수업에 대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이미애(2015)<sup>20)</sup> 명심보감과 구용구사의 문장을 행복감과 관련하여 추출하고 추출한 자료를 중학생들에게 교육현장에서 직접 수업을 실시하였으며, 박홍식<sup>21)</sup>은 『논어』자체가 『행복론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안외순<sup>22)</sup>은 논어를 텍스트로 하여 공자의 행복 관념을 ‘學而時習’으로서의 삶과 ‘기쁨’의 행복, ‘有朋自遠方來’로서의 삶과 ‘즐거움’의 행복, ‘人不知而不慍’으로서의 삶과 목적을 제시하고 검토하였다. 송유진<sup>23)</sup>은 논어에서 인간의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감정으로 충만한 삶이 될 것인지를 공자는 그의 제자들과 일상적인 삶속에서 일상적인 언어로 대화와 소통의 방식으로 처방전을 제시했다.

이상은 한문과 행복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교육현장에서 행복과 관련된 교수학습방법이나 학습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자 교유에서 행복의 요소를 대구시교육청의 행복교육의 자료를 참고로 하여 한문교과서에서 추출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 몰입, 긍정적 정서, 인간관계로 나누어 실제 교육현장에서 수업을 실시하였다. 다음은 행복과 한자교육을 관련시켜 설명하고자 한다.

#### 1)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행복 한자 학습

행복이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sup>24)</sup>와 높은 자아존중감은 자부심, 자신감, 희망, 행복감, 명량 등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과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sup>25)</sup>들은 자아존중감이 행복과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Veenhoven(1991)은 자아존중감과 행복과의 상관성이 .50 혹은 그 이상임을 밝혔으며, Rosenberg 등(1995)의 연구에서도

19)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2014), 참조.

20) 이미애(2015), 63~73면.

21) 박홍식(2010), 참조.

22) 안외순(2010), 참조.

23) 송유진(2013), 참조.

24) 우종완(2008), 참조.

25) 정희옥(2003), 참조.

10학년 학생 2,213명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은 행복과의 상관이 .50으로 매우 강한 상관이 있음을 나타냈다. Holder·Coleman(2008)의 연구에서도 신체적 매력은 청소년의 행복감을 예측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sup>26)</sup> 이상은 행복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상관이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외모나 신체적 매력을 한자와 연결시켜 신체 부위와 관련된 口, 目, 耳, 手, 足, 鼻, 身, 心 등의 한자 원리를 그림으로 설명하고 자신의 신체 부위에서 가장 자신 있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친구가 평가해 줌으로써 자기 스스로의 자신감을 가지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는 통제집단과 한자로 자신의 이름을 풀이하게 했을 때 학생들은 자신의 이름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됨으로써 자신의 미래의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게 자아존중감을 높이도록 하였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자수업에서 자아존중감과 관련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이 수업으로부터 학생들이 어느 정도 행복감을 느끼는지 양적 연구과 더불어 학생들의 관찰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 2) 몰입과 관련된 한자학습

셀리그만의 구분에 따르면 몰입하는 삶은 매일의 삶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몰입하여 자신의 성격적 강점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자기실현을 이루어나가는 삶<sup>27)</sup>이라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대구시교육청에서는 행복교육으로 몰입과 관련된 교수학습자료를 제시하였는데 학생들의 몰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숨은 그림 찾기, 게임, 나무 쌓기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행복 한자 마인드맵을 통해 친구와 관련된 행복, 가정과 관련된 행복, 학교와 관련된 행복한 기억을 최대한 많은 한자를 15분 시간 내에 생각해 내어 쓰도록 몰입시켰으며, 옆 짝과 한자카드 빨리 잡기, 아름다운 한자쓰기, 부수를 통한 한자 의미 파악하기 등을 통해 한자에 대한 몰입 수업을 진행하였다.

26) 장진우·이윤주(2009), 122면.

27) 이해정(2015), 12면.

### 3) 긍정적 정서와 한자 학습

긍정심리학에서 즐거운 삶이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하여 긍정적 인식과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다. 과거를 수용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만족감을 느끼며, 현재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몰입을 통해 즐거움을 경험하며, 미래의 삶에 대해서 도전의식과 낙관적 기대를 통해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즐거운 삶이다. 즐거운 삶은 긍정 정서를 최대화하고 부정 정서를 최소화하는 삶으로 감사, 존경, 용서, 배려와 같은 긍정적 태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러한 긍정적 정서가 행복감을 증진시킨다고 하였다.<sup>28)</sup> 또한 Watson과 Tellegen(1985)은 정서를 긍정정서와 부정정서의 차원으로 나누었는데 긍정정서란 열성적이고 활발하며 생기는 정도인데, 높은 긍정정서를 경험하는 사람은 즐겁고 신나는 느낌을 가깝게 가지고 활동에 완전히 집중하며 즐겁게 참여하며 긍정정서에는 행복, 자부심, 사랑, 안도, 희망, 동정 심미 등이 포함된다(Lazarus, 1994)<sup>29)</sup>고 하였다.

긍정정서와 관련된 학습 자료에는 긍정집게 만들기, 긍정 막대그래프 그리기<sup>30)</sup> 등의 교수학습자료를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근거로 하여 ‘言’, ‘美’의 한자단어를 중심으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뜻의 긍정적 언어 사용을 강조하였으며, ‘能’의 풀이를 통해 ‘할 수 있다’는 긍정적 마인드를 심어주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 4) 인간관계와 관련된 한자 학습

대인관계와 행복에 관한 국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대인관계의 존재여부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혜경(2009)은 아동의 대인관계와 행복감이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고 하였으며, 나미현(2011) 역시 긍정적인 대인관계의 존재여부에 따라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김의철 등(1998)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관계효능감이 한국청소년의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sup>31)</sup> 대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에 관한 조사(박정혜, 2005)에서 인간관계(가족, 이성, 친구)가 주관적 안녕감의 43.9%를, 고등학생의

---

28) 대구시교육청(2014), 2면.

29) 이해정(2015), 12면.

30) 대구시교육청(2014), 9~12면.

31) 박정애(2012), 24~25면.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신혜정, 2003)에서는 .31의 정적상관을 보여 주었다.<sup>32)</sup>

한자교육에서 인간관계와 관련된 ‘交’, ‘友’, 朋의 자원 풀이 후에 벗과 관련된 知音, 竹馬故友 등을 통해 친구와 관련된 다양한 학습활동을 하였으며 가족과 관련된 가족 행복명찰 등을 만들어 봄으로써 가족간의 행복한 인간관계 형성, 가족의 좌우명 만들기 등을 통해 행복한 인간관계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 4.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행복 「한자 영역」 분석

본장에서는 개정교육과정에서의 한자영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행복 증진과 관련된 부분을 재구성하여 한자교육에서 행복한자교육으로 교수학습방법 및 자료를 교육현장에서 직접 수업을 진행하여 청소년들에게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자영역의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한자교육에서의 행복교육과 관련된 영역을 분석하기로 한다.

##### 1) 한자영역의 목표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학교의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배양하며, 다원적인 가치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민주 시민의 자질 함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sup>33)</sup>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목표는 5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중학교 ‘한문’ 과목의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의 음과 뜻을 알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와 언어생활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 ㉢ 다양한 유형의 한문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심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32) 장진우·이윤주(2009), 122면.

33) 교육과학기술부(2012), 3면.

- ㉔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며, 전통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
- ㉕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위의 목표 ㉔~㉕ 항 중에서 본 논문에서 연구할 한자영역의 목표를 추출하면 ㉔의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의 음과 뜻을 알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로 선정할 수 있다. ㉔항의 한자교육의 목표를 근거로 하여 한자교육을 통해 행복감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심리학에서의 행복감을 근거로 하여 한자영역에서 몰입, 긍정적 정서, 인간관계, 자아존중감을 추출하여 한자에서 행복과 관련하여 다양한 교수학습자료를 재구성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 2) 한자 영역 내용의 영역과 기준

2009개정교육과정은 내용체계를 '영역'과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한자 영역의 내용체계 영역을 살펴보면, 한문지식의 중영역, ‘한자’내용에서는 한자의 특징, 한자의 짜임으로 구분하였다.<sup>34)</sup> ‘한자’의 학습내용인 한자의 특징과 한자의 짜임에 대한 성취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한자〉

- (1) 한자의 형(形)·음(音)·의(義)를 알 수 있다.
- (2) 여러 가지 음과 뜻을 가진 한자를 알 수 있다.
- (3) 한자의 부수(部首)를 알고, 사전에서 한자를 스스로 찾을 수 있다.
- (4) 필순(筆順)의 원칙에 따라 한자를 쓸 수 있다.
- (5) 한자의 짜임을 알 수 있다.
- (6) 한자의 형성 과정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자’의 내용에서는 위의 여섯 가지를 학습내용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한자영역에서 행복관련 학습내용 체계를 재구성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34) 교육과학기술부(2012), 5쪽.



#### 〈행복한자〉

- (1) 행복과 관련된 한자의 형(形)·음(音)·의(義)를 알 수 있다.
- (2) 행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음과 뜻을 가진 한자를 알 수 있다.
- (3) 부수의 원리를 통해 한자 원리의 신기함과 한자 찾기의 즐거움을 알 수 있다.
- (4) 필순의 원칙에 따라 한자쓰기에 몰입하여 아름답고 깨끗하게 쓸 수 있다.
- (5) 긍정적인 정서 함양을 위한 한자의 짜임과 구조분석을 할 수 있다.

### 3) 행복 한자 영역의 교수 · 학습 방법

개정 교육과정의 한자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을 살펴보면, 부수 중심 지도법, 구조 분석법, 자원(字源) 활용법, 자전(字典) 활용 학습법, 이미지컷 활용 학습법, 웹기반 중심 학습법 등 다양한 수업 방법을 적용하여 한자의 제자(製字) 원리를 지도하며, 한자 카드 활용법 등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한자를 익히도록 지도하고, 도형화된 노트 활용 한자 쓰기 등을 통하여 한자의 쓰기를 지도한다<sup>35)</sup>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학습자가 쉽고 재미있게 학습하며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및 학습 자료를 중심으로 행복교육 향상을 위해 지도하고 강조하였다.

첫째, 몰입감 증진을 위한 행복 한자프로그램으로는 행복한자 마인드 맵, 부수 노래 부르기, 부수 중심 학습법, 아름다운 한자쓰기 등을 중심으로 수업에 몰입을 강조하였다.

둘째,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행복 한자프로그램으로는 한자로 자기이름을 풀이하기, ‘能’의 풀이를 통해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향상으로 행복감 증진을 강조하였다. 또한 부수 중심법으로 한자에 대한 호기심과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

셋째, 긍정적 정서 함양을 위한 한자프로그램으로는 ‘言’, ‘美’의 풀이를 통해 말과 관련된 동영상 시청으로 고운 말 사용으로 긍정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강조하였다.

넷째, 인간관계 향상을 위한 행복 한자프로그램으로는 ‘友’, ‘交’의 풀이를 통해 친구에게 편지쓰기, 친구의 장점 등의 방법으로 친구관계 증진, ‘教室’의 뜻풀이를 통해 教室 급훈 만들기로 협동적 인간관계향상에 주안점을 두었다.

35) 교육과학기술부(2012), 16쪽.

### Ⅲ. 행복한자교육 지도의 실제

#### 1. 연구의 내용

첫째, 행복 한자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 학생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행복감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둘째, 행복 한자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과 강의식 수업을 실시한 통제집단학생 간의 행복감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중학교 3학년 남·여학생으로, 실험집단의 학생은 남자 23명 여자 17명이고, 통제집단의 학생은 남자 22명 여자 1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운동부, 결석 등으로 인한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학생은 제외시켰다. 연구의 기간은 2014.9.1~2015.6.12일까지이며, 實驗授業은 2015년 3월 10일부터 5월 21일까지 매주 2회 15~20분씩 실시하였다.

##### 2) 연구의 방법

연구의 방법은 중학교 한문과 개정교육과정상의 교수학습방법에 의거하여 중학교 한문교과서에서 한자 영역에 해당되는 학습요소를 추출하여 교육과정에서 권고하는 다양한 교수·학습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행복감을 향상시키는데 그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행복감을 몰입, 자아존중감, 긍정적 정서, 인간관계영역으로 나누어 행복감 전체 및 각 요인별 효과를 살펴보았다.

##### (1) 研究實驗設計

본 연구에서는 <표 1>의 연구의 실험설계와 같이 사전설문 검사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게 실시하였는데, 이는 두集團의 同質性 여부 확인 및 실험 전·후의 학

습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기준을 삼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實驗集團에서는 행복감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적용한 수업이 실시되었고 統制集團은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을 실시한 후 사후 설문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게 실시하고 그 效果를 檢證하였다.

〈표 1〉 연구 실험설계

집단	사전설문지	사전학습성취도	수업방법	사후설문지
실험집단	R1	R2	X1(행복한자적용 수업)	R5
통제집단	R3	R4	X2(교사 중심 강의식)	R7

## (2) 設問紙의 設計

설문지 구성은 제1부에서는 학생의 개인적 사항에 대해 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제2부에서는 몰입, 자아존중, 긍정정서, 인간관계 관계문항 등 四 領域, 총20문항으로서 부정과 긍정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부정문항에 대한 대답은 역으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측정척도는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였는데 표는 아래와 같다.

〈표 2〉 설문지 설계

행복감 하위요인	행복한자 학습주제	교수학습 방법	설문구성내용 참고문헌: 이정화(2005), 권석만(2008), 유지혜(2012)
몰입	부수 노래부르기	부수 중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자공부를 하는 동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때가 많다.</li> <li>· 나는 한자 공부하는 것 자체가 즐겁다.</li> <li>· 나는 한자공부를 하면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나.’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li> <li>· 나는 한자공부에 열중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li> <li>· 나는 한자공부를 할 때 집중한다.</li> </ul>
	한자가 신기해요	자원 풀이법	
	아름다운 한자쓰기	한자 쓰기	
	행복 한자 마인드맵	행복 한자 잇기	
	한자 읽기	한자카드법	

자아 존중	나는 소중한 존재	자원 폴리법 웹기반중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남보다 잘 하는 것이 있다.</li> <li>·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잘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li> <li>·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li> <li>· 나는 나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긴다.</li> <li>· 나는 모든 일에 자신이 있다</li> </ul>
	가족 행복명찰	그림표현법 웹기반중심법	
	나는 멋지다.	그림표현법 웹기반중심법	
	할 수 있다. 가족좌우명	그림표현법 웹기반중심법	
긍정적 정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말	웹기반중심법 자원폴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li> <li>·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낸다.</li> <li>· 나에게는 좋은 점이 많다.</li> <li>· 내 인생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li> <li>· 전반적으로 나는 나 스스로를 행복한 사람으로 여긴다.</li> </ul>
	행복 教室 급훈	자원 폴리법	
	행복부수 노래부르기	부수중심법	
	행복하기 위해	자원 폴리법	
	나는 소중한 존재	자원 폴리법 웹기반중심법	
	가족 행복명찰	그림표현법 웹기반중심법	
인간 관계	나의 친구	자원폴이법 ucc 동영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의 고민을 들어 줄 친구가 있다.</li> <li>· 나를 도와 줄 친구가 있다.</li> <li>· 나는 친한 친구가 있다.</li> <li>·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어준다.</li> <li>· 나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낸다</li> </ul>
	행복 教室 급훈	자원 폴리법	
	가족 행복명찰	자원 폴리법 웹기반중심법	
	우리가족 좌우명	웹기반중심법 자원 폴리법	

### 3. 연구절차

#### 1) 행복 한자 교수-학습 지도안의 실제

〈표 3〉 한자 행복 지도안 계획서

2015학년도 한문과 제3학년 1학기 학습지도 예정 및 진도표						
교과서명		천재교과서	학반/요일	3학년0반 화, 목	담당교사	이미애
지도 날짜	단원명	시간	한자 행복 학습요소	행복증진 프로그램 제목	예화자료 및 동영상	
3.5	단원소개		사전 설문지 사전 학업성취			
3.10	I.단원	20분	한자 이름 풀이	나는 소중한 존재	영화배우 김윤진,빌게이츠의 자성 예언동영상	
3.17	1.나의 몸	20분	耳.目.口.心.手 鼻.身.齒.骨.足	나는 멋지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름답습니다’ 동영상 시청	
4. 9	2. 우리 가족	20분	父. 母. 兄. 弟. 姊. 妹.	우리 가족 행복 명찰	가족동영상 http://kwh2219.blog.me/22	
3.31	3.함께하는 학교	15분	教. 室.	행복 教室 급훈	한자 자원풀이	
4.7	4. 마음이 통하는 친구	15분	友. 交. 知音. 莫逆之友. 水魚之交. 竹馬故友	나의 친구	친구와 관련된 ucc 동영상 http://blog.naver.com/rubrub82/128491882	
4.14	4. 마음이 통하는 친구	20분	부수	모듬별 행복 부수노래	독도는 우리 땅 부수노래	
4.21	5. 말은 신중하게	20분	言. 美. 來言不美去言何美	행복하게 하는 말	‘말의 힘’ 동영상 시청하기	
4.28	6. 오래 만날수록	15분	足.耳.目.孫.父 少.家.族.美.來.去.眞. 實.純.氣.	한자 읽기	한자카드 집기 짜끼리 활동	
5.7	7. 배우고 익히며	20분	能. 問. 不知則問 不能則學	나는 할 수 있다. 우리 집 좌우명	‘폴 포즈’ 동영상 시청하기	
5.12	8. 스스로 반성하며	20분	幸. 省. 不幸由己 何不自反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의 조건	
5.14	9. 우리 민족의 터전	15분	韓. 國. 在. 亞.細. 島. 北. 連. 陸. 西. 南. 洋.	아름다운 한자쓰기	한자쓰기	
5.19	9. 우리 민족의 터전	20분	幸. 家. 友.	행복한자마인드맵	협력학습	
5. 21	10.마음을 나누는 명절	20분	水: 油. 淸. 流日: 晴. 春. 星. 心: 情. 忘. 思	한자가 신기해요	한자의 원리	
5. 26		15분	사후 설문지			

## 2) 교수-학습 지도안의 실제

(1) 교과서명 : 중학교 한문 (천재교과서)

(2) 단원의 소개 : I. 나와 우리

### 1. 나의 몸

(3) 학습목표 ① 한자를 바르게 읽고 쓸 수 있다.

② 한자의 3요소를 안다.

③ 신체와 관련된 한자를 익혀 나의 신체에 대한 소중함을 안다.

(4) 본 시안

心. 身. 手. 足. 耳. 目. 話. 目. 羊.  
口. 鼻. 骨. 舌. 齒. 血. 肉. 體. 育

## (5) 교수-학습 지도안 실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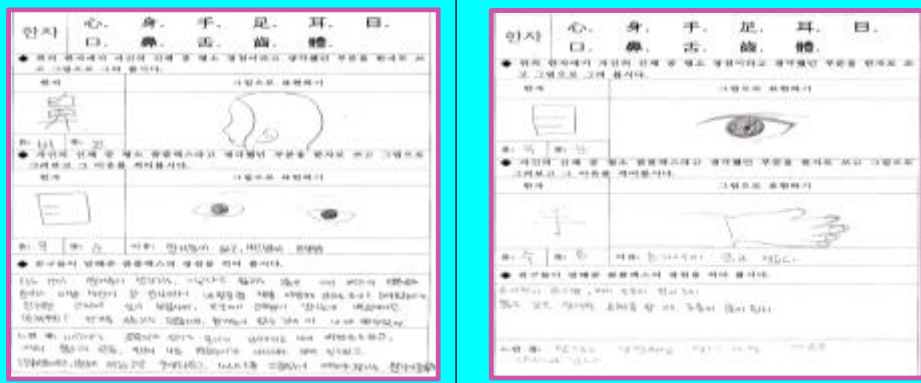
대 단 원		I. 나와 우리	소단원	1. 나의 몸	일시	2015년 3월 17일	
학습 목표		1. 한자의 짜임을 안다. 2. 한자의 3요소를 안다. 3. 신체와 관련된 한자를 익혀 나의 신체에 대한 소중함을 안다.					
행복요소		긍정적 정서	인간관계	자아 존중감		몰입	
				○			
단계	학습 내용	학습 활동				학습형태	비고
		교사		학생			
도입	동기 유발	·한자 노래 부르기		·한자 노래를 따라 부른다.		협동법	
	수업 목표 제시	·본시의 수업 목표를 학생들에게 읽게 한다.		·수업 목표를 읽고, 본시의 학습 내용을 파악한다.		낭독법	교과서
전개	새로운 한자 익히기	·과워포인트를 사용하여 새로 힐 한자를 설명하며, 복잡한 한자는 필순을 직접 보여준다.		·교사의 설명을 들으며 새로운 한자를 익히고, 획수가 많고 복잡한 한자는 교사에게 질문하여 정확히 알도록 한다.		강의법 자원 활용법	ppt
전개	본문 풀이	·멀티미디어나 판서를 통해 본문을 읽고 풀이한다.		· 본문의 내용, 한자의 3요소, 짜임을 분명히 이해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풀이나 어휘 등은 본문풀이가 끝난 후 질문한다.		낭독법 강의법	ppt. 판서

전개	동영상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름답습니다’ 동영상 시청하기			
전개	한자 행복 교육 (15-20분)	·자신의 신체중 장점 및 단점을 한자로 적고 난 후 그림으로 표현 ·자신의 단점을 친구가 장점으로 이야기하도록 한다.	·자신의 신체 장점 및 단점을 한자로 적고 그림으로 표현 ·자신의 단점을 친구가 장점으로 이야기해 준다. ·수업 후 느낀 점 적기	강의법 자기주도적	모둠 및 개별활동
전개	한자 읽기	·본문의 한자를 한번 읽는다	·전체적으로 한번 따라 읽는다		
	요약 및 평가	·본문을 다시 한 번 읽고 풀이해 주며, 중요한 내용을 상기시킨다.	·교사의 설명을 들으며 수업 내용을 정리한다.	강의법	보조 자료
정리	형성 평가	·확인하기 문제를 풀어 학습 내용을 점검	·배운 내용을 토대로 확인하기 문제를 푼다.		교과서
	과제 차시 예고	·과제 제시 및 다음 시간에 학습할 ‘2. 우리 가족’을 예고한다.	·과제를 필기한다.		노트

### 3) 한자 행복 지도안 실제

행복함을 위한 한자 지도안 자료를 아래와 같이 예시하고자 한다.

〈표 4〉 ‘나는 멋지다’를 통한 행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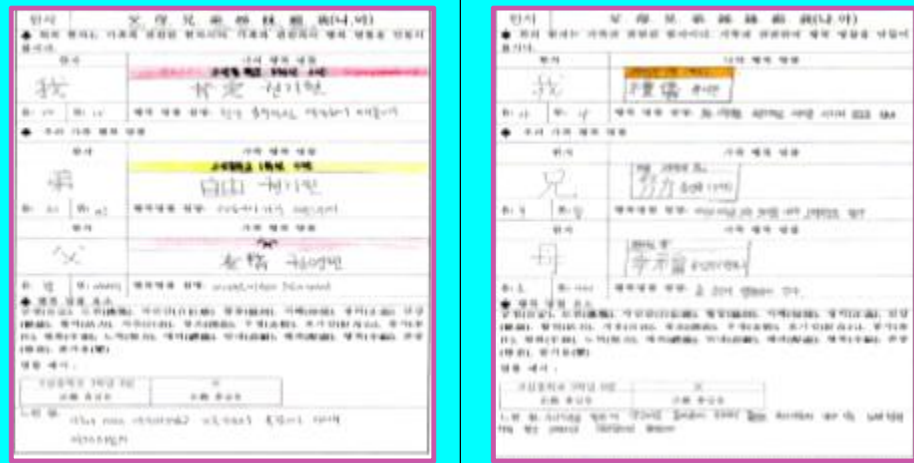
주제	나는 멋지다.			
단원	1. 나의 몸		지도일시	2015년 3월 17일.
수업 목표	1. 한자의 3요소를 안다. 2. 신체와 관련된 한자를 익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기른다.			
행복 영역	긍정적 정서	긍정적 인간관계	자아존중감	몰입
			○	
단계	수업 활동			매체
도입	·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름답습니다’ 동영상 시청하기<동영상 인터넷 주소> <a href="http://www.youtube.com/watch?v=oWUsews2gtg">http://www.youtube.com/watch?v=oWUsews2gtg</a> (3분) · 신체와 관련된 한자를 익힌다.( 耳.目.口.鼻.)			동영상 5
전개	· 학습지를 배부한다. · 자신의 신체의 장점을 한자로 적고 그림으로 표현한다. · 자신의 신체 중 단점을 한자로 적고 그림으로 표현한다. · 자신의 신체 단점을 친구가 장점으로 이야기해 준다. · 수업 후 느낀 점 적기			12
정리	느낌을 발표한다.			3
학생 작품				
느낀 점	양00 : 手이 단점이고 마음이 장점인데 손이 작아도 괜찮다 배00 : 心너무 장난기가 심하니 차분함을 길러야 겠다, 신00 : 齒가 단점인데 교정을 할 까 고민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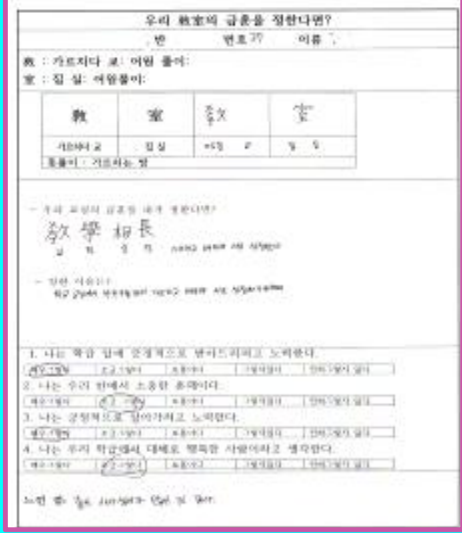
〈표 5〉 ‘나는 소중한 존재’를 통한 행복감

주제	나는 소중한 존재 (이름 풀이)	지도일시	2015년 3월 10일-4월30일
수업 목표	1. 자신의 이름을 한자로 쓸 수 있다. 2. 이름을 한자로 풀이함으로 자기 자신이 소중하고 가치로운 존재임을 느낄 수 있다.		
행복 영역	긍정적 정서	인간관계	자아존중감
	○		○
단계	수업 활동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li> <li>- 영화배우 김윤진, MS사의 최고경영자였던 빌 게이츠의 자성 예언 등을 통해 ‘자존감’의 의미를 생각해보도록 한다.</li> </ul>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습지를 배부한다.</li> <li>이름을 한자로 쓴다.(매시간 3-4명씩 나와서 풀이한다)</li> <li>이름에 대한 풀이를 적는다.</li> <li>나의 행복 미래를 위한 각오</li> <li>느낀 점을 적는다.</li> </ul>		
정리	이름 풀이를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운다.		
학생 작품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한자 이름 朴 美 英</p> <p>성씨박 이름미영</p> <p>풀이: 활짝 피어 자라난이 풀이 강아지같은 활짝피어 자라난 풀이: 더욱이 자라난 이름에 자라난듯합니다</p> <p>나의 행복 미래 각오</p> <p>첫째, 항상 이름은 반으로 노력한다 둘째, 힘들고 좌절할 때는 항상 노력한다 셋째, 목표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넷째, 먼저 나에게 행복이 풀이 노력한다 다섯째, 모든 것을 사랑한다</p> <p>느낀 점: 나의 이름은 주어진 것이니만큼 귀중한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느낀 점: 주어진 것을 귀하게 하고 할 일을 성실하게 하겠다</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한자 이름 鄭 知 原</p> <p>이름정지원</p> <p>풀이: 나만의 근원을 알고, 나 자신을 바르게 다스린다</p> <p>나의 행복 미래 각오</p> <p>1. 항상 긍정적인 생각로 한다 2. 자주 웃는다 3.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4. 무슨일이든 열심히 한다 5. 나의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p> <p>느낀 점: 나의 이름을 보면서 바르고 올바르게 살아가야 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나의 미래 각오를 모두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p> </div> </div>		
느낀 점	<p>양00 : 이름 뜻이 아름답다는 것을 느꼈고 늘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p> <p>박00 : 나는 이때까지 올바르게 못하게 살아온 것 같다.</p> <p>그래서 나는 마음가짐을 다시 하고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느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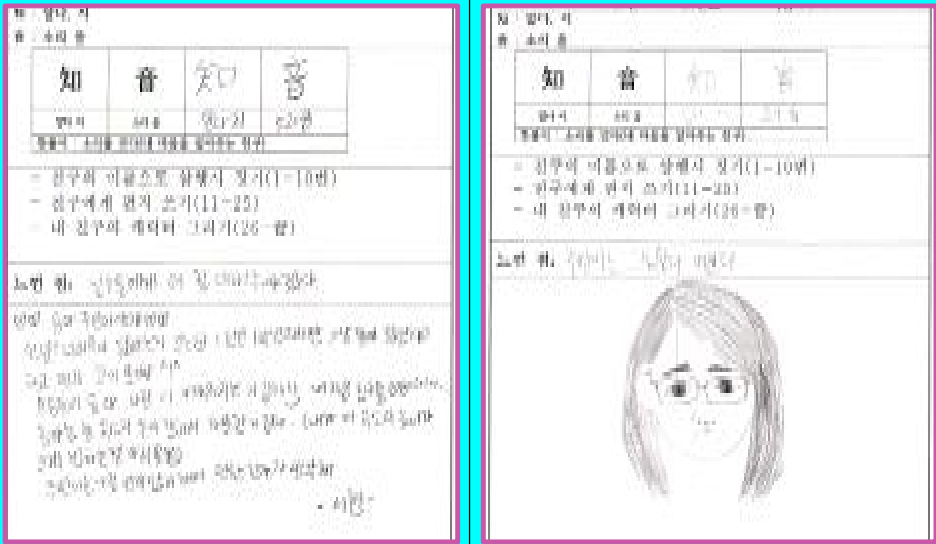
〈표 6〉 ‘가족 행복 명찰’을 통한 행복감

주제	가족 행복 명찰				
단원	2. 우리 가족		지도일시	2015년 4월 9일	
수업 목표	1. 가족과 관련된 한자를 익힌다. 2. 가족과 관련된 한자를 익혀 가족의 행복 향상을 위한 자세를 기른다.				
행복 영역	긍정적 정서	인간관계	자아존중감	몰입	
	○	○	○		
단계	수업 활동				매체
도입	· 가족의 소중함을 말한다. · 가족 동영상 (3분) <a href="http://kwh2219.blog.me/220321676581">http://kwh2219.blog.me/220321676581</a>				동영상 5
전개	◆ 위의 한자는 가족과 관련된 한자이다. 가족과 관련하여 행복 명찰을 만들어 보시다.				12
	◆ 우리 가족 행복 명찰				
	한자		가족 행복 명찰		
	兄		兄 正義 홍길동		
	음:	뜻:	행복명찰 설명:		
정리	느낌을 발표한다.				3
학생 작품					
느낀 점	최00 : 가족의 단어를 찾으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되었다. 석00 : 한자의 뜻과 음을 정확히 알게 되었고 더 잘 알게 되었다. 김00 : 한자에 대해 더욱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조00 : 엄마 아빠한테 더 좋은 더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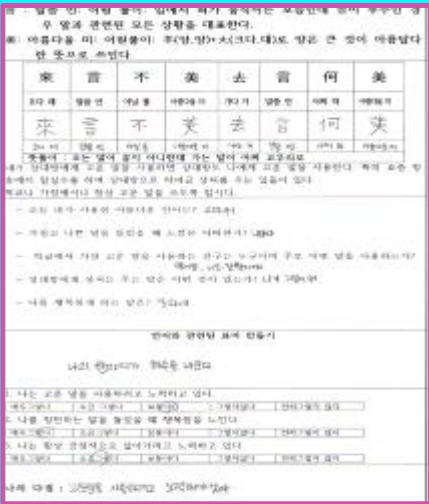
〈표 7〉 ‘행복 教室 급훈’을 통한 행복감

주제	教室 급훈 만들기		
단원	1. 함께하는 학교	지도일시	2015년 3월 31일
수업 목표	1. 학교와 관련된 한자를 익힌다. 2. 교실의 급훈 만들기를 통해 학급구성원으로서의 긍정적인 정서와 인간관계 형성에 힘쓴다.		
행복 영역	긍정적 정서	인간관계	자아존중감
단계	수업 활동		
도입	· 학급교실의 전반적인 환경미화를 점검한다.(교실 내 정리정돈, 학급의 급훈 등)		
전개	· 敎와 室의 짜임구성을 설명한다. · 학습지를 배부한다. · 한문교과서의 내용중에서 학급급훈을 정하기로 한다. · 급훈을 한자로 정하여 풀이한다. · 학급급훈을 정한 이유를 적는다.		
정리	느낌을 발표한다.		
학생 작품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div> <div style="width: 50%;"> <p><b>학급 教室 급훈</b></p> <p>이00: 同苦同樂 이유: 모든 일을 친구들 함께하자는 의미에서</p> <p>김00: 水魚之交 이유: 친구와 친구끼리 잘 지내자는 의미에서</p> <p>이00: 學. 愛 이유: 친구끼리 배우고 사랑하자는 의미</p> <p>김00: 師弟同行 이유: 선생님과 제자가 함 께해야 좋다.</p> <p>이00: 忍耐 이유: 반에서 짜증나는 일 이 있어도 참고 잘 견디어 야 함</p> </div> </div>		
느낀점	<p>정00 : 한자의 급훈을 정하면서 많은 한자를 알게 되었다.</p> <p>박00 : 유익한 것 같다</p> <p>정00 : 내가 오늘 지은 급훈처럼 그 뜻을 갖고 교실을 사랑하고 친구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겠다</p> <p>박00 : 새롭고 재밌다</p> <p>박00 : 급훈 정하는 것은 재밌다</p> <p>정00 : 우리반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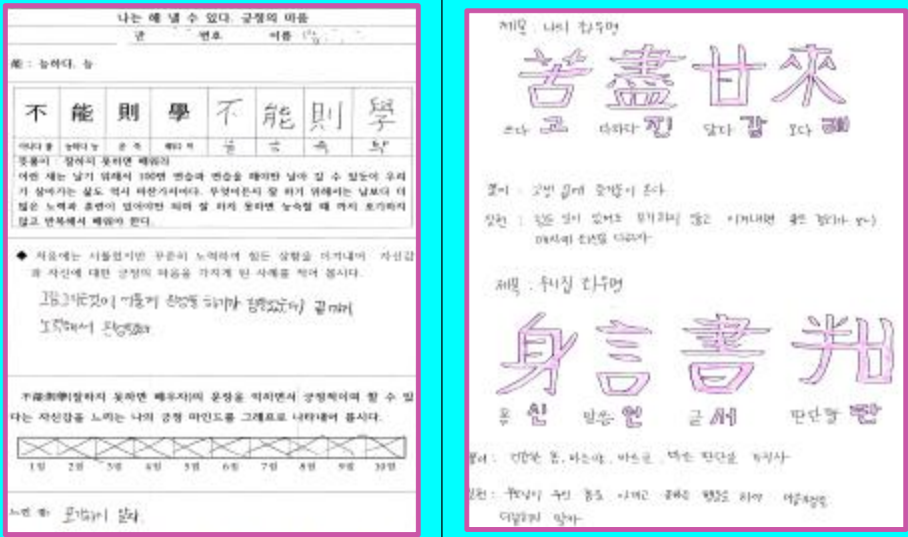
〈표 8〉 ‘나의 친구’를 통한 행복감

주제	나의 친구는?										
단원	4. 마음이 통하는 친구	지도일시	2015년 4월 7일								
수업 목표	1. 친구와 관련된 한자를 익힌다. 2. 친구와 관련된 한자 및 한자어휘를 통해 실생활속의 인간관계를 증진시킨다.										
행복 영역	긍정적 정서	인간관계	자아존중감								
단계	수업 활동										
도입	· 친구와 관련된 ucc 동영상 시청 <a href="http://blog.naver.com/rubrub82/128491882">http://blog.naver.com/rubrub82/128491882</a>										
전개	<p>友: 벗 우, 交:사귄다, 知:알다 지, 音: 소리 음</p> <table border="1"> <tr> <td>知</td><td>音</td><td>知</td><td>音</td></tr> <tr> <td>알다 지</td><td>소리 음</td><td></td><td></td></tr> </table> <p>뜻풀이: 소리를 안다(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 친구의 이름으로 삼행시 짓기(1-10)</li> <li>- 내 친구에게 편지 쓰기(11-25)</li> <li>- 내 친구의 캐릭터 그리기(26-끝)</li> <li>- 내 친구의 장점은?(31-</li> </ul> <p>느낀 점:</p>			知	音	知	音	알다 지	소리 음		
知	音	知	音								
알다 지	소리 음										
정리	느낌을 발표한다.										
학생 작품											
느낀 점	<p>김00 : 친구를 많이 도와주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00 : 한문수업을 통해 친구를 좀 더 알게 되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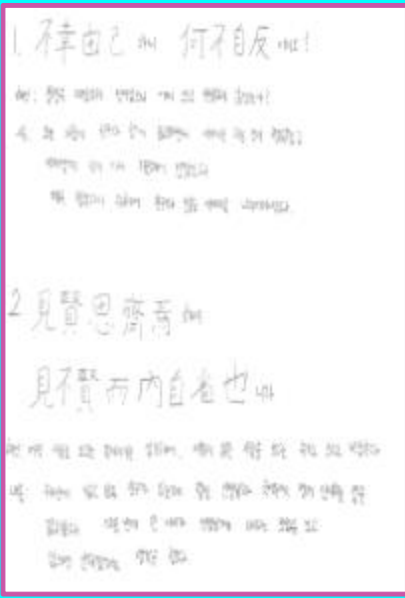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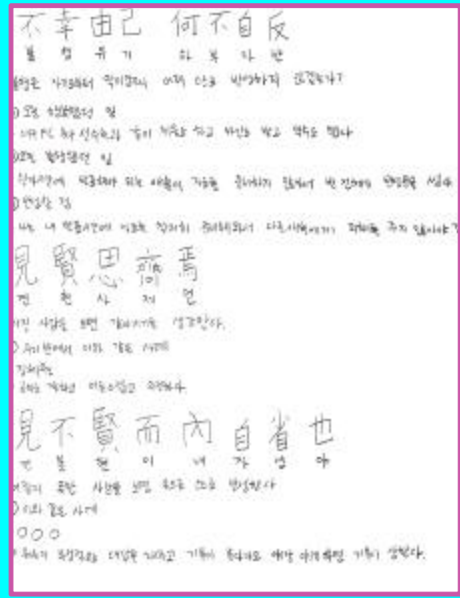
〈표 9〉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말’을 통한 행복감

주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말		
단원	5. 말은 신중하게	지도일시	2015년 4월 21일
수업 목표	1. 말과 관련된 한자를 익힌다. 2. 고운 말 쓰기 실천을 통해 긍정적인 마음을 기를 수 있다.		
행복 영역	긍정적 정서	인간관계	자아존중감
단계	수업 활동		매체
도입	. ‘말의 힘’ 동영상 시청하기 <동영상 인터넷 주소> <a href="http://www.youtube.com/watch?v=aKd0eVRHfcE">http://www.youtube.com/watch?v=aKd0eVRHfcE</a> (5분7초) - 듣기 좋아하는 말과 듣기 싫어하는 말에 대해 생각하기		동영상 5
전개	. 言: 어원 풀이, 美: 어원풀이를 설명한다. . 來言不美去言何美 풀이 및 말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 오늘 내가 사용한 아름다운 언어는? . 거칠고 나쁜 말을 들었을 때 느낌은 어떠한가? . 학급에서 가장 고운 말을 사용하는 친구는 누구이며 주로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 . 상대방에게 상처는 주는 말은 어떤 것이 있는가? . 나를 행복하게 하는 말 . 언어와 관련된 표어를 만들어 보시다.		7
정리	나의 다짐		2
학생 작품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div> <div style="width: 50%; background-color: #e0f0ff; padding: 10px;"> <p style="text-align: center;">학생 자료 예시</p> <p><b>* 내가 사용하는 아름다운 말</b>                          이쁘다, 고마워, 미안해, 괜찮아?,                          안녕하세요, 잘했어, 귀엽네, 착하다,                          냄새가 좋다, 안녕, 사랑해, ...</p> <p><b>*친구가 사용하는 아름다운 말</b>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힘내,                          잘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p> <p><b>*나를 행복하게 하는 말</b>                          좋다, 굿, 잘 했어, 칭찬, 예쁘다..</p> </div> </div>		
느낀 점	류00 : 고운말을 사용하자. 정00 : 나도 친구처럼 좋은 말을 사용해야 겠다.		

〈표 10〉 ‘나는 할 수 있다’를 통한 행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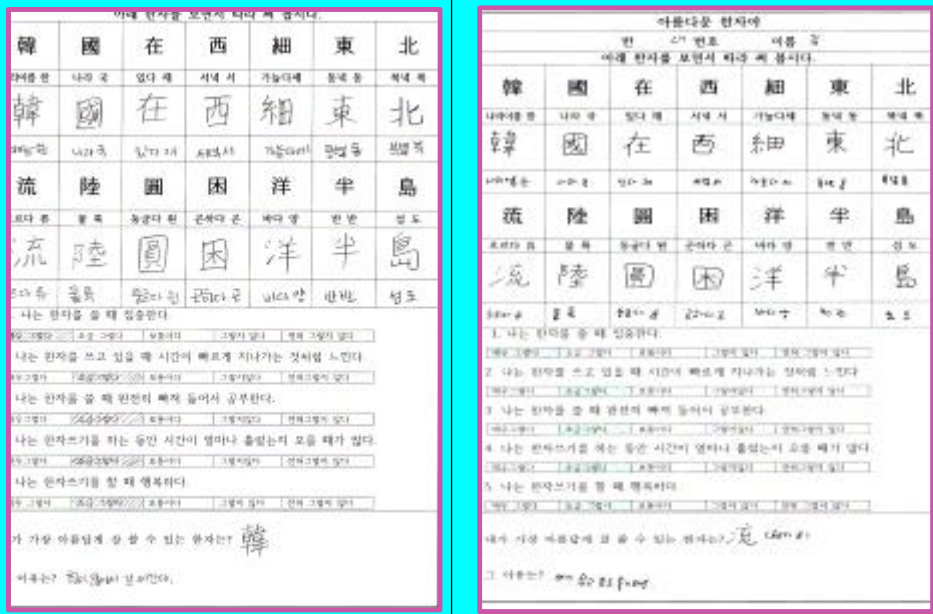
주제	나는 할 수 있다/ 가족 나의 좌우명		
단원	7. 배우고 익히며	지도일시	2015년 5월 7일
수업 목표	1. 한자의 음과 뜻을 익힌다. 2. 能, 問의 한자의 자원을 풀이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높인다.		
행복 영역	긍정적 정서	인간관계	자아존중감
		○	○
단계	수업 활동		매체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폴 포츠’ 동영상 시청하기 http://www.youtube.com/watch?v=e0fu2Kg5DMo</li> <li>· (폴 포츠가 노래를 통해 자신감과 자신에 대한 긍정의 마음을 가지게 된 과정에 주목한다.)</li> </ul>		동영상 시청 3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지를 배부한다.</li> <li>· 能, 問의 설명을 한다.</li> <li>· 不能則學과 不知則問을 풀이한다.</li> <li>· 꾸준히 노력하여 힘든 상황을 이겨내어 잘 하지 못했던 것을 잘하게 경우를 적고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 마인드를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자(1-20번)</li> <li>· 나의 좌우명 가족 좌우명 선정 및 실천하기(21-40번)</li> </ul>		7
정리	느낀 점을 발표한다.		2
학생 작품			
느낀점	<p>이00 : 앞으로 더욱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겠다. 박00 : 앞으로 꾸준히 노력하고 포기 하지 않아야겠다.</p>		

〈표 11〉 ‘행복을 위하여’를 통한 행복감

주제	행복하기 위해		
단원	8. 스스로 반성하며	지도일시	2015년 5월 12일
수업 목표	1. 한자의 음과 뜻을 익힌다. 2. 幸의 음과 뜻을 풀이하고 생활 속의 행복에 대해 실천한다.		
행복 영역	긍정적 정서	인간관계	자아존중감
	○		
단계	수업 활동		
도입	· 새로 나온 한자의 음과 뜻을 노래로 듣고 따라 하기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지를 배부한다.</li> <li>· 幸, 省의 자원풀이를 한다.</li> <li>· 행복과 불행에 대해 설명한다.</li> <li>· 오늘 행복한 일과 불행한 일에 대해 적는다.</li> <li>· 앞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실천해야 할 일은</li> <li>· 우리 학급에서 닮고 싶은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li> </ul>		
정리	느낀 점을 발표한다.		
학생 작품	 		
느낀점	<p>최00 : 어제 감기 때문에 너무 아팠는데 오늘 자고 일어나니까 조금 나아진 것 같아 행복하다, 불행한 일은 5일 뒤에 시험이라서 스트레스가 쌓인다. 하지만 극복해나가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자.</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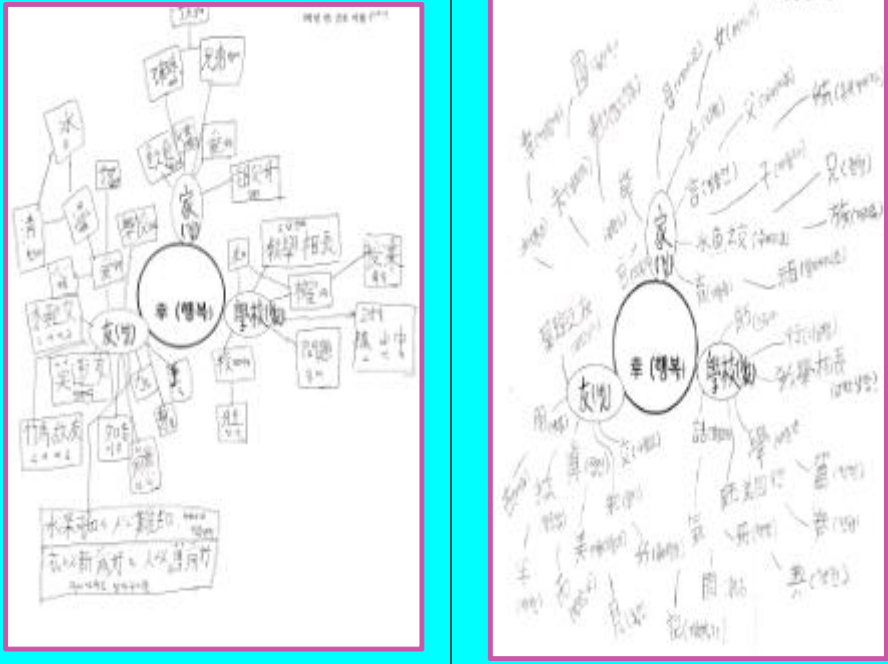


〈표 12〉 ‘아름다운 한자 쓰기’를 통한 행복감

주제	한자 쓰기		
단원	9. 우리 민족의 터전	지도일시	2015년 5월 14일
수업 목표	1. 한자의 음과 뜻을 익힌다. 2. 國, 島의 음과 뜻을 풀이하고 한자쓰기에 몰입한다.		
행복 영역	긍정적 정서	인간관계	자아존중감
			몰입 ○
단계	수업 활동		매체
도입	· 새로 나온 한자의 음과 뜻을 노래로 듣고 따라 읽기		2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지를 배부한다.</li> <li>· 새로 나온 한자의 필순을 익힌다.</li> <li>· 國, 北, 島, 洋, 圓의 원리를 설명한다.</li> <li>· 새로나온 한자를 바르게 적는다.</li> <li>· 자신이 가장 아름답게 잘 쓸 수 있는 한자를 적고 이유를 적는다.</li> </ul>		10
정리	느낀 점을 발표한다.		3
학생 작품			
느낀 점	<p>도00: 마음에 들어서 困, 모양이 마음에 들어서</p> <p>최00: 半 그냥 쓰기 쉽다, 쓰는 순서와 방법이 간단하다</p> <p>김00: 島 쓰기 편해서, 여러번 써서</p> <p>박00: 바다를 좋아해서 洋</p>		



〈표 13〉 ‘행복 한자 마인드 맵’을 통한 행복감

주제	행복 한자 마인드 맵		
단원	1과-10과	지도일시	2015년 5월 19일
수업 목표	1. 한자의 음과 뜻을 익힌다. 2. 행복과 관련된 한자의 마인드맵을 작성하여 행복감을 느낀다.		
행복 영역	긍정적 정서	인간관계	자아존중감
			몰입 ○
단계	수업 활동		매체
도입	· 지금까지 배운 단어를 활용하여 행복을 떠올리는 단어 적기		3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지를 배부한다.</li> <li>· 행복과 관련된 마인드 맵을 설명한다.</li> <li>· 家族과 관련된 행복</li> <li>· 友과 관련된 행복</li> <li>· 學校와 관련된 행복</li> </ul>		15
정리	느낀 점을 발표한다.		2
학생 작품			
느낀점	<p>박00 : 한자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p> <p>이00 : 조금 어려웠지만 재미있었고 한자를 찾는 재미가 있었다.</p>		

〈표 14〉 ‘한자가 신기해요’를 통한 행복감

주제	한자가 신기해요																																								
단원	1과-5과	지도일시	2015년 5월 21일																																						
수업 목표	1. 부수의 의미에 대해 설명한다. 2. 水, 心, 日 등 부수와 관련된 한자의 의미를 알고 이와 관련하여 다른 한자들도 몰입하여 유추한다.																																								
행복 영역	긍정적 정서	인간관계	자아존중감	몰입 ○																																					
단계	수업 활동				매체																																				
도입	· 부수는 뜻을 나타냄을 설명한다.				3																																				
전개	<p>부수는 한자의 뜻과 관련이 깊다. 공통된 부분을 색칠해 보고 한자의 음과 뜻을 적어봅시다.</p> <table><tr><td>水( 氵 )</td><td>工</td><td>洋</td><td>流</td><td>深</td><td>海</td></tr><tr><td>물, 수</td><td>강, 강</td><td>바다, 양</td><td>흐르다, 류</td><td></td><td></td></tr><tr><td>活</td><td>淸</td><td>油</td><td>泣</td><td>河</td><td>測</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水( 氵 )	工	洋	流	深	海	물, 수	강, 강	바다, 양	흐르다, 류			活	淸	油	泣	河	測							17												
水( 氵 )	工	洋	流	深	海																																				
물, 수	강, 강	바다, 양	흐르다, 류																																						
活	淸	油	泣	河	測																																				
학생 작품	<p>부수는 한자의 뜻과 관련이 깊다. 공통된 부분을 색칠해 보고 한자의 음과 뜻을 적어봅시다.</p> <table><tr><td>水 ( 氵 ) 물, 수</td><td>工 강, 강</td><td>洋 바다, 양</td><td>流 흐르다, 류</td><td>深 깊다, 실</td><td>海 바다, 해</td></tr><tr><td>活 살, 활</td><td>淸 맑음, 청</td><td>油 기름, 유</td><td>泣 떨다, 립</td><td>河 물, 하</td><td>測 측하다, 측</td></tr><tr><td>心 ( 忄 ) 마음, 심</td><td>忄 심, 심</td><td>忄 걱정, 심</td><td>忍 참을, 린</td><td>忠 충성, 충</td><td>思 생각, 사</td></tr><tr><td>悲 슬픔, 비</td><td>恩  은혜, 언</td><td>志 뜻, 지</td><td>情 뜻, 정</td><td>意 뜻, 의</td><td>忘 잊음, 망</td></tr><tr><td>日 해일</td><td>明 밝음, 밍</td><td>星 별, 성</td><td>春 봄, 춘</td><td>暑 더위, 서</td><td>暖 따뜻함, 난</td></tr><tr><td>上 위로가다</td><td>進 나아가다, 진</td><td>退 후퇴하다, 퇴</td><td>連 결하다, 린</td><td>追 쫓다, 추</td><td>達 달하다, 달</td></tr></table> <p>· 한 글 : 한 글이 한 글이 색칠되었다.</p>					水 ( 氵 ) 물, 수	工 강, 강	洋 바다, 양	流 흐르다, 류	深 깊다, 실	海 바다, 해	活 살, 활	淸 맑음, 청	油 기름, 유	泣 떨다, 립	河 물, 하	測 측하다, 측	心 ( 忄 ) 마음, 심	忄 심, 심	忄 걱정, 심	忍 참을, 린	忠 충성, 충	思 생각, 사	悲 슬픔, 비	恩 은혜, 언	志 뜻, 지	情 뜻, 정	意 뜻, 의	忘 잊음, 망	日 해일	明 밝음, 밍	星 별, 성	春 봄, 춘	暑 더위, 서	暖 따뜻함, 난	上 위로가다	進 나아가다, 진	退 후퇴하다, 퇴	連 결하다, 린	追 쫓다, 추	達 달하다, 달
水 ( 氵 ) 물, 수	工 강, 강	洋 바다, 양	流 흐르다, 류	深 깊다, 실	海 바다, 해																																				
活 살, 활	淸 맑음, 청	油 기름, 유	泣 떨다, 립	河 물, 하	測 측하다, 측																																				
心 ( 忄 ) 마음, 심	忄 심, 심	忄 걱정, 심	忍 참을, 린	忠 충성, 충	思 생각, 사																																				
悲 슬픔, 비	恩 은혜, 언	志 뜻, 지	情 뜻, 정	意 뜻, 의	忘 잊음, 망																																				
日 해일	明 밝음, 밍	星 별, 성	春 봄, 춘	暑 더위, 서	暖 따뜻함, 난																																				
上 위로가다	進 나아가다, 진	退 후퇴하다, 퇴	連 결하다, 린	追 쫓다, 추	達 달하다, 달																																				
느낀점	김00 : 조금 어렵지만 재미있다. 이00 : 한자가 신기하게 느껴진다.																																								

## IV. 분석 및 결과

### 1. 대상 학생의 실태분석

본 연구 대상 지역은 ○○광역시 수성구에 위치한 남녀공학중학교로 이루어져 있다. 본교에서는 3학년에서 한문을 처음으로 배우고 있으며 일주일에 한문을 2시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3학년 11개 학급 중 2학급을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으로 선정하여 실험연구를 진행하였다. 대상학생의 인구 통계적 분석은 <표 15>와 같다.

<표 15> 연구대상학생의 인구 통계적 특성

통제집단				실험집단		
특성	내용	인원	%	내용	인원	%
성별	남	22	56.4	남	23	57.5
	여	17	43.6	여	17	42.5
형제자매 수 (본인포함)	1명	4	10.2	1명	7	17.5
	2명	29	74.4	2명	24	60
	3명	5	12.8	3명	8	20
	4명이상	1	2.6	4명이상	1	2.5
형제자매 순위 (본인포함)	첫째	16	41	첫째	18	45
	둘째	21	53.9	둘째	18	45
	셋째	2	5.1	셋째	4	10
	넷째이상	.	.	넷째이상	.	.
부 직업	고위 관리직등	0	0	고위 관리직등	1	2.5
	중상위 전문직 등	5	12.8	중상급 전문직 등	4	10
	사무직,기술직, 교사등	17	43.6	사무직, 기술직, 교사등	16	40
	자영상공업등	13	33.3	자영상공업등	12	30
	생산직등	2	5.1	생산직등	3	7.5
	단순노무직등	1	2.6	단순노무직등	.	.
	기타등	1	2.6	기타등	4	10
초등 때 한문 학습시기	없다	9	23.1	없다	10	25
	1학년	3	7.7	1학년	6	15
	2학년	3	7.7	2학년	1	2.5
	3학년	8	20.5	3학년	5	12.5
	4학년	7	17.9	4학년	5	12.5
	5학년	8	20.5	5학년	10	25
	6학년	1	2.6	6학년	3	7.5
한자자격증	있다	17	43.6	있다	20	50
	없다	22	56.4	없다	20	50

인구 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통제집단은 형제자매가 2명, 형제자매의 순위는 둘째, 부모의 직업은 3번, 초등학교 때 한문은 주로 3학년과 5학년 때 배웠으며 한자 자격증은 43.6%가 소지하고 있었다.

실험집단의 경우, 형제자매가 2명, 형제자매의 순위는 첫째와 둘째, 부모의 직업은 3번, 초등학교 때 한문은 주로 5학년 때 배웠으며 한자자격증은 50%가 소지하고 있었다.

## 2. 신뢰도 검정

신뢰성은 동일한 개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 나타나는 측정값들의 분산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Cronbach's  $\alpha$ 계수가 0.6이상이면 측정항목의 신뢰도에는 별 문제가 없으므로<sup>36)</sup>, <표 16>에서의 신뢰도 분석결과는 0.697에서 0.896에 이르는 0.6이상의 신뢰도로 내적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16> 신뢰도 분석

변 수	통제 집단 Cronbach $\alpha$		실험 집단 Cronbach $\alpha$	
	사전	사후	사전	사후
몰입	.818	.809	.823	.789
자아 존중감	.764	.704	.786	.719
긍정적 정서	.758	.768	.778	.709
인간관계	.783	.774	.786	.786
전체	.839	.772	.896	.697

## 3. 동질성 검정

### 1) 집단별 행복감 사전 동질성 검사

여러 변인이 실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두 개 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검사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모두 실시하여 두 집단의 동

36) 강병서 · 김계수(2012), 314면.

질성을 확인하였다. 행복감 영역에 대한 사전검사는 <표 17>과 같다.

<표 17> 집단별 행복감 영역의 사전검사 수준

구분	집단	N	N	SD	t	p
몰입	통제집단	39	16,2820	3.8453	1.303	0.405
	실험집단	40	15,0250	4.6766		
자아 존중감	통제집단	39	18,0512	3.9333	0.703	0.376
	실험집단	40	17,3500	4.8703		
긍정적 정서	통제집단	39	18,1282	3.9615	1.258	0.396
	실험집단	40	16,8500	4.9951		
인간관계	통제집단	39	20,1794	3.7827	1.174	0.396
	실험집단	40	18,9500	5.3634		
전체	통제집단	39	72,6410	12,7578	1.297	0.280
	실험집단	40	68,1750	17,4104		

<표 17>를 살펴보면, 각 요인의 사전검사 전체 수준 분석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확률 P가 0.05보다 크므로 양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양 집단간 행복감 하위요인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0.05). 따라서 두 집단은 사전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동질한 집단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2) 집단별 학업성취도 사전 동질성 검사

3학년 학기 초 두 집단의 수업방법별 학업성취도 효과를 <표 18>과 같이 분석해 본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

<표 18> 학업성취도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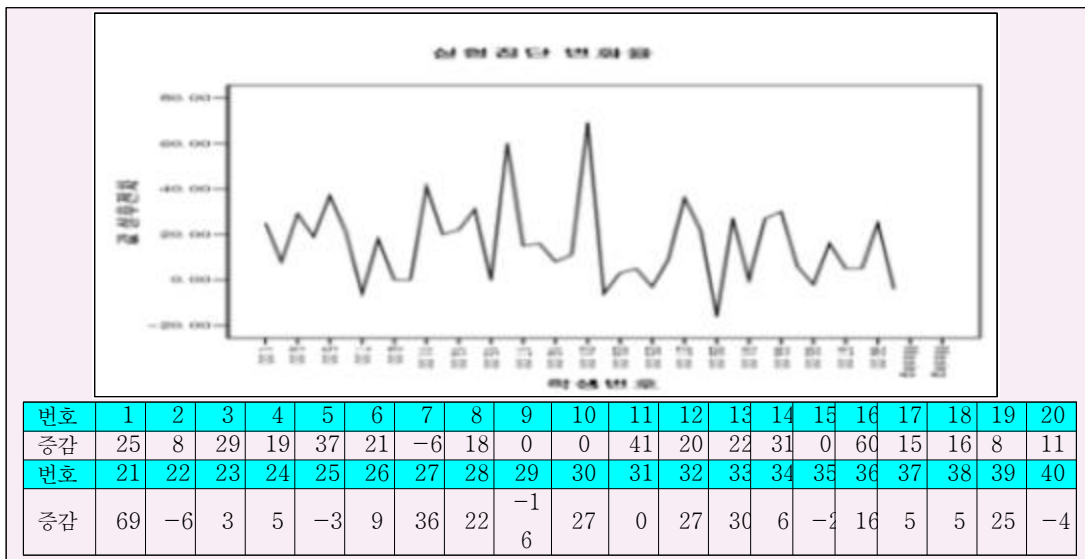
집단	N	M	SD	t	p
실험집단	40	71.75	18,0480	1.409	.165
통제집단	39	77.17	19,4596		

#### 4. 연구 문제

1) 연구문제 1 : 실험집단 중학생의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라 행복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1) 개인별에 따른 행복감의 변화율 비교

실험집단학생들의 개인별 사후사전차의 행복감 변화율을 알아본 결과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실험집단학생 개인 변화율

위의 <그림 1>를 살펴보면, 사후 사전차의 변화율이 높은 학생은 21번이며 가장 변화율이 낮은 학생은 29번 학생이다.

가장 변화율이 높은 21번 학생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2명의 형제 중 둘째이며 초등학교 때 한문을 배운 경험이 없는 남학생이다. 활발하고 적극적이며 밝은 표정으로 수업에 임하나 자신의 잘못을 지적할 때면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이다. 21번 학생은 자신의 이름처럼 미래에 훌륭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하였으며 한문 수업 중에 이름풀이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였다.

가장 변화율이 낮은 학생은 29번 여학생의 경우 형제자매가 4명이며 그 중에서 첫째이다. 한문을 배운 적도 없으며 자격증도 소지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가정주부이며 아버지는 회사에 다니신다. 항상 차분하며 한자를 바르고 아름답게 잘 쓰며, 과제물을 충실히 준비해오는 성실한 여학생이지만 다소 예민하고 밝고 긍정적인 면이 약간 부족하였다. 29번 학생의 수업관찰 결과,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보다는 겸손함과 자신을 낮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언어와 행동에서도 더 반듯하게 하려는 경향이 나타나 사전에 비해 사후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 같았다.

#### 실험반 수업관찰일기

교사: 오늘은 2과 가족관련 내용입니다.

교사: 가족과 함께 있었던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학생: 별로 없어요. 가족여행,

교사: 오늘 아침에는 부모님께 어떻게 했나요?

학생: 짜증났어요, 그냥요, 인사하고 왔어요..

교사: 쌤도 아침에 정신없이 출근했어요.

교사: 새로 나온 한자를 00학생이 읽고 나머지 학생들은 따라 읽어주세요.

00학생: 한자 읽기- 따라 읽기

교사: 가족에 관한 한자입니다. 父, 母 관련 그림과 유래를 ppt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생: 공책에 한자를 한번 쓰기

교사: 가족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http://kwh2219.blog.me/22> 동영상 보면서 가족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 봅시다.

학: 쌤, 이 수업은 진로 수업 같아요..

교: 이 동영상을 보고 선생님이 학습지를 배부해 주겠습니다. 가족과 관련된 행복명찰을 만들어 봅시다.

학: 왜 만들어요. 선생님

학: 성실을 한자로 어떻게 써요..이거 어떻게 해요..

학: 차분하면서 진지하게 부모님 명찰과 자신의 행복명찰을 작성하고 2명은 발표를 한다.

#### 〈행복 가족 명찰 만들기 수업〉

## (2) 성별에 따른 행복감 효과 비교

실험집단학생의 남·여 성별에 따른 행복감 전체 및 각 요인별 효과를 <표 19>에서 살펴보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표 19> 성별에 따른 행복감 전체 및 각 요인별 효과 비교

행복감	구분	사후-사전	N	M	SD	t	p
전체효과	남자	사후사전차	23	19.1739	19.3100	1.450	.155
	여자	사후사전차	17	11.0588	14.6136		
몰입 효과	남자	사후사전차	23	4.3043	6.1823	.923	.361
	여자	사후사전차	17	2.4705	6.2561		
자아존중감 효과	남자	사후사전차	23	5.2608	6.4117	1.212	.232
	여자	사후사전차	17	3.0000	4.9244		
긍정적 정서효과	남자	사후사전차	23	5.3478	6.3217	1.049	.300
	여자	사후사전차	17	3.4705	4.3891		
인간관계 효과	남자	사후사전차	23	4.2608	5.3869	1.385	.173
	여자	사후사전차	17	2.1176	3.9509		

그러나 남녀별로 평균의 변화량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행복감 전체 및 각 요인별 신장률을 보면 평균의 변화량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sup>37)</sup> 그 이유는 여학생은 활동적인 수업보다는 정적인 수업에서, 남학생의 경우 정적인 수업보다는 활동적이며 변화가 있는 수업에서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다.

## (2) 한자자격증 유무에 따른 행복감 효과 비교

실험집단 중학생의 한자자격증 유무에 따라 행복감 변화율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표 20>에서와 같이 몰입을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37)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표 20〉 한자자격증 유무에 따른 행복감 전체 및 각 요인별 효과 비교

구분	자격증 유무	사후 - 사전	M	S.D	N	t	p
행복감 전체	있다	사후 사전차	87.1500	17.1840	20	1.386	.173
	없다	사후 사전차	80.6500	12.0012	20		
몰입	있다	사후 사전차	20.9000	5.9550	20	2.637	.012
	없다	사후 사전차	16.2000	5.2974	20		
자아존중	있다	사후 사전차	22.0000	6.1043	20	.434	.666
	없다	사후 사전차	21.3000	3.8127	20		
긍정적 정서	있다	사후 사전차	21.7000	5.8498	20	.375	.703
	없다	사후 사전차	21.1000	4.1026	20		
인간관계	있다	사후 사전차	22.5500	4.9361	20	.346	.730
	없다	사후 사전차	22.0500	4.1482	20		

〈표 20〉을 살펴보면 한자자격증을 소지한 학생이 몰입요소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P < 0.05$ ).

그 이유를 살펴보면, 몰입과 관련된 수업으로는 한자카드빨리 잡기와 자신이 좋아하는 한자 쓰기, 행복 한자 마인드맵과 관련된 수업들이 한자 자격증을 소지한 학생은 기본적인 한자와 관련된 지식이 습득되어져 있어 한자 수업에 몰입하여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것이 변화율을 높이게 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사후사전차를 이용한 행복감 전체 평균변화율을 살펴보면, 한자자격증을 소지한 학생의 평균이 87.1500이며 한자자격증이 없는 학생은 80.6500으로 행복한자수업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평균변화율이 6.5000 높게 나타났다.

### (3) 학부모 직업에 따른 행복감 효과 비교

학부모의 직업에 따라 행복감의 변화율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표 21〉에서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표 21〉 학부모직업에 따른 행복감 전체 및 각 요인별 효과 비교

구분	직업	사후 - 사전	M	S.D	N	F	p
행복감 전체	1	사후 사전차	0	.	1	.810	.550
	2	사후 사전차	19.2500	12.6852	4		
	3	사후 사전차	13.8750	15.7220	16		
	4	사후 사전차	12.1666	12.6407	12		
	5	사후 사전차	28.3333	30.1385	3		
	6	사후 사전차	.	.	.		
	7	사후 사전차	24.7500	32.6228	4		
몰입	1	사후 사전차	0	.	1	.956	.458
	2	사후 사전차	7.7500	2.0615	4		
	3	사후 사전차	4.0000	6.4807	16		
	4	사후 사전차	1.4166	6.0371	12		
	5	사후 사전차	1.3333	8.0829	3		
	6	사후 사전차	.	.	.		
	7	사후 사전차	6.2500	6.8495	4		
자아 존중감	1	사후 사전차	0	.	1	1.062	.397
	2	사후 사전차	4.5000	4.3588	4		
	3	사후 사전차	3.0625	4.8369	16		
	4	사후 사전차	4.2500	3.6711	12		
	5	사후 사전차	11.0000	8.1853	3		
	6	사후 사전차	.	.	.		
	7	사후 사전차	5.2500	12.5260	4		
긍정적 정서	1	사후 사전차	0	0	1	.880	.504
	2	사후 사전차	4.6457	2.3228	4		
	3	사후 사전차	4.8149	1.2037	16		
	4	사후 사전차	3.5707	1.0307	12		
	5	사후 사전차	9.5393	5.5075	3		
	6	사후 사전차	.	.	0		
	7	사후 사전차	10.7544	5.3774	4		
인간관계	1	사후 사전차	0	0	1	.770	.577
	2	사후 사전차	4.8562	2.4281	4		
	3	사후 사전차	3.4874	0.8718	16		
	4	사후 사전차	4.0028	1.1555	12		
	5	사후 사전차	7.9372	4.5825	3		
	6	사후 사전차	.	.	.		
	7	사후 사전차	9.7082	4.8541	4		

직업분류 1. 고위직, 2. 전문직, 3. 공무원 회사원, 4. 자영업, 5. 서비스직, 6. 일용직, 7. 기타 및 무응답

〈표 21〉를 살펴보면 행복감 전체에서는 부모의 직업이 5번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변화가 가장 높았다. 부모의 직업이 5번인 학생 3명의 개인 특성을 살펴보면, 한자자극

증을 소지한 학생은 2명이며 6급, 4급을 취득하였으며,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때 한문을 배웠고, 나머지 1명은 자격증이 없는 1명은 한문을 배운 적이 없는 학생이다.

행복감 하위요인에서는 몰입영역에서는 학부모 직업이 2번에 해당하는 학생 4명의 변화가 가장 높았다. 이 학생들의 개인특성을 살펴보면, 2명은 한자 자격증을 소지하였으며 2명은 한자자격증이 없었다. 또한 초등학교 때 한문을 배운 학생은 3명이며 1명은 배운 적이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 (4) 초등학교 때 한문을 배운 시기에 따른 행복감 효과 비교

초등학교 때 한문을 배운 시기에 따라 행복감의 변화율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표 22>에서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표 22〉 초등학교 한문학습경험유무에 따른 행복감 전체 및 각 요인별 효과 비교

구분	한문학습경험	사후 - 사전	M	S.D	N	F	p
행복감 전체	없다	사후 사전차	19.5000	24.8070	10	1.831	.123
	1학년	사후 사전차	30.0000	15.9122	6		
	2학년	사후 사전차	19.0000	.	1		
	3학년	사후 사전차	14.0000	16.1709	5		
	4학년	사후 사전차	11.8000	12.3975	5		
	5학년	사후 사전차	7.7000	11.7194	10		
	6학년	사후 사전차	9.6666	13.0511	3		
몰입	없다	사후 사전차	2.0000	6.7164	10	1.831	.123
	1학년	사후 사전차	10.1666	3.0605	6		
	2학년	사후 사전차	8.0000	.	1		
	3학년	사후 사전차	1.8000	6.8702	5		
	4학년	사후 사전차	2.6000	5.1768	5		
	5학년	사후 사전차	1.5000	5.3176	10		
	6학년	사후 사전차	5.0000	7.8102	3		
자아존중감	없다	사후 사전차	6.2000	6.7461	10	.793	.581
	1학년	사후 사전차	7.1666	6.9113	6		
	2학년	사후 사전차	1.0000	.	1		
	3학년	사후 사전차	4.8000	4.7116	5		
	4학년	사후 사전차	1.8000	8.6429	5		
	5학년	사후 사전차	2.6000	3.5962	10		
	6학년	사후 사전차	2.3333	3.2145	3		

긍정적 정서	없다	사후 사전차	6.2000	6.8280	10	1.233	.314
	1학년	사후 사전차	8.5000	4.1352	6		
	2학년	사후 사전차	5.0000	.	1		
	3학년	사후 사전차	4.2000	5.8051	5		
	4학년	사후 사전차	4.000	8.2764	5		
	5학년	사후 사전차	1.7000	2.5841	10		
	6학년	사후 사전차	2.000	3.4641	3		
인간관계	없다	사후 사전차	5.1000	6.6240	10	.556	.761
	1학년	사후 사전차	4.1666	6.1128	6		
	2학년	사후 사전차	5.0000	.	1		
	3학년	사후 사전차	3.2000	2.1679	5		
	4학년	사후 사전차	3.4000	5.1768	5		
	5학년	사후 사전차	1.9000	3.9285	10		
	6학년	사후 사전차	0.3333	0.5773	3		

그러나 <표 22>를 살펴보면 행복감 전체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때 한문을 배운 학생들의 변화가 가장 높았다.

행복감 하위요인에서는 몰입, 자아존중, 긍정정서영역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때의 한문학습경험이 변화가 가장 높았다. 인간관계에서는 한문경험이 없는 집단이 변화율이 조금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 2학년→1학년→4학년→3학년→5학년→6학년 순이다.

## 2) 연구문제 2 :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서는 행복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행복함의 비교 효과

두 집단간의 행복에 미치는 전체 및 각 요인별 효과를 <표 23>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3〉 집단 간 행복 전체 및 각 요인별 효과 비교

구분	집단	사후 - 사전	M	S.D	N	t	p
행복감 전체	통제집단	사후 사전차	-.1538	15.8322	39	-4.201	.000
	실험집단	사후 사전차	15.7250	17.7330	40		
몰입	통제집단	사후 사전차	.6410	3.8216	39	-2.495	.015
	실험집단	사후 사전차	3.5250	6.2016	40		
자아존중	통제집단	사후 사전차	-.4103	3.7746	39	-4.254	.000
	실험집단	사후 사전차	4.3000	5.8669	40		
긍정적 정서	통제집단	사후 사전차	-.51280	3.8448	39	-4.696	.000
	실험집단	사후 사전차	4.5000	5.5973	40		
인간관계	통제집단	사후 사전차	-1.1538	4.1646	39	-4.410	.000
	실험집단	사후 사전차	3.3500	4.8913	40		

〈표 2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두 집단의 행복감 전체효과를 비교해 보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사후사전차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p<0.05$ ).

각 요인별 효과에서도 살펴보면 몰입, 자아존중, 긍정적 정서, 인간관계에 대한 사전 사후검사의 비교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사후사전차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p<0.05$ ).

몰입에 대한 행복한자수업에서는 실험집단의 경우 부수의 뜻을 이용한 한자, 행복과 관련된 마인드 맵, 한자쓰기 등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몰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자아존중에 대한 행복한자수업에서는 이름풀이를 통해서 이름에 대한 자부심, ‘能’, ‘不能則學’,에서는 잘하지 못하면 배우듯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야겠다는 의지, 耳, 目, 口, 鼻 등 신체와 관련된 한자를 자신의 외모와 관련하여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부심을 길러주는 수업 등이 중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긍정적 정서에서는 ‘言’, ‘美’, ‘來言不美 去言何美’ 등을 통한 아름답고 고운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정서적으로 순화되었다는 점, ‘問’, ‘不問則學’의 풀이를 통해 자신의 좌우명과 가정의 좌우명을 통해 열심히 노력하자는 긍정적인 생각, 모둠별로 부수를 노

래로 만들어 불러보기 등을 통해 정서적으로 순화가 되었다는 것이 실험집단의 행복감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인간관계에서는 ‘友’, ‘朋’, ‘知音’ 등의 풀이를 통해 교우관계의 중요성, 친구와 서로 돕고 잘 지내야겠다는 것을 발표한 것이 행복감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내의 행복함의 비교 효과

두 집단간의 행복에 미치는 전체 및 각 요인별 효과를 <표 24>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4> 집단 내 교우관계 전체 및 각 요인별 효과 비교

구분	집단	검사	M	SD	N	t	p
행복감 전체	통제집단	사전검사	72.6410	12.7578	39	.061	.952
		사후검사	72.4872	20.4191			
	실험집단	사전검사	68.1750	17.4104	40	-5.608	.000
		사후검사	83.9000	14.9953			
몰입	통제집단	사전검사	16.2821	3.8453	39	-1.048	.301
		사후검사	16.9231	4.5212			
	실험집단	사전검사	15.0250	4.6766	40	-3.595	.001
		사후검사	18.5500	6.0508			
자아존중	통제집단	사전검사	18.0513	3.9333	39	.679	.501
		사후검사	17.6410	4.7488			
	실험집단	사전검사	17.3500	4.8703	40	-4.635	.000
		사후검사	21.6500	5.0360			
긍정적 정서	통제집단	사전검사	18.1282	3.9615	39	.833	.410
		사후검사	17.6154	5.0084			
	실험집단	사전검사	16.8500	4.9951	40	-5.141	.000
		사후검사	21.4000	4.9964			
인간관계	통제집단	사전검사	20.1795	3.7827	39	1.730	.092
		사후검사	19.0256	4.9069			
	실험집단	사전검사	18.9500	5.3634	40	-4.332	.000
		사후검사	22.300	4.5075			

〈표 2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행복감 전체에 대한 사전 사후검사의 비교에서 유의확률  $p$ 가 실험집단은 0.000, 통제집단은 0.952으로 실험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p < 0.05$ ).

행복감 영역의 각 요인별 항목을 비교 분석하여 보면 몰입, 자아존중, 긍정적 정서, 인간관계 등이 실험집단은 사전사후 변화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p < 0.05$ ). 그 이유를 살펴보면, 행복 마인드맵, 부수풀이, 아름다운 한자쓰기 등의 수업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통제집단은 사전사후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p > 0.05$ ).

## V. 결론

본 연구는 한자 교육에서 행복 증진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중학교 한문교과서의 한자영역에서 행복감과 관련된 한자요소를 추출하고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및 자료를 이용하여 이를 현장수업에 적용하여 행복감이 어느 정도 길러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연구대상 학생들의 성별, 학부모 직업, 한자자격증 유무, 한문학습경험 등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라 행복감에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사후사전차에 의한 평균변화율을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행복감 전체 및 각 요인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행복감 신장률이 더 높았으며, 학부모직업에서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를 둔 학생들의 평균변화율이 제일 높았다.

그리고 한자 자격증 유무에 따라서는 전체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의 평균 변화율이 높았으나 특히 몰입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초등학교 때 한문 학습경험 유무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1학년 때 한문을 배운 학생들이 행복감 전체 및 각 요인에서 평균변화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는 한문을 배우지 아니한 학생들의 평균변화율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행복감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행복감 전체에 미치는 효과에서는 실험집단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험집단의 평균변화율이 15.7250점인데 반해 통제집단의 평균변화율은 -.1538점에 그쳐 행복감신장을 위한 행복한자 수업이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

각 요인별 효과에서는 몰입, 자아존중감, 긍정적 정서, 인간관계에서 실험집단 중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내의 행복감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역시 실험집단의 사후사전차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통제집단의 사후사전차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자교육에서 행복감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여 중학생의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한자교육에서 중학생들에게 행복감을 증진에 대한 현장연구이지만 차후에는 한시영역, 고사성어, 경전 등에서도 청소년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많은 행복감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바란다.

둘째,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자교육에서 행복감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여 중학생의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초등학생, 더 나아가 고등학생에게도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과 자료의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의 행복설문지는 선행연구물의 행복설문지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실시하였다. 미래연구에서는 한문교과에 알맞게 좀 더 과학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한 설문지를 구성하여 개발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병서·김계수(2012), 『spss17.0 사회과학통계분석』, 한나래 아카데미, 314면.  
강영하(2008), 「초등학생의 행복감 구성요인 탐색」, Vol.21 No.2, 초등교육연구, 159~177면.  
교육과학기술부(2012), 『한문과 교육과정 별책 17』, 3면, 5면, 16면.  
권석만(2008), 『긍정심리학: 과학적 탐구』.



- 김영주외6인(2014), 『중학교 한문』, (주)천재교과서.
- 김영주외6인(2014), 『중학교 한문』, 교사용지도서, (주)천재교과서.
- 김종백·김태은(2008), 「학교행복 검사도구 개발 및 타당화」, Vol.22 No.1, 教育心理研究, 259~279면.
- 네이버 어학사전
- 대구시교육청(2014), 『중학교대구행복역량교육과정 각론』, 대구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15-8호, 2면, 64면.
- 대구시교육청(2014), 『행복인식 전환교육 교재 ‘행복생활’ 수업자료 우리들의 행복생활』, 2014-교육과정운영과-3-425, 1~66면.
-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2015).
- 박선민(2013), 「감사 일기 쓰기가 초등학교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3면, 14면.
- 박정애(2012), 「초등학교의 사회기능과 행복감의 관계」, 충남대학교 석사논문, 24~25면.
- 朴洪植(2010), 「『논어』의 행복론」, 성균관대학교 儒敎文化研究, Vol.-No.17, 285~310면.
-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2014), 『행복한자』, 1~142면.
- 송유진(2013), 「『논어』의 ‘행복’에 관한 교육학적 의미-탈현대성을 중심으로」, 『교육철학』 제49집: 163~187면.
- 안외순(2010), 「공자의 행복관 : 『論語』를 중심으로」, 東洋古典研究 Vol.41. 303~332면.
- 우종완(2008), 「행복 쑥쑥 프로그램이 초등학교의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 공주교육대 석사논문, 1~105면.
- 유지혜(2012), 「기술·가정교과의 중학교1학년 ‘청소년의자기관리’ 단원의 실천적 문제 중심과정과교수-학습과정안개발및효과검증: 중학생의자아효능감, 자아탄력성, 행복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36~44면.
- 이도연(2015), “한국, 행복지수 158개국 중 47위...1위 스위스”, 연합뉴스
- 이미애(2015), 「한문교육을 통한 행복교육」, 영남대학교 한자문화연구소, 63~73면.
- 이정화(2004). 「초등학교의 행복감 측정을 위한 도구의 개발」, 공주교육대학교 석사논문, 1~52면.
- 이지혜(2014), “어린이·청소년 주관적 행복지수 6년째 OECD”, 조선일보.
- 이혜정(2015), 「긍정 심리학의도덕교육적 적용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1~14면.
- 이훈구(1997), 「한국인의 긍정적 정서」, Vol.6 No.2, 서울대학교 심리과학연구소, 45~60면.
- 임영진(2015), 「성격 강점과 긍정 심리치료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58면.
- 장진우·이윤주(2009), 「대학생을 위한 행복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청소년상담연구」, Vol. 17, No. 2, 청소년상담연구, 122면.

- 정희욱(2003), 「초·중·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적 및 부정적 정서와의 관계 :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Vol.10 No.4. 443~458면.
- M. Seligman & M. Csikszentmihalyi(2000),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55(1), p.37.



# **자유주제 발표**





# 漢字教育,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金 奉 楠\*

## •目次•

- |                        |                       |
|------------------------|-----------------------|
| 1. 서 언                 | 3. 한자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
| 2. 한자교육,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 1) 동일 계통의 部首 연계 설명    |
| 1) 한자교육 패러다임의          | 2) ‘觸類旁通’식 한자교육       |
| 변화 : 『說文解字』에서 甲骨文으로    | 3) 類似漢字 상호 비교 설명      |
| 2) 甲骨文 解釋에 있어서의 異見 檢討  | 4) 의미 변화와 그 이유에 대한 설명 |
| 3) 形聲字에 대한 인식의 전환      | 5) 本字와 後起字 연관 설명      |
| 4) 會意字에 대한 올바른 이해      | 4. 맺음말                |

## 1. 서 언

한자교육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한자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화두이다. 한자는 오랜 시일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 만든 表意文字이다. 실로 한자의 최초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갑골문이나 금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현명한 사람의 심사숙고의 결과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이후 생성된 회의자와 형성자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점을 인지하여 부단한 노력 끝에 한자가 가진 본래의 뜻과 변화된 뜻,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도저히 한자교육을 소홀하게 대충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자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한자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그러니 잘 하고 싶어도 잘 해낼 방법이 없다. 이에 관해 문자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진 다산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영남대학교 한문교육과 부교수

옛날에는 小學에서 오로지 字書만 익혀 글자마다 講究하여 象形과 會意와 諧聲의 까닭이 마음과 눈 사이에 명백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리하여 바야흐로 글을 지어 편장을 만들 때 글자와 글자를 결합하여 적절하게 사용하였다. 때문에 문장이 서로 도습되지 아니하고, 참신하고 엄격하고 警發하여 『左氏傳』·『孟子』·『莊子』·屈原이 각기 한 체를 이루었다. 후세에는 字書를 익히지 아니하고 곧장 古文을 읽었기 때문에 마음과 눈에 있는 문자가 모두 두 자나 석 자 또는 닉 자씩, 많은 것은 수십 자에 이르도록 연속되어 있으며, 각 글자의 字義에는 모두 흐리멍덩하여 분명하지 못하다.<sup>1)</sup>

다산은 옛날에 소학에서 『爾雅』, 『說文解字』, 『玉篇』과 같은 字書를 가르친 것들로 들어 후세의 한자교육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다. 漢字 하나하나의 정확한 뜻을 모르고 곧장 고문을 공부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해도 참신하고 뛰어난 문장을 짓지 못하고 남이 지은 글을 도습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다산은 『蒙學義彙序』에서도 “醫家에 약초가 있는 것은 문장가에 문자가 있는 것과 같다. 옛날에 의술을 가졌던 사람은 약초의 뿌리 하나하나마다 약의 성질을 분별하여 그 병에 알맞게 사용하였는데, 후세에는 만들어진 처방을 가지고 전체의 병에 쓰고 있다. 이 때문에 의술이 떨어지게 된 것이다. 옛날에 문장을 했던 사람은 글자 하나하나마다 뜻을 분별하여 사리에 맞게 문장을 구사하였는데, 후세에는 이루어진 글귀를 외어다가 그 전체를 표절하니, 이 때문에 문장이 예전만 못한 것이다.”<sup>2)</sup>라며 당시의 한자교육의 문제점을 비판하였다. 의원이 약초 하나하나의 藥性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리기 어려운 것처럼, 학문을 하는 사람이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문장을 짓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조선시대에 무수한 학자가 배출되었지만 字學에 대한 저술을 남긴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sup>3)</sup> 그만큼 字學에 관심이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자를 가

1) 丁若鏞, 『與猶堂全書』, 『韓叢』 281권, 「字說」, 217면. “古者小學, 專習字書, 字字講究象形會意諧聲之所以然, 無不瞭然於心目, 力屬文而爲篇章也, 字字鳩合, 用適其宜, 故其文不相蹈襲, 新嚴警發. 左孟莊屈, 各成一體. 後世不習字書, 直讀古文, 故文字之在心目者, 皆連二字三四字, 多至數十字, 而各字各義, 都罔圖不明.”

2) 丁若鏞, 『與猶堂全書』, 『韓叢』 281권, 「蒙學義彙序」, 285면. “醫家之有藥草, 猶文家之有文字. 古之爲醫者, 根根而辨其性則用中其病, 後世, 執成方而投其全, 醫之術以汚. 古之爲文者, 字字而辨其旨則使中其理, 後世, 誦成句而勑其全, 文莫猶古也.”

3) 다산은 자신이 주장한 문자 교육 방법론을 바탕으로 『爾雅述意』 8권을 찬술하였다. 이 책은 다산이 유배지인 장기에서 저술한 것으로 『이야』와 운서 몇 종을 바탕으로 하여 긴요하게 사용되는 한자 6천5백여 자를 뽑되 의미에 따라 분류하고 그 글자에 간략한 풀이를 단 것이다.

르칠 때에 『說文解字』나 『爾雅』와 같은 자서에 근거를 두지 않았다는 다산의 비판은,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만연했던 문제점이라 해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한자교육은 조선시대와 비교해서 어떠한가? 오늘날 한자교육과 한자 사용의 빈도와 비중에 대해서는 조선시대와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1899년에 한자의 최초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甲骨이 발굴된 실로 충격적인 대사가건이 발생한 이후, 지속적인 발굴과 연구로 인하여 수 천년동안 봉인되었던 한자의 비밀이 풀리자<sup>4)</sup> 한자의 本義를 알고자 하는 열망은 증폭되었다. 다산은 1836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1899년부터 발견된 갑골문과 금문을 보지 못하였다. 만약 다산이 갑골문과 금문을 보았다면, 틀림없이 『爾雅』나 『說文』보다 갑골문과 금문으로 한자를 연구하고 교재를 만들어 아동들을 가르쳤을 것이다.

중국과 일본에서의 갑골문 연구는 1960부터 시작하여 2000년에 이르기까지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 지속적으로 나왔다.<sup>5)</sup> 그리고 국내에서는 1990년에 시작되어 2014년까지 중국과 일본 학자의 저술을 번역하여 소개한 譯書와 문자학 연구의 독자적인 저술이 나오고 있다.<sup>6)</sup> 이처럼 갑골문과 금문을 토대로 한 한자 자원에 대한 연구는 적지

4) 갑골문은 1899년(청나라 光緒 25년)에 중국 河南城 安陽縣 小屯村에서 王懿榮에 의해 처음 발견된 후 劉鶚, 雪堂 羅振玉, 觀堂 王國維, 彥堂 董作賓, 鼎堂 郭沫若, 胡厚宣 등에 의해 연구된 후로 지금까지 약 10만여 조각을 통해 6천여 자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중에서 2천여 자 정도가 解讀되어 한자의 자원을 연구하는데 획기적인 도움을 주었다.

5) 대표적인 저술은 다음과 같다. 〈중국〉: 이효정 편술, 『甲骨文字集釋』, 1974. 광말약, 『甲骨文編』, 중화서국, 1978. 고수번 편찬, 『형음의종합대사전』, 정중서국, 1979. 주법고 주편, 『금문고림』, 중문출판. 광말약 주편, 『甲骨文合集』, 중화서국, 1982. 남목미수 편저, 『금문자형사전』, 일무출판, 1986. 이학근 지음, 『상주 고문자독본』, 어문출판사(북경) 1988. 구석규 지음, 『문자학개요』, 상무인서관(북경), 1988. 이낙의 저, 『한자연변오백례』, 북경어언대학출판사, 1992. 계복 주석, 『설문해자의중』, 제노서사, 1994. 허진웅 저, 『고문해성자근』, 대만 상무인서관, 1994. 대가상 주편, 『금문대사전』, 상해 학림, 1995. 우성오 주편, 『갑골문자고림』, 중화서국, 1996. 조성 편저, 『갑골문자간명사전』, 중화서국, 1996. 탕가경 주석, 『설문해자금석』, 악록서사, 1997. 이포 주편, 『고문자고림』, 상해교육, 1999. 이진화 주장을 편찬, 『한자고음음표』, 중화서국, 1999. 이낙의 저, 『한자연변오백례 속편』, 북경어언대학출판사, 2000. 최구화 하중혜 교점, 『교점주음설문해자』, 북경사대, 2000.

〈일본〉: 白川靜(시라카와 시즈카), 『갑골금문학논총』 전10집, 油印本 1960, 영인본 1974. 白川靜(시라카와 시즈카), 『갑골문집』 전5책, 이편사, 1963. 藤堂明保(토오도 아끼야쓰), 『한자어원사전』, 학등사, 1965. 加藤常賢(가토오 조오겐), 『한자의 기원』, 각천서점, 1970. 白川靜(시라카와 시즈카), 『한자의 세계』, 동양문고, 평병사, 1976. 松丸道雄 편, 『甲骨文字字釋綜覽』, 동경대학 동양문화연구소, 1993.

6) 대표적인 저술은 다음과 같다. 심재훈 역, 『갑골문』, 민음사, 1990. / 이학근 저, 하영삼 옮김, 『고문자학 첫걸음』, 동문선, 1991. / 阿辻哲次(아츠지 데츠지) 지음, 심경호 옮김, 『漢字學』, 이화문화사, 1996. / 하영삼 지음, 『문화로 읽는 한자』, 동방미디어, 1997. / 진관호 지음, 『문자학개론』 도서출판 민족문화, 1997. / 하영삼, 『한자의 세계』, 늘함께, 1998. / 阿辻哲次(아츠지 데츠지) 지음, 김언중·박재양 옮김, 『漢字의 역사』, 학민사, 1999. / 황덕관, 진병신 저, 하영삼 옮김, 『한어문자학사』, 동문선, 2000. / 김언중 지음, 『한자의 뿌리1,2』, 문학동네, 2001. / 정춘수, 『한자오디세이』, 부키, 2003. / 하영삼 지음, 『연상한자』, 예담, 2004. / 白川靜(시라카와 시즈카) 지음, 심경호 옮김, 『한자 백가지 이야기』, 황소자리, 2005. / 白川靜(시

않은 성과를 내었다. 이제는 한자 자원에 관심이 있으면 중국과 대만, 일본 학자의 어려운 原書를 읽지 않아도 된다. 국내에서 출판된 저술로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정도이다.<sup>7)</sup>

그러나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필자가 대구경북의 여러 분의 한문교사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느낀 문제점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 한자 자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경우. ② 한자의 자원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나 공부의 방법이 잘못된 경우. ③ 공부의 방법이 잘못되지는 않았으나 전문가의 책마다 다르게 설명되는 한자의 자원 때문에 혼란을 겪는 경우이다. ②의 경우에 속하는 선생님들이 주로 공부하는 매체는 ‘NAVER 한자사전’과 ‘민중서림 판 『漢韓大字典』’ 등등 이었다. 이들은 대체로 『설문해자』에 근거하거나 신빙성이 부족한 학설에 근거하여 설명한 경우가 적지 않아 정확한 한자자원을 공부하는 매체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겠다. 또 흥미를 끌기 위해 근거 없이 마음대로 한자를 풀이한 책들도 적지 않은데, 이들 책은 멀리하는 것이 좋겠다. 한자의 자원과 본의는 무시하고 흥미유발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흥미를 유발시키되 학술적으로 인정받는 한자의 자원과 본의를 통하여 한자를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③의 경우에 속하는 선생님들이 겪는 고민은 학자들의 설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데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문제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문에 한자 자원에 관심을 가졌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더러 있어 본고에서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본고에서는 국내에 출간된 저술 가운데 믿을 만한 학설을 바탕에 두고 다양한 각도로 효과적인 한자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론 2장에서는 한자교육,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로 한자교육 패러다임의 변화(『說文解字』에서 甲骨文으로), 甲骨文 解釋에 있어서의 異見 檢討, 形聲字에 대한 인식의 전환, 會意字에 대한 올바른 이해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 한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동일 계통의 部首 연계 설명, ‘觸類旁通’식 한자교육, 類似漢字 상호 비교 설명, 의미 변화와 그 이유에 대한 설명, 本字와 後起字 연관 설명 등으로 나누

라카와 시즈카) 지음, 고인덕 옮김, 『한자의 세계』, 솔출판사, 2008. / 한연석 지음, 『한자학개론』, 보고사, 2008. / 白川靜(시라카와 시즈카) 지음, 윤철규 옮김, 『한자의 기원』, 이다미미디어, 2009. / 전광진, 『선생님 한자책』, LBM교육출판사, 2013. / 하영삼 지음, 『한자어원사전』, 도서출판3, 2014.

7) 대표적인 책으로는 김연중 교수의 『한자의 뿌리1,2』, 전광진 교수의 『선생님한자책』, 하영삼 교수의 『한자어원사전』을 들 수 있다.



어 논의해보겠다.

## 2. 한자교육,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본 장에서는 한자교육에 있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보기로 하겠다. 한자교육에 있어 가르칠 내용은 당연히 한자에 대한 설명이다. 그동안 가르쳐 온 것이 혹 잘못되었거나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곧바로 수정하고 보충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한자교육 내용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한자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 『說文解字』에서 甲骨文으로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설문해자』는 중국의 가장 오랜 字典으로, 後漢의 經學者 許慎이 A.D100년에 필생의 노력을 기울여 완성한 책이다. 儒家의 고전에 정통한 허신은 무려 1만여 자에 달하는 漢字 하나하나에 대해, 본래의 글자 모양과 뜻, 발음을 종합적으로 해설하였다. 그는 李斯의 蒼頡篇, 趙高의 嫪毐篇, 胡毋敬의 博學篇, 揚雄의 訓纂篇 등의 기초 위에서 董仲舒·司馬相如·京房·歐陽喬·桑欽·劉向·劉歆 등 대학자 27명의 학설을 널리 채택하여 『설문해자』를 저술하였다. 『설문해자』는 그동안 中國語學 분야의 經典으로 꼽힐 정도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1899년에 갑골문이 발견되고 본격적으로 연구된 이후 『설문해자』의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sup>8)</sup> 허신은 갑골문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 그는 篆書[戰國時代 六國文字]의 일부와 大篆과 小篆을 보고 『설문해자』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연구하고 기록한 한자의 모양과 뜻과 생성원리는 갑골문과 금문을 기반으로 보았을 때와 다른 점이 많다. 한자는 後漢 때부터 최근까지 실로 오랜 기간 『설문해자』의 영향 아래 있었으나 이제는 한자를 설명할 때 더 이상 『설문해자』를 의지하지 않는다.<sup>9)</sup> 그 대신 한자의 기원이 기록

8) 한연석 지음, 『한자학개론』, 보고사, 2008. 참조.

9) 그렇다고 『설문해자』의 학설이 모두 부정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갑골문의 발견으로 문자학의 지평이 확연히 달라졌지만 『설문해자』의 학설이 인정되는 부분도 일부 존재한다. 허신은 갑골문을 보지 못했지만, 일부의 글자는 갑골문의 설과 동일한 설명을 하여 깊은 학식을 인정받기도 하였다.

되어 있는 갑골문과 금문에서 답을 찾고 있다. 중국, 대만,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러한 변화가 시작되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변화의 속도가 더딘 편이다. 아직도 국내에는 『설문해자』의 학설을 인용하는 서적과 인터넷 사이트가 적지 않으며, 『설문해자』의 한자 설명을 학생들에게 인용하는 교사나 교수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이제부터라도 한자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은 『설문해자』에서 갑골문으로 바뀌어야 한다. 본장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한자에 대한 『설문해자』의 설과 갑골문의 설을 비교하여 양자 간의 차이를 고찰해보기로 하겠다.

- ① 東: 『설문해자』에서는 소전의 자형(東)에 근거하여 “움직인다는 뜻이다. 관부는 해가 나무에 걸린 모습이라고 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갑골문(東)을 보면 “물건을 담고 양 끝과 중간을 묶어 놓은 자루”의 상형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본뜻은 ‘물건을 담은 자루’이다. 여기서 ‘담다’, ‘물건’의 뜻이 생겼다.
- ② 西: 『설문해자』에서는 소전의 자형(西)에 근거하여 “새가 둥지에 있는 모양”으로 보아 해질 무렵 새들이 둥지로 날아 들어오는 것으로 서쪽이라 하였다. 그러나 갑골문(西)을 보면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의 모양이며 본뜻은 ‘대바구니’이다. 여기서 ‘물건을 담다’, ‘물건’의 뜻이 생겼다. 오늘날 중국어로 ‘東西[dōng·xī]’에 물건이라는 뜻이 있는 것은 ‘東’과 ‘西’의 본뜻이 물건이기 때문이다.
- ③ 士: 『설문해자』에서는 소전의 자형(士)에 근거하여 士를 一과 十을 더한 것으로 보고 열 가지 복잡한 일을 하나로 귀납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일 잘하는 사람이 본뜻이라 하였다. 그러나 갑골문(士)을 보면 도끼의 상형임을 알 수 있다. 본뜻은 ‘무사’이다.
- ④ 丞: 『설문해자』에서는 소전의 자형(丞)에 근거하여 “돕는다는 뜻이다. 공으로 구성되었고 절로 구성되었고 산으로 구성되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갑골문(丞)을 보면 두 손으로 함정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모습을 나타낸 글자임을 알 수 있다. 본뜻은 ‘구제하다’이다.
- ⑤ 爲: 『설문해자』에서는 소전의 자형(爲)에 근거하여 “원숭이이다. 원숭이는 손톱을

잘 쓰는 짐승이며 손톱은 원숭이의 상징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갑골문(𢶏)을 보면 손으로 코끼리를 잡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 있다. 본뜻은 코끼리를 길들여 ‘일을 하다’이다.

⑥ 出 : 『설문해자』에서는 소전의 자형(𠂔)에 근거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초목이 점차 자라 위로 자라나는 모습을 그렸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갑골문(𠂔)을 보면 고대인들의 주거지인 움집이나 동굴에서 나오는 발의 모습임을 알 수 있다. 본뜻은 집에서 ‘나오다’이다. 여기서 ‘떠나다’라는 뜻이 생겼다.

⑦ 昔 : 『설문해자』에서는 소전의 자형(𠂔)에 근거하여 “말린 고기이다. 남은 고기를 햇빛에 말리는 모습을 그렸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갑골문(𠂔)을 보면 태양이 물결 위에 떠 있고, 어떤 것은 물결 아래에 있어서 물결에 잠긴 모양에서 洪水가 범람하는 모양을 표시하였다. 본뜻은 홍수로 고통 받던 과거 어느 날’이다. 여기서 ‘옛날’이라는 뜻이 생겼다.

⑧ 王 : 『설문해자』에서는 소전의 자형(王)에 대해 동증서의 말을 인용하여 “옛날 문자를 만들 때 획을 세 개 굵고 가운데를 관통시킨 것이 왕이다. 세 획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말한다. 이 셋을 하나로 관통시키는 것이 왕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갑골문(王)을 보면 ‘날이 넓은 도끼’의 상형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 날이 넓은 도끼는 권위의 상징이므로 ‘왕’이라는 뜻이 생겼다.

⑨ 至 : 『설문해자』에서는 소전의 자형(至)에 근거하여 “새가 날아 높은 곳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는 뜻이다. 가로획은 땅을 뜻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갑골문(至)을 보면 화살이 어떤 곳에 이르러 꽃힌 것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이르다’, ‘도착하다’ 등의 뜻이 생겼다.

⑩ 伐 : 『설문해자』에서는 소전의 자형(伐)에 근거하여 “치는 것이다. 사람이 무기를 쥔 모습을 그렸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갑골문(伐)을 보면 창으로 사람의 머리를 벤 것을 나타낸 글자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치다’, ‘공격’, ‘자랑하다’ 등의 뜻이 생겨났다.

이 외에도 많은 글자들이 있으니, 한자를 가르치는 사람은 반드시 『설문해자』의 설과 갑골문의 설을 비교하고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

## 2) 甲骨文 解釋에 있어서의 異見 檢討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갑골 10만여 조각에서 6천여 자를 발견하였고, 이중에서 2천여 자 정도를 해독하였는데, 그것은 대부분 상형문이고 간혹 指事와 會意에 속하는 글자도 있다. 그리고 해독이 된 문자 가운데에는 문자의 해석에 있어 학자들 간에 일치율을 보인 경우도 있고, 다른 견해가 있는 문자도 있다. 본 장에서는 이견이 있는 한자에 대해 학설을 제시하고 그 가운데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한자의 자원을 통해 本義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국내에 한자 자원 설명에 대한 여러 가지 책이 출간되어 있지만, 그 설이 제각기 달라 한자를 배우는 사람이 혼란을 겪기 때문이다. 필자가 만난 교사 중에는 한자에 대한 설명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두 개, 세 개로 나뉘어져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몰라 한자 자원에 대한 설명을 하기가 꺼려진다고 하였다. 그런데 문자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제시한 학설 외에도 이런 저런 설들이 난무하는 형편이다. 그래서 한자 자원을 통해 한자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도 실천하기가 어렵고, 때로는 잘못된 설을 가르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학자들의 믿을 만한 학설을 모아 한자 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한 논문이 발표된 바 있거니와,<sup>10)</sup> 만약 한자 자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한자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나 학생들 중에는 하나로 정해진 설을 알고 싶다고 말한 사람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학자들이 제시한 여러 설들 중에 가장 타당성이 있는 학설을 찾는 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본장에서는 학자들의 여러 설들 가운데 가장 옳다고 생각되는 설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제시해 보겠다.

먼저 학자들 간에 이견이 없는 글자들 몇 개를 소개해보기로 하겠다. 又[치]는 오른

10) 양원석, 「漢字 字源 教育의 문제점과 字源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한자한문교육』 31집, 2013. 103-131쪽 참조.


손의 상형으로 본뜻은 ‘오른손’이며 父[父]는 오른손으로 돌도끼를 잡고 있는 모습에서 나온 ‘아버지’가 본뜻이다. 豆[豆]는 본래 고대의 다리가 높은 食器로, 제사용으로 많이 쓰이게 되었다. 自[自]는 사람의 ‘코’를 상형한 글자이고, 冫[冫]은 ‘큰 도끼’의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力[力]은 끝이 세 갈래인 농기구 가래의 모양을 그린 것이다. 民[民]은 끝이 뾰족한 무기로 눈동자를 찌른 것을 표현한 글자이고, 步[步]는 발의 모양을 본뜬 止를 위아래로 겹쳐 놓은 형태의 글자이다. 瓦[瓦]는 두 개의 기와를 맞물려 놓은 모습을 본뜬 것이다. 登[登]은 두 손으로 祭器인 豆를 들고 제단을 향해 오르는 모습을 본뜬 것이다. 爲[爲]는 코끼리를 부려 일하는 것을 표현한 글자이다. 看[看]은 눈에 손을 얹어서 멀리 바라보는 모습을 나타낸 글자이다. 乳[乳]는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는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이 외에도 많은 글자들이 있다. 이제부터는 여러 설을 가진 글자들을 소개하고 그 중 하나의 설을 결정해 보겠다.




① 西[西] : 西는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의 모양이며 본뜻은 ‘대바구니’라고 한 설, 나뭇가지를 엮어 만든 새의 둥지’이고, 둥지는 해가 지는 저녁이 되면 새가 날아드는 곳이므로 ‘서쪽’이라는 뜻이 생겼다고 한 설, 새가 둥지에 깃들여 있는 모양을 그린 것으로 ‘둥지’가 본뜻이며 후에 ‘서쪽’이라는 뜻으로 쓰이자 栖(깃들 서)자를 만들었다고 하였다고 한 설이 있다. 이 가운데 어느 설을 취하는 것이 좋을까? 갑골문의 자형을 보면 첫 번째 설이 가장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글자가 煙(연기 연)자이다. 煙은 火와 堃(막을 인)을 결합한 글자인데, 堃은 西와 土를 결합한 글자로 바구니에 흙을 담아 무엇인가를 막는다는 뜻인데, 그것으로 불을 막으니 불은 꺼지고 연기만 나는 것에서 煙자가 된 것이다.


② 而[而] : 而是 ‘수염’으로 보는 것은 동일하나, 자형을 설명하는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一을 사람의 턱으로 보고 늘어진 획을 턱 아래에 난 수염으로 보는 설과 一을 코로 그 아래 세로획은 인중으로 나머지 늘어진 획의 바깥쪽은 콧수염을, 안쪽은 턱수염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는 설이 있다. 갑골문의 형태로 보아 두 설 가운데 전자의 설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③ 白[白] : 白은 ‘엄지손톱의 모양’, ‘호롱불의 모양’, ‘사람머리의 모양’이라는 설이 있는데, 갑골문을 보면 ‘호롱불의 모양’을 본뜬 글자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본뜻


은 ‘희다’나 ‘맑이’가 아니고 ‘밝다’, ‘환하다’이다. 여기에서 ‘분명하다’ ‘희다’ 등의 뜻이 파생되었다.

④ 美  : 美는 羊과 大의 결합으로 보고 머리에 양가죽을 덮어쓰고 춤추는 사람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 설과 사람의 머리에 새의 긴 깃털을 꽂아 장식한 사람으로 보는 설이 있다. 갑골문을 보면 두 설 가운데 후자가 타당한 설임을 알 수 있다. 본뜻은 물론 ‘아름답다’이다.

⑤ 兒  : 兒는 윗부분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설이 둘로 나뉜다. 하나는 머리에 숨구멍이 열려있는 모습이라는 설이고 다른 하나는 總角의 상형으로 보아 머리카락을 두 뿔처럼 묶은 아이의 모습이라고 한다. 갑골문을 보면 머리에 숨구멍이 열려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 금문을 보면 숨골이라고 보기에 폭이 넓어 총각의 모습  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갑골에 등장하는 많은 문자들은 숨골이 조금 열려 있는 어린 아이의 모습  으로 그려져 있다.

⑥ 流  : 流는 사람이 물을 따라 표류하는 모양이라는 설과, 아이가 거꾸로 나올 때 양수가 쏟아져 나오는 모양이라는 설과, 죽은 아이를 물에 수장시켜 흘려보내는 모양이라는 설이 있다. 갑골문의 자형을 보면 이 가운데 가장 타당한 설은 세 번째 설이다.

⑦ 屮  : 屮는 신주의 모양이라는 설과, 고기를 담은 도마의 모습이라는 설과, 남성의 생식기라는 설이 있다. 이 가운데 신주는 남성의 성기 모양에서 나온 것이므로 파생된 의미이다. 그러므로 도마 아니면 남근인데, 어느 것이 옳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도마 설을 지지하는 이들은 도마 𠂇(𠂇)자를 남근 설을 지지하는 이들은 조상 𠂇(𠂇)자를 내세워 자신들의 설을 주장한다. 갑골문에도 도마처럼 생긴 것도 있고 남근처럼 생긴 것도 있어 결정하기가 어렵다.

⑧ 𠂇  : 𠂇는 ‘남자 성기의 상형’이라는 설과 ‘작은 도끼’의 상형이라는 설이 있는데 후자의 설이 타당하다. 이 𠂇를 쥔 사람은 ‘武士’이므로 ‘무사’가 본뜻이다.

⑨ 觀<sup>㉞</sup> [ 𠄎 ] : 觀은 일반적으로 ‘황새’를 본뜬 𠄎(황새 관)과, 사람 눈을 강조해서 본뜬 見(볼 견)을 합친 글자로, 황새가 나무위에 앉아 아래를 자세히 본다는 뜻에서 ‘자세히 살피다’의 뜻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김언중 교수는 다리가 긴 새 중에 빨이 있는 것은 백로이며 황새는 빨이 없다고 하였는데, 그 설이 타당하다.






⑩ 桑<sup>㉞</sup> [ 𣎵 ] : 桑은 가지와 잎이 무성한 뽕나무 모양을 본뜬 글자이며 이때 又は 뽕잎이라는 설과, 높게 자란 뽕나무와 뽕잎을 담아두는 광주리를 매달아 놓은 글자이며 又は 口가 변한 것이며 口는 뽕잎을 담아두는 바구니라는 설이 있다. 이 중에 후자의 설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⑪ 四<sup>㉞</sup> [ 𠄎 ] : 四는 사방으로 나누어(八) 펼쳐진 영역(口)이라는 설이 있으나, 소나 돼지 같은 ‘짐승의 콧구멍’과 ‘주둥이’부분을 본뜬 글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뜻은 ‘숨 쉬다’이다. 그러나 四가 숫자 4와 발음이 같다는 이유로 ‘넷’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자 ‘숨 쉬다’라는 본뜻을 보존하기 위해 만든 글자가 ‘𠄎(숨 쉴 희)’이다.

### 3) 形聲字에 대한 인식의 전환

허신은 『설문해자』 서문에서 형성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셋째는 形聲인데, 형성이란, 사물로써 名(뜻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삼고, 그 사물과 발음이 비슷한 글자로 소리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삼아 만든 것으로, 江과 河가 바로 그것이다.(三曰形聲. 形聲者, 以事爲名, 取譬相成, 江河是也.)” 즉 형성자는 기본적으로 뜻을 나타내는 形部와 음을 나타내는 聲部를 결합하여 만든 글자이다. 그러나 형성자를 만날 때마다 드는 생각은 음을 나타내는 聲部에 하필이면 이 글자를 썼을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침하다는 뜻을 가진 諂자는 뜻을 나타내는 言과 음을 나타내는 冫(함)을 결합한 형성자인데, 하필이면 음이 비슷한 많은 글자 중에 冫(함)을 형부로 삼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다. 만약 형성자를 허신의 설명대로 뜻을 나타내는 形部와 음을 나타내는 聲部를 결합하여 만든 글자로 이해한다면 형성자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음을 나타낸다는 聲部는 단순히 소리부분만 담당할 뿐만 아니라 뜻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형성자를 이해하는데 있어 사실상 더 중

요한 부분은 음만 담당한다고 여겨졌던 聲部이다. 聲部로 알려진 글자에 의해 뜻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諂(아침할 침)자의 경우 함정(召)에 빠뜨리는 말(言)이 곧 아침이기 때문이다. 또 誘(가르칠, 필 유)는 빼어난(秀) 말(言)로 사람을 ‘가르친다’는 뜻인데, 유창한 말로 사람을 ‘원하다’는 뜻도 생겼다. 誣(속일 무)는 무당(巫)의 말(言)은 사람들을 ‘속인다’는 뜻이다. 이 형성자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글자는 形部인 言이 아니라 聲部인 召, 秀, 巫이다. 이와 같은 패턴으로 설명이 가능한 형성자의 수는 적지 않다. 물론 아직까지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 형성자도 적지 않다. 몇 글자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慈: 慈는 形部인 心과 聲部인 茲를 결합한 글자인데, 茲에 중요한 뜻이 있다. 茲는 두 개의 실타래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 본뜻은 ‘따뜻하다’이다. 그래서 慈는 따뜻한(慈) 마음(心)이라는 뜻이 된다. 만약 茲의 본뜻을 모르고 후에 가차된 뜻인 ‘이’만 안다면 慈자를 이해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형성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글자의 본뜻을 알아야 한다.
- ② 愁: 愁는 形부인 心과 성부인 秋를 결합한 글자인데, 성부인 秋에 중요한 뜻이 있다. 秋는 본래 메뚜기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그래서 愁는 메뚜기(秋)에 대한 근심스러운 마음(心)이라는 뜻이 된다. 후에 메뚜기의 모양은 빠지고 메뚜기가 굶아 먹는 벼(禾)와 메뚜기를 태워 죽였던 불(火)이 새롭게 결합되어 秋자가 되었다. 이 경우에도 秋의 본뜻이 메뚜기라는 것을 모르면 愁의 뜻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 ③ 溪: 溪는 뜻을 나타내는 彳와 음을 나타내는 奚를 결합한 글자인데, 성부인 奚에 중요한 뜻이 있다. 奚는 긴 줄로 노예를 묶은 모습을 나타낸 글자이다. 그러므로 溪는 물(水)이 노예를 묶은 긴 줄(奚)처럼 흘러간다는 뜻이다. 이 경우에도 奚의 본뜻을 모르면 溪자를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
- ④ 齒: 齒는 사람의 입 안에 위아래로 나 있는 이빨의 모양을 形부로 하고 그 위에 성부인 止를 결합한 글자이다. 이때 지는 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머무르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이빨은 사람의 입 안에 늘 머물러 있는 것이니 ‘止’자만큼 잘



어울리는 聲部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 ⑤ 眼 : 眼은 뜻을 나타내는 目과 음과 뜻을 동시에 나타내는 艮(간)을 결합한 형성자이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艮[𡵓]은 ‘눈을 부릅뜨고 무언가를 응시하는 사람’을 본뜬 글자이다. 그래서 眼의 본뜻은 ‘응시하여[艮] 보대[目]’이다.
- ⑥ 肝 : 肝은 형부인 月과 성부인 干을 결합한 글자인데, 干에 중요한 뜻이 있다. 干[𠂇]은 끝이 두 가지로 갈라진 모양의 무기로 공격과 방어를 겸하는 무기였는데, 후대에 방어용으로만 사용되며 ‘방패’라는 뜻이 되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몸[月]에서 방패[干]의 역할을 하는 것, 바로 肝을 뜻하는 글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肝자의 성부로 干이 선택을 받은 것이다.
- ⑦ 急 : 急은 형부인 心과 성부인 及을 결합한 글자인데, 이때 及은 음과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及[𠂔]은 앞서 가는 사람의 뒷덜미와 따라가는 사람의 손[又]모습을 결합한 글자로 ‘다다르다, 미치다’가 본뜻이다. 그러므로 急은 ‘남을 쫓아가서 미치려는[及] 마음을 나타낸 것으로 ’조급하다’, ‘급하다’, ‘빠르다’ 등의 뜻이 되었다.
- ⑧ 魔 : 魔는 형부인 鬼와 성부인 麻를 결합한 글자인데, 중요한 의미는 麻자에 있다. 麻[𦃟]는 집안에서 대마의 껍질을 벗겨 말리는 모습을 본뜬 글자로 본뜻은 ‘대마’이다. 그런데 대마는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마약성분이 있으므로 魔는 귀신 가운데 사람을 홀리는[麻] 귀신[鬼]이라는 뜻이 된다.
- ⑨ 廣 : 廣은 형부인 广과 성부인 黃을 결합한 글자이다. 이 경우에도 중요한 뜻은 성부인 黃에 있다. 왜냐하면 黃[𡵗]은 본래 누런 옥을 배 위에 차고 있는 귀족을 나타낸 글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廣은 귀족이 사는 집[广]을 뜻하여 ‘넓다’라는 뜻이 된 것이다.
- ⑩ 燈 : 燈은 형부인 火와 성부인 登을 결합한 글자인데 중요한 뜻은 登이 가지고 있다. 즉 燈은 주로 높은 곳에 위치한 등불이기 때문에, 제기를 들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모양을 본뜬 登[𡵗]을 성부로 뽑은 것이다. 그러므로 형성자의 성부는 형부 보다 더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이자 개혁정치가인 왕안석은 노년에 문자학에 깊이 빠졌다. 그는 형성자임에 분명한 글자를 억지를 써가며 회의자로 풀이하고 사람들에게 무슨 대단한 학설인 것처럼 뽐냈다고 한다. 皮가 ‘껍데기’이므로 ‘坡’는 ‘흙 껍데기’라고 풀이한 것이 일례이다.<sup>11)</sup> 그런데 만약 왕안석이 살았던 북송 때 갑골문이 연구되어 한자의 字源이 밝혀졌다면 왕안석의 형성자 설명은 대중에게 비웃음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반드시 성공을 거두었을 것이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慈는 形部인 心과 聲部인 茲를 결합한 형성자인데, 茲의 字源이 두 개의 신타래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 본뜻이 ‘따뜻하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慈자를 설명할 길이 없어진다. 허신은 형성자이면서도 회의자와 같은 것을 ‘亦聲’이라고 한 바 있으나 亦聲에 속하는 글자 수도 많지 않았고, 형성자와는 확연히 구분하였다. 형성자는 한자의 70~80%에 해당할 정도로 그 수가 매우 많다. 오늘날 형성자를 가르칠 때 여전히 형부와 성부로 나누어 한쪽은 뜻을 한쪽을 음을 담당하는 것으로 풀이한다면 한자교육을 잘 했다고 할 수 있을까? 慈자를 ‘뜻을 나타내는 心(마음)과 음을 나타내는 茲(이 자)를 결합한 글자’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한자 교육을 잘했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형성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한자 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4) 會意字에 대한 올바른 이해

六書는 『周禮』 卷14 地官 保氏節에 처음 나타나지만, 『周禮』에는 육서의 내용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後人들에 의해 육서의 명칭이나 차례에 同異가 생기게 되었다. 班固는 『漢書·藝文志』에서 六書を 象形, 象事, 象義, 象聲, 轉注, 假借라고 하였는데, 이 가운데 象義가 회의에 해당한다. 허신은 「설문해자서」에서 “四曰會意. 會意者, 比類合誼, 以見指撝, 武信是也.”라고 하였다. 해석하면 “네째는 會意인데, 會意란, 여러 종류의 문자를 나란하게 놓고, 그것들의 뜻을 합하여, 이로써 새로운 뜻을 나타내게 되는 것인 바, 武와 信이 바로 그것이다.”이다. 회의자에 속하는 글자들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좋을가에 대한 고민은 한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다. 회의자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의자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

11) 김언중 지음, 『한자의 뿌리1,2』, 문학동네, 2001, 545쪽 참조.

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알고 있는 글자에 대해서는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예컨대 休는 人과 木을 결합한 회의자로 ‘사람이 나무 아래에서 쉰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고, 信은 人과 言의 결합으로 사람의 말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믿을 신’이라는 뜻을 가지게 된 것은 널리 알려진 것이다. 그러나 회의자 가운데 대중이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글자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간다’라는 뜻을 가진 去자를 설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우선 去[去]자에 두 가지 설이 있으며 두 설은 팽팽히 맞서고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먼저 사람의 상형인 大와 원시시대 주거지 움집의 상형인 ‘凵’을 결합한 글자로 보아 ‘주거지에서 밖으로 나가는 사람을 나타낸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때 去는 ‘사람이 어느 곳을 떠나다’가 본뜻이다. 다음으로는 ‘똥을 누고 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제거하다’, ‘버리다’가 본뜻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두 설이 모두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去자의 본뜻으로 알고 있는 ‘가다’라는 뜻은 본뜻이 아니며 후에 파생된 뜻임을 알 수 있다. ‘살피다’라는 뜻을 가진 省은 어떠한가? <NAVER 한자사전>에서는 省자를 少와 目을 결합한 글자로 보아 ‘작은 것까지 자세히 본다’는 뜻으로 풀이하였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NAVER 한자사전>의 설명은 잘못된 것이다. 省[省]자의 갑골문을 보면 少는 어떤 것을 살필 때 눈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표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省의 뜻은 ‘한참동안 자세히 상대를 보는 것’이며, 여기서 ‘살피다’라는 뜻이 생겼다. 이처럼 회의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는 것은 한자교육에 있어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몇 가지 實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光[光]은 뜻을 나타내는 火(불 화)와 儿(사람 인)을 결합한 글자이다. 이때 불은 고대에 노예가 주인을 위해 머리에 이고 있었던 화롯불이다. 그래서 光은 ‘불이 활활 타오르는 화로를 머리에 이고 있는 사람’을 본뜬 글자로 ‘불빛’이 본뜻이다. 여기에서 ‘빛나다’ ‘빛’ 등의 뜻이 나왔다.
- ② 算[算]에서 윗부분의 竹(죽)은 ‘대나무’의 재료임을, ‘目’은 주판의 알, 아래 艹(공)은 주판을 움직이는 두 손의 모양이다. 算(산)의 본뜻은 ‘수를 헤아림’에서 ‘셈하다’의 뜻이 되었다.

③ 逆(逆)에서 𠂔(역)은 두 점은 발, 중간의 乚은 팔, 밑의 𠂔(작)은 그를 맞이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逆의 본뜻은 ‘맞이하다’이다. 후에 ‘서로 거슬러 맞이하다’라는 뜻에서 ‘거스르다’라는 반대의 뜻이 생겨났다.

④ 前(前)은 갑골문에 발의 모양인 止와 대야의 모양인 皿으로 되어 있었다. 조상에 게 제사지내기에 앞서 반드시 발을 대야에 담그고 씻어야 했는데, 여기서 ‘앞서’ ‘먼저’ 등의 뜻이 생겼다. 후에 대야의 모양은 月의 형태로 바뀌었고, 여기에 丷(칼 도)를 더하여 오늘날의 前이 되었다.

⑤ 後(後)는 길거리를 뜻하는 彳(척), 실끈을 본뜬 幺(요), 발을 본뜬 止(지)를 뒤집어 놓은 攴(뒤쳐져 올 치)를 결합한 글자이다. 後는 발목이 끈으로 묶인 죄수가 압송되며 뒤를 돌아보는 모습을 표현한 글자이다. 그 걸음이 남보다 뒤쳐졌기에 ‘뒤쳐지다’ ‘뒤’ ‘늦다’ 등의 뜻이 생겼다.

⑥ 年(年)은 ‘벧단을 지고 있는 사람’을 본뜬 글자이다. 농부가 가을에 익은 곡식을 수확해서 옮긴 것에서 ‘곡식이 익다’가 본뜻이다. 그리고 고대 중국에서 남쪽을 제외하고 일 년에 한번 곡식이 익었기 때문에 ‘한해’라는 뜻이 생겼다. 후에 ‘나이’라는 뜻도 생겼다.

⑦ 改(改)는 巳(뱀 사)와 攴(칠 복)으로 이루어진 글자다. 改는 뱀 등 파충류가 우글거리던 옛날, 몽둥이로 이것을 때려 죽여서 주위 환경을 살만 하도록 ‘고치다’는 뜻이 되었다.

⑧ 愛(愛)는 갑골문에 뿔어났은 채 머리를 돌려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을 그린 𠂔(목멜 기)와 심장의 모습인 心(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머리를 돌리고 입을 벌린 채 어떤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글자로 만든 것이다. 본뜻은 ‘사랑’ ‘사랑하다’이며, ‘아끼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⑨ 伏(伏)자는 개가 사람의 다리 옆에 엎드려 본뜻이 ‘엎드리다’, ‘눕다’에서 ‘숨김’, ‘매복(埋伏)’으로 파생되었고, 이다. 또한 파생되어 항복(降伏) 굴복(屈伏)의 뜻

이 됨.

⑩ 寒<sub>한</sub>은 한 사람이 한 칸의 풀을 쌓아놓은(보온) 짚 속에서 추위를 피하는 모습으로 사람 다리 아래의 두 점은 얼음 덩어리를 표시하여 의 본 뜻이 ‘몹시 춥다’임을 가리킨다.

⑪ 武<sub>무</sub>는 ‘창’을 상형한 戈와 ‘말바닥’을 상형한 止로 구성된 글자로 창을 메고 걷고 있음을 의하는 글자이다. 곧바로 戰場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나타내어 ‘정벌하다’라는 의미에서 ‘무사’, ‘군세다’의 뜻으로 파생되었다.

⑫ 先<sub>선</sub>의 윗부분은 발을 의미하는 止가 약간 변형된 것이고, 아랫부분 儿은 사람의 몸이다. 그러므로 先은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다’가 본뜻이다. 여기에서 ‘나아가다’, ‘앞서다’, ‘먼저’ 등의 뜻이 나왔다.

⑬ 敬<sub>경</sub>은 머리 위에 장식을 얹고 ‘다소곳이 꿇어앉은 사람’을 본떴다. 혹 장식이 흐트러질까 조심해야 했으므로 ‘조심하다’의 뜻이 생겼다. 또 입도 조심해야 하므로 口가 들어갔다. 뒷날 ‘몽둥이를 쥔 손’을 본뜬 攴(칠 복)까지 들어가 자신뿐만 아니라 남까지 조심하게 한다는 뜻을 담았다.

지금까지 한자교육에 있어 무엇을 가르칠까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한자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한자교육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오랫동안 한자 설명의 금과옥조처럼 여겨지던 『설문해자』의 가치가 격하된 것을 인지해야 한다. 다음으로 한자 최초의 자형을 고스란히 간직한 갑골문이 가지는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음으로 갑골문에 대한 여러 이전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 갑골문을 통해 한자를 가르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저명한 학자들에 의해 밝혀진 공인된 학설을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형성자에 대한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한자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형성자이므로 형성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반드시 필요하며, 전환된 인식 하에 형성자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회의자에 대해서도 그동안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전혀 모르고 있었던 글자를 이해하기 위해 본고에서 제시한 예시를 참고하여 지평을 널리 탐구해 나가

야 할 것이다.

### 3. 한자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바르고 효율적으로 한자를 가르칠 수 있을까? 한자를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화두이다. 최근 한자교육의 재미와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마음대로 한자를 설명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재미있게 한자를 가르치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근거 없는 설을 지어내어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이다. 본장에서는 바르고 효율적인 한자교육방안에 대해 몇 가지 논의하고자 한다.

#### 1) 동일 계통의 部首 연계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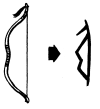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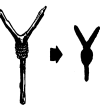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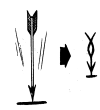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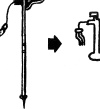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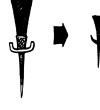
부수는 부류의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계통이 비슷한 한자들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한자교육에 있어 부수를 먼저 가르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다. 다만 부수를 무작정 가르치는 것 보다는 비슷한 유형끼리 묶어서 가르친다면 보다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때 부수의 설명은 갑골문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갑골문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제시하면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자의 부수는 모두 214자인데, 크게 사람과 사물로 나눌 수 있다. 다시 사람은 신체전반, 신체부분, 의식주로 나눌 수 있고, 사물은 무기(도구), 숫자(기호), 자연(식물)으로 나눌 수 있다. 신체전반과 관련된 부수는 人, 儿, 亻, 亅, 大, 女, 子, 尸, 尢, 歹, 文, 氏, 立, 无, 毋, 比, 色, 老, 赤, 長, 鬼, 黃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입과 관련된 부수는 口, 甘, 言, 欠, 曰, 音, 齒가 있고, 눈과 관련된 부수는 目, 看, 頁, 臣, 見, 面이 있으며, 머리는 亠, 코는 自, 鼻, 귀는 耳, 머리털은 髟, 수염은 而가 있다. 손은 手, 中, 又, 爪, 寸, 支, 攴, 攴, 皮, 父, 升, 厶, 聿, 隶, 鼓, 鬩 등이 있고, 발과 관련된 부수는 止, 足, 疋, 走, 夊, 辵, 夊, 夊, 夊, 韋 등이 있다. 그 외 心, 血, 身, 骨이 있다.

의식주와 관련된 부수는 의복과 장신구, 식생활, 주거지, 교통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대표적인 글자만 예를 들어 보면 衣, 巾, 食, 皿, 示, 豆, 高, 瓦, 白, 黑, 車 등이 있다. 사물은 무기(도구), 숫자(기호), 자연(식물)으로 나눌 수 있다. 대표적인 글자로 弓, 矢, 至 辰, 斗, 八, 卜, 生, 竹, 雨, 谷, 山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무기에 속하는 부수를 연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sup>12)</sup>

	<b>弓</b> 활 궁	*활의 모양
	<b>矢</b> 화살 시	*화살의 모양
	<b>干</b> 방패 간	*공격과 방어가 가능한 양 끝이 갈라진 무기의 모양
	<b>方</b> 모 방	*칼에서 칼자루를 표시한 글자
	<b>刀</b> 칼 도	*짧은 자루와 굽은 낫을 가진 칼의 모양
	<b>斤</b> 도끼 근	*돌도끼 모양
	<b>玄</b> 검을 현	*활에 걸려 있는 검붉은 색의 줄 모양
	<b>至</b> 이를 지	*화살이 땅에 이르는 모양
	<b>矛</b> 창 모	*긴 자루 끝에 뾰족한 쇠가 있는 창 모양
	<b>士</b> 선비 사	*작은 전투용 도끼의 모양
	<b>戈</b> 창 과	*긴 자루 끝에 가로로 칼이 있는 무기의 모양
	<b>辛</b> 매울 신	*형벌을 줄 때 쓰던 끝이 뾰족한 끌의 모양.




## 2) ‘觸類旁通’식 한자교육

‘觸類旁通’은 ‘비슷한 부류끼리 접촉하여 결가지로 지식을 확장시키다’는 뜻인데,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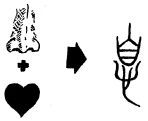
12) 아래 제시한 <표>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림은 이낙의 저, 『한자연변오백례』, 북경어언대학출판사, 1992에 수록된 그림을 스캔하여 활용한 것임을 밝혀둔다.

산 정약용이 제시한 문자교육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sup>13)</sup> 이 방법은 비슷한 부류의 한자를 연결하여 교육함으로써 학습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자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을 연결고리로 삼되 그것이 반드시 부수일 필요는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한자교육방법은 같은 부수를 가진 글자를 연결하여 익히는 것은 효과적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성자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부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발음을 나타내는 聲部에 있기 때문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 ① 東자가 들어가는 한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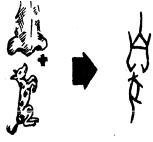

그림&글자	본뜻과 의미변화
	東은 갑골문에 양쪽 입구를 묶은 큰 자루의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본뜻은 ‘물건을 넣은 자루’이다. 여기서 ‘자루’, ‘물건’, ‘물건을 담다’라는 뜻이 나왔다.
	重은 본래 人과 東을 결합한 글자인데, 東의 본뜻은 ‘동쪽’이 아니라 ‘자루나 포대에 든 물건’이다. 그러므로 重은 사람이 등에 큰 자루를 짊어진 것을 본뜬 글자이다. 등에 진 물건이 무겁다는 것에서 ‘무겁다’ ‘무게’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量은 양 끝을 동여맨 자루와 네모꼴의 깔때기를 함께 그려 자루 속에 담긴 내용물의 양을 용기로 잴다는 의미를 나타내었다.

### ② 自자가 들어가는 한자들









그림&글자	본뜻과 의미변화
	自(코의 뜻일 때는 음이 지이다)는 사람의 ‘코’를 상형한 글자이다. 본뜻은 ‘코’이다. 그러나 自가 ‘저절로’, ‘~로부터’와 같은 뜻으로 쓰이며 본 뜻을 잃게 되자, ‘鼻’를 만들어 본뜻을 보존해 주었다.
	息은 코의 상형인 自와 심장의 상형인 心을 합한 회의자로 본뜻은 ‘호흡’이다. 호흡은 끊이지 않고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子息’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13) 다산의 觸類旁通식 문자교육방법에 대해서는 拙稿 「茶山 丁若鏞의 兒童教育 改善에 대한 總體的 考察」 『한자한문교육』 33집, 2014. 271-307쪽 참조.











	臭는 코의 상형인 自와 개의 상형인 犬을 합한 회의자로 본뜻은 냄새이다. 개의 코가 냄새를 잘 맡기 때문에 생겨난 글자이다. 참고로 犬은 첫 획과 둘째 획 사이가 벌린 아가리이고 둘째 획에서 아랫부분이 몸체이고, 셋째 획이 꼬리, 넷째획인 점(丶)이 귀이다.
	鼻는 본래 사람의 ‘코’를 본뜬 自(자)였다. 그러나 ‘저절로’나 ‘~로부터’가 새로운 뜻으로 널리 쓰이게 되자 다시 코 鼻(비)를 만들어 본뜻을 보존해 두었다. 여기서 畀(줄 비)는 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뜻(코 아래의 인중부분)을 나타낸다.

### ③ 목자가 들어가는 한자들

字	그림/갑골문	본뜻과 의미변화
目 𠂔		‘目’은 눈을 본뜬 글자이다. 가운데 두 획(3획,4획)은 눈동자를 표시한 것이다. 본뜻은 ‘눈’이다. 여기에서 ‘눈으로 보다’라는 뜻이 나왔다.
눈 목		
眉		‘眉’는 눈 위에 난 눈썹을 본뜬 글자이다. 윗부분은 눈썹을 아랫부분은 눈을 표시한 것으로 본뜻은 눈썹이다. 오래 살면 눈썹이 길어지거나 하얗게 되므로 노인이라는 뜻도 생겼다.
눈썹 미		
首		‘首’는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과 눈(目)을 표현한 글자이다. 본뜻은 ‘머리’이다. 머리가 몸의 맨 위에 있으므로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쓰였고, 또 파생되어 ‘제일’ ‘최고’ ‘수석(首席)’ 등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
머리 수		
頁		‘頁’은 ‘머리가 유별나게 큰 사람’의 상형이다.
머리혈		
面		‘面’은 갑골문에는 긴 얼굴의 윤곽 속에 하나의 큰 눈알이 있는 모습이다. 본뜻은 ‘사람의 얼굴’이다. 이후에 의미가 확대되어 ‘전면’, ‘표면’ 등의 뜻이 생겼다. 또 현재는 가차되어 ‘밀가루’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얼굴 면		
見		‘見’은 目과 儿을 결합한 글자로, 눈을 크게 그린 ‘사람’의 상형이다. 본뜻은 ‘눈으로 보다’이다. 여기에서 ‘견해’, ‘생각’ 등의 뜻이 파생되어 나왔다.
볼 견		
看		‘看’은 手(수)와 目(목)이 결합된 글자이다. 눈에 손을 얹어서 멀리 바라보는 형상에서 ‘보다’의 의미가 되었다.
볼 간		
艮		‘艮’을 합한 글자이다. 艮은 눈을 부릅뜨고 무언가를 응시하는 ‘사람’을 본뜬 글자이다.
응시할 간		

限		‘限’은 ‘높은 언덕’ 모양인 阝(부)와 ‘눈을 크게 뜨고 돌아보는 사람’ 모양인 艮(간)을 결합한 글자이다. 즉 限은 ‘높은 언덕에 가로막혀 뒤를 돌아보는 모양’에서 나온 ‘가로막다’가 본뜻이다. 여기에서 ‘한계’, ‘한정’, 등의 뜻이 생겼다.
한계 한		
眼		‘眼’은 뜻을 나타내는 目과 음과 뜻을 동시에 나타내는 艮(간)을 합한 글자이다. 艮은 눈을 부릅뜨고 무언가를 응시하는 ‘사람’을 본뜬 글자이다. 그래서 眼의 본뜻은 ‘응시하여 보다’이다.
눈 안		
相		‘相’은 뜻을 나타내는 木과 目이 결합된 회의자이다. 눈으로 나무가 잘 자라는지 살펴본다는 것에서 나온 ‘살펴보다’가 본뜻이다. 여기에서 ‘돕다’, ‘재상’, ‘서로’ 등의 뜻이 나왔다.
불 상		
想		‘想’은 본뜻이 ‘보다’인 相(불 상)과 心(심)으로 구성된 글자이다. ‘마음속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다, 생각하다’라는 뜻에서 ‘생각하다’의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생각할 상		
省		‘省’은 少(소)와 目(목)을 결합한 글자이다. 少(소)는 어떤 것을 살필 때 눈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표시한 것이다. 그래서 省의 본뜻은 ‘한참동안 자세히 상대를 보는 것’이다.
살필 성		
眺		‘眺’은 뜻을 나타내는 目과 음과 뜻을 동시에 나타내는 兆(조짐)을 결합한 형성자이다. 본뜻은 ‘조짐을 살펴보다’이다. 여기서 ‘본다’라는 뜻으로 확대되었다.
볼 조		
監		‘監’은 아래를 내려다보는 눈의 모양을 본뜬 臣과 그 사람의 몸, 대야의 모양을 본뜬 皿으로 이루어진 회의자로 본뜻은 ‘보다’이다. 눈을 크게 뜨고 몸을 숙여 대야의 물에 자기 얼굴을 비춰여보는 모습을 본뜬 글자이다.
볼 감		
視		‘視’는 뜻을 나타내는 見과 음을 나타내는 示와 이루어진 글자로 본뜻은 ‘제단에 놓인 제물을 보다’이다. 示의 丁은 T자 모양의 祭壇이고, 그 위에 있는 一은 ‘희생’이며, 좌우의 두 점은 ‘희생에서 떨어진 핏방울’이다.
볼 시		
觀		‘觀’은 ‘백로’를 본뜬 隹과, 사람 눈을 강조해서 본뜬 見을 합친 글자로, 백로가 아래를 자세히 본다는 뜻에서 ‘자세히 살피다’의 뜻이 되었다.
볼 관		
直		‘直’은 갑골문에 目 위에 한 개의 수직선이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 수직선은 눈을 정면으로 똑바로 보고 있음을 표시한 것이다. 그래서 直의 본래 뜻은 ‘똑바로 보다’이다. 뒤에 ‘곧다’ ‘바르다’라는 뜻으로 파생되었다.
바로 볼 직		

冒·帽		‘冒’는 뜻을 나타내는 目과 음과 뜻을 동시에 나타내는 冎(투구의 모습을 상형한 글자로 음은 모)를 결합한 형성자로 본뜻은 투구모자이다. 이 글자가 ‘무릅쓰다’ ‘뒹다’라는 뜻으로 파생되자 본뜻을 보존하기 위해 만든 글자가 帽(모자 모)이다.
모자 모		
盾		‘盾’은 얼굴을 대표하는 눈과 방패의 표면과 손잡이의 모양을 형상화한 글자로 본뜻은 ‘방패’이다. 여기서 ‘피하다’ ‘숨다’라는 뜻이 생겨났다.
방패 순		
民		‘民’은 十자 모양의 끝이 뾰족한 무기로 눈동자를 찌른 것을 표현한 글자이다.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는 지배자가 포로의 한쪽 눈을 찔러 노예임을 표시하고 저항력을 무디게 한 뒤 노동력을 착취하였다. 본뜻은 ‘노예’이다. 이후에 점자 ‘천민’, ‘평민’, ‘백성’ 등의 뜻으로 바뀌었다.
백성 민		
蔑		‘蔑’은 창으로 눈을 찔러 노예로 만드는 모양을 본뜬 글자로 본뜻은 ‘노예로 삼다’가 본뜻이고 여기에서 ‘업신여기다’라는 뜻이 나왔다.
업신여길 멸		
縣懸		‘縣’은 사람의 목을 줄에 묶어 나무에 매달아 놓은 모양을 본뜬 글자로 본뜻은 ‘매달다’이다. 그런데 이 글자가 행정구역의 하나로 자주 쓰이자 懸(매달 현)을 만들어 주었다.
매달 현		
臣		‘臣’자는 하나의 눈알 모양을 본떴다. 노예가 주인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앞을 보는 모양으로 다만 머리만 들고 내릴 수 있어 눈을 그린 이유이다. 본뜻은 ‘굴복’이다. 임금 앞에서 굴복한 사람의 의미에서 ‘신하’의 뜻이 생겼다.
신하 신		
宦		‘宦’은 뜻을 나타내는 宀(집 면)과 臣을 결합한 회의자로 ‘벼슬살이하다’가 본뜻이다.
벼슬 환		
賢		‘賢’은 손을 턱에 괴고 생각에 잠긴 눈을 형상화한 글자로 본뜻은 ‘깊이 생각하다’이다. 여기서 ‘현명하다’라는 뜻이 나왔다. 후에 재화를 상징하는 貝가 추가되어 가치가 높음을 나타내었다.
어질 현		
臥		‘臥’는 누워 자고 있는 사람의 눈을 형상화 한 글자로 본뜻은 ‘눕다’이다.
누울 와		
睡		‘睡’는 뜻을 나타내는 目과 음과 뜻을 동시에 나타내는 垂(드리울 수)를 결합한 형성자로 본뜻은 ‘잠을 자다’이다. 잠이 오면 눈꺼풀이 아래로 드리우는 것을 착안하여 만든 글자이다.
잠잘 수		

夢		'夢'은 눈 화장을 하고 침상에 누워 있는 사람을 본뜬 글자이다. 이 사람은 巫女일 가능성이 높으며 침상에 누워 하늘의 계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갑골문에는 夕이 없었는데 나중에 추가되었다.
꿈꿀 몽		
懷		'懷'는 상의를 나타내는 衣자 속에 눈물을 흘리는 눈을 형상화한 글자이다. 누군가가 그리워 가슴속으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 것으로 본뜻은 '그리워 눈물을 흘리다'이다.
그리워할 회		
夏		'夏'는 무당이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면서 춤을 추는 모습을 나타낸 글자이다. 윗부분은 짙은 눈 화장을 한 무당의 눈이고, 아랫부분의 父는 춤추는 무당의 발이다. 고대에는 여름에 가뭄이 들면 반드시 기우제를 지냈으므로 '여름'이라는 뜻이 생겼다.
여름 하		
憂		'憂'는 뜻을 나타내는 夏와 心을 결합한 회의자이다. 하는 기우제를 지내는 무당의 모습인데, 기우제를 지내는 무당의 마음을 표한 것이 憂이다. 비가오지 않으면 무당이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으므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근심 우		
瞿		'瞿'는 새가 놀라 두 눈을 크게 뜨고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로 본뜻은 '놀라서 보다'가 본뜻이다. 여기서 '놀라다'라는 뜻이 생겼다.
놀라 볼 구		
瞿		'瞿'은 사람에게 잡힌 새가 깜짝 놀라 두 눈을 이리저리 두리번거리고 있는 모양으로 '두리번거리다'가 본뜻이다. 이는 오른손의 모양을 상형한 글자이다.
두리번거릴 확		
懼		'懼'는 놀란 새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나타낸 글자로 '두려워하다'가 본뜻이다.
두려워할 구		
攫		'攫'은 두 손으로 새를 움켜잡으니 새가 깜짝 놀라 두리번거리고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로 본뜻은 '붙잡다'가 본뜻이다.
붙잡을 확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한자를 조합할 수 있는 예는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 오른손의 상형인 又자가 들어간 글자들 右, 左, 有, 灰, 炭, 丈, 友, 及, 尤, 丑, 布, 尹, 君, 尋, 雪 등을 묶어 설명할 수 있고, 팔 다리를 벌리고 우뚝 선 사람의 모습을 상형한 大자가 들어간 글자들 夫, 天, 太, 夭, 因, 央 을 한데 묶어 설명할 수 있다. 창 모양을 상형한 戈자가 들어간 戎, 戌, 戊, 成, 戒, 戍, 我, 戕을 묶을 수 있고, 冥, 溟, 暝, 暝을 묶을 수 있으며, 每, 悔, 海, 誨를 묶을 수 있고, 艮, 恨, 限, 根을 묶을 수도 있고, 幸, 執, 圉, 報를 묶을 수도 있다.

이러한 한자교육방법의 특징은 부수가 같은 한자를 한데 모아 설명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부수에 얽매이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물며 한자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때 특정한 스토리를 마련하여 한자를 배치한다면 더욱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3) 類似漢字 상호 비교 설명

한자를 공부하다 보면 유사한 자형을 가진 한자들을 종종 접하게 된다. 그럴 때마다 두 글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궁금해진다. 그러나 두 글자의 관계를 속 시원하게 알려주는 곳이 없어 의문은 해결되지 않은 채 넘어가기 일쑤이다. 실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만약 누군가가 比와 皆의 관계를 묻는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比[𠬞]자는 갑골문의 모양처럼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나타낸 글자이고, 皆[𠬞]자는 두 사람을 나타낸 比 아래에 사람의 입이 그려져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皆의 뜻은 ‘두 사람이 함께 말하다’이다. 여기서 ‘함께’ ‘모두’라는 뜻이 생겼다. 바자 아래에 있던 口자는 후에 白자로 변해 지금의 皆자가 된 것이다. 그런데 白자로 변하고도 ‘말하다’라는 본뜻이 남아 있어 白자가 ‘말하다’라는 뜻도 가지게 된 이유이다.

또 牛와 件 두 글자의 관계를 묻는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경우에 件자의 의미를 알면 저절로 풀리게 된다. 件은 亻과 牛를 결합한 회의자로 ‘물건’ ‘사건’, ‘구분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본래는 소를 잡는 사람[白丁]이 ‘소를 분해하다’가 본뜻이었다. 후에 파생되어 ‘분해된 하나하나’를 의미하게 되고 하나하나의 물건이나 사건을 의미하는 말이 되었다. 또 手와 失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失[𠬞]은 제 1획에서 4획까지가 ‘손’의 상형인 手[𠬞]의 변형이며 제 5획은 끝 획은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어떤 물건을 뜻한다. 그래서 본뜻은 ‘잃다’이며, 여기에서 ‘실수’ ‘잘못’이라는 뜻이 생긴 것이다.

이처럼 한자교육에서 자형이 유사한 한자를 상호 비교해서 설명하는 방법은 매우 흥미롭고 유익하며 오래 기억에 각인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예를 몇 개 더 들어보기로 하겠다.

### ① 士[士]와 吉[吉]

士와 吉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士는 도끼의 상형이다. 그리고 吉은 도끼를 받침대에 세워 놓은 글자이다. 口는 도끼를 보관하는 보관소이다. 이처럼 무기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대변한 것이니 다행하고 길한 상태인 것이다.

### ② 示[示]와 宗[宗]

示와 宗의 관계는 어떠한가? 示의 丁은 T자 모양의 祭壇이고, 그 위에 있는 一은 ‘祭物’이며, 좌우의 두 점은 ‘제물에서 떨어진 핏방울’이다. 즉 示는 제단 위에 피가 떨어지는 신선한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 지내는 것이다. 宗은 집의 형상인 宀과 제사 지낸다는 뜻의 示로 구성되었으니,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는 집이 본뜻이다. 여기서 祠堂, 宗廟, 宗家, 祖宗, 宗主, 宗族, 마루(으뜸) 등의 뜻이 생겨났다.

### ③ 衣[衣]와 表[表]

衣와 表는 어떤 관계인가? 衣는 ‘옷깃을 세운 옷’을 본뜬 글자이다. 첫 획인 ‘ㄴ’은 뺏뺏이 세운 옷깃이고, 나머지는 옷몸이다. 본뜻은 ‘윗옷’이다. 그리고 表는 毛와 衣를 세로로 합한 글자로, 옷 표면에 드러난 털의 모양을 나타낸 글자이다. ‘털이 달린 옷(털가죽 외투)’이 본뜻이고 후에 ‘겉’, ‘드러나다’ 등의 뜻이 생겨났다.

### ④ 欠[欠]과 次[次]

欠은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본뜬 글자이고, 次는 벌린 입에서 침이 튀어나오는 것을 나타낸 글자이다. 즉 입에서 침을 튀기며 말을 하거나 하품을 하며 침을 흘리거나 재채기를 하며 침을 뿌리는 등의 행동은 다소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므로 ‘최선이 아닌 그다음’이라는 의미가 되었다. 여기서 ‘그다음’, ‘버금가다’, ‘질이 떨어지다’ 등의 뜻이 생겼다.

### ⑤ 左[左]와 差[差]

左와 差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左는 본래 왼손으로 공구를 잡고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로 본뜻은 ‘뒹다’인데, 차츰 ‘왼손’, ‘왼쪽’이라는 뜻으로 굳어졌다. 差는 왼손으로 새끼를 꼬고 있는 모양을 나타낸 회의자이다. 즉 差의 윗부분은 새끼이고 아랫부분은 左이다. 그런데 이 글자가 어떻게 ‘어긋나다’, ‘모자라다’라는 뜻이 되었을까? 왼

손으로 꼬는 새끼는 오른손으로 꼬는 새끼에 비해 그 모양이 뻣뻣하고 좋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 ⑥ 𢶏과 𢶑

辰은 대합조개 껍질의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고대 사람들은 이 크고 딱딱한 조개 껍질을 갈아 풀을 베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𢶑은 풀을 베는 도구가 된 조개껍질을 손으로 잡고 있는 모양을 나타낸 글자이다. 조개껍질을 잡고 김을 매고 땅을 파는 등의 고되고 힘든 일을 한 것에서 ‘수고하다’ ‘육보다’는 뜻이 나왔다.

## ⑦ 祭<sup>제</sup>와 察<sup>찰</sup>

祭는 ‘고기’를 뜻하는 肉과 ‘손’을 뜻하는 又와 ‘祭壇에 祭物을 올려놓은 모양’인 示를 결합한 글자이다. 그래서 祭는 ‘고기를 손으로 들어 신에게 바치는 모양’이 본뜻이다. 여기에서 ‘제사지내다’, ‘제사’ 등의 뜻이 생겨났다. 察은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인데, 종묘나 가묘 등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수에 조금도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되었으므로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다. 여기에서 ‘자세히 살펴다’가 본뜻이 되었다.

## ⑧ 祝<sup>축</sup>과 祝<sup>시</sup>

祝은 무릎을 꿇고 축문을 읽는 사람을 본뜬 글자로 본뜻은 ‘축문을 읽다’이다. 그러나 이 일을 주로 만형이 했으므로 후에 ‘형’이라는 뜻이 생겼다. 祝은 ‘제단(示)’ 차례 놓고 무릎을 꿇고 축문을 읽는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축원하다’, ‘빌다’가 본뜻이다.

## ⑨ 冊<sup>책</sup>과 典<sup>책</sup>

冊은 ‘竹簡을 끈으로 묶어놓은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죽간은 옛날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 그 대용으로 썼던 대나무 쪽이므로, 본뜻은 ‘죽간으로 만든 책’이다. 후에 ‘책’이라는 뜻으로 널리 쓰이게 되었다. 典은 두 손(卩)에 冊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므로 典은 두 손으로 받들 만큼 가치 있는 책을 의미한다.

## ⑩ 慶<sup>경</sup>과 慶<sup>축</sup>

慶은 鹿의 일부(사슴의 다리부분은 생략됨)와 心과 攴를 결합한 글자이다. 고대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으면 사슴 가죽을 가지고 와서 선물하며 축하하였던 풍습을 나타낸 글자이다. 여기서 ‘경사’라는 뜻이 생겼다.

## ⑪ 取[取]와 最[最]

取는 耳와 又를 결합한 글자로 ‘전쟁에서 자기가 죽인 적의 귀를 잡고 자르는 모양’을 나타낸 글자이다. 전쟁에서 적의 귀를 잘라오는 것을 戰功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본뜻은 ‘취하다’, ‘가지다’이다. 最는 ‘모자’를 본뜬 臼과 取를 결합한 글자로, 전쟁에서 투구를 쓴 장수의 귀를 자르는 것을 나타낸 글자이다. 전쟁에서 장수를 죽여 귀를 잘라오는 것은 큰 공적에 해당하므로 ‘ 으뜸’ ‘최고’ 등의 뜻이 생겨났다.

## ⑫ 榮[榮]과 勞[勞]








榮은 ‘X자 모양으로 교차한 두 개의 나뭇가지에 꽃이 피어있는 모양’을 상형한 글자로 본뜻은 ‘만발한 꽃’이다. 火자 두 개는 본래는 ‘여섯 개의 점의 표현된 꽃’이다. 후에 의미가 확대되어 ‘영화’, ‘영달’, ‘무성하다’ 등의 뜻이 생겼다. 勞는 불을 환하게 밝히고(火火) 밤늦게까지 힘(力)을 다해 일하는 데서 ‘일하다’, ‘수고하다’의 뜻이 되었다.

### 4) 의미 변화와 그 이유에 대한 설명

한자가 최초에 가지고 있었던 본뜻과 후대에 가차되거나 파생되어 변화된 뜻이 확연하게 다른 것이 많다. 예를 들어 又[又]는 본래 오른손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 ‘오른손’이 본뜻이지만, 지금은 주로 ‘또’라는 뜻으로 쓰고 있다. 그렇다면 ‘오른손’이 본뜻인 글자가 어떻게 ‘또’라는 뜻으로 변화된 이유는 무엇일까? 단지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가차된 것이라고 답할 것인가? ‘오른손’이라는 뜻에서 ‘또’라는 뜻으로 파생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오른손을 사용하고 또 사용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라는 뜻으로 변화한 것이다. 또한 各[各]은 ‘밭’의 모양을 본뜬 夂와 거주지를 뜻하는 ‘口’를 결합한 글자로 본뜻은 ‘집으로 들어오다’이다. 이 글자가 후에 ‘각각’, ‘각자’의 뜻을 가지게 된 이유는 사람들은 제각기 자신의 집으로 각자 들어오기 때문이다. 單[單]은 하나의 긴 가지에 두 뿔의 나뭇가지 끝에 돌덩이를 달아놓은 원시적인 무기이다.(여기에 戈를 결합한 것이 戰이다.) 그런데 單은 후대로 오면서 가차하여 ‘홀로’, ‘단독’의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뜻이 변화 되었을까? 단지 발음이 같거나 비슷해서 가차된 것만은 아니다. 單이라는 무기는 고대에 개개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소



지하였던 무기이기 때문에 ‘홀로’, ‘단독’과 같은 뜻으로 파생된 것이다. 대표적인 글자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한자	본 뜻	변화된 뜻
① 耄 	耄는 老와 마찬가지로 ‘지팡이를 짚고 있는 ‘노인’을 본뜬 글자이다.	노인은 다양한 경험과 지혜를 토대로 심사숙고하는 것에서 ‘생각하다’, ‘궁구하다’ 등의 뜻으로 변화했다.
② 歸 	歸의 왼쪽은 ‘흙덩이’와 ‘발’의 모양을, 오른쪽은 빗자루를 잡은 손을 본뜬 것이다. 본뜻은 ‘신부가 고향 흙과 빗자루를 가지고 시집가다’이다.	여자에게 있어 媼宅은 마땅히 돌아가야 하는 본집으로 여겼으므로 ‘돌아간다.’는 뜻이 생겼고, ‘돌러보내다’라는 뜻도 생겼다.
③ 對 	對의 왼쪽은 촛대에 초가 꽂혀있는 모양을, 오른쪽은 촛대를 잡은 손을 본뜬 것이다. 본뜻은 촛불이 켜져 있는 촛대를 잡고 손님을 ‘응대하다’이다.	주인이 손님을 응대하는 것에서 ‘상대하다’ ‘마주하다’ ‘상대’ 등의 뜻이 나왔다.
④ 每 	每는 비녀를 꽂고 머리장식을 성대하게 한 여성의 모습을 본뜬 글자로 본뜻은 ‘머리 장식을 성대하게 한 어머니’이다.	그러나 이 글자가 ‘매양’, ‘늘’ 등의 뜻으로 쓰이게 된 것은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은 늘 변함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⑤ 夙 	反은 厂(벼랑 엄)과 又를 결합한 글자로 본뜻은 ‘손으로 절벽을 기어 올라가다’이다.	그러나 이 글자가 ‘되돌리다’ ‘돌이키다’와 같은 뜻으로 변한 것은 사람이 절벽을 만나면 오르기를 포기하고 발길을 되돌렸기 때문이다.
⑥ 配 	配는 한 사람이 술통 옆에 끓여 앉아 통 안의 술을 고르거나 향료를 첨가하는 모양을 표현한 것으로 본뜻은 ‘술을 고르다’, ‘배합하다’이다.	술을 고르고 향료를 배합하는 것에서 ‘흩어진 것을 한곳으로 모으다’라는 뜻이 생겼고, ‘합하다’, ‘배우자’ 등의 뜻으로 확장되었다.
⑦ 伐 	伐은 亠과 戈를 결합한 글자로 창을 잡고 적의 머리를 베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본뜻은 ‘목을 베다’이다.	목을 베는 것은 공적을 세우는 것이므로 ‘공적’이라는 뜻도 생겼고, ‘자랑하다’라는 뜻도 생겼다.

⑧ 服[服]	服은 皿(밥그릇. 月로 訛變)과 𠂔(끓어얹은 사람)과 又(억누르는 손)를 결합한 글자로 본뜻은 포로나 죄인을 ‘억눌러 복종시키다’가 본뜻이다.	‘억눌러 복종시키다’에서 ‘복종하다’, ‘착용하다’ ‘복용하다’ ‘웃’ 등의 뜻이 생겨났다.
⑨ 非[非]	非는 두 날개가 반대로 향한 새 것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 본뜻은 ‘날다’이다.	새가 날 때 두 날개는 반드시 서로 등지기 때문에 ‘어긋나다’라는 뜻이 생겼고, 여기에서 ‘잘못’, ‘아니다’ 등의 뜻이 생겼다.
⑩ 相[相]	相은 木과 目으로 이루어진 글자로, 본뜻은 어린 묘목의 생장을 눈으로 ‘살펴보다’ 관찰하다’이다.	살펴보는 것은 생장을 도와주기 위함이므로 ‘돕다’라는 뜻이 생겼고, ‘宰相’이라는 뜻도 생겼다. 이 글자가 ‘서로’라는 뜻이 생긴 것은 도와주는 주체와 대상이 서로 마주하기 때문이다.
⑪ 喪[喪]	喪은 ‘뽕나무 한 그루와 가지에 걸어두고 뽕잎을 따서 담는 대바구니들’을 상형한 글자로, 본뜻은 ‘뽕잎을 따다’이다.	뽕나무로 보아서는 자신의 잎을 모두 잃어버리는 것이니 여기에서 ‘잃어버리다’ ‘죽다’ 등의 뜻이 생겼다.
⑫ 外[外]	外는 夕과 卜을 결합한 글자로, 본뜻은 ‘저녁에 친 점’이다.	그러나 저녁에는 神도 피로하여 저녁에 친 점은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맞지 않다’라는 뜻이 생겼고, 다시 ‘예외로 두다’, ‘바깥’ 등의 뜻이 생겼다.
⑬ 逸[逸]	逸은 兎(토끼)와 辵을 결합한 글자로 토끼가 ‘달아나다’가 본뜻이다.	여기에서 ‘도망가다’, ‘잃다’, ‘숨다’, ‘한적하다’, ‘뛰어나다’ 등의 뜻이 생겨났다.
⑭ 革[革]	革은 두 손으로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말리고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로 본뜻은 ‘짐승 가죽’이다.	짐승의 몸에서 가죽을 벗겨냈으므로 ‘제거하다’라는 뜻이 생겼고, 모습이 바뀌었으므로 ‘바꾸다’ ‘고치다’라는 뜻도 생겨났다.
⑮ 兄[兄]	兄은 끓어얹아 하늘을 향해 소리치는 모습을 본뜬 글자로, 본뜻은 ‘조상에게 제사 지낼 때’ 신에게 고하다’이다.	이 글자가 ‘형’이라는 뜻이 된 것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일을 주로 맏형이 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맏이’, ‘형’ 등의 뜻이 생겼다.

##### 5) 本字와 後起字 연관 설명

한자에는 본 뜻을 잃고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글자가 종종 있다. 이 경우 고대에 문자를 만든 사람들은 본뜻을 잃고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한자를 위해 새로운 글자를 만

들어 본 뜻을 살려주었다. 이러한 글자를 ‘後起字’라고 한다. 예를 들면 止[ㄷ]는 사람의 발 모양을 본뜬 글자로 본뜻은 ‘발’이다. 그러나 이 글자가 ‘머무르다’, ‘그치다’ 등의 뜻으로 쓰이자 다시 만들어 준 글자가 趾(발 지)자이다. 其[其]는 곡식을 까부는 ‘키’의 모양을 본뜬 것으로 본뜻은 ‘키’이다. 그러나 점차 대명사 ‘그’, ‘그것’ 등의 의미로 사용되며 본 뜻을 잃어버리자 箕(키 기)자를 만들었다. 이처럼 本字와 後起字를 연관하여 설명하는 것은 한자교육에 있어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방안이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弟[弟]와 第

弟는 ‘끈으로 어떤 길쭉한 물건을 묶어놓은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물건을 차례차례 고르게 감았다는 데에서 유래한 ‘차례’가 본뜻이다. 여기에서 ‘아우’라는 뜻도 생겨났는데, 弟가 본 뜻을 잃고 주로 ‘아우’라는 뜻으로 쓰이자, 다시 第(차례 제)를 만들었다.

### ② 冬[冬]과 終

冬의 ‘冬’는 갑골문에 ‘노끈 양쪽의 끝을 묶어 매듭을 지은 모양’으로 되어 있다. 본 뜻은 ‘매듭짓다’ ‘마치다’ 이다. 여기서 ‘겨울’이라는 뜻이 나왔다. 한해를 매듭짓는 시기가 겨울이기 때문이다. 아래에 있는 두 점은 본래 없었는데, 후대에 겨울을 상징하는 얼음덩이를 추가한 것이다. 終은 실이나 끈의 양쪽 끝 부분에 매듭을 지은 모양인 糸와 계절의 끝인 겨울을 뜻하는 冬으로 구성되어 ‘끝나다’, ‘마치다’의 뜻이 되었다.

### ③ 無[無]와 舞

無는 쇠꼬리나 대나무가지를 들고 춤추는 巫女의 모습을 본뜬 글자이다. 갑골문의 가운데부분인 大가 사람의 상형이며 두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쇠꼬리나 대나무 가지로 만든 춤 도구이다. 無가 발음이 같다는 이유로 ‘없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자 춤추는 ‘두 발 모양’의 상형인 ‘舛’을 넣은 ‘舞(춤 무)’를 다시 만들었다.

### ④ 酉[酉]와 酒

酉는 ‘술 단지’의 모양을 그대로 본뜬 글자이다. 그래서 본뜻은 ‘술 단지’이다. 그러나 이 글자가 본 뜻을 잃고 干支의 ‘닭 유’자로 쓰이자, 다시 酒를 만들어 본 뜻을 보존 해주었다.

### ⑤ 來[來]와 麥

來는 본래 ‘밀’을 본뜬 글자이다. 그런데 같은 밀과에 속한다하여 ‘보리’도 뜻하게 되었다. 뒤에 來가 ‘오다’라는 뜻으로 더 널리 쓰이자 본뜻 보존을 위해 다시 만든 글자가 그 아래에 뿌리까지 그려 넣은 麥이다.

### ⑥ 北[北]과 背

背의 본 자는 北이다. 北은 두 사람이 등지고 서있는 모양을 본뜬 것이다. ‘등지다’가 본뜻이었는데, ‘북쪽’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자 본뜻을 보존하기 위해 背를 만들었다. 여기서의 𠂔은 ‘몸’을 뜻하는 글자다.

### ⑦ 莫[莫]과 暮

莫은 본래 艹와 日을 더한 자로 ‘저녁’이 본뜻인 글자였다. 그러나 발음의 변화와 함께 不定詞로 널리 쓰이자 본뜻을 보존하기 위해 日을 하나 더 넣은 暮를 만들어 두었다.

### ⑧ 者[者]와 煮

者는 ‘술에 나물과 고깃덩어리를 넣고 삶는 모양’을 상형한 글자다. ‘𠂔’는 어지러이 얹힌 풀줄기이고, ‘丿’는 고기덩이다. 아랫부분의 ‘日’은 술이다. ‘삶다’가 본뜻이지만, 발음이 같다는 이유로 ‘놈’, ‘사람’이라는 뜻으로 자주 쓰이자, 煮(삶을 자)를 새로 만들었다.


### ⑨ 新[新]과 薪

新은 뿔나무의 모양을 본뜬 왼쪽부분과 그것을 쪼개는 도구인 도끼의 모양을 본뜬 斤을 결합하여 만든 글자이다. 본뜻은 ‘뿔감’이다. 그런데 이 글자가 新舊의 新의 의미로 쓰이게 되자 새롭게 薪(뿔나무 신)을 만들어 대신하게 하였다.

### ⑩ 自[自]와 鼻

鼻는 본래 사람의 ‘코’를 본뜬 自였다. 그러나 ‘저절로’나 ‘~로부터’가 새로운 뜻으로 널리 쓰이게 되자 다시 코 鼻를 만들어 본뜻을 보존해 두었다.

### ⑪ 要와 腰

要 는 腰(허리 요)의 본자이다. 아래의 女는 사람의 모양을 대표했고 위는 사람의 허리 부분을 대표하여 두 손을 허리에 걸친 모양이다. 요의 본뜻은 ‘허리’이고 뒤에 차용되어 ‘요긴하다’, ‘구하다’ 등의 뜻이 되었다.

### ⑫ 然 과 燃

然은 ‘고기 덩이’를 본뜬 冎, ‘개’의 모습을 본뜬 犬, 그 아래 灬를 더하여 ‘개고기를 태우다’는 데에서 ‘태우다’가 본뜻이었다. 그러나 然자가 燃(불탈 연)자와 발음이 같아서 가차되어 ‘그려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 ⑬ 因 과 茵

因은 口와 大로 이루어진 글자이다. 여기서 口은 ‘돛자리’를 본뜬 것이며 大는 그 위에 팔다리를 뻗고 편히 ‘누운 사람’을 본뜬 글자이다. 이렇게 구성된 인의 본뜻은 ‘돛자리[茵(자리 인)]’인데 나중에 ‘의지하다’ ‘인하다’의 뜻으로 파생되었다.

## 4. 결론



# 『孟子』「梁惠王」篇의 構成에 대한 研究

송병렬\*·양재성\*\*

## •目次•

- |                     |                     |
|---------------------|---------------------|
| 1. 緒論               | 2) 「梁惠王」章句 下の 構成    |
| 2. 首篇으로서의 「梁惠王」篇    | 3) 論爭 당사자로서의 孟子와 諸侯 |
| 3. 『孟子』「梁惠王」篇의 構成方式 | 4. 結論               |
| 1) 「梁惠王」章句 上の 構成    |                     |

## 1. 緒論

『孟子』는 『論語』와 함께 四書 중의 하나로 유가 학문을 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널리 읽혀지는 책 중의 하나이며, 수많은 경학 연구가들의 관심을 받아 왔다. 그러나 『論語』와 달리 『孟子』가 ‘經’이라는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秦始皇의 焚書坑儒 때에 맹자를 따르던 학자들은 대부분 재앙을 당하였지만, 『孟子』는 당시 諸子의 서적으로 분류되어 책이 불태워지는 재앙은 면하게 되었다.<sup>1)</sup> 즉 당시 제후국의 수많은 유세거나 학자들의 한사람으로 여겼던 것이 당시의 추세였던 것이다. 그러나 성인의 도를 전하고자 평생 노력한 맹자의 정신은 후대로 갈수록 공자를 이해하는 지름길로 인식하여 수많은 문인 학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西漢에 이르러 『孟子』의 지위가 조금 올라 漢文帝 때에 博士에 두어 經書와 子書

\* 영남대 한문교육과 교수

\*\* 영남대 한문교육과 강사

1) 『十三經注疏』「孟子注疏」, “孟子既沒之後, 大道遂紕, 逮至亡秦, 焚滅經術, 坑戮儒生, 孟子徒黨盡矣. 其書號爲諸子, 故篇籍得不泯絕.” 北京大學出版社, 2000.12. 11p

의 중간에 자리하게 된다. 그러나 武帝때에 이르러 ‘百家’를 내치고 ‘六經’을 숭상하는 정책으로 五經博士를 남기고 傳記博士를 폐지함에 따라 『맹자』는 다시 ‘諸子書’로 분류된다.<sup>2)</sup> 이로 인해 楊雄등이 그의 저서에서 『孟子』를 인용하거나, 唐 韓愈가 ‘道統’에 관한 언급이 있었지만 諸子書의 위치에 오래도록 있었다.

唐代에 이르러 수많은 사대부들이 上疏하여 ‘『孟子』를 태학의 한 학과목으로 넣어야 한다.’는 의견 까지 나왔지만 인정을 받지는 못하였다. 그러다가 송나라 王安石이 ‘과거시험의 내용에 『맹자』를 넣자’는 건의가 받아들여지며 지위를 인정받아 光宗때에 이르러 『孟子』를 ‘十三經’에 넣게 된다.

이처럼 『孟子』가 경이 되며 널리 보편화되기까지는 1,500여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다. 그렇다보니 학자들에게 중요시되기는 했지만 정식 주석을 가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따라서 『論語』에 비해 그 주석가들이 적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수많은 학자들에게 관심과 인용의 대상으로 중요시됨은 기지의 사실이다.

특히 『孟子』의 편저자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설이 제기되어 왔다. 司馬遷은 萬章의 무리들과 「詩經」과 「書經」을 서술하고 仲尼의 뜻을 기술하여 『맹자』 7편을 지었다고 하였다.<sup>3)</sup> 그리고 後漢의 趙岐도 제자인 공손추, 만장 등과의 문답과 ‘法度之言’을 자찬하여 7편 261장 34,685자를 지었다고<sup>4)</sup> 말하였다. 즉 漢代의 학자들은 맹자가 제자들과 함께 『맹자』를 지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三國時代 姚信과 唐代의 韓愈등은 맹자의 저작이 아닌 맹자의 제자 공손추, 만장이 기록한 것<sup>5)</sup>이라 하여 후대로 오며 맹자의 저작이라는 사실에 의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宋代 朱子에 이르러 두 가지 경우에 대해 모두 언급하며 『孟子集註序』에서 이에 대해 『史記』의 설이 더 가까워 보인다고 하며 맹자의 저작이라 보고 있으나 확정된 것이 아닌 두 가지의 설을 모두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맹자의 구성방식을 살펴보면 맹자가 제자들과 함께 지은 것이 아닌 맹자의 제자들이 맹자의 사상을 담은 저술, 편집에 노력하여 일구어낸 성과임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청대 고증학자인 崔述은 『孟子事實錄』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2) 『十三經注疏』 「孟子注疏」, “漢興, 除秦虐禁, 開延道德, 孝文皇帝, 欲廣遊學之路, 『論語』, 『孝經』, 『孟子』, 『爾雅』皆置博士, 後罷傳記博士, 獨立五經而已.” 2000.12. 11p

3) 司馬遷, 『史記』, 권74, 「孟子荀卿列傳」, 제14.

4) 『十三經注疏』 「孟子注疏」, 孟子題辭解.

5) 韓愈, 「答張籍書」, “孟軻之書, 非軻自著, 軻既歿, 其徒萬章·公孫丑相與記孟軻所言焉耳”



내 생각은 이렇다. 『孟子』가 공손추와 만장의 纂述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에 가깝지만, 맹자가 그들과 함께 지었다고 하거나 혹은 맹자의 自撰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중략)… 『맹자』를 자세히 살펴 보면, 『孟子』는 맹자의 문인인 만장과 공손추 등이 追述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제자와의 문답이 7편중에서 가장 많고, 두 제자를 『孟子』 책에서는 모두 ‘자’라고 칭하지도 않았다. 이제 이것을 바로잡는다.<sup>6)</sup>

라고 하면서 『孟子』를 맹자의 문인인 만장과 공손추 등이 追述한 것으로 보며 세가지 근거를 들고 있다. 첫째로는 “禹임금은 汝水와 漢水를 트고 淮水와 泗水를 배수해 揚子江으로 흘러가게 했다.”<sup>7)</sup>는 것과, “伊尹이 다섯 번 湯王을 찾아갔고 다섯 번 桀王을 찾아갔다.”<sup>8)</sup>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으니 맹자가 스스로 저술했다면 이렇게 소홀히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둘째로는 『孟子』에서 당시의 군주들을 모두 諡號로 거론하고 있는데 모두 맹자보다 먼저 죽은 것은 아닌데 시호로 부르고 있다는 점, 셋째로는 『孟子』에 등장하는 門人들을 ‘子’로 칭하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으니 맹자의 서술이라면 자신의 문인들을 모두 ‘자’라고 스스로 칭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근거로 최술은 『孟子』를 맹자 스스로의 저작이 아닌 그의 문인 만장과 공손추가 추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들 두 제자의 문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子’의 호칭 쓰지 않은 것이다. 즉 맹자가 직접 찬술에 참여 했다면 이러한 오류나 표현상의 문제를 지나칠리 없다는 것이다.<sup>9)</sup>

문장 속에 사용된 서술의 오류, 호칭의 차이 등을 근거로 밝혔지만 맹자의 문인들이 追述했다는 점은 그 속에 서술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가 있다. 즉 맹자의 제자들이 맹자의 사상을 담은 저술이 되도록 애를 썼다는 것이다. 단지 문인 제자로서의 맹목적인 의미의 추술이 아닌 그 서술 순서 및 방식에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孟子』의 편집에 있어서 그 성립 과정 및 서술 방식에 착안하여 논의를 전개해 보

6) 최술 저, 박준원 역(2010) 『맹자사실록』, 211~213면. (해당 역자의 번역을 따랐으며 이하 동 서적은 같음.) “余按：謂孟子一書爲公孫丑，萬章所纂述者，近是，謂孟子與之同撰，或孟子所自撰，則非也。…(中略)…細玩此書，蓋孟子之門人萬章公孫丑等所追述，故二子問答之言在七篇中爲最多，而二子在書中亦皆不以子稱也。今正之。”

7) 『孟子』, 「滕文公下」, 4.

8) 『孟子』, 「告子下」, 6.

9) 최술 저, 박준원 역(2010) 『맹자사실록』, 212~213면.

고자 한다.

이러한 성립 과정 및 서술방식과 관련된 논의는 『論語』에서 선행된 바 있다. 김윤조는 『論語』의 학이편이 논어의 전반 상 10편 가운데서 나중에 편찬된 것으로 이해하며 ‘學而時習之’의 ‘學’이 논어 전체를 대표하는 글자일 뿐 아니라 동양 정신사를 대표하는 상징이라 하였다. 이에 학이편이 『論語』 편찬 과정에서 7개 단락군으로 편집되었으며, 學-仁-敬-君子-禮-學으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sup>10)</sup>

또한 송병렬의 「『論語』의 敍述方式과 修辭에 대한 研究」에서는 『論語』 「爲政篇」의 편장 구성을 논의하며 논어의 서술과정을 밝혔다. 논어의 서술이 동일한 시점이 아닌 여러 시간에 걸쳐 편집했으며 시대에 따른 언어적 습관이나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 문체가 다르게 나타남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위정편이 6개의 단락군으로 편집되어 있음을 밝혔다.<sup>11)</sup>

이러한 기존의 논의를 통해 본다면 『論語』의 흐름을 이어온 『孟子』역시 이와 비슷한 편집의 의도 및 구성의 특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論語』의 경우 밝혀진 바와 같이 서술 과정에서 有子와 曾子의 제자, 그리고 이후 문인제자들이 동일한 시점이 아닌 여러 시간에 걸쳐 공자의 말을 편집 했다. 따라서 편장방식이나 구성 그리고 그 문의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孟子』의 경우 하나하나가 독립된 장을 이루고 있고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어서, 『論語』보다 한층 더 전형화 된 서술 방식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본고는 『孟子』 「梁惠王」편을 중심으로 편집자가 왜 「梁惠王」편을 首篇에 두었는지를 알아보고 하나의 독립된 편으로서 「梁惠王」편의 구성방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 2. 首篇으로서의 「梁惠王」篇

맹자가 활동했던 전국시대는 중국의 역사에서 제후가 할거하며 封建國家에서 전제주의적 中央集權制 국가로 변화하는 과도기이다. 이 시대는 齊, 楚, 燕, 韓, 趙, 魏,

10) 김윤조, 「論語 學而篇 研究 -논어 편찬 과정에 대한 一管見-」, 『동양한문학연구』 27집, 동양한문학회, 2008. 참조.

11) 송병렬, 「『論語』의 敍述方式과 修辭에 대한 研究」, 『한문학논집』 제40집, 근역한문학회, 2015. 참조.

秦의 소위 ‘七雄’과 소국만이 남게 되어 土地와 人口를 쟁탈하기 위하여 대국의 사이에는 자주 겸병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수적으로나 규모면에서 춘추시대를 훨씬 초과하였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 따라 7국은 각각 개혁정치를 시행하여 중앙집권적 정권을 수립하였고, 겸병전쟁으로 토지의 변화가 이루어지며 혼란한 시대가 연속되고 있었다. 따라서 대국은 물론이고 宋, 鄭, 滕, 鄒 등 근근히 이어가는 소국들에게도 나라의 존폐가 달린 위기상황이었다. 이미 주나라가 왕실을 지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졌고, 그러한 상황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명실상부하게 권력을 장악하고 정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변한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명분을 세우기 위해 유세와 변설을 위주로 하는 제자백가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맹자의 사상 또한 부국강병을 하려고 하는 제후들에게 관심을 받았고 그 때문에 맹자를 초빙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魏나라는 7雄 중에 가장 큰 세력이었으며 양혜왕 자신도 패권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에 가장 먼저 맹자를 초빙하였고 맹자 또한 그 초빙에 차례로 응하였다. 그 내용이 『孟子』 「梁惠王」편에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孟子』라는 저술은 당시 사상가인 맹자의 정치적 입장이나 사상을 드러낸 것으로 당시 제후와 맹자와의 밀고 당기는 긴장감이 잘 드러나 있다. 따라서 『孟子』의 편집 분석은 맹자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텍스트이다.

『孟子』는 모두 7개의 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다시 上, 下 장으로 나누어 14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맹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각 장의 서술방식이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그 중에서도 맹자의 首篇인 「梁惠王」편을 살펴보면 맹자가 처음 양혜왕을 만나는 장면을 기점으로 하여(B.C.320) 梁襄王(B.C.318)→齊宣王(B.C.318)→鄒穆公→滕文公→魯平公(B.C.315)의 순으로 배열하고 있다. 즉 맹자 만년의 행적으로 제후왕을 만나본 차례대로 편집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崔述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내 생각은 이렇다. 「梁惠王」편은 당시의 군주와 문답했던 내용인데, 모두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했으니, 滕나라에 가고 魯나라로 간 것이 모두 맹자 만년의 일이다. 兼金장에서 齊제나라에 있던 때를 ‘前日’이라고 했고, 宋과 薛에 있던 때를 ‘今日’이라

고 했으니, 송나라와 설나라에 갔던 것도 맹자가 제나라를 떠난 후에 있었던 일이다. ‘滕文公’ 장은 맹자가 송나라에 있을 때 일이고, ‘滕定公’ 장은 맹자가 추나라에 있을 때이니, 모두 등 문공이 아직 즉위하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그러니 맹자는 제나라를 떠난 후 먼저 송나라에 갔고, 그 후에 추나라로 돌아갔고, 그 후에 등나라에 갔다. 그러므로 이제 송나라, 추나라, 등나라, 노나라의 순서로 차례를 정하고, 이들을 모두 맹자가 제나라를 떠난 이후로 순서를 정한다.<sup>12)</sup>

라고 하며 ‘梁惠王’편은 시간의 선후로 순서를 정했다.<sup>13)</sup>’고 하였다. 맹자는 기원전 320년 양나라에 가서 혜왕을 만나고 그 이듬해에 혜왕이 사망하자 그 아들인 양왕의 모습에 실망을 하고 기원전 318년에 제나라로 간다. 그 후 차례대로 송나라, 추나라, 등나라, 노나라의 순서로 갔다. 이는 곧 「梁惠王」편이 맹자가 열국에 갔던 시간적 순서에 따라 편집되어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 순서가 맹자의 행적에 따라 편집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 순서만을 위주로 편집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孟子』를 편집한 의도가 맹자의 제자들이 스승의 사상을 서술하고 드러내려고 하는데 있었다면, 단순히 시간적 서술에만 집중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梁惠王」편에 등장한 제 선왕이나 등문공의 경우 다른 장 혹은 문장 속에서도 만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sup>14)</sup> 이는 각각의 장이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장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며 각 장마다 그 주제와 편집 의도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梁惠王」편이 단순히 시간적 순서만으로 나열되었다기 보다 그 기록된 내용이 어떠한 주제를 향하며 편집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과 맹자와 제후왕 이라는 인물을 제외한 맹자의 언급만을 위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시간적 나열이라는 장치가 사라지면 대화와 서술 방식에 집중되고 그 주제가 잘 드러난다. 이에 대한 논의는 碩齋 尹行愆(1762~1801)의 맹자 주석이 주목할 만하다.<sup>15)</sup>

12) 최술 저, 박준원 역(2013), 174~175면. “按 梁惠王一篇, 凡與時君問答之言, 皆以時之先後次之, 則是至滕至魯, 皆孟子晚年事也. 兼金章以在齊爲前日, 在宋薛爲今日, 則是至宋至薛, 亦在孟子去齊後也. 滕文章孟子在宋, 滕定章孟子在鄒, 皆滕文未卽位時事, 則是孟子居齊後先至宋而後歸鄒, 而後至滕也. 故今以宋鄒滕魯爲次, 而並次之於去齊之後.”

13) 최술 저, 박준원 역(2013), 174면. ‘梁惠篇以時之先後序’

14) 滕文公의 경우 「滕文公上」 1장, 滕文公爲世子..., 3장, 滕文公問爲國...에서 등장하며, 齊宣王의 경우도 「離婁下」 3장, 孟子告齊宣王曰..., 「萬章下」 9장, 齊宣王問卿...에도 등장하고 있다.

孟자의 시대는 孔子의 시대와 달라서 楊墨이 길을 막고 전쟁이 횡행하여 아버이를 버리고 임금을 뒤로하는 자가 연달아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仁義 두 글자를 시대를 구원하는 좋은 약으로 여겼으며 인을 구하고 의를 행하는 것이 학문이었다. 『論語』의 수편의 學은 『孟子』의 수편의 仁義와 동일하다. 논어는 보고 들은 것을 따라서 기록한 것이고 맹자는 일시에 이루어진 문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梁, 齊의 문답을 首篇으로 삼은 것이다.<sup>15)</sup>

맹자의 시대는 공자의 시대와 달랐기 때문에 楊墨의 무리가 횡행하고 전란이 일어나는 전국시대였다. 아버이를 버리고 임금을 뒤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하였으므로 仁義라는 말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시대를 구원하려는 의도에서 인을 바탕으로 삼고 의를 행하는 것이 바로 학문의 기본 이며 王道政治를 실현하는 길이었었던 것이다. 전국시대 왕도정치的基本 이념을 드러내고 『孟子』 사상을 드러낼 수 있는 핵심이 仁義이며 이것이 바로 首篇에 자리하게 되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또한 『論語』는 보고 들은 것을 따라서 기록한 것이고, 『孟子』는 일시에 이루어진 문장이므로 양혜왕과 제선왕 등의 문답이 首篇에 있으며 이들 問答이 시간의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단순히 시간적인 순서에 의해서 배치를 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梁惠王」편에서 양혜왕과의 대화부분은 주로 仁義를 강조하고 있으며, 제선왕과의 대화부분은 王道政治와 관련된 이야기가 주된 흐름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살펴본다면 「梁惠王」편은 맹자의 행적에 따른 시간의 선후로 편집하면서 仁義와 王道政治라는 주제가 드러나는 언급을 위주로 서술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梁惠王」편은 단순히 시간순서에 따른 나열이 아닌 맹자의 말을 통해 仁義라는 주제가 어떻게 구현되어 가는지를 각 장의 구성을 통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5) 윤행임은 1801년 신지도로 유배되어 있으면서 『薪湖隨筆』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양의 경서 주석을 남겼다. 논어 주석이 첫 번째이고 맹자 주석이 그 두 번째이다. 윤행임의 경서 주석에 대해서는 김윤조, 「논어 학이 편 연구-논어편찬 과정에 대한 일관성」에서 『논어』주석과 관련하여 선행된 바 있으며, 본고의 맹자 논의 또한 그 계발을 받았다.

16) 尹行恁, 『碩齋別稿』, 卷三, 「薪湖隨筆」, “孟子之時 異於孔子之時 楊墨塞路 戰塗橫流 遭其親而後其君者踵相接焉 故汲汲以仁義二字 爲救時之良藥 求仁行義是學也 論語之首學 孟子之首仁義 一也 論語隨聞隨見而記之者也 孟子 成於一時之文也 故先以梁 齊之問答爲首篇”

### 3. 『孟子』 「梁惠王」篇의 構成方式

#### 1) 「梁惠王」章句 上の 構成

맹자 양혜왕 편은 상하를 합쳐보면 총 2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 하가 별도로 이루어진 장이 아닌 전체가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23개의 장을 주제별로 나누어보면 대체로 1장, 2~4장, 5~6장, 7장, 8~11장, 12~14장, 15~18장, 19~22장, 23장의 9개의 단락군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梁惠王」章句 上은 1장~7장 까지 모두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를 중심 논의별로 각각 단락을 구분해보면 1장, 2~4장 5~6장, 7장의 4개의 단락군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단락은 仁義→與民·養民·愛民→仁政→王道의 순으로 의미를 구분지을 수 있다.

1장은 맹자가 양혜왕을 만나는 상황이 제시되며 질문과 답으로 시작이 된다. 당시는 전국시대로 제후왕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나라를 강하게 할 방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따라서 양혜왕 또한 맹자를 초빙하여 묻는 첫마디가 ‘利’이다. 어떻게 하면 나라를 이롭게 하여 강하게 할 수 있을지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맹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는 ‘利’가 아닌 仁義로 가야함을 제시하며 王, 大夫, 士庶人에 비추어 이익을 추구하면 나라가 위태로워 질 것이니 仁義가 모든 것의 근본이 되어야함을 강조한다.<sup>17)</sup> 이는 곧 「梁惠王」편의 서론이면서 『孟子』 전체의 서론이라 할 수 있다.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방법이 바로 仁義라는 것을 제시하며 맹자 사상의 핵심을 제시하였다.

1장이 仁義에 대한 선언적 제시라면 2~4장은 7장의 王道政治라는 소결로 가기위한 방법을 제시하며 점차 확장되고 있다. 2장에서는 왕도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與民同樂’을 선언하고 그 근거 및 예를 『詩經』과 『書經』을 인용하여 제시 하였다.<sup>18)</sup> 3장에

17) 『孟子』, 「양혜왕」 上, 1장, “孟子見梁惠王, 王曰 叟不遠千里而來, 亦將有以利吾國乎? 孟子對曰 王何必曰利? 亦有仁義而已矣. 王曰 何以利吾國, 大夫曰 何以利吾家, 士庶人曰 何以利吾身, 上下交征利, 而國危矣. ....”

18) 앞의 책, 2장, “孟子見梁惠王... 孟子對曰 賢者而後樂此, 不賢者雖有此, 不樂也. 詩云... 文王以民力爲臺爲沼, 而民歡樂之, 謂其臺曰靈臺, 謂其沼曰靈沼, 樂其有麋鹿魚鼈. 古之人與民偕樂, 故能樂也. 湯誓曰... 民欲與之偕亡, 雖有臺池鳥獸, 豈能獨樂哉?”

서는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며 유감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왕도의 시작임을 밝혔다.<sup>19)</sup> 그리고 2장이 시경과 서경의 예를 인용하여 제시하였다면 3장은 당시 집정자인 양혜왕의 입장에서 전쟁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며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4장에서는 비유를 통하여 2,3장의 논의 보다 더 구체적인 제시를 들고 있다. 문답의 형식으로 비유를 들며 임금과 백성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빗대었다. 임금은 백성의 부모와 같은 존재이니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굶어죽게 만들겠냐는 것이다. 이는 바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곧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는 ‘仁’의 마음과 같아야 하는 의미로서 ‘愛民’을 강조하고 있다.<sup>20)</sup>

이를 통해서 본다면 2~4장은 ‘與民’-‘養民’-‘愛民’의 순으로 논의가 구체화 된다. 나라의 근본이 바로 백성이니 왕은 백성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점차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형식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즉 2,3장이 왕도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개념과 비유를 들어 설명하였다면 4장은 이를 강조하여 제시한 것이다.

5~6장은 논지가 전환이 된다. 2~4장이 왕이 백성들에게 가져야 할 마음과 자세를 드러내었다면 이 단락은 그 백성들에게 어떠한 정치를 베풀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다. 5장은 전쟁에서 패하여 죽은 사람들을 위해 다시 전쟁을 벌여 치욕을 씻으려하는 양혜왕에게 맹자는 무력이 아닌 ‘仁政’을 베푸는 것이 먼저여야 함을 주장한다.<sup>21)</sup> 전쟁 준비로 나라를 더욱 피폐하게 하지 말고 백성들이 생업에 잘 힘쓰고 삶을 잘 영위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나라를 강성하게 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6장은 5장과 연결되는 장으로 양혜왕의 아들인 양양왕이 등장한다. 이 장은 맹자가 양혜왕을 만나고 이듬해에 양혜왕이 세상을 떠난 뒤 양양왕을 만났다는 시간적 제시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장은 단순히 시간적 순서로 제시된 것이 아닌 5장의 논지를

19) 앞의 책, 3장, “... 孟子對曰 王好戰, 請以戰喻. 填然鼓之, 兵刃既接, 棄甲曳兵而走. 或百步而後止, 或五十步而後止. 以五十步笑百步, 則何如? ... 穀與魚鼈不可勝食, 材木不可勝用, 是使民養生喪死無憾也. 養生喪死無憾, 王道之始也.”

20) 앞의 책, 4장, “梁惠王曰 寡人願安承教 孟子對曰 殺人以梃與刃, 有以異乎?.....獸相食, 且人惡之. 爲民父母, 行政不免於率獸而食人. 惡在其爲民父母也.....如之何其使斯民飢而死也?”

21) 앞의 책, 5장, “梁惠王曰, 晉國, 天下莫強焉, 叟之所知也. 及寡人之身, 東敗於齊, 長子死焉; 西喪地於秦七百里; 南辱於楚. 寡人恥之, 願比死者一洒之, 如之何則可?.....彼奪其民時, 使不得耕耨以養其父母, 父母凍餓, 兄弟妻子離散. 彼陷溺其民, 王往而征之, 夫誰與王敵? 故曰 仁者無敵, 王請勿疑.”

전개하기 위해 필요한 구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시간적 순서로 만난 양양왕이란 인물이 중요한 것이 아닌 전개하고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래서 맹자는 양양왕이 물은 왕도정치와 천하의 방향에 대하여 앞서 양해왕에게 했던 논지의 연장선 상에서 살인을 즐기지 않는 임금이 천하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sup>22)</sup> 즉 왕도의 요건인 ‘仁義’라는 주제로 가기 위해 필요한 대화를 제시한 것이다.

다음으로 7장은 1~6장에서 전개된 논의의 소결이라 할 수 있으며 장구 하로 가기 위한 전환의 장으로 볼 수 있다. 이 장은 제선왕과 맹자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으며 장구 상에서 1~6장의 내용보다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제선왕의 첫 물음은 제나라 환공과 진나라 문공과 같이 천하를 재패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이다. 즉 霸道에 대한 물음이다. 이에 대해 맹자는 王道를 행하는 방향으로 논지를 전환시키며 선왕에게 왕도를 행하여 백성을 잘 보호할 자질이 갖추어져 있음을 혼종의 의식과 관련된 일로 설명한다. 그리고 『詩經』의 인용 및 비유를 통해 패도정치의 부당성을 말하며 선왕은 왕도정치를 하지 않는 것이지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님을 주지시킨다. 나아가 패권의 욕심이 있는 제선왕에게 패도정치를 하게 되면 큰 재앙이 따를 것이라 비판하며 왕도정치를 위한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仁義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잘 교육시키는 仁術이 바탕이 되어야 왕도정치가 잘 구현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sup>23)</sup>

이와 같이 「梁惠王」章句 上은 1장의 仁義의 序를 제시하여 7장의 왕도정치 구현의 방법에 대한 소결로 가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7장의 경우는 1~6장의 논의와 왕도정치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소결이자 장구 하의 실천적 논의로 넘어가는 중요한 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22) 앞의 책, 6장, “孟子見梁襄王。……卒然問曰 天下惡乎定? 吾對曰 定于一。孰能一之? 對曰 不嗜殺人者能一之。……今夫天下之人牧, 未有不嗜殺人者也, 如有不嗜殺人者, 則天下之民皆引領而望之矣。誠如是也, 民歸之, 由水之就下, 沛然誰能禦之?”

23) 앞의 책, 7장, “齊宣王問曰 齊桓 晉文之事可得聞乎? 孟子對曰 仲尼之徒無道桓 文之事者, 是以後世無傳焉。臣未之聞也。無以, 則王乎?……曰 是心足以王矣。百姓皆以王爲愛也, 臣固知王之不忍也。……今恩足以及禽獸, 而功不至於百姓者, 獨何與? 然則一羽之不舉, 爲不用力焉; 輿薪之不見, 爲不用明焉, 百姓之不見保, 爲不用恩焉。故王之不王, 不爲也, 非不能也。……曰 然則王之所大欲可知已。欲辟土地, 朝秦楚, 敍中國而撫四夷也。以若所爲求若所欲, 猶緣木而求魚也。……王曰 吾惛, 不能進於是矣。願夫子輔吾志, 明以教我。我雖不敏, 請嘗試之。……曰 無恆產而有恆心者, 惟士爲能。若民, 則無恆產, 因無恆心。苟無恆心, 放辟, 邪侈, 無不爲已。及陷於罪, 然後從而刑之, 是罔民也。焉有仁人在位, 罔民而可爲也? ……”



## 2) 「梁惠王」章句 下의 構成

「梁惠王」下는 총 1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梁惠王」下는 「梁惠王」上의 논지를 이어가며 마지막에는 결론을 맺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梁惠王」上이 仁義와 王道를 제시하며 이론적 논의가 이어진다면 「梁惠王」下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국내 정치에서의 구체적 사례와 왕의 자질 등과 같은 실천적 방법을 위주로 논의가 이어지는 것이다. 이를 각 중심 의미별 단락을 구분해 보면 8~11장, 12~14장, 15~18장, 19~22장, 23장의 5개 단락군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단락은 王政→治道→革命·征伐→仁政→天命의 순으로 의미를 구분지을 수 있다.

8~11장은 「梁惠王」上 7장에서 제시한 왕도정치의 논의를 이어 국내→국외→천하로 확장하며 왕도정치를 하기위한 구체적 사례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8장과 9장은 국내적으로 정치를 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8장은 ‘好樂’을 지금의 음악과 옛날의 음악과의 비유를 통해 음악을 좋아하되 백성들과 함께 즐겨야 함을 설명하였다. 9장 또한 나라의 동산인 苑囿를 文王과 지금의 상황과의 비교를 통하여 아무리 조금의 공간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백성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 백성들을 빠뜨리는 함정을 나라 안에 파놓은 것과 같다고 하였다.<sup>24)</sup> 이는 국내정치 속에서 평범하고 작은 것이라도 백성과 함께 했을 때만이 仁義의 정치를 행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10장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의 교유와 관련된 물음으로 시작한다. 제선왕은 내심 이웃 나라를 병합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이웃나라와 교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본다. 맹자는 제선왕의 이러한 의중을 알아차리고 정벌이 아닌 이웃나라를 섬기는 것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文王과 武王의 大勇을 제시하여 백성들을 우선시하고 편안히 할 수 있는 큰 용기를 지녀야 함을 강조한다.<sup>25)</sup> 이웃나라를 병합하여 다스린다는 것도 백성의 안위를 제일로 생각하고 백성들

24) 앞의 책, 「양혜왕」下, 8장, “……孟子曰 王之好樂甚, 則齊國其庶幾乎!……今王鼓樂於此, 百姓聞王鐘鼓之聲, 管籥之音, 舉欣欣然有喜色而相告曰 吾王庶幾無疾病與? 何以能鼓樂也? 今王田獵於此, 百姓聞王車馬之音, 見羽旄之美, 舉欣欣然有喜色而相告曰 吾王庶幾無疾病與? 何以能田獵也? 此無他, 與民同樂也. 今王與百姓同樂, 則王矣.”

9장, “齊宣王問曰 文王之囿方七十里, 有諸? ……曰 寡人之囿方四十里, 民猶以爲大, 何也? 曰 文王之囿方七十里, 芻蕘者往焉, 雉兔者往焉, 與民同之. 民以爲小, 不亦宜乎? 臣始至於境, 問國之大禁, 然後敢入. 臣聞郊關之內有囿方四十里, 殺其麋鹿者如殺人之罪. 則是方四十里, 爲阱於國中. 民以爲大, 不亦宜乎?”

25) 앞의 책, 10장, “齊宣王問曰 交鄰國有道乎? 孟子對曰 有. 惟仁者爲能以大事小, 是故湯事葛, 文王事昆夷……王曰 大哉言矣! 寡人有疾, 寡人好勇. 對曰 王請無好小勇. 夫撫劍疾視曰, 彼惡敢當我哉 此匹夫之勇,

이 간절히 바랬을 때 대용의 진가가 발휘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1장은 선대왕의 행적을 통해 인의의 정치를 행하여 천자가 되는 도리를 설명하며 천하 백성들과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함을 제시하였다.<sup>26)</sup> 이는 정벌이 목적이 되는 패권의 정치가 아닌 것이다.

12~14장은 왕도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왕의 자질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거듭 강조하며 다음 단락으로 연결되는 역할을 한다. 앞의 단락에서 백성과 함께 하며 ‘仁義’의 정치를 펼쳐야 함을 국내에서 천하로 확장하며 논의를 펼쳤지만, 12장에서 선왕은 왕도정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明堂을 헐어버리려는 마음을 내비치며 패권을 잡으려는 욕망을 다시 드러내게 된다. 그래서 맹자는 王政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며 백성과 함께 하는 것만이 왕도정치의 기본이 됨을 재차 강조한다. 또한 벼와 신하의 비유를 들며 선왕의 정치를 힐난하고 신하 등용에 있어서 사사로운 마음을 없애고 공적인 마음을 가져야 함을 부연 설명한다.<sup>27)</sup> 즉 임금에게 있어서 仁義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자질이란 공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지닐 수 있다는 기본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15~16장은 앞의 단락군에서 제시된 仁義의 정치와 관련된 과거사례를 제시한다. 선왕은 연나라 정벌에 대한 명분을 가지기 위해 湯王과 武王이 桀, 紂를 몰아낸 사실에 대하여 묻는다. 이 물음에 맹자는 桀, 紂는 ‘仁義’를 해치며 나라를 어지럽혔으므로 仁義의 정치를 하기위한 자질이 부족하며 임금의 자격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湯王과 武王과 같이 그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면 벌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革命이 허용될 수 있는 조건이라 한 것이다. 또한 나라를 통치하며 인재를 등용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도 어진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부리며 그 실력을 확실히 발휘할 수 있는 적재적소의 등용 또한 국가를 다스리는 기본임을 설명하였다.<sup>28)</sup>

敵一人者也。王請大之……文王一怒而安天下之民。……一人衡行於天下，武王恥之。此武王之勇也。而武王亦一怒而安天下之民。今王亦一怒而安天下之民，民惟恐王之不好勇也。”

26) 앞의 책, 11장, “齊宣王見孟子於雪宮。王曰 賢者亦有此樂乎? 孟子對曰 有。人不得，則非其上矣。不得而非其上者，非也；爲民上而不與民同樂者，亦非也。樂民之樂者，民亦樂其樂；憂民之憂者，民亦憂其憂。樂以天下，憂以天下，然而不王者，未之有也。……”

27) 앞의 책, 12장~14장, “12. 齊宣王問曰 人皆謂我毀明堂。毀諸? 已乎? 子對曰 夫明堂者，王者之堂也。王欲行王政，則勿毀之矣。…… 13. 孟子謂齊宣王曰 王之臣有託其妻子於其友，而之楚遊者。比其反也，則凍餒其妻子，則如之何?…… 14. 孟子見齊宣王曰 所謂故國者，非謂有喬木之謂也，有世臣之謂也。王無親臣矣，昔者所進，今日不知其亡也。……國君進賢，如不得已，將使卑踰尊，疏踰戚，可不慎與?……”

28) 앞의 책, 15, 16장, “15. 齊宣王問曰 湯放桀，武王伐紂，有諸? 孟子對曰 於傳有之。曰 臣弑其君可乎? 曰

17~18장은 제나라 현시점에서 과거와 같은 사례가 벌어진다. 앞 단락에서 성립된 정벌에 대한 명분을 가지고 선왕은 연나라정벌의 욕심을 드러내었고 전쟁에서 승리 하였다. 그러나 나라를 병합 시킬 명분은 가지지 못한 것이다. 이에 맹자는 民心の 向背에 따라 백성의 마음을 따라서 취하며 백성이 즐거워하면 취하지만 백성이 즐거워하지 않으면 취해서는 안 된다는 충고를 한다.<sup>29)</sup> 즉 연나라의 임금인 紂와 같은 사람이며 선왕이 湯, 武와 같은 사람이라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며 무엇보다 백성들이 바라는 일이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18장에서는 결국 선왕은 백성들의 마음 보다는 자기 자신의 패권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연나라를 병합하게 되고 이내 반발에 부딪히게 된다. 결국 仁義를 중시하는 王道보다 利의 霸權이 중심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래서 맹자는 전대 왕의 예를 들며 군사를 거두고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두어 덕을 닦고 仁政을 행해야 만이 그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sup>30)</sup> 이는 제와 같은 大國의 입장에서 임금의 자질과 민심을 얻는다면 仁義의 정치로 정벌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한 것이다.

17~18장이 대국의 관점이라면 19~22장은 鄒, 滕과 같은 약소국가에 그 상황이 적용되었다. 맹자는 인의의 정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제선왕에게 많은 설득을 하였지만 결국은 패권으로 흘러가버렸으며 약소국에게는 위협의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따라서 약소국은 살아남을 방법만을 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맹자는 대국이 그 자질과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인의의 정치를 할 수 있듯이 약소국도 백성이 있고 그 백성의 마음을 얻는 仁政을 베풀어야만 지금의 위험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sup>31)</sup>

23장은 노평공이 등장하는 데 「梁惠王」편 중에서 유일하게 제후를 만나지 못한 상황과 그 이유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맹자 제자인 樂正子(樂正子)는 맹자의 後喪이 前喪보다

賊仁者謂之賊，賊義者謂之殘，殘賊之人謂之一夫。聞誅一夫紂矣，未聞弑君也。16. 孟子見齊宣王曰 爲巨室，則必使工師求大木。工師得大木，則王喜，以爲能勝其任也。匠人斲而小之，則王怒，以爲不勝其任矣。夫人幼而學之，壯而欲行之。王曰 姑舍女所學而從我，則何如?”

29) 앞의 책, 17장, “齊人伐燕, 勝之. 宣王問曰 或謂寡人勿取, 或謂寡人取之. 以萬乘之國伐萬乘之國, 五旬而舉之, 人力不至於此. 不取, 必有天殃. 取之, 何如? 孟子對曰 取之而燕民悅, 則取之……”

30) 앞의 책, 18장, “18. 齊人伐燕, 取之. 諸侯將謀救燕. 宣王曰 諸侯多謀伐寡人者, 何以待之? 孟子對曰 臣聞七十里爲政於天下者, 湯是也. 未聞以千里畏人者也. …… 今又倍地而不行仁政, 是動天下之兵也. 王速出令, 反其旄倪, 止其重器, 謀於燕衆, 置君而後去之, 則猶可及止也.”

31) 앞의 책, 19~22장, “19. 鄒與魯閔. 穆公問曰 吾有司死者三十三人, 而民莫之死也. 誅之, 則不可勝誅; 不誅, 則疾視其長上之死而不救, 如之何則可也? …… 20. 滕文公問曰 滕, 小國也, 間於齊楚. 事齊乎? 事楚乎? …… 21. 滕文公問曰 齊人將築薛, 吾甚恐. 如之何則可? …… 22. 滕文公問曰 滕, 小國也. 竭力以事大國, 則不得免焉. 如之何則可? ……”

낮다는 이유로 장창이라는 신하가 노평공을 저지하여 만나지 못한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맹자는 만나고 만나지 못하는 것은 天命이니 人力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 결론짓는다.<sup>32)</sup>

이는 「梁惠王」편의 총평이라 할 수 있으며 맹자가 여러 제후왕들과 仁義의 政治, 즉 王道政治에 대해 논의한 핵심이 들어있다. 의지가 있는 제후왕이라면 누구나 仁義를 실현하여 王道政治를 실현할 수 있는 자질이 갖추어져 있고 그 도를 전할 만한 인물이다. 그러나 도를 전한 인물을 만나고 만나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 도가 실현되고 실현되지 않음은 天命에 달린 것이지 결코 남을 탓하거나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성현의 품모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보면 「梁惠王」下는 인의의 정치를 실현하는 실천적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전반부에서 국내-국외-천하로 이어지며 인의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자질이 성립되며, 이를 탕왕과 무왕의 과거사례를 제시하여 현재 시점에서 대국과 소국이 해야 할 인의의 정치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구성방식들이 『孟子』 「梁惠王」편이 단순히 맹자와 제후왕과의 대화만을 뽑아놓은 것이 아닌, 전체가 하나의 편으로 공통된 주제를 향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 3) 論爭 당사자로서의 孟子와 諸侯

『孟子』 「梁惠王」편은 논쟁 당사자로서 맹자와 제후들<sup>33)</sup>이 등장하고 전체 문장이 이들과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논쟁의 당사자로 등장을 하였기 때문에 인물들에 더 초점이 맞추어질 수 가 있다. 그렇게 되면 등장인물에 가려져 궁극적으로 이 편에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먼저 등장인물과 맹자와의 전체적인 대화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앞 장에서 언급한 논의를 토대로 인물과 주요 대화내용을 위주로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32) 앞의 책, 23장, “魯平公將出. 嬖人臧倉者請曰 …… 樂正子見孟子, 曰 克告於君, 君爲來見也. 嬖人有臧倉者沮君, 君是以不果來也. 曰 行或使之, 止或尼之. 行止, 非人所能也. 吾之不遇魯侯, 天也. 臧氏之子焉能使予不遇哉?”

33) 梁惠王, 齊宣王, 鄒穆公, 滕文公, 魯平公(만나지 못함)

篇	章句	諸侯	章別 對話內容
梁惠王	章句 上	梁惠王	1장 : 仁義의 序 2~6장 : 백성들에 대한 왕의 자세, 仁義를 통한 與民, 養民, 愛民을 제시, 仁政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베풀어야 함을 제시.
		齊宣王	7장 : 王道와 霸道の 대비를 통한 왕도정치와 자질과 구현방법
	章句 下	齊宣王	8장~11장 : 王道政治의 실천적 방법제시, 국내~천하로 확장시키며 핵심은 백성과 함께 함에 있음을 강조 12~18장 : 仁義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자질제시, 과거 桀, 紂를 벌한 湯, 武의 사례, 현재 大國으로서 제선왕의 정벌과 仁義의 政治
		鄒穆公	19장 : 魯나라에 대한 약소국 추나라의 상황, 仁義의 政治가 벗어날 길
		滕文公	20~22장 : 齊와 楚같은 대국 사이에서의 약소국 등나라의 상황, 仁義의 政治가 벗어날 길
		魯平公	23장 : 만나지 못함, 인의의 정치 실현은 天命에 달려 있음을 결론적으로 제시

표를 통해서 살펴보면 양혜왕과의 대화내용은 주로 仁義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지며 제선왕의 경우는 王道政治의 자질과 이를 실현하는 실천적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추목공, 등문공, 노평공의 경우도 왕도정치의 실제와 연결되며 결론지어지고 있다. 따라서 주어진 양혜왕, 제선왕 등의 인물을 제외하고 내용만을 위주로 살펴보면 전체적인 흐름이 보인다. 그 흐름을 보면 이는 단순히 제후왕을 만난 시간적 순서로만 편집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양혜왕에게 仁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선언적으로 제시하고 그 이론을 펼쳤기 때문에 제선왕과의 대화 속에서는 생략을 하고 왕도정치를 할 수 있는 자질과 실제와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등장하는 제후들을 제외하고 「梁惠王」편 전체의 맥락을 살펴보면 크게 「仁義→王道政治→實現 資質→王道政治의 實際→天命」이라는 내용이 드러나게 된다. 그 내용은 다시 章句 上을 전반부로 下를 후반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上에서는 仁義를 통한 王道政治를 해야 할 것을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할 자질이 있다고 제시하며 下에서는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 방식이나 실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살펴본다면 「梁惠王」편은 맹자와 제후왕이라는 인물의 문답법이 없이 이루어 졌다면 하나의 짧은

독립된 작품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의 인물을 설득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에서 당시 전국시대라는 시대상황과 문면에 흐르는 의미가 더 잘 도출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논쟁 대상자로서의 문답이 등장하는 것은 『論語』에서도 보이는데 『論語』의 경우 공자와 제자와의 문답이 주를 이루고 그 설정이 많지 않다.<sup>34)</sup> 『孟子』는 제후와의 문답이 위주인 「梁惠王」편 이외에 다른 편에서도 제자 및 타인과의 문답형식이 주를 이룬다. 이는 『論語』의 흐름을 이어 더욱 확장된 작품이 『孟子』임을 알 수 는 있으나 동일한 형식의 구성이라 볼 수는 없다. 이 구성의 가장 비슷한 형식은 『莊子』에서 나타난다. 『莊子』는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여 문답법을 통해 짜임새 있고 완벽한 구성이 느껴지는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孟子』의 경우 실제 논리 당사자인 맹자와 제후간의 문답이기 때문에 같거나 필요없는 말이 중복이 될 수 도 있고, 내용의 선후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 이는 완벽한 문장의 구성이 되기는 힘들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莊子』의 문답법과 동일한 구조를 지녀 하나의 작품을 성립시키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이처럼 「양혜왕」편은 하나의 작품이 성립되기 위해 논리적 당사자로서의 맹자와 제후를 설정하였는데, 단순히 맹자가 제후왕을 만난 시간적 순서로만 편집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주어진 등장인물을 제외하고 「梁惠王」편의 주제가 전체 문장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흘러가고 있는지 편집 의도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4. 結論

기존의 『孟子』 연구물은 대부분 句와 章을 떠나지 못하고 句와 章의 결합체인 篇을 대상으로 전체적 흐름을 파악하는 연구도 흔치 않았다. 본고에서는 『孟子』 「梁惠王」편을 대상으로 「梁惠王」편이 首篇에 설정된 이유와 그 구성과 연계방식을 살펴보았다. 『孟子』 「梁惠王」편은 단순히 맹자가 만난 제후왕들과의 대화를 시간의 순서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닌 仁義와 仁義의 政治, 즉 王道政治라는 하나의 주제로 나아가기위해

34) 『논어』에서 대표적인 문답의 형식은 「학이」 15, “子貢曰 貧而無諂, 富而無驕, 何如? 子曰 可也. 未若貧而樂, 富而好禮者也. 子貢曰 詩云 如切如磋, 如琢如磨, 其斯之謂與! 子曰 賜也始可與言詩已矣, 告諸往而知來者.”에서 보인다.

짜임새 있게 구성되었음을 밝혔다.

『孟子』의 서술방식은 『莊子』의 문답 서술방식과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 『莊子』는 가상 인물을 통한 허구를 제시했기 때문에 완벽한 구성이 느껴진다. 그래서 필요 없거나 군더더기의 내용들은 생략하고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다. 『孟子』는 실제의 문답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이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선후도 바뀌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때 『莊子』와 같은 허구적 문답법과 『孟子』의 문답법은 작품의 구성원리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즉 『孟子』의 문답법은 실재를 대상으로 하는 문답법을 사용한 것이라서 『莊子』와 같은 완벽한 짜임새를 갖추기에는 부족하지만 문장을 성립시키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孟子』의 문답법과 관련된 修辭를 연구하는 것도 맹자 구성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이는 차후의 과제로 미루어두기로 한다.

이와 같이 『孟子』 「梁惠王」편의 구성은 매우 중요하다. 梁惠王이나 제후 왕과 孟子라는 등장인물을 제외하고 나면 仁義라고 하는 것과 王道政治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설명되며 주제로 나아가기위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독립된 작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十三經注疏』 25, 「孟子注疏」(2000) 北京大學出版社.  
司馬遷, 『史記』, 권74, 「孟子荀卿列傳」  
朱熹注, 『孟子集註大全』, 학민문화사 영인본.  
\_\_\_\_\_, 『論語集註大全』, 학민문화사 영인본.  
尹行恁, 『碩齋別稿』, 「薪湖隨筆」  
楊樹達(2006), 『中國修辭學』, 上海古籍出版社.  
최술 저, 박준원 역(2013) 『맹자사실록』, 지식을만드는지식.  
김운조(2008), 「論語 學而篇 研究 -논어 편찬 과정에 대한 一管見-」, 『동양한문학연구』 27집, 동양한문학회.  
박준원(2010), 「崔述의 『孟子事實錄』 研究」, 『동방한문학』 제45집, 동방한문학회.  
송병렬(2015), 「『論語』의 敍述方式과 修辭에 대한 研究」, 『한문학논집』 제40집, 근역한문학회.





# 江上四宰와 그 漢詩에 대하여

박 상 환\*

## •目次•

- |                       |                      |
|-----------------------|----------------------|
| 1. 머리말                | 烟巖 曹錫雨, 韋史 申錫禧의 漢詩   |
| 2. 江上四宰 文獻 現況과 天游 朴文達 | 2) 憂國愛民 계열 — 邵亭 金永爵의 |
| 3. 江上四宰 漢詩의 文藝的 類型    | 漢詩                   |
| 1) 溪山風流 계열 — 厚齋 洪在喆,  | 4. 맺음말               |

## 【국문초록】

‘강상사재’는 구한말로 진입하는 시기인 19세기 중후반 1865년~1868년간의 노년의 후재 홍재철·소정 김영작·연암 조석우·위사 신석희를 지칭하였던 용어이다. 곧 이 시기의 일부 시인집단에 해당한다. 홍재철이 막객으로 초빙하여 두텁게 후대하였던 개성출신의 시인 천유 박문규도 이들의 만남에 자주 배석하였다. 홍재철, 조석우의 경우 문집이 전하지 않지만 박문규의 『천유시집』과 『천유집고』에서 강상사재와 관련한 박문규의 작품을 다수 접할 수 있으며 그 중 몇몇 시에 강상사재의 원운이 소수 첨부되어 있으므로 홍재철, 조석우의 한시에 대해서도 그려볼 수 있다. 김영작, 신석희는 문집이 현전하므로 문집의 한시가 주요 자료이다.

강상사재 관련 한시자료들을 조명해 본 결과, 문예미에 있어서 크게 ‘계산풍류 계열’과 ‘우국애민 계열’로 문예적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계산풍류 계열로는 용산 한강가에서 자연을 감상하는 홍재철, 조석우, 신석희의 한시를 들 수 있으며, 김영작 역시 기본적으로 용산 한강가의 시인으로, 이들과 더불어 그곳에서의 자연을 바

\* 영남대학교 한자문화연구소 연구원 / parksgahn@ynu.ac.kr

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김영작은 서양 전함이 한강까지 침투했던 병인양요 이후에도 곧 여전히 홀로 수도의 용산 한강가를 떠나지 않고 지켰으며, 병인양요가 있기 전후한 시기의 그의 시에서는 삼정의 문란과 외세의 침략에 대한 내우외환으로 인해 나라를 근심하고 백성을 아끼는 우국애민의 정서가 뚜렷이 드러나 있다. 즉, 김영작은 산수에서 지내는 자연미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서 계산풍류의 문예미에서부터 우국애민시에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인데, 이를 구체적인 강상사재 한시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주제어 : 강상사재, 천유 박문규, 계산풍류, 19세기 내우외환, 우국애민

## 1. 머리말

舊韓末에 진입하게 되는 1860년대에 이르자 조선은 극심한 사회 혼란이 표면화되는 內憂外患의 시기에 直面하게 되었다. 서해에는 異樣船이 종종 출몰하고, 대내적으로 전부터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三政의 紊亂으로 백성들이 도탄에 빠진 채 1862년(哲宗 13) 2월 晉州民亂이 일어나 삼남 각지로 퍼져나가 壬戌民亂이 되었다. 1864년(高宗 元年) 2월에는 帝政러시아가 南下하여 통상을 요구하였으며, 1866년 1월에는 조선에서 대규모 天主教彈壓이 일자 프랑스의 극동함대사령관 로즈(Roze) 提督이 이를 빌미로 8월과 9~10월 1차, 2차에 걸쳐 戰艦을 이끌고 침범하는 丙寅洋擾도 있었다.

본고는 이 같은 내우외환의 시기 중 1865년~1868년경의 ‘江上四宰’라는 일부 詩人集團 — 厚齋 洪在喆(1799~1870) · 邵亭 金永爵(1802~1868) · 烟巖 曹錫雨(1810~?) · 韋史 申錫禧(1808~1873) — 과 그 漢詩에 대하여 연구한 바를 報告하고자 한다. 이들은 文官이며 각각 外職에 있을 때는 善政을 베풀며 백성들의 救恤에 힘썼고, 朝廷에 있을 때는 六曹에 있으며 講官職을 맡기도 하였다.<sup>1)</sup> 또한 공교롭게도 1865년

1) 官職記錄은 『實錄』, 『承政院日記』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예컨대 이들이 조정에서 맡고 있던 職務로는 『승정원일기』, 고종 4년(1867) 5월 18일, ‘좌찬성 金炳翼 등에게 『六典條例』 1건을 사급하라는 전교’를 보면 “좌찬성 金炳翼, 우찬성 鄭基世, 우참찬 李源命, 진강관 曹錫雨·洪鍾序·金永爵·申應朝·申錫禧·姜滌에게 『육전조례』를 1건씩 賜給하라.”라고 되어 있어 講官 조석우, 김영작, 신석희 등이 典章法度와 條例 등과 관련된 실무에도 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강관으로서는 『小學』, 『通鑑』, 『大學』, 『論語』 등을

을 즈음하여 서울 龍山 漢江가의 정자에 머물고서 때때로 근처 한강에서 作詩活動을 하였던 4명의 詩人이기도 하였다. 당대에 ‘江上四宰’라 지칭되었던 점도 바로 이 점에서 기인한 文學上的 用語에 해당한다.

‘江上四宰’라는 용어가 보이는 것은 申佐模 『澹人集』의 1867년작 「屬江上四宰冠字韻(并序 丁卯)」의 제목 및 “江上四宰相，一時之重望也.”라는 도입부에서이다.<sup>2)</sup> 본고의 ‘江上四宰’ 용어는 여기에서 가져온 것이다. 비슷한 표현으로 趙冕鎬 『玉垂集』의 「旣憶璫齋又憶又憶憶是同志之近日蟬聯者止各有屬意」시의 原註에는, “이 당시에 洪厚齋·曹烟巖·申韋史·金邵亭이 ‘四傑’이라 일컬어졌는데, ‘傑’은 읽으면 ‘구걸하다(乞)’이며 四公이 淸貧한 데에서 연유한다”<sup>3)</sup>는 내용이 있으며, 이 시에 金永爵이 차운한 「次韻答玉垂見寄」에 “湖上有四老”라는 시구도 있다.<sup>4)</sup> 강상사재가 용산에서 함께 지낸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으므로 이 용어가 후대까지 확산되지는 못한 듯하다.

본고가 강상사재에 주목한 이유는, 이들이 비록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시인집단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조선 19세기 중후반의 내우외환의 시기에 그 한시가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보는다면 19세기 한문학에 대한 文學史的 評價에 소중한 판단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인명사전류나 자료집에는 이들 개개인의 면면이 등장하고 있는 반면,<sup>5)</sup> 문학사에서는 강상사재가 아직까지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는 듯하다. 연구 분야에서는 홍재철, 김영작, 조석우, 신석희가 19세기 한문학 연구의 일환으로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중에서 소정 김영작을 연구하는 성과가 눈에 띄게 쌓이고 있는 점 등을 중요한 선행연구로 들 수 있다.<sup>6)</sup>

작품의 이해를 통해서는 강상사재 漢詩의 文藝的 類型을 크게 두 계열로 분류할 수

강의한 사실이 『승정원일기』에 보인다.

2) 申佐模, 『澹人集』 卷7, 「屬江上四宰冠字韻(并序 丁卯)」.

3) 趙冕鎬, 『玉垂集』 卷12, 「旣憶璫齋又憶又憶憶是同志之近日蟬聯者止各有屬意」 제1수, 原註, “時以洪厚齋·曹烟巖·申韋史·金邵亭謂四傑, 傑讀作乞, 爲四公拯淸貧.”

4) 金永爵, 『邵亭詩稿』 卷2, 「次韻答玉垂見寄」 제1구.

5) 성균관대학교 박물관(2009); 이가원(1965); 韓國人名大事典編纂室 編(1967); 鮮總督府中樞院 編(1937); 崔成德 主編(1992) 등에서 홍재철, 김영작, 조석우, 신석희 등 각각에 대해 약술한 바를 찾아볼 수 있다.

6) 김영작을 연구한 선행연구를 일일이 들지는 않으며, 본고에서는 燕巖 文學 전공자이신 김명호 교수께서 璫齋 朴珪壽 研究의 一環으로 김영작, 조석우, 신석희 등에 대해서도 다루었던 김명호(2008)과 김용태 교수께서 玉垂 趙冕鎬 研究의 一環으로 홍재철, 김영작, 신석희 등도 일부 다루었던 김용태(2008)이 많은 참고가 되었다.

있었다. ‘溪山風流 系列’과 ‘憂國愛民 系列’이 그것이다. 홍재철, 조석우, 신석희의 漢詩는 그 문예미에 있어서 용산 한강가에서 自然을 感賞하는 風流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인식하여 ‘계산풍류 계열’로 분류하였다. ‘溪山風流’는 임형택 교수께서 「16세기 光·羅州 지역의 사림층과 송순의 시세계 — 溪山風流의 발전」에서 쓰인 學術語이다. 국문학 연구의 초창기에 陶南 趙潤濟 교수께서 『朝鮮詩歌史綱』에서 처음 제기한 ‘江湖歌道’(自然美의 發見)의 문예미<sup>7)</sup>는, 국문시가를 대상으로 하는 樣式的인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漢詩까지 포괄할 수 있는 상위개념으로서 ‘溪山風流’ 용어가 제출된 것이다.<sup>8)</sup> 즉 ‘계산풍류’ 漢詩의 自然美는 그 형성 배경이라든지 미적 이념과 미적 내용에 있어서는<sup>9)</sup> 국문시가의 강호가도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시와 국문시가는 일부 형식의 측면이라든지 작자층, 그리고 향유의 측면 등에서도 함께 논의할 수 있으며,<sup>10)</sup> ‘강호가도’를 포괄하는 ‘계산풍류’의 문예미는 時調나 歌辭에만 국한되어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漢詩에도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국애민 계열’로 분류한 김영작 역시 기본적으로는 山水自然에 바탕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憂國愛民詩로 나아간 것으로 파악되었다.<sup>11)</sup> 그는 19

7) 조운제 교수의 ‘江湖歌道’의 문예미는 『朝鮮詩歌史綱』(1937)의 ‘韓巖과 俛仰亭의 江湖歌道’라는節, 248면에서 “(...)이 時代가 되면 그러한 思想이 더욱 濃厚하여져 정말 江湖의 自然美를 發見하여 그 가운데에 沒入할라 하는 傾向이 多分 나타났다.”고 하며 ‘自然美의 發見’이라는 文藝理論으로 학계에 발표되어졌다. 또한 『國文學史』의 改修版인 『韓國文學史』 160면에서, “(...)이리하여 江湖의 自然은 致仕閑客 或은 配所의 不遇客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文壇에 一步一步 接近하여 왔었다.”라고 하였으며, 『國文學概說』 425면에서는 “自然의 美는 客觀적으로 아름답고 거기에 情趣가 있을뿐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이 그 美에 陶醉하여 그 가운데 沒入하고 말았다.”고 하였다.; 도남 조운제 교수의 삶과 국문학 연구에 대해서는 김명호(2013)을 참조.

8) 임형택 교수는 ‘계산풍류’의 개념을 도입하게 된 배경으로, 한시의 酬唱이 보편화된 형태였으며 노래를 지어 부르는 사례가 오히려 희귀했고, 우리의 문학사는 한문문학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오직 가창의 요구 때문에 국문시의 형식이 존속해왔으므로, 보편적인 형식의 시—한시를 짓고 吟詠하는 것과 노래의 향유를 포함해서 전체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함을 들었다. 임형택(2002), 161~162면 참조.

9) 최진원 교수도 ‘강호가도’ 문예이론을 심화시켰던 바, 『江湖歌道研究』 4면에서 조운제 교수의 이론을 요약하면서 “江湖歌道는 黨爭下의 明哲保身과 致仕客의 閑適에서 形成되었다. 江湖歌道에 나타난 自然의 樣相은 一般美이고, 그것은 調和·永遠·절로절로를 내용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그 스스로는 이 ‘一般美’를 미적 이념, ‘調和·永遠·절로절로’를 미적 내용이라 하였다. 또한 自然美의 發見에 있어서 風流는 賞自然으로, 永遠은 規範性으로, 調和는 餘白으로 보았다. 최진원 교수의 강호가도는 논문 「自然과 人間存在」에서 ‘歸去來의 動機’, ‘賢者避世와 逃避’, ‘樂山樂水로 설명되어지고 요산요수의 하위節에서 溫柔敦厚와 風流’, ‘超然과 餘白’으로 분류되어졌다. 최진원(1973) 참조.

10) 이러한 필자의 논리는 조운제(1987), 161~162면, 178면; 조운제(1962), 36면, 239~240면; 임형택(2006), 52~53면 등에 힘입었다.; 율시의 편법과 시조의 편법의 유사함과 율시와 배율, 시조와 가사에 흐르는 공통점에 대해서 이종건(2003)에서 논의된 바 있다.

11) 필자의 이와 같은 견해는 이희목 교수께서 논문 「梅泉 黃珪의 山水詩 小考」에서 “매천의 산수시는 그가 남긴 현실주의적 경향의 우국시와 시 정신에 있어서는 그 뿌리를 함께 한다고 말 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매천의 산수시를 주의 깊게 바라보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이희

세기의 내우외환으로 인해 촉발된 우국애민의 정서를 시에 갈수록 드리우고 있으며 그러한 점은 강상사재와의 교유 내에서의 문학적 성취 속에서 뚜렷하게 시로 옮겨지고 있다.

본문에서는 강상사재 한시자료에 대한 文獻調査 내용을 언급하면서 강상사재에 대한 천유 박문규의 詩人的 同參을 살펴본 후, 강상사재의 作品에 구체적으로 다가가고자 한다.

## 2. 江上四宰 文獻 現況과 天游 朴文達

강상사재 한시자료에 대한 文獻調査 내용을 먼저 살펴본다. 김영작은 『邵亭詩稿』와 『存春軒詩鈔』에서 강상사재 관련 작품 11題를 찾아 볼 수 있으며, 신석희는 『韋史詩稿』에 관련 작품이 9제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홍재철의 경우 그의 관직기록인 『科宦錄』만이 현전하고 있을 뿐으로 시문집은 발견할 수 없으며,<sup>12)</sup> 조석우도 문집의 현전 여부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개성출신이자 홍재철의 幕客詩人으로서 두터운 후대를 입었던<sup>13)</sup> 天游 朴文達의 『天游詩集』 및 『天游集古』에서 강상사재를 고찰하는데 중요한 박문규의 한시 44제와 30제를 각각 살펴볼 수 있다. 곧 강상사재의 교유와 관련되는 여러 작품이 산견되어 그 양상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점인데, 특히 『천유시집』에는 강상사재의 原韻이 첨부되어 있는 작품도 소수 있으므로 비록 전체 상은 아니더라도 홍재철, 조석우의 한시도 부분적으로나마 그려볼 수가 있는 것이다.

박문규(1805~1888, 자 霽鴻, 호 雲巢子·天游子, 본관 淳昌)에 대해서는 신좌모의 「復疊前韻贈朴天游(霽鴻○並小序 二首)」에 그에 대해 비교적 간략하게 잘 소개되어

목(2010), 24면; 또한 이같이 外患에 의해 문학상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측면과 관련하여 조운제(1937), 195면, “그리고 또 時代는 詩歌史上 여러가지로 意義가 있었으니 첫째는 歌辭體長歌의 成立이고 둘째는 바로 國家未曾有의 壬辰亂을 介有하여 次期 詩歌의 傾向을 決定的으로 胚胎하였다는 것이다.” 부분도 의미 깊게 읽힌다.

12) 단, 渭叟 承命周가 홍선대원군 집정기의 景福宮 중건사업 및 衛正斥邪 정책에 호응한 내용을 담아 1874년 편찬한 책 『正粹錄』에는 1868년작 「六十一歲晬日(戊辰正月十七日)述懷(七律)」시가 있는데, 거기에 홍재철의 次韻詩가 붙어있으며(承命周, 『正粹錄』, 아세아문화사, 『栖碧外史海外蒐佚本』15, 1990, 370~371면), 『槿墨』에도 홍재철의 시 1수가 실려 있다. 성균관대학교 박물관(2009), 槿278면, 信371면.

13) 박문규는 江上四宰의 모임에서 飲中五仙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있다. 신좌모는 “朴天游는 詩人이다.”라고 하면서, “여러해 전부터 尚書가 있는 곳에 손님으로 지냈는데 자못 깊고 두터운 眷待를 받았다. 상서가 동쪽으로 간 후에는 갈 곳을 몰라 해마다가 都下를 유랑하였는데 나그네의 모습이 처량하였다.”라고 하여 박문규와 홍재철의 관계를 중요하게 언급하였다.<sup>14)</sup> 박문규의 『천유시집』<sup>15)</sup>과 『천유집고』에는 그의 門人·知人들이 남긴 序·跋·傳·引·題辭가 있는데, 하나같이 그를 開城출신의 뛰어난 시인으로서 그의 天才를 칭송하고 있다. 박문규의 행적으로는, 그는 어려서부터 聰慧가 絶倫하여 눈에 한번 거친 글이면 잊지 않았으며 장성하며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되었으나 가산을 탕진한 후 40세에야 비로소 詩에 전념하여 古詩 수만 편을 외웠다고 한다. 近體詩에도 능하여 淸나라 翰林學士 董文煥(1833~1877)은 “卓然成家”라 박문규의 시를 극찬하고서 通交하였다. 集句詩를 잘 지었다는 점 등도 기술되어 있다.<sup>16)</sup> 박문규는 각종 인명사전류에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중요한 시인이지만<sup>17)</sup> 아직까지 문학사에서는 특별히 다루어진 적이 없는듯하다. 다행히도 최근 그의 集句詩集 『天游集古』가 연구되어진 바 있다.<sup>18)</sup>

박문규의 『천유시집』과 『천유집고』에 산견되는 강상사재 교유 관련 시 44제와 30제 가운데<sup>19)</sup> 중요한 작품 몇 수를 살펴본다. 먼저 『천유시집』의 1866년 3월 3일 作 「蓉

14) 申佐模, 『澹人集』 卷7, 「復疊前韻贈朴天游 霽鴻○並小序 二首」, “朴天游, 詩人也. 與余交十數年, 寔甚而性又狷介, 以弊衣破冠遊公卿間, 不適意, 輒起去不終日. 年來客尚書所, 甚被眷待. 及尚書東歸後, 偃偃無所向, 索遊都下, 旅色淒酸. 疊前韻以贈. 제1수 詩人本色古來寒, 歲暮羈窓獨倚欄, 近日沈酣文舉酒, 當年傲兀季常冠(天游近住崔台下所. 天游少時頗不貧, 喜結客, 詩酒放浪山水.), 囊中宿藁梅千樹, 紙上空文竹萬竿(天游嘗以千金與人種蓼, 不售, 輒取契券燒之. 坐是益困, 而不恤也.), 尚有一雙青白眼, 窮途不共衆人看 제2수-今世誰憐范叔寒, 夢魂常繞碧亭欄, 公卿下土輕千騎, 貧賤驕人弊一冠, 失水窮鱗甘涸轍, 衝風弱羽畏黏竿, 那當海上携君去, 翹首東天日出看(今萊伯雨田, 天游之最初相識也. 聞有書招天游云.)”

15) 『天游詩集』은 중국 국가도서관에도 소장되어 있다.

16) 朴文達, 『天游詩集』, 孔聖學, 「天游詩集序」, “(…)蓋其詩, 長於近體, 鏗鏘如唐人, 而尤善於集古人句.”, 申錫禧, 「天游詩集序」, 金澤榮, 「傳」, 李箕紹, 「跋」, 玄在德, 「引」, 姜永直, 「題天游詩集後」, “(…)其詩, 淡而不膩, 華而不靡, 有中唐人格調.”; 朴文達, 『天游集古』, 孔聖學, 「天游集古序」, 朴南澈, 「天游先生集古 題辭」, “(…)當時心庵趙相公·厚翁洪尚書, 稱爲絕藝, 極其推獎, 申韋史·曹煙庵二公, 皆有詩贊之, 然此何足以盡其所有哉?”, 趙仁元, 「跋」, 宋榮龜, 「天游集古跋」.

17) 그러나 인명사전류에는 박문규가 홍재철의 손님인 幕客詩人으로 지낸 경력이 누락되어 있다.

18) 이은주(2011), 57면에서 “박문규는 젊어서 장사로 재산을 상당히 모았으나 결국 가산을 모두 탕진했고 마흔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시 공부에 전념했는데 1926년에 金柱炳이 편한 『朝鮮近代名家詩抄』에도 7언절구 9수, 7언율시 79수가 수록될 정도로 유명한 시인이었다.”고 하였으며, 그 각주에서 “1940년 7월 28일자 동아일보의 ‘入選漢詩’란에 박문규의 「夏日登淸涼山」을 제시하고 이 시의 제목과 운을 따라 「夏日登山」이라는 주제로 한시를 지어 응모할 것을 독려했다.”고 하였다. 아울러 74면에서는 “박문규가 시인으로서 어느 정도 위상을 가지게 된 것은 김택영의 도움이 컸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19) 박문규의 작품별 제목에 강상사재 중의 일원이 보이더라도 다른 시회에 속하는 성격의 작품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예를 들어 「臘月十六日環碧樓文讌陪諸公賦」의 附諸公詩라든지, 「洪芻玉尚書招同中海藏韋史尚書

湖舟中陪洪輔國(在喆)曹尚書(錫雨)申尚書(錫禧)金侍郎(永爵)共賦」<sup>20)</sup> 2수이다.

輕舟容裔任西東	가벼운 배 너울너울 서쪽 동쪽으로 맡겼더니
錦繡湖山轉眼中	錦繡湖山이 눈에 들어오네
茶竈筆床情並適	차 끓는 부엌과 붓 놓인 상에情有 함께 가고
江商海客語相通	강의 물방울과 海客은 말이 서로 통하는 구나
落花細逐鷗邊浪	낙화 있는 가느다란 길 쫓아가니 갈매기 옆에는 파도 일고
垂柳斜牽燕外風	드리운 버드나무는 비껴 당긴 듯하며 제비는 外風에 난다
記得坡公詩句好	기억하는가, 蘇東坡의 시구 좋음을
勝遊難復五人同	즐거운 유람에 이 다섯 명과 다시 같이 어렵네
草長沙軟暮江頭	풀 자란 연한 모래의 저물녘 강변에
一日清閒抵幾秋	나날이 淸閒한지도 몇 년이 되었네
綠樹自通塵外境	녹색 나무에서 속세 밖의 경치로 저절로 통하여
靑山豈識世間愁	청산에서는 世間으로 인한 시름을 어찌 알리요
雪霜滿鬢人如鶴	눈과 서리가 귀밑머리에 가득한 여러 분은 학 같고
湖海忘情我亦鷗	湖海에서 情을 잊은 나 역시 갈매기로구나
取醉不妨歸較晚	술에 취해 거리낌 없어 돌아가기도 비교적 늦었으니
更携從事自靑州	다시 붙잡고 종유하매 절로 靑州이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박문규는 이날 蓉湖에서 배를 타며 홍재철, 조석우, 신석희, 김영작과 함께 시를 지었다. 첫수는 海客으로서 강에 가볍게 배를 띄우고서 繡를 놓은 듯한 주변 경관이 파노라마 장면처럼 펼쳐지는 듯하다. 특히 경련 “낙화 있는 가느다란 길 쫓아가니 갈매기 옆에는 파도 일고/ 드리운 버드나무는 비껴 당긴 듯하며 제비는 外風에 난다” 부분에서 강변 풍경의 움직임이 카메라로 찍은 듯이 포착되어 있다. 둘째 수의 제6구에서 “湖海에서 情을 잊은 나 역시 갈매기로구나”라 하며 湖海에 있는 갈매기 마냥 자유롭게 지내는 박문규 자신을 노래하였다. ‘取醉’는 술을 마셔서 취하기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靑州’는 중국 山東省의 濟南 지역 일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데, 蓉湖의 경치에서 靑州의 분위기가 난다는 의미일 것이다. 시 전체적으로

兄弟李友石林玄居趙晉齋三侍郎趙怡堂洪蓮史兩員外集混混亭次唐人韻共賦」등은 제외하였다.

20) 朴文達, 『天濤詩集』, 「蓉湖舟中陪洪輔國(在喆)曹尚書(錫雨)申尚書(錫禧)金侍郎(永爵)共賦」; 신석희, 『위사 시고』의 「三月三日同厚翁烟巖卽亭朴天濤泛舟」 3수와 같은 날 지은 작품이다.

湖海에서 유유자적하며 지내는 강상사재 교유의 일면이 잘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이 시는 강상사재 諸公들의 시가 각각 한 수씩 첨부되어 있어서 특히 중요하며 해당 章節에서 다루기로 한다.

다음으로 살펴볼 칠언고시 「厚翁尚書作飲中五仙歌垂示敬次其韻遂用反歌」<sup>21)</sup>는 홍재철이 杜甫(712~770)의 「飲中八仙歌」에서 착안하여 지은 시에 박문규가 차운하여 지은 칠언고시이다. 신석희, 조석우, 김영작의 특징이 각각 언급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貳相襟度和而暢	貳相이 홍금의 회포를 화답하면서 펴는데
有客期必傾家釀	기약 맞춰 객이 있어 집에서 빚은 술 기울이네
催呼舟人駕小船	맺사람 재촉하여 불러 小船에 올랐더니
春江鴨綠情相牽	봄 강과 초록색 오리가 情이 서로 매어있다
如漉之酒一口吸	漉의 것과 같은 술을 한 입에 들이켜니
韋史豪宕人不及	韋史의 호탕함은 다른 사람들이 미치는바 아니네
凌阮轢畢既無量	凌阮하고 轢畢하기가 이미 무량하니
天之所賦非可強	하늘이 품부한 것이지 억지로 될 만한 게 아니다
曹公少日登巒坡	曹公은 젊을 적 巒坡에 등용되어
御醞珍重瓊露和	임금께서 주신 술 진귀하게 여겨 옥과 이슬처럼 화답하네
揭來江湖稱散客	江湖로 온 뒤로는 散客을 칭하니
氣酣嘯傲忘頭白	술기운 열큰해지자 휘파람 불어 뿔내며 머리 하얀 것도 잊네
誰言邵亭非飲者	누가 邵亭을 술을 마시지 않는다하였나
性如羊侃言笑寡	성품이 羊侃과 같아서 웃고 즐기는 담소가 적을 뿐
探篋不愁罄金錯	상자를 살펴보니 金錯刀가 비어도 근심하지 않은채
觥籌依巡與同樂	술잔과 算가지를 차례대로 함께 즐기네
船中日落同醉眠	배 안에서 해 떨어지니 함께 취해 잠드는데
縠紋江水當錦筵	주름비단무늬 강물은 비단자리와도 같네
崧陽布衣高陽客	崧陽의 布衣 입은 高陽酒徒는
終期負局成頑仙	등에 磨鏡 상자 짊어지는 기한이 끝나자 頑仙이 되었구나

제1~4구는 홍재철에 해당한다. ‘貳相’은 三政丞 다음 가는 벼슬이란 뜻으로, 左右

21) 朴文達, 『天游詩集』, 「厚翁尚書作飲中五仙歌垂示敬次其韻遂用反歌」.



贊成을 이르는 말이다. 홍재철이 손님을 맞아 배 타기를 좋아한 점이 봄 강과 초록색 오리의 정취와 함께 잘 어우러져 있다. 제5~8구는 신석희에 해당한다. ‘灑’은 山東省에 있는 강의 이름 또는 河南省에 있는 현 이름이다. 술맛이 좋다는 뜻으로 사용한 듯하다. 좋은 술을 단숨에 들이킨다고 하여 신석희의 천성이 호탕하고 시원스러움을 알 수 있다. 제9~12구는 조석우에 해당한다. ‘鑾坡’는 翰林院, 藝文館, 弘文館 등을 지칭한다. ‘氣酣’은 술기운이 일큰하게 오른다는 뜻이며, ‘嘯傲’는 노래 부르고 길게 휘파람 불며 업신여기며 자득한 것 또는 행동이 광달하고 세속의 법도에 구속됨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 곧 隱士의 생활을 지칭한다. 젊었을 적 鑾坡 벼슬을 하다가 늘그막에 江湖에 散客이 되어 돌아온 뒤 술을 마시고 휘파람불며 지내는 은사의 모습으로 묘사하였다. 제13~16구는 김영작에 해당한다. “누가 邵亭을 술을 마시지 않는다하였나”라고 한 뒤, 사실은 “술잔과 算가지를 차례대로 함께 즐기”며 法度에 맞게 술을 마시고 있는 김영작의 모습을 그렸다. 박문규는 김영작의 성품을 강직한 羊侃(495~549)<sup>22)</sup>에 비유하였다. ‘言笑’는 說笑와 같은 말로, 웃고 즐기며 담소한다는 뜻이며 말에 웃음기가 있는 모양을 뜻하기도 한다. 즉 함부로 담소하지 않는 김영작의 莊重함에 사람들은 김영작을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던 모양이다. ‘金錯’은 前漢 末 王莽 때 鑄造한 화폐의 이름으로, 김영작이 상자의 돈이 비어도 근심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이 해학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제17~20구는 박문규 자신에 해당한다. ‘錦筵’은 아름다운 깔개, 좌석, 연회석을 뜻한다. ‘頑仙’은 頑僊으로도 쓰이며 우둔한 神仙을 의미하는데, 仙道를 처음 얻은 자라는 뜻도 있다. 박문규는 배에서 해질녘 주름진 물결을 비단무늬처럼 여기며 누웠다. 이어 “崧陽의 布衣 입은 高陽酒徒는/ 등에 磨鏡 상자 짊어지는 기한이 끝나자 頑仙이 되었구나”라고 하여 개성의 商人으로서 負局先生으로 지냈던 듯한 과거와 이제 막 신선이 된 듯한 현재의 高陽酒徒로서의 모습이 飲中의 神仙의 느낌을 잘 전달해 주고 있다.

22) 羊侃 : 남조 梁나라 泰山 梁甫 사람. 자는 祖忻이다. 완력이 남달랐고, 『좌씨춘추』와 『孫吳兵法』을 좋아했다. 아버지를 따라 北魏에서 벼슬했다. 일찍이 秦州 羌人의 반란을 진압하고, 義軍의 수령 莫折天生을 살했으며, 征東大將軍과 태산태수를 지냈다. 양무제 大通 2년(528) 군대를 이끌고 양나라에 항복한 뒤 徐州刺史에 임명되었다. 太尉 元法僧을 따라 북방을 토벌했고, 군직을 그만둔 뒤 입조하여 侍中이 되었다. 또 閩越 등지의 반란을 진압했다. 太清 2년(548) 侯景이 建康으로 밀려오자 副宣城 王都督에게 성을 지키라고 명령한 뒤 고전 끝에 병사했다. 音律을 잘 알아 집안에 樂舞를 두었으며, 스스로 「採蓮」과 「棹歌」 두 편을 지었다. 작품에 새로운 운치가 있어 명성을 떨쳤다.

이어서 박문규의 집구시집인 『천유집고』의 강상사재 관련 작품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홍재철과 연관되는 集句詩는 14題, 김영작과 연관되는 집구시가 8제, 신석희와 연관되는 집구시가 2제가 있으며 조석우와 관련된 집구시는 없다. 諸公들에게 쓴 시가 1제, 신좌모에게 쓴 시가 1제, 그밖에 관련되는 개인적인 시가 4제이다. 홍재철, 김영작에게 쓴 시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박문규의 시 제목을 보면 홍재철과 신석희에게는 ‘모시다, 수행하다, 보좌하다’라는 뜻인 ‘陪’자를 쓴 경우가 많으나,<sup>23)</sup> 김영작에게는 제목에 ‘노닐다, 종유하다’는 의미인 ‘游’자를 쓴 점<sup>24)</sup>도 다소 흥미롭다. 아마도 홍재철 등에게는 직접적인 두터운 眷待를 입었기 때문에 더욱 경의를 표했으리라 생각되며, 김영작과는 좀 더 격의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집구시는 독특한 詩體이고 특히 『천유집고』의 집구시에는 매구마다 출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박문규가 강상사재 면면마다 古人들의 어느 시구를 집구하여 창작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김영작과 노닐며 처음 지어준 집구시 「游金侍郎淸華亭」에는 주로 杜甫의 시구가 쓰이고 있다.<sup>25)</sup>

이와 같이 박문규는 강상사재의 모임에 자주 배석하여 다수의 작시활동을 하였다. 아래에 인용할 『천유집고』의 「江亭秋感」에 첨부된 글에는 강상사재의 盛衰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 있다.

때는 丙寅年 봄이었다. 厚翁 尚書께서 蓉山 一碧亭에 退居하여 지내고 계셨는데 韋史 申尚書와 烟岩 曹尚書, 그리고 邵亭 金侍郎이 함께 인근에 있었다. 산수누대의 경치가 한강가에서 제일이었고 文酒로 감상하는 모임이 있지 않은 날이 거의 없었다. 돌이켜보면 내가 누구라고 외람되이 그 사이에 배석하여 厚翁이 읊으신 「飲中五仙歌」에 각 和答을 함으로써 난잡한 일을 하였을까? 어느 날 洋夷가 설치고 나서부터 동쪽과 서쪽으로 이별한 뒤에는 목소리와 모습을 접하는 것이 드물게 되었다. 다음 해 가을, 거듭 龍山으로 와보니 풍광이 쓸쓸하여 지난날의 면목을 다시 볼 수 있지 않았으니,今昔을 俯仰하여 보면 슬프고 침울하여 닢이 나가지 않을 수 있으랴? 이것을 모아 기록하였다. 때는 戊辰年 九月 日이다.<sup>26)</sup>

23) 朴文達, 『天游集古』, 「一碧亭陪厚翁尚書共賦1」, 「一碧亭陪厚翁尚書共賦2」, 「涵碧亭陪韋史尚書共賦」, 「疊前韻陪厚翁尚書共賦(二首)」, 「陪厚翁尚書共賦」, 「陪厚翁尚書共賦疊前韻」.

24) 朴文達, 『天游集古』, 「游金侍郎淸華亭」.

25) 朴文達, 『天游集古』, 「游金侍郎淸華亭」, 「江臯已仲春(杜甫), 高興復留人(盧照鄰), 地僻風煙靜(杜甫), 時清宴賞頻(孫逖), 暗花臨戶發(韋承慶), 喧鳥遍簷馴(蘇頌), 自顧無長策(王維), 知余懶是真(杜甫)」.

“丙寅年(1866년) 봄”이라는 것은 홍재철이 이미 1862년을 즈음하여 —碧亭에서 지내고 있었던 반면,<sup>27)</sup> 뒤에 살펴볼 신좌모의 언급대로 신석희가 1865년에야 용산 강가로 들어온 점으로 미루어, 강상사재 4명과 박문규가 용산 한강가에 온전히 다 같이 모여든 全盛期 시절을 지칭한 것으로 생각된다.

### 3. 江上四宰 漢詩의 文藝的 類型

#### 1) 溪山風流 계열 — 厚齋 洪在喆, 烟巖 曹錫雨, 韋史 申錫禧의 漢詩

江上四宰 漢詩의 文藝美는 크게 ‘溪山風流 系列’과 ‘憂國愛民 系列’ 두 가지 문예적 유형으로 점철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자료로서는 강상사재 중 洪在喆, 曹錫雨, 申錫禧의 漢詩가 ‘계산풍류’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고찰된다. 먼저 홍재철(1799~1870, 자 致敬, 호 醉箕·厚齋, 본관 南陽)은 그의 관직기록인 『科宦錄』 외에는 별도의 시문집을 발견할 수 없다.<sup>28)</sup> 박문규가 쓴 「挽厚翁尚書」의 원주에는 “公年七十三故云.”이라 되어 있으므로<sup>29)</sup> 홍재철의 몰년은 1870년 또는 1871년경으로 보인다. 신좌모는 홍재철의 祭文으로 「祭輔國左贊成洪公(在喆)文」을 짓게 되었는데, 홍재철에 대한 첫인상으로 “公은 여러 대를 통하여 드문 위인이다. 처음 東陵에서 관직을 지낼 때 공의 아우 醉裘와 친교를 맺었는데, 이로 인해 北山 아래 玉流의 溪堂에서 공을 만나볼 수 있었다. 대개 공의 풍모는 체격이 크고 건장하며 기상은 활달하여 작은 일에 구애받음이 없으며 바라보면 높은 산이 겹겹이 우뚝한 듯 하고 도량은 크고 깊으며 言議는 시원스러우니 호호탕탕함이 그 한도를 보이지 않는다.”<sup>30)</sup> 라고 회상하

26) 朴文達, 『天游集古』, 「江亭秋感」에 첨부된 글로, 홍재철의 1866년 작「飲中五仙歌」를 회상하며 박문규가 2년 뒤인 1868년 9월에 쓴 글이다. 『天游集古』의 작품배열 순서는 정확한 연대순은 아닌듯하다.

27) 朴文達, 『天游詩集』, 「送申澹人侍郎歸文義」; 申佐模, 『澹人集』 卷7, 「屬江上四宰冠字韻(并序 丁卯)」.

28) 박문규의 『천유시집』에는 「次韻厚翁尚書漢上雜詠」이라는 長短句가 남아있는데, 만약 홍재철의 문집이 현전한다면 「漢上雜詠」과 같은 시가 수록되어 있지 않았을까 한다. 박문규에게는 「短歌七章」이라는 短歌 작품도 있다. 아마도 홍재철도 短歌에 조예가 있었을 것이다.

29) 朴文達, 『天游詩集』, 「挽厚翁尚書」.

30) 申佐模, 『澹人集』 卷19, 「祭輔國左贊成洪公(在喆)文」.

고 있다. 박문규의 『천유시집』 수록 「次劉伯溫韻陪厚翁尚書共賦」에 첨부된 홍재철의 시 附厚翁尚書詩<sup>31)</sup> 부터 살펴본다.

東來春色已迎郊	동쪽에서 온 봄 빛깔은 교외로 맞이하고
急景行將歲且交	빠른 日光은 머지않아 세월 따라 사귀네
騏驎任他千里步	털충이 천리마는 자유롭게 천리 걸음이요
鷓鴣自足一枝巢	초료새는 자족하여 하나의 가지에 깃드네
竹門常掩雲封扇	대나무 문 항상 닫힌 사립문에 구름 쌓이고
梅閣新開月上梢	매화 핀 누각 새로 열어 뽕족한 곳에 달이 뜨네
可惜文人多不遇	文人들 不遇한 자 많음을 애석해할만하니
如君幾個老蓬茅	그대와 몇 개 띠 집이 오래 되었구료

제목으로 보아 明나라 劉基(1311~1375)의 시에 차운한 시이다.<sup>32)</sup> 제2구의 ‘急景’은 빠르게 지나가는 일광을 뜻하며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련에서는 봄이 왔으니 어서 경치를 감상하자는 뜻이다. 함련의 털충이 천리마는 자유로움을, 초료새는 自足を 상징하는 듯 하며, 경련의 대나무 사립문에 구름이 쌓인 이미지와 매화 핀 누각의 높은 곳에 달이 뜬 이미지가 좋은 대조를 이룬다. 미련에서 “文人들 不遇한 자 많음을 애석해할만하니/ 그대와 몇 개 띠 집이 오래 되었구료”라 하여 박문규를 아끼며 대하는 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淸風高趣를 느낄 수 있는 시라 할 수 있다. 다음은 박문규의 「荅湖舟中陪洪輔國(在喆)曹尚書(錫雨)申尚書(錫禧)金侍郎(永爵)共賦」에 붙어 있는 附厚翁詩<sup>33)</sup>이다.

肩輿試向綠江頭	肩輿타고 한번 녹색강변으로 향해보니
水國輕寒不待秋	水鄉이 약간 추워 가을을 기다릴 것 없네
永日腸澆惟酒政	永日토록 속 적시어 酒令 늘어 세웠고
遠山眉攢摠詩愁	먼 산 눈썹 모아 바라보며 詩愁를 모으네
客猶駕葉如乘馬	손님은 오히려 葉舟에 오른 것이 말을 탄 듯 하고
我自忘機可狎鷗	나는 저절로 機를 잊어 갈매기와 친해질 만하다

31) 朴文達, 『天游詩集』, 「次劉伯溫韻陪厚翁尚書共賦」, 附厚翁尚書詩.

32) 제목의 ‘伯溫’은 유기의 字이다.

33) 朴文達, 『天游詩集』, 「荅湖舟中陪洪輔國(在喆)曹尚書(錫雨)申尚書(錫禧)金侍郎(永爵)共賦」, 附厚翁詩.

老態未堪携謝妓    늙은이의 태도 아직 견딜 수 없어 歌妓를 불렀으니  
莫嫌無橋過楊州    楊州를 지나가매 굴 없어도 싫어하지 마시길<sup>34)</sup>

홍재철은 벗들과 함께 水郷의 녹색강변으로 나아가 배를 타고서 종일토록 술을 마신다. 3월 3일 봄인데도 약간 추워 가을을 기다릴 것도 없다고 유머러스하게 표현했다. 눈썹모아 먼 산을 바라보며 詩愁를 모으던 그는 機를 잊은 채 갈매기와 자신을 일치시키고 있다. 함련의 ‘謝妓’는 노래하는 기생인 歌妓를 뜻하며, 楊州는 특산품으로 굴이 많이 나는 고장이다.<sup>35)</sup>

流水年光去不廻    흐르는 물과 세월은 가면 돌아오지 않고  
幾人易主好樓臺    몇 분의 易主는 누대가 좋다  
寒燈夜伴枯僧宿    차가운 등불은 밤에 枯僧이 잠자는 곳이고  
空谷雲隨舊友來    비어있는 골짜기 구름 따라 옛 친구가 오네  
草屋霜威如雪厚    초가집의 차가운 서리는 쌓인 눈의 두께와 같고  
漁舟冰片打江開    고기잡이 배의 얼음 조각은 강을 열려고 때린 것  
屢旬奔走公私事    몇 번의 열흘이 지나도록 분주했던公私의 일로  
歸見堦庭半是苔    돌아와서 보니 뜰의 섬돌에는 이끼가 반이구나

이 시는 박문규의 「厚翁尚書見和拙詩作此奉答」에 붙은 附厚翁尚書詩<sup>36)</sup>이다. 함련에서 “차가운 등불은 밤에 枯僧이 잠자는 곳이고/ 비어있는 골짜기 구름 따라 옛 친구가 오네”라고 한테서 고요한 분위기와 벗을 반기는 느낌이 나타나 있다. 경련에서는 초가집에 내린 차가운 서리와 강을 때리느라 고기잡이배에 쌓인 얼음 조각에 대한 홍재철의 세밀한 시적 관찰력이 돋보인다. ‘霜威’는 서리의 기운이 차가운 것을 뜻한다.

다음으로 살펴 볼 조석우(1810~?, 자 稚用, 호 煙巖, 본관 昌寧)는 1853년 경상 감사로 부임해있을 때 그의 고조부 曹夏望(1682~1747, 호 西州)의 문집인 『西州集』을 간행하였다가 문집 가운데 尹拯(1629~1714, 호 明齋)에 대한 제문에서 宋時烈(1607

34) 原註：厚翁洪.

35) 이 시의 문예미는 조운제(1987), 162면에서 “(...)花朝月夕에 술을 두고 벗을 불러 汾江 小艇上에서 愛誦觴詠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富貴를 浮雲에 버리고 雅懷를 物外에 붙여 日常 小舟 短棹로 煙波 가운데 嘯傲하고 釣石上에 徘徊하며 갈매기를 좇아 忘機하고 고기를 보아 知樂하여 江湖에서 樂의 眞意를 얻었다.”라며 강호가도를 설명한 부분을 통하여 해석이 된다.

36) 朴文達, 『天游詩集』, 「厚翁尚書見和拙詩作此奉答」, 附厚翁尚書詩.

~1689, 호 尤庵)을 암암리에 비난한 문구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유생들의 줄기찬 항의로 파직당하여 중화에 유배되기도 했다.<sup>37)</sup> 1857년 석방되어 공조참판에 올랐으며, 그 뒤 1867년 이조판서가 되었다. 조석우 역시 홍재철과 마찬가지로 문집이 발견되지 않아 박문규의 『천유시집』에 첨부된 원은 2제만을 들어본다. 먼저 「次韻烟巖尚書同沈石侍郎咏雪之作」의 附元韻 烟巖<sup>38)</sup>이다.

休煩太史占農星	太史께서는 農星을 점치려고 애쓰지 마시게
豐瑞眞堪賀禁局	풍년들 조짐 참으로 대궐문에서 축하할만하니
翻訝彼鳥頭化白	날갯짓하며 맞이하는 까마귀는 머리가 하얗졌는데
不知是鸞眼迷青	모르겠네, 이 해오라기 눈 푸름이 아슴푸레함을
塵埃隔世皆教掃	속세도 시대를 달리하여 모두 길 쓰는 법을 가르치고
醉夢爲生頗使醒	취한 듯 꿈꾸는 듯 살아가매 조아림은 술에서 깨게 한다
多事詩家吟苦口	詩家들은 일 많게도 입의 쓴 말을 읊고
陳言務去古人經	진부한 말 힘써 제거하던 古人을 본받지

‘農星’은 별 이름이다. ‘醉夢’은 얼떨떨하여 취한 듯 꿈꾸는 듯 한 것이다. 시의 내용은 간단한듯하면서도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데, 언뜻 현실을 긍정하는 듯 하면서도 애둘러 비판하는듯하다. 閑情 가운데의 현실비판이 주조를 이루는 것 같다. 이어서「蓉湖舟中陪洪輔國(在喆)曹尚書(錫雨)申尚書(錫禧)金侍郎(永爵)共賦」의 附烟巖詩<sup>39)</sup>를 살펴본다.

我屋君家此岸頭	나의 집과 그대의 집은 이 언덕 가이니
風烟管得幾春秋	風烟에 집 얻은 지 몇 해딘가
同舟本是靑雲侶	함께 배를 탄 이 본래는 벼슬길을 짝하였고
逝水由來白髮愁	흐르는 물에 유래하여 백발을 근심하네
掠浪輕回牆外燕	스치는 물결 가볍게 도는 담 밖의 제비
眠沙翻起棹邊鷗	모래 가에 잠들었다가 날아오르는 노 결의 갈매기
山河學目皆佳麗	山河에 눈 들어보면 모든 것이 매우 아름다우니

37) 김명호(2008), 340~342면; 홍인희(2010), 26~36면.

38) 朴文達, 『天游詩集』, 「次韻烟巖尚書同沈石侍郎咏雪之作」, 附元韻 烟巖.

39) 朴文達, 『天游詩集』, 「蓉湖舟中陪洪輔國(在喆)曹尚書(錫雨)申尚書(錫禧)金侍郎(永爵)共賦」, 附烟巖詩.

地在王畿第一州 이곳은 서울 주위의 第一州라네<sup>40)</sup>

경련에서 “스치는 물결 가볍게 도는 담 밖의 제비/ 모래 가에 잠들었다가 날아오르는 노 곁의 갈매기”를 순간적으로 사진을 찍은 듯 잘 묘사하였다. 제8구의 ‘王畿’는 본래 왕성 주위 천리의 지역을 뜻하며 임금의 수도를 칭하기도 한다. 매구마다 ‘岸頭’, ‘風烟’, ‘同舟’, ‘逝水’, ‘掠浪’, ‘眠沙’, ‘山河’ 등의 시어들을 사용하여 벗들과 함께 배를 띄워 강호를 유람하는 느낌을 잘 표현하였다.<sup>41)</sup> 조석우의 시로는 이밖에 조두순, 신석희, 조석우, 박문규가 함께 지은 聯句詩 「蓉江聯句 趙領府(斗淳元七)申尚書(錫禧士綏)曹尚書(錫雨釋用)」가 있어 이들의 교유를 더 살펴볼 수 있다.<sup>42)</sup>

계속해서 신석희(1808~1873, 자 士綏, 호 韋史, 본관 平山)의 강상사재 한시를 살펴본다. 신석희는 『韋史詩集』, 『韋史詩稿』, 『韋史詩草』가 현전하므로 그 전체적인 시풍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신석희는 전반적으로 名士風流의 시풍을 질게 띤다고 할 수 있다.<sup>43)</sup> 신석희는 1865년 白氏 喪을 치른 후 용산으로 왔으므로 1865년 이후 몇 년간이 강상사재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위사시집』에는 「壬戌七月既望同浮西湖」라는 시가 壬戌年 1862년 作이고, 이후 「十五老會(庚午十二月十日)」가 1870년 작인데<sup>44)</sup> 그 사이에 강상사재 관련 한시는 보이지 않는다. 대신에 『위사시고』에서는 강상사재 관련 한시 9제<sup>45)</sup>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먼저 1866년작<sup>46)</sup> 「三月三日同厚翁烟巖邵

40) 原註：烟巖曹.

41) 이 시는 조운제(1937), 293면, “即 官을 辭하고 각각 故園에 돌아가 오로지 내물을 自然에 依托하여 悠悠 自適하며 老를 잊을라 한것인듯하다. 따라서 極히 悠長한 맛이 있어 아모 不平도 여기서는 發見할 수 없다. 高官 大爵도 버린 閑士이오 好衣 好食도 별서 잊은지 오래다. 정말 求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外形의 物質의이 아니고 훨씬 심오한 內面的 精神的이다. 弊笠破衣도 關係할것이 아니고 다만 太平閑民이 되어 登高山而舒嘯하고 臨流水而賦詩하여 때로는 一葉漁艇에 漁翁의 몸이 되어 野水江天을 마음껏 賞樂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즐거운일이다.”라 한 부분과 닿아있는 듯하다.

42) 朴文達, 『天游詩集』, 「蓉江聯句 趙領府(斗淳元七)申尚書(錫禧士綏)曹尚書(錫雨釋用)」.

43) 『위사시집』에 사용된 시어들을 살펴보면 ‘江村’, ‘漁翁’, ‘江湖’, ‘白鷗’, ‘鴨嘴’, ‘高人’, ‘詩人’, ‘蟋蟀聲’, ‘樹間聲’, ‘野人肝膽是眞情’, ‘白髮’, ‘西風’, ‘東風’, ‘結社’, ‘玉壺冰’, ‘洛陽朋友旧相親’, ‘續蘭亭’, ‘名士’ 風流, ‘西園雅集’, ‘林間’, ‘性情’, ‘把臂’, ‘結習’, ‘西湖’, ‘近局’, ‘林園’, ‘親朋’, ‘騷壇’, ‘詩壇’, ‘交情’, ‘老大人’, ‘不俗’, ‘天真’, ‘酒酣’, ‘詩道’, ‘豪氣’, ‘高樓’, ‘浮生’, ‘梅花’, ‘仙書’, ‘好友相看心似醉’ 등의 시어 및 시구가 있다. 그의 『위사시고』에서도 「洪悠齋侍郎江墅陪伯氏同玉垂芍玉晉齋即亭夜飲」 제1수 “恰到君家日欲昏, 華樓高燭酒生痕, 德星共聚賢人宅, 卿月常圓宰相村, 歲色藏舟移夜壑, 詩聲持鼓過雷門, 春明浪迹偷休暇, 唐突風流不可原” 및 제2수 미련 “一生意思江湖夢, 此夜偏多歎乃聽”이라는 시구들에서 명사풍류의 시풍을 보인다.

44) 申錫禧, 『韋史詩集』, 「壬戌七月既望同浮西湖」, 「十五老會(庚午十二月十日)」. 이 사이에 수록되어 있는 시는 11題 이다.

45) 申錫禧, 『韋史詩集』의 1862년 作으로 보이는 「遊觀相公同三松厚翁芍玉會飲仲氏宜石尚書城東山莊」과 같은 경우 흥재철이 있지만 시기상으로나 모임의 성격상 해당되지 않아 포함시키지 않았다.

亭朴天遊泛舟」<sup>47)</sup>를 들어 본다. 이 시는 총 3수인데 박문규의 『천유시집』에 수록된 「荅湖舟中陪洪輔國(在喆)曹尚書(錫雨)申尚書(錫禧)金侍郎(永爵)共賦」에 붙어있는 附韋史詩<sup>48)</sup>가 그 셋째수이다. 제1수와 제3수만 살펴본다.

輕舟無力任西東	가벼운 배는 힘 안들인 채 서쪽 동쪽으로 맡겼다가
忽復乘流宛在中	홀연 다시 흐름을 타더니 완연히 그 안에 있다
識字魚龍顔面慣	글자 아는 魚龍은 안면이 익숙하고
近人鷗鷺性靈通	사람 가까이 鷗鷺는 性靈이 통하네
隣厨輪遞堪分日	이웃들은 부엌을 돌려가며 分日을 즐기고
海舶逢連巧障風	바다의 큰 배엔 거룻배 잇닿아 병풍같이 공교하다
從此青簑莢葦裡	여기부터 푸른 도롱이 입고 가시나무와 갈대밭 속에서
一竿烟雨與君同	한줄기 낚싯대에 내리는 그윽한 비 그대들과 함께 하네

料峭東風是打頭	조금 차가운 동풍이 머리에 부는데
臨流巾服凜生秋	물 흐름에 임한 巾服은 추상같이 늠름하네
青春九十如吾老	青春도 다 지나가 나도 늙어버렸고
白髮三千似箇愁	白髮은 삼천장이라 하나의 시름과도 같구나
報客何山初放鶴	객에게 알리노니 어느 산에서 <sup>49)</sup> 처음 학을 풀어놓았는지
移家近日已盟鷗	이사한 집에서 요즘 나는 갈매기와 맹약을 맺었네
舊時刺史恩何有	예전에 刺史의 은혜는 무엇이었나
晚飯舟人說海州	저녁밥 먹고 나서 뱃사람에게 海州를 말하네 <sup>50)</sup>

첫수의 ‘魚龍’은 물고기와 용, 즉 비늘 달린 물고기를 뜻한다. 제4구에서 “사람 가까이 鷗鷺는 性靈이 통하네”라 하여 갈매기와 해오라기와 자신이 일치된듯하다고 하였다. 미련에서는 푸른 도롱이 입고 가시나무와 갈대밭에서 벗들과 그윽한 비를 맞으며 낚시하는 모습이 운치를 더한다. 셋째수의 ‘料峭’는 唐나라의 江湖散人 陸龜蒙(?~881)이 즐겨 쓴 표현으로 보이는데,<sup>51)</sup> 조금 차가운 바람을 뜻하거나 반복하여 일렁이

46) 『위사시교』에는 이 시 앞부분에 「丙寅正月二十日哭衍阡」이 있다.

47) 申錫禧, 『韋史詩稿』, 「三月三日同厚翁烟巖卽亭朴天遊泛舟」.

48) 朴文達, 『天游詩集』, 「荅湖舟中陪洪輔國(在喆)曹尚書(錫雨)申尚書(錫禧)金侍郎(永爵)共賦」, 附韋史詩.

49) 『천유시집』에는 ‘何山’이 ‘誰家’로 되어 있다.

50) 原註: 韋史申.



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 시에도 ‘東風’, ‘臨流’, ‘放鶴’, ‘盟鷗’, ‘刺史’, ‘海州’ 등의 시어가 쓰이고 있어 신석희의 風流적인 시풍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sup>52)</sup>

신석희는 홍재철의 一碧亭에서 소년들의 운에 화운하기도 하였으며,<sup>53)</sup> 6월 18일에는 홍재철, 조석우, 박문규, 玄 樊磬과 용호에 배를 띄워 노닐며 칠언율시 10수를 짓기도 하였다.<sup>54)</sup> 또한 7월 3일은 홍재철의 일벽정에서 탁주를 마시며 지은 시 「七月三日厚翁一碧亭飲濁酒」<sup>55)</sup>가 있다.

只一名樓足我遊	다만 이름난 누각 하나면 내가 노닐기 족하니
何須簫鼓泛中流	어찌 모름지기 피리 북과 함께 中流에 배 띄우리오
讀殘周禮蒹葭水	남은 周禮를 읽고 蒹葭의 물에서
吟遍楚騷社若洲	초나라 離騷 읊으니 社가 마치 洲같구나
檻外龍腥猶帶雨	난간 바깥 먹구름은 비를 띠고 있는 듯하고
林中蟬鳴已驚秋	숲속 매미 울음소리 이미 가을이 다가왔다
江城濁酒堪消暑	江城에서 탁주로 더위를 피하여 견디고
投轄情真且暫留	은근히 머무는 객의 정이 진실하니 장차 잠시 머무르리

‘蒹葭水’에 강가에서 벗과 만나는 정이 잘 나타나 있다. 경련에서는 난간 바깥 먹구름과 숲속 매미 울음소리가 시각과 청각 양쪽에서 와 닿는다. ‘龍腥’은 도검 띠의 쇠비린내, 또는 물의 비린내, 또는 먹의 냄새를 뜻하는데 먹을 ‘龍賓’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비를 띠고 있다고 하므로 먹구름을 먹으로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 ‘驚秋’는 가을이 쏜살같이 다가왔다는 뜻으로, 신속히 시들어 감을 뜻하기도 한다. ‘江城’은 강에 임한 城市나 성곽을 뜻한다. ‘投轄’의 ‘轄’은 차축 양단의 수레굴대이며 후에 ‘投轄’이라 함은 殷勤히 머무는 客을 뜻하게 되었다.

「余住丙舍五年以甲子七月撤還湖屋旋以丙寅仲冬又捲入丙舍隣老嘲余屑屑者遂演其

51) 唐 陸龜蒙의 「京口」詩에 “東風料峭客帆遠，落葉夕陽天際明”，「記事」詩에 “料峭探蓮船，縱橫簸天浪”이라 쓰였다.

52) 신석희는 辛未洋擾 시기로 접어들면 깊은 우려가 담긴 시가 있다. 신석희 『위사시고』의 1871년 작으로 보이는 「排欄五則寄呈怡堂仍乞醇教(四月三十日)」시 참조. 조면호는 신미양요 시기에 지은 「後西事雜絕」 제35~36수에서 화성유수 신석희의 철저한 방비를 칭송하기도 했다. 김용태(2008), 262면.

53) 申錫禧, 『韋史詩稿』, 「和一碧亭諸少年韻」. 이 시는 홍재철의 「一碧亭諸少年」이라는 작품에 화운한 것일 수도 있다.

54) 申錫禧, 『韋史詩稿』, 「六月十八日同厚翁烟巖朴天遊玄樊磬泛舟遊蓉湖」.

55) 申錫禧, 『韋史詩稿』, 「七月三日厚翁一碧亭飲濁酒」.

意爲詩」<sup>56)</sup>는 신석희가 丙舍에서 5,6년을 지내다가 갑자년(1864) 7월에 호숫가 집으로 이사했다가 병인년(1866) 겨울에 다시 丙舍로 들어갔는데 이웃 노인들이 그 가벼움을 조롱하자 그 뜻을 표현하기 위해 지은 시이다. 1867년 8월 이후의<sup>57)</sup> 작품 「江村絶句」 8수는 제1수 기·승구 “우리집은 近日에 西湖에 살아/ 주렴 밖 靑山은 그림 같네”<sup>58)</sup>로 시작하여 제8수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西湖 부근의 江村의 풍류를 노래하는 시로 생각되며, 용산에 거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sup>59)</sup> 신석희는 이후에도 조석우와 시를 주고받으면서 조석우 시의 品第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는데, 「和烟巖曹判書二首」의 제1수에서 “그대의 시 품제가 어떠한지 未定이나/ 그대의 시 지금 눈이 높은 산에 쌓인 듯하네/ 濟南의 名士들을 奇絶이라 칭하나/ 大海에 돌아오는 바람은 비교적 익숙함이 많네”<sup>60)</sup>라 하여 눈이 높은 산에 쌓여 있는 듯하다며 칭송했다. 「余紹介烟巖尚書津示原韵率爾應副」 2수 중 제1수에는 ‘修稷’와 ‘同社’라는 시어가 보이기도 하나,<sup>61)</sup> 그것이 강상사재를 가리키는 용어인지는 미상이다. 제2수에서는 “江城의 술은 족히 몸에서 받아들일만하여/ 매일 名樓에서 취한 채 몇 번을 순배 하네/ 흰머리 龍鐘 모두 御使이니/ 오늘 아침 달리는 말이 紅塵으로 들어가네”<sup>62)</sup>라고 하여 화려한 분위기를 띠고 있다.<sup>63)</sup>

56) 申錫禧, 『韋史詩稿』, 「余住丙舍五年以甲子七月撤還湖屋旋以丙寅仲冬又捲入丙舍隣老嘲余屑屑者遂演其意爲詩」.

57) 『위사시고』, 「八月十九日有洞陰之行諸詩人來別(丁卯)」의 연대에 근거한다.

58) 申錫禧, 『韋史詩稿』, 「江村絶句」 제1수 기·승구, “吾家近日住西湖, 簾外靑山似畫圖”

59) 西湖는 본래 중국 浙江省 杭州의 서호에서 온 명칭으로, 한국에서는 麻布·西江·楊花渡 일대가 중국의 西湖와 겹쳐졌으며 일본에서도 東京都 台東區 上野公園 내의 남서부에 있는 연못인 不忍池를 小西湖라 부르기도 하였다. 서호에 관한 연구논문으로는 김동준(2013); 김문경(1994, 2008); 이종목(2001); 정민(2002); 지용환(2011) 등이 있다.

60) 申錫禧, 『韋史詩稿』, 「和烟巖曹判書二首」 제1수, “未定君詩品第何, 君詩今與雪嵯峨, 濟南名士稱奇絶, 大海迴風較熟多”

61) 申錫禧, 『韋史詩稿』, 「余紹介烟巖尚書津示原韵率爾應副」 제1수 승·전구.

62) 申錫禧, 『韋史詩稿』, 「余紹介烟巖尚書津示原韵率爾應副」 제2수, “江城酒足可容身, 日日名樓醉幾巡, 白首龍鐘都御史, 今朝走馬入紅塵”

63) 조면호도 신석희 시의 화려함(彪炳)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데 아마도 이와 같은 시를 두고 한 말이 아닐까 한다. 趙冕鎬, 『玉垂集』 卷10, 「玉垂大醉詩」. 김용태(2008) 62~63면.

## 2) 憂國愛民 계열 — 邵亭 金永爵의 漢詩

김영작(1802~1868, 자 德叟, 호 邵亭, 본관 慶州)의 강상사재 한시의 경우에는 ‘憂國愛民’의 詩人意識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우국애민시를 논하기에 앞서, 그가 57세였던 1858년 燕行 以後부터 江上四宰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히 서술 해두고자 한다. 김영작의 『存春軒詩鈔』를 보면, 그가 1858년 연행을 떠나며 燕巖 朴趾源(1737~1805)을 배우고자 하는 의식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64)</sup> 연암의 實學觀을 계승하여 백성을 아끼고자 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다. 1859년 봄에 回還, 復命한 후 3월에는 조선 후기의 학자 桂德海(1708~1775)의 시문집 『鳳谷桂察訪遺集』의 序文을 계덕해의 손자 桂南龜의 요청에 의해 지어주기도 하였는데,<sup>65)</sup> 그 글에서 “鳳谷이 지은 詩文은 모두 사실대로 지은 것이라서 實學에 보탬이 있다.”<sup>66)</sup>라 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김영작은 귀국 후에 연행 전부터 洪翰周·徐有英·任百經·洪祐建 등과 함께 활동하고 있던 洛社에도 다시 참여하여 詩社活動을 再開하기 시작하였으며, 김영작의 1862년 작 「悠齋與其伯氏芍玉招同海藏韋史趙晉齋侍郎(在應)趙玉垂知縣(冕鎬)集伏波亭」시 2수는 洪鍾序, 홍종응, 신석우, 신석희, 趙在應, 조면호 등과 伏波亭에 모였을 때 지은 시이다.<sup>67)</sup> 1863년에는 北社의 玉垂 趙冕鎬와 駱社의 芍玉 洪鍾應(1783~?)과 洛社의 시우들이 駱山의 醉石亭에서 다 같이 개최한 커다란 詩會에 洛社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기도 하였다.<sup>68)</sup>

김영작은 1861년에는 「老柳」, 1862년에는 「南軒卽目」등의 시를 지으며 老年을 보내고 있었다. 김영작의 漢詩에서 憂國愛民의 詩風이 뚜렷해지는 시기는 이 1860년대

64) 金永爵, 『存春軒詩鈔』, 「來薰門」, “雙旌獵獵拂邊風, 出塞歌督劒氣雄, 誰醉來薰門下酒, 一行祈福學燕翁(朴燕巖, 前輩趾源).”

65) 『鳳谷桂察訪遺集』의 序文은 김영작 뿐만이 아니라, 寧齋 李建昌(1852~1898)의 祖父인 李是遠(1790~1866, 호 沙磯)도 지어주었으며, 李參鉉(1807~?, 자 台卿, 호 鐘山)의 서문도 있다.

66) 桂德海, 『鳳谷桂察訪遺集』, 金永爵, 「鳳谷桂察訪遺集序」, “(…)鳳谷所著詩文, 皆元元本本, 有裨實學, 而拈取經史子集之難解者, 一一作圖而明之, 多發前人所未發, 遠溯河洛之墜緒, 令人欽服.(…)”

67) 김영작은 그 첫수 함련에서 “문장은 동서옥을 함께 올렸고/ 안개진 물은 상하존을 공평하게 나누네(文章並擅東西屋, 烟水平分上下村)”라 하였으며, 景련에서는 “노래와 연주 높고 넓어 새로운 곡조이고/ 한시는 한위를 추구하다가 별도의 문을 열었네(歌奏峨洋新度曲, 詩追漢魏另開門)”라고 하여 동시대 시단의 경향을 말하였다. 둘째 수 제1구에서는 “두 집안이 동서로 일령이며 나누어 점하니(兩家分占漢東西)”라고 하여 洪門, 申門의 문학적 영향력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金永爵, 『邵亭詩稿』 卷2, 「悠齋與其伯氏芍玉招同海藏韋史趙晉齋侍郎(在應)趙玉垂知縣(冕鎬)集伏波亭」.

68) 趙冕鎬, 『玉垂集』 卷9, 「醉石亭諸詩件俱會」; 김용태(2008), 61~62면.

로 들면서부터라고 생각되는데, 1862년 자신의 회갑 생일을 맞이하기 4일 전에 지은 한시 「周甲前四日省謁禮阡有感口占(壬戌)」에서는 “수고하며 힘써 보답할 날 언제인가 / 致君澤民의 순간 없을까 두렵다”<sup>69)</sup>고 하여, 나라에 보답하여 ‘致君澤民’의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순간이 오기를 희망하고 있다. 愛國衷情에서 나온 시구라 생각된다. 같은 해에 病床에서 지은 「病枕書懷」<sup>70)</sup> 6수는 그의 우국지사적인 면모가 잘 드러난 시라고 생각된다.

平常身健時	평상시에 몸이 건강할 때에는
恬若固有之	평온함도 마치 본디부터 있는 것인 줄
及到得病後	병이 생겨버린 후에라야
其樂始乃知	그 즐거움을 이에 비로소 알겠네
年年涼風至	해마다 서늘한 바람이 닥치니
輒有采薪憂	그때마다 땔나무 마련할 근심이 있다
非獨衰相侵	다만 쇠약한 얼굴에 침범하는 것만이 아니라
志士易感秋	志士는 쉽게 가을을 느끼지
草蟲亦天機	풀벌레도 또한 天機라서
時至鳴不已	때가 되면 울기를 멈추지 않네
胡不鼓春和	어찌하여 3월에는 고동치지 않다가
淒切涼宵裏	밤중에 몹시 처량하고도 서늘하게 우는지
日日秋陽曝	날마다 가을 햇볕 쬘니
百穀實而穎	백곡이 싹해져서 이삭이 되었다
上天篤斯民	하늘이 이 백성을 도타이 여기지만
豐儉在俄頃	豊凶은 이즈음 짧은 시간에 달려 있네
恠沴已四年	괴이하고 요사스러운 기운 이미 4년
札瘥幾萬數	역병으로 죽은 자 몇 만 명인가

69) 金永爵, 『邵亭詩稿』 卷2, 「周甲前四日省謁禮阡有感口占(壬戌)」 3수 중 제1수 경련, “劬勞報何日, 致澤恐無時”

70) 金永爵, 『邵亭詩稿』 卷2, 「病枕書懷」.

金丹解壽民      金丹은 백성들의 병을 고치니  
爲誦箕舖句      위하여 箕舖句를 읊네

開局講三政      三政에 관해 강론하는 국면이 열리자  
萬民胥延頸      만민이 모두들 목을 길게 늘어 갈망하네  
將何遂其願      장차 어떻게 하면 마침내 그들의 소망들이 이뤄질까  
中夜憂心炳      한밤중에 근심스러운 마음이 밝게 타오르네

絶句의 連作이다. 넷째 수의 ‘俄頃’은 짧은 시간, 순식간을 뜻하는데 특히 가을의 짧은 순간을 뜻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보의 시에 용례가 있기 때문이다.<sup>71)</sup> 다섯째 수의 ‘札瘥’은 疫病이나 疾病으로 인한 죽음을 뜻한다. 여섯째 수의 ‘延頸’은 목을 길게 늘인다는 모양으로, 갈망한다는 뜻이다. 시에서 김영작은 衰弱한 얼굴인 채로 가을을 感慨하며 느끼는 志士의 마음가짐을 하고 있다. 天機를 반영하는 풀벌레는 봄에는 울지 않고 다만 가을에 처량한 울음소리를 낸다. 그러한 언급에 이어서, 가을햇별이 잘 내려쬰어 이삭이 영글고 있어 하늘이 이 백성을 도타이 여감을 알 수 있지만 豊凶은 이 절기 瞬息間 동안의 짧은 기간에 내리쬰는 햇별에 달렸다고 하여 근심을 놓지 않고 있다. 또한 疫病이 4년 전부터 창궐하여 이미 수 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였으며,<sup>72)</sup> 三政에 대한 講論의 분위기가 사회에 일자, 萬民이 목을 길게 하고 삶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渴望하고 있음을 시로 지었다. 말미에서 “장차 어떻게 하면 마침내 그들의 소망들이 이뤄질까/ 한밤중에 근심스러운 마음이 밝게 타오르네(將何遂其願, 中夜憂心炳)”라고 갈무리하여 憂國愛民의 精神을 선명하게 나타내었다. 전체적인 詩想으로 볼 때, 첫수에서 평상시에는 건강과 평온함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병에 걸린 뒤에야 그 중요함을 알겠노라고 한 것은, 물론 김영작 자신에 대한 말이기도 하겠지만 ‘內憂’ 즉, 나라 안을 근심하는 그의 詩的 比喻로 여겨 볼 수 있겠다.

김영작의 江上四宰 漢詩는 11제이며,<sup>73)</sup> 1865년 작 「洪厚齋尚書(在喆)以多病故人疎

71) 唐 杜甫의 「茅屋爲秋風所破歌」에 “俄頃風定雲墨色, 秋天漠漠向昏黑”이라 쓰였다.

72) 강재언(1994), 15면, “(...)이 삼정의 폐단에 더하여 천재 및 질병이 빈번히 일어나 인민을 괴롭혔다.”고 한다.

73) 『소정시고』에 신석희가 처음 나오는 1859년 작 「金琴樂郎中(相喜)邀同洪芍玉李石農(鍾愚)兩尚書申韋史(錫禧)洪悠齋(鍾序)兩侍郎徐圭庭承宣(承輔)小酌」 및 조석우가 처음 나오는 1861년 작 「雨夜與李友石曹烟巖(錫雨)兩侍郎沈菴石(膺泰)朴錦鈴(永輔)曹荷上(錫興)三承宣趙蘭西學士(雲周)遊挹清樓」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分韻賦古體五章戲簡兼示烟巖韋史兩尚書步原韻奉和」<sup>74)</sup> 고시 5수 연작을 들어본다.  
 매 수마다 6구씩 되어 있는 점과 강상사재 구성원들이 포착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厚翁吾所仰	厚翁은 내가 우러러 보는 분으로
五朝白髮多	五朝를 지내오며 흰머리가 많다
湖居同謝事	호숫가에 거처하며 함께 俗事를 버리고
黃卷手摩挲	서책을 손으로 어루만지네
經濟寓之酒	살림살이를 술에 기탁하고서
日日飲無何	날마다 마셔도 아무렇지 않네
我愛烟巖子	나는 烟巖子를 사랑하는데
清羸而善病	맑고 파리하며 善病이다
閱盡世路險	世路의 위태로움 다 겪고 나서는
瑤環娛晚景	옥으로 된 고리 같은 경치를 만년에 즐기네
時究攝生術	때로는 섭생술을 궁구하기도 하여
芸帙床燈耿	서적 놓인 책상에는 등불이 밝네
韋史交卅載	韋史와 사귀지 30년
相逢共話故	상봉하여 함께 사연을 나누네
近纏鵠原慟	근래 형제 喪을 치러 애통해하며
疾損恐成痼	居喪으로 몸 상하여 고질이 될까 염려되네
奇氣無處洩	기이한 기상은 새는 곳이 없고
文章雜嬉怒	문장에는 희소노매가 섞여있네
我性不諧俗	내 성정은 속세와 맞지 않아
江湖作散人	강호에서 유유자적한 사람이 되리
小戶常窘飲	작은 집에서 항상 군색하게나마 술을 마시고
招邀集近隣	근처 이웃들을 초대하여 모으네
但惜鬢如雪	다만 귀밑머리 눈 내린 듯 하얘진 것이 아쉬울 뿐
不憂甕生塵	시루에 먼지 쌓여 앉은 것을 근심하지 않는다

74) 金永爵, 『邵亭詩稿』 卷2, 「洪厚齋尚書(在苗)以多病故人疎分韻賦古體五章戲簡兼示烟巖韋史兩尚書步原韻奉和」.

交情日以篤	교우의 정 날로 도타워지고
世累日以疎	세상의 번잡하고 괴로운 일과는 날로 멀어진다
劇飲投陳轄	劇飲할 때는 陳轄을 던졌고
狂歌和楚興	狂歌는 초나라 수레에 화답하네
此樂堪送老	이런 즐거움으로 늘그막 보낼 만하니
我欲焚銀魚	나도 銀魚符를 불태워버리고 싶구나

둘째 수의 '晚景'은 늦은 때의 경치라는 뜻으로, 늦은 밤의 정경이라든지 만년의 형편을 뜻한다. 다섯째 수의 '陳轄'은 陳蕃下榻를 말하며 빈객을 공경함을 이른다.<sup>75)</sup> '銀魚'는 은으로 된 물고기모양의 符信으로, 唐나라 때 5품 以上の 관원이 허리띠에 차며 品級 신분을 표시하는데 쓰였다. 출병하거나 궁문 또는 성문 출입의 부신으로 쓰이기도 하였다.<sup>76)</sup> 각 수 별로 강상사재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물별 묘사가 되어있어 그들의 특징들이 잘 나타났다. 특히 다섯째 수에서 “교우의 정 날로 도타워지고/ 세상의 번잡하고 괴로운 일과는 날로 멀어진다”고 한 데서, 江湖에 물러나 벗들과 노니는 즐거움이 포괄적으로 나타나 있다. 다음으로 「朴天遊(文達)於詩可謂專門之學常所心折用前韻賦贈」<sup>77)</sup> 고시 5수 연작을 살펴본다. 앞선 시와 마찬가지로 6구씩 이루어져 있다.

風雅遞以降	風雅가 갈마들며 전해 내려오면서
作家一何多	작가도 얼마나 많았나
汗充猶云少	한우충동으로도 오히려 적다고 하는데
誰能遍摩挲	누가 능히 두루 어루만지리오
另欲立一幟	별도로 하나의 깃발을 세우고자 하더라도
其如癡妄何	그 痴心妄想과 같음을 어찌하리오

多師是宗旨	스승이 많음을 종지로 하고
餘事究聲病	남는 餘事로 聲病을 궁구 하네
刻露見性情	성정을 뚜렷이 드러내고

75) 後漢 말의 정치가 陳蕃이 특별히 交椅 하나를 걸어두었다가, 徐穉가 내방하면 이를 내려서 優待한 고사에서 유래한다.

76) 杜甫의 「題柏學士茅屋」 시에 “碧山學士焚銀魚, 白馬却走身巖居”라 하였다.

77) 金永爵, 『邵亭詩稿』 卷2, 「朴天遊(文達)於詩可謂專門之學常所心折用前韻賦贈」.

流連愛光景      머물러 노닐며 경치를 사랑하네  
禪家百千燈      禪家の 1천 개에 가까운 등불도  
本自一燈耿      본래는 하나의 등불 빛에서부터였지

近人學韻語      근래사람들이 韻語를 배움은  
六義不知故      六義를 모르기 때문  
擣搗應舉體      이리저리 따와 舉體에 응하고  
浸淫遂成癖      풍습에 젖어 마침내 고질을 이루네  
邈矣康成婢      멀구나, 편안함이 婢를 이루니  
解誦逢彼怒      풀어서 읊어보면 저들의 노함을 만나리

天遊專門學      천유는 전문적으로 배운  
此世一詩人      요즘 세상의 한 명의 시인이네  
撐腸五千卷      5천권이 뱃속에 가득하고  
爲客住西隣      객이 되고서는 서쪽 이웃집에 사네  
時與談律髓      때로는 더불어 영규율수를 담론하고  
奧境析微塵      심오한 경지는 티끌 먼지를 잘라내네

詩者小技耳      시는 小技일 뿐이니  
非專術乃疎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면 기술이 이내 공소해진다  
眼力窮書帙      안력으로는 서책들을 궁구하고  
足跡遍圖輿      족적으로는 수레타고 두루다녔네  
而後始下筆      그 다음에야 비로소 쓰기 시작하니  
硯池出溟魚      벼루에서는 북명어가 튀어나오네

넷째 수에서 김영작은 박문규를 5천권이 뱃속에 가득한 專門的인 詩人이라고 극찬하였는데, “때로는 더불어 영규율수를 담론하고 심오한 경지는 티끌 먼지를 잘라내네”라 한데서 김영작과 박문규가 전문적으로 시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그려진다. 이 시는 전체적으로 김영작의 평소의 文學觀도 언급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수의 “성정을 뚜렷이 드러내고/ 머물러 노닐며 경치를 사랑하네(刻露見性情, 流連愛光景)”라고 한 구절에서, 그가 詩에 대하여 性情에 立脚한 情景交融에 기본을 두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첫수와 셋째 수에서는 김영작이 風雅와 六義를 중요히 여기



고 있음이 드러난다. 다섯째 수에서는 “시는 小技일 뿐이니/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면  
기술이 이내 공소해진다(詩者小技耳, 非專術乃疎)”고 하면서 詩는 小技일 뿐이지만 그  
러한 시라도 잘 쓰기 위해서는 方便이 있는데, “안력으로는 서책들을 궁구하고/ 족적으  
로는 수레타고 두루다녔네(眼力窮書帙, 足跡遍圖輿)”이라 하여 讀書과 旅行을 강조하  
였다. 한편, 둘째 수에서 “스승이 많음을 종지로 하고/ 남는 餘事로 聲病을 궁구 하네  
(多師是宗旨, 餘事究聲病)”이라 한 데서 보이듯, 김영작과 박문규는 歷代詩人들을 배  
우는 것뿐만 아니라 시의 聲調에 관해서도 관심이 깊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1866  
년 즈음 김영작은 박문규 등과 함께 시의 平仄, 聲調에 관하여 담론하기도 했는데, 김  
영작의 「除夜拜厚齋歸偶成五律以呈近與天遊講討詩家聲調此篇拗體平仄一依少陵送遠  
(帶甲滿天地)詩又用四聲遞用法」<sup>78)</sup>과 박문규 『천유시집』의 「除夜金邵亭侍郎(永爵)用  
四聲遞用法見示步其韻奉和」<sup>79)</sup>를 보면 알 수 있다. 四聲遞用은 杜甫가 자주 썼다고  
한다.<sup>80)</sup> 김영작이 청나라의 董文煥에게 1866년에 보낸 시 「寄董研樵檢討(文煥)」의  
미련에서 “근일에 聲調譜를 정밀하게 옮겨 적어/ 그대와 더불어 마음으로 모인지 이미  
여러 번입니다”<sup>81)</sup>라 한데서도 동문환의 『聲調四譜』를 옮겨 적을 정도로 성조에 대해  
가진 관심이 드러나며, 박문규 역시 1864년 11월에 교리 鄭顯德(1810~1883)이 서장  
관으로 연경에 갔을 때 동문환이 박문규의 시를 찬탄했을 뿐만 아니라 박문규와 편지  
를 주고받으며 선물을 보내기도 했다고 한다.<sup>82)</sup> 조선의 김영작, 박문규와 청나라의 동  
문환이 모두 성조에 조예가 깊었던 사실이 흥미롭게 읽힌다.

이즈음 김영작은 홍재철과 더불어 杜甫의 拗體에도 접근하고 있었던 듯하다.<sup>83)</sup> 그  
중 「元日呈厚齋平仄依少陵暮歸(霜黃碧梧)詩體」<sup>84)</sup>를 들어본다.

78) 金永爵, 『邵亭詩稿』 卷2, 「除夜拜厚齋歸偶成五律以呈近與天遊講討詩家聲調此篇拗體平仄一依少陵送遠(帶甲滿天地)詩又用四聲遞用法」.

79) 朴文逵, 『天游詩集』, 「除夜金邵亭侍郎(永爵)用四聲遞用法見示步其韻奉和」.

80) 사성체용이란 한 구의 5자 혹은 7자를 평상거입 사성을 골고루 구비함을 말한다. 하영섭·황필홍(2009), 102~103면.

81) 金永爵, 『邵亭詩稿』 卷2, 「寄董研樵檢討(文煥)」, 미련 “近日靜緝聲調譜(研樵著聲調四譜), 與君心契已多時”

82) 이은주(2011), 57~58면.

83) 拗體는 정해진 평측식에 따르지 않은 근체 한시로, 곧 절구·율시의 변격의 한 가지이며 杜甫의 시에서 많  
이 볼 수 있다.; 金永爵, 『邵亭詩稿』 卷2, 「除夜拜厚齋歸偶成五律以呈近與天遊講討詩家聲調此篇拗體平仄  
一依少陵送遠(帶甲滿天地)詩又用四聲遞用法」, 「元朝依少陵拗體絕句(二月已破)平仄復呈厚翁尚書(丙寅)」,  
「元日呈厚齋平仄依少陵暮歸(霜黃碧梧)詩體」 등의 시가 있다.

84) 金永爵, 『邵亭詩稿』 卷2, 「元日呈厚齋平仄依少陵暮歸(霜黃碧梧)詩體」, 『존춘헌시초』의 「七言搖律依少陵

璇杓指東過一旬	북두성 자루가 동쪽을 가리켜 一旬이 지났고
元日氣候喜清新	설날 기후는 기쁘게도 清新하다
砌篠玉森挺箇箇	섬돌의 가는데 옥색으로 뻗뻗하며 하나하나 특출하고
溪苔翠活吹粼粼	시냇가 이끼에 비취색 생동하며 맑고 깨끗한 물에 바람 부네
年近七十苦衰病	나이는 칠십 세에 가까워 병으로 쇠약해 괴로우나
宅臨江湖稱散人	집이 江湖에 임하여 散人을 칭하며 지내네
如今一事差可樂	지금과 같은 한 가지 일도 조금은 즐겁다 할 만하므로
花發芳樽邀四隣	꽃이 피면 향기 나는 술로 四隣을 맞이하리

泉石膏肓이 느껴지는 시이다. ‘粼粼’은 물의 흐름이 맑고 투명한 모양 또는 물속의 돌이 반사되어 반짝이는 것을 뜻한다. 경련에서 “나이는 칠십 세에 가까워 병으로 쇠약해 괴로우나/ 집이 江湖에 임하여 散人을 칭하며 지내네”라고 하여 病으로 쇠약해진 채 강호에서 지내는 老年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四隣’은 물론 강상사재를 가리킨다.

김영작의 「暮春與同隣諸公前江泛舟」시는 暮春이 되자 강상사재들과 강에 배를 띄우고 지은 시 인데, 그 미련에서 “천년 松陵에서 창화하는 이 누구인가/ 閒情을 스스로 옛사람과 같다고 하여해보네”<sup>85)</sup>라 한 부분은 개성 출신이자 집구시를 잘 지은 박문규를 지칭한 것이다. 『소정시고』에는 東韻 1수뿐이나, 실제로는 2수였다. 왜냐하면 이 시는 앞에서 든 박문규의 『천유시집』에 수록된 3월 3일 作 「蓉湖舟中陪洪輔國(在喆)曹尚書(錫雨)申尚書(錫禧)金侍郎(永爵)共賦」 2수와 동일한 자리에서 지은 시로서, 『천유시집』에는 附邵亭詩<sup>86)</sup>에 尤韻의 1수가 더 붙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高臥船樓最上頭	船樓 제일 꼭대기에 높이 누우니
春江景物勝於秋	봄 강의 경치가 가을보다 멋지다
林花競飾千般艷	숲의 꽃들 다투어 꾸밈은 갖가지 아름다움이나
樽酒全消萬古愁	술통에 술이 모조리 다하여 萬古에 근심스럽네
衰鬢共憐拚野鶴	노쇠한 귀밑머리 함께 불쌍히 여기자 들판의 학이 날고
閒情多喜狎沙鷗	한가로운 정서에 기쁨도 많으매 沙鷗와도 친하게 지내네

暮歸詩(霜黃碧梧)體와 동일한 시이다.

85) 金永爵, 『邵亭詩稿』 卷2, 「暮春與同隣諸公前江泛舟」 미련, “千載松陵誰倡和, 閒情自許古人同”

86) 朴文達, 『天游詩集』, 「蓉湖舟中陪洪輔國(在喆)曹尚書(錫雨)申尚書(錫禧)金侍郎(永爵)共賦」, 附邵亭詩.

與君更約銀絲膽      그대와 함께 은빛 실 같은 회 먹기를 다시 기약하며  
五月風帆下幸州      5월에는 돛단배타고 幸州로 내려가세<sup>87)</sup>

‘千般’은 다종다양함을 뜻한다. ‘萬古’는 먼 옛날 또는 萬代와 같다. ‘野鶴’은 학이 임야에 거처하는 모습으로, 고고한 성품 또는 隱士를 비유한다. ‘沙鷗’은 沙灘·沙洲 등에 서식하는 갈매기이다. ‘幸州’는 경기도 고양의 옛 이름이다. 시에서 김영작은 “술통에 술이 모조리 다하여 萬古에 근심스럽네”라고 하면서, “노쇠한 귀밑머리 함께 불쌍히 여기자 들판의 학이 날고/ 한가로운 정서에 기쁨도 많으매 沙鷗와도 친하게 지내네”라 하여 강상사재와 더불어 自然 속에 지내는 閒情을 묘사하였다.

한편, 趙斗淳(1796~1870)<sup>88)</sup>의 『心庵遺稿』에는 이즈음 김영작에게 보낸 「次邵亭侍郎」<sup>89)</sup> 시가 있다. 수련에서 “시 이뤄지고 술도 익어 돌아오길 잘 했고/ 늦게야 도연명을 배워 발두둑에서 일하네”라고 하여 1866년경 致仕하여 自然으로 돌아와 한적하게 보내는 일상을 표현하였다. 致仕閑客의 입장에서 지은 시라는 점에서 조두순의 이 시도 江湖歌道の 문예미를 띠고 있다고 생각된다.<sup>90)</sup> 김영작은 1866년작 「謹和心菴相公韻」<sup>91)</sup> 3수에서 “公을 지금 湖山の 주인으로 추대하니/ 글과 술로 모시고 따르며 명승지를 판별해보네”라고 하여 조두순이 벼슬을 마치고 湖山에 온 것을 반기며, 조두순이 中書의 벼슬을 사직하고서 이 부근에 별장을 열어 발두둑에서 물주고 채소 뽑으며 한가롭게 지내므로 김영작 자신과 자유로이 休退를 함께하게 되었다고 노래하였다.<sup>92)</sup> 시

87) 原註：邵亭金.

88) 조두순은 1865년에 三政承의 領議政에 올랐으므로 실제 재상의 지위에 있었다. 그는 高宗의 迎立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대원군 집권 초기에 영의정이 되어 1년간 景福宮 재건, 『大典會通』 편찬, 三軍府 설치 등을 맡았다. 1866년이 되자 致仕하고 耆老所에 들어갔으며, 奉朝賀가 되었다. 조두순 이전의 영의정이었던 金左根(1797~1869)은 1853~1863년간에 영의정에 세 번이나 보직되었는데, 김좌근을 대체하고 조두순이 영의정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다년간의 적폐를 고치기 위한 大院君(1820~1898)의 정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강재언(1994), 18면 참조; 19세기 조선의 역사적 상황과 대전회통 등에 대해서는 오영교 편(2007) 참조; 경복궁 재건 기간은 1865년(고종 2) 4월~1868년(고종 5) 6월이다.

89) 趙斗淳, 『心庵遺稿』 卷10, 「次邵亭侍郎」.

90) 조운제 교수는 강호가도를 설명하며 “致仕歸郷하여 自然에 안겨들어 自然의 美에 陶醉하여 老之將至를 잊으려 한” 점을 언급하였다. 조운제(1987), 164면.

91) 金永爵, 『存春軒詩鈔』, 「謹和心菴相公韻」. 김영작의 『소정시고』 권2에도 이 시 제3수가 「次心庵相國韻」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있다.

92) 특히 둘째 수 수련에서 “虞殿에 관한 노래를 廣載하시니/ 清明이 시작되는 즈음이니네(虞殿歌廣載, 清明際一初)”라 한 부분은, 혹 경복궁 중건이 시작된 1865년 초기의 가사문학 「景福宮營建歌」에 대한 언급이 아닐까 한다. 강전섭(1985)와 고순희(2008)에서 趙斗淳 作으로 추정되는 「景福宮營建歌」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있었는데, 「경복궁영건가」에는 애민의식이 드러나며 19세기 가사문학의 의의도 가진다고 하였다.

에서 김영작은 조두순을 ‘燕公’이라 하여 唐 玄宗 때의 재상 張說(667~730)<sup>93)</sup>의 封號에 비유하기도 하였다.<sup>94)</sup>

지금까지 살핀 김영작의 시를 요약해보면 때로는 ‘內憂’에 대한 憂國의 정서를 한시로 표현하기도 하며, 때로는 世俗을 잊은 채, 江上四宰와 江湖에서 즐거운 한 때를 보내기도 하는 시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1866년 8월 경 로즈 제독의 함대 3척이 楊花鎮, 西江으로 浸透해 오자<sup>95)</sup> 그는 ‘外患’을 漢詩에 읊기 시작하였다. 豐德으로 떠나는 박문규를 전송하며 지은 「送天遊歸豐德」<sup>96)</sup>을 살펴보자.

霞露寒江八月時	갈대 이슬 차가운 강 때는 8월
紅夷礮響颺鷹旗	붉은 오랑캐들 포향 울리며 매가 그려진 깃발 나부끼네
感秋憂國無情緒	가을을 느끼며 나라를 근심하고 情緒가 없으니
忍復臨歧話別離	못내 다시 갈림길에 임하여 이별의 말 나누네

8월에 붉은 오랑캐 즉 ‘紅夷’들이 매가 그려진 깃발을 휘날리며 총포소리를 울리며 침입한 상황을 기·승구에서 언급하였다. 전구에서는 “가을을 느끼며 나라를 근심하고 情緒가 없으니(感秋憂國無情緒)”라 하여 외세의 침략에 가을을 슬퍼하며 憂國의 심정을 읊는 김영작의 志士의 面貌를 살필 수 있다.<sup>97)</sup>

93) 장열은 文辭에 뛰어나 조정의 중요한 문건이 대개 그의 손에서 나왔다고 하며 許國公 蘇頌과 함께 燕許大手筆로 불렸다. 후에 李林甫(?~752)의 제재를 받아 재상에서 파직되었다.

94) 이외에도 조두순의 『심암유고』 권10에는 조두순과 강상사재의 교유와 관련한 다수의 시와 서문을 더 확인할 수 있다.(趙斗淳, 『心庵遺稿』 卷10 참조.) 아울러 신석희의 『위사시고』를 통해서도 신석희, 조두순의 교유를 볼 수 있으며, (申錫禧, 『韋史詩稿』, 「自城中還心菴公送詩要和」, 「心遠亭初伏」, 「謹次心菴公韻」.) 박문규의 『천유집』, 『천유집고』에도 조두순과의 교유시가 다수 수록되어 있다.(朴文圭, 『天游詩集』, 「心遠亭次韻趙相公(斗淳)」 외 12제, 『天游集古』, 「心遠亭陪趙相公共賦」, 「集唐人句獻心庵趙相公心遠亭初夏閒居」, 「心菴相公摘玉溪生句屬余作對余以郭助句應之公喜甚遂命足成之」.)

95) 1866년 1월 조선에서 대구모의 천주교탄압이 있고 나자, 北京에 駐在하고 있던 프랑스의 代理公使 벨로네(Bellonet)는 이 보도를 접하고는 朝鮮遠征의 결의를 언명하였다. 1866년 8월, 로즈 제독이 이끄는 전함 3척이 리델(Ridel)神父와 조선인 教徒 3명의 안내로 芝罘를 출항하여 인천 앞바다 勿淄島에 來侵하였고 그 중 2척이 다시 漢江을 溯江하며 수심을 측량하며 거슬러 올라와 楊花津·西江 부근까지 이르게 되자 都城은 극도로 경악하고 긴장하며 恐怖와 혼란에 휩싸였다. 서울 偵察을 마치고 잠시 물러난 프랑스 함대는 군함 7척을 이끌고 9~10월 江華島를 침공하여 江華府를 점령하였으나, 조선은 文殊山城·鼎足山城에서 승리함으로써 프랑스군을 擊退하였다. 이 2차례 사건, 병인양요의 발발로 조선은 鎖國洋夷의 방향을 굳히게 되었던 것이다. 大韓民國文教部 國史編纂委員會 編(1970); 이선근(1973); 이흥식·신석호·한우근·조좌호(1961); 백종기(1983); 김명호(2005) 참조; 병인양요 시기의 양화진에 대해서는 강석화(2003) 참조.

96) 金永爵, 『邵亭詩稿』 卷2, 「送天遊歸豐德」.

97) 이즈음 박문규가 조두순에 차운한 시에서도 “京江秋日掛鷹旌(旗號有卑鷹雙鷹之別), 草樹風高戰伐聲, 慟哭臨江無壯士, 倉皇棄甲半書生, 廟堂不暇脩軍務, 戎狄元無議夏盟, 樽俎談兵吾豈敢, 願教羊叔鎮襄荊”이라 하

이듬해인 1867년에 홍재철에게 보낸 「走筆呈厚齋(丁卯)」<sup>98)</sup>를 살펴본다.

往昔蓉渚村	예전 蓉江 물가 촌에서
芳隣契朋好	芳隣들과 벗의 모임 잘했지
金貂互輝映	金貂가 서로를 빛을 내며 비추는 듯
玉塵恣談討	玉塵들고 마음껏 청담을 토론하는 듯
賞月樽常傾	달 감상하며 술잔 항상 기울이고
看花屢頻倒	꽃 감상하러 바빠 신 신고 자주 이르렀네
世稱唐代傑	세상에서는 당나라 시대 준걸 같다 칭하고
自許商山皓	스스로는 商山四皓라 허여했네
永結鷗鷺盟	영원히 鷗鷺와 맹약을 체결하고
畢生斷煩惱	남은 생 마칠 때까지 번뇌를 끊기로 했네
一朝風鶴警	어느 날 아침에 바람 탄 학도 놀라니
奔竄及興阜	바빠 도망쳐 숨기가 賤吏와도 같았는데
紅氍毹甲津	紅夷의 돌포가 강화도 甲津에서 요란하게 울리며
白帆指寅堡	흰 돛이 寅堡를 가리키네
厚翁奉恩綈	厚翁은 殿下의 말씀을 받들고서
撫諭遵海道	撫諭하며 바닷길 따라 나아갔네
余亦同韋烟	나 또한 韋史, 烟巖과 함께 있으면서
訐謀講楓棗	朝廷의 大事로는 楓棗를 강의했네
桓桓鼎足戰	용맹스럽고 위풍당당한 정족산성의 전투는
一月櫓檣掃	하나의 달이 불길하고 사악한 해성을 쓸어버리는 듯
携眷還舊廬	가족들 이끌고 옛 오두막으로 돌아와 보니
園林盡枯槁	원림이 전부 시들어 말라버렸구나
井閭極蕭瑟	마을이 매우 외롭고 쓸쓸하며
來往惟二老	내왕하는 이 오직 노인 둘 뿐이네
酒負菊蕊黃	술 매니 국화 꽃술은 노랗고
句吟梅花綃	시구 읊노니 매화는 하얗네
靑陽逼除至	참깨 잎이 섬돌에까지 났고
春風今歲早	봄바람은 올해는 이르구나
翁忽歸意濃	翁은 홀연 훌쩍 떠나고자 하는 뜻 짙어지고

며 심히 우러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朴文達, 『天游詩集』, 「次韻心庵相公」 제1수.

98) 金永爵, 『邵亭詩稿』 卷2, 「走筆呈厚齋(丁卯)」.

鷗波萬里浩	鷗波는 만리토록 넓게 흐르네
隻身形依影	혼자인 이 몸은 형상이 그림자에 의지하는데
誰與暢襟抱	누구와 더불어 흥금을 펴까
回想前日歡	지난 날 기쁘던 때 회상하니
渺如隔蓬島	아득하기가蓬島처럼 떨어져 있는 듯
同歸縱有願	함께 떠나기를 마음껏 원해보기도 했지만
其奈乏元寶	말굽銀이 궁핍함을 어찌 하겠는가
取次百花開	자유분방하게 백가지 꽃들 피어나매
令人憂思慄	사람을 근심스러운 생각으로 불안케 하네
三峰訂後約	三峰으로 정하여 후일을 기약하였으니
入雲勵靈草	구름 속으로 들어가 靈草를 베겠구료

上聲皓韻으로 一韻到底 되어있는 五言古詩로 보인다. 총 40구이며, 제1구 ‘往昔蓉渚村’부터 제10구 ‘畢生斷煩惱’까지를 보면 蓉江 물가에서 芳隣, 즉 강상사재와 더불어 玉塵를 들고 마음껏 청담을 나누며 달과 꽃을 감상하고 鷗鷺와 맹약, 남은 생을 마칠 때까지 번뇌를 끊고자 했다는 내용이다. 세상에서는 이들을 唐나라 시대 俊傑 같다 하고<sup>99)</sup> 이들 스스로는 商山四皓라고 하여하였다. 그러나 제11구 ‘一朝風鶴警’부터 제14구 ‘白帆指寅堡’에 들자 詩想이 轉變하여, 어느 날 아침 바람 탄 鶴이 賤吏처럼 바빠 도망치듯 숨어버렸다고 하였다. 이는 “紅夷의 돌포가 강화도 甲津에서 요란하게 울리며/ 흰 돛이 寅堡를 가리키”는 외세의 침략 때문이었다. 제12구의 ‘奔竄’<sup>100)</sup>은 바빠 도망쳐 숨는다는 뜻이다. ‘輿阜’는 중국 古代에 十等人 중 가장 미천한 두 개 등급의 명칭으로, 천역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賤吏’를 뜻한다. 바람 탄 학이 놀라 賤吏처럼 급하게 숨듯 날아가는 모습을 말하여 외세의 강화도 침범으로 인한 급박함에 관한 말을 꺼내기 위한 것이다. 제15구부터 제18구까지는 흥재철이 高宗의 말씀을 받들어 撫諭하며 바닷길로 나아갔음과 김영작은 신석희, 조석우와 지내며 때로는 朝廷의 大事로 楓棗를 강의하였다고 하였다.<sup>101)</sup> 이어지는 제19, 20구에서는 “용맹스럽고 위풍

99) 初唐四傑에 비유한 것일 가능성도 있으나 확실치 않다.

100) 杜甫「破船」詩에 “所悲數奔竄, 白屋難久留”라는 용례가 보인다.

101) 楓棗의 의미는 미상이다.; 병인양요 시기의 경연강의는 김세은(2000), 146면에 보이는데, “1866년(고종 3) 9월 병인양요 때 강화도가 침범 당했다는 보고를 듣자 고종은 시원임 대신과 병판, 각 영 장신들의 請對에 나아가 ‘대신들이 충분히 상의하여 조치할 방도를 다하도록 하라’고 하며 모든 일을 맡겼다. 물론 고종은 畿輔巡撫營을 비롯하여 여러 아문으로부터 이양선과 강화도 주변의 정세, 아군의 준비상황과 전황에

당당한 정족산성의 전투는/ 하나의 달이 불길하고 사악한 혜성을 쓸어버리는 듯”라 하여 鼎足山城에서의 승리를 노래하였다. ‘櫓槍’은 혜성의 별명으로, 옛사람들은 흉한 별로 인식했으며 불길한 뜻을 담고 있다.<sup>102)</sup> 즉, 사악한 세력을 비유하기도 한다.<sup>103)</sup> 제 21, 22구 “가족들 이끌고 옛 오두막으로 돌아와 보니/ 원림이 전부 시들어 말라버렸구나”부터 시작해서는 마지막구인 제40구까지 양요가 지난 뒤 寂寞해진 마을의 분위기와 장차 三峰으로 떠나는 홍재철, 그리고 혼자 남겨지는 시인 자신을 그려내고 있다.<sup>104)</sup> “참깨 잎이 섬돌에까지 났고/ 봄바람은 올해는 이르구나(靑陽遍除至, 春風今歲早)”와 “자유분방하게 백가지 꽃들 피어나매/ 사람을 근심스러운 생각으로 불안케 하네(取次百花開, 令人憂思慄)”라는 시구들에서 분명 봄을 노래하면서도 슬픈 느낌을 자아내는

대해 그때그때 보고 받았다. 그러나 경연에서의 활동은 전과 다름없었다. 진강과 소대를 열어 『통감』 제 2권을 강학하였고, 간혹 防守 때문에 농사를 방해하는 일이 없는지, 민심은 소란스럽지 않은지 등의 일을 질문하였지만 경연은 여전히 강학활동을 위한 곳이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전보다 진강과 소대를 열지 않아 同知事 金尙鉉으로부터 ‘외적을 방어하여 소멸시킬 방도는 대신과 장신이 계책을 세운 바가 있으니, 백관과 만민이 바라는 것은 전하가 경연을 계속하여 학문을 성취하는 것이다’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하였다.

102) 『爾雅·釋天』, “彗星爲櫓槍.”의 郭璞 注에 “亦謂之彗, 言其形彗, 彗似掃帚.”라 하였다.

103) 『文選·張衡「東京賦」』, “櫓槍旬始, 羣凶靡餘.”의 李善 注에 “櫓槍, 星名也. 謂王莽在位如妖氣之在天.”이라 하였으며, 杜甫의 「奉送郭中丞兼太仆卿充隴右節度使三十韻」에서 “幾時迴節鉞, 戮力掃櫓槍”라 하였다.

104) 김영작은 主戰論派 중에서도 서울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던 首都中心防禦論者였던 것으로 보인다. 노대환(1997), 327면에서는 “金永爵은 연행과정에서 僧格林沁이 서양군을 격퇴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들면서 서양의 무력이 그리 강하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북경이 서양의 수중에 떨어진 것은 중국이 서양보다 무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순행하여 민심이 이반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병인양요기에 주전론과 주화론이 대립되고 주전론 가운데에도 서울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서울을 벗어나서 항전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중심의 방어론을 지지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승정원일기』 고종 3년 9월 12일. 그러나 필자는 김영작이 서울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김영작의 행적에서 볼 때 수궁이까지만, 김영작이 이날 ‘서양의 무력이 그리 강하지 않다고 설명’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다. 오히려 김영작은 西洋勢力을 과소평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고종 3년 9월 12일자 『승정원일기』를 보더라도 “서양의 무력이 그리 강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을 찾기 힘들뿐더러, 이날 金永爵의 발언의 요지는 『邵亭文稿』 卷 4, 「經筵講義」, 高宗 3년 9월 12일자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김영작은 洋夷가 바다 6, 7만리를 건너 우리나라 국경에 침범한 사실에 대해 일찍이 있지 않았던 變故라며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으며, 그들의 침범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我國奸細’ 즉 邪學黨이 관여한 사실을 들고 있음에 있다. 아울러 김영작은 일찍이 자신이 使臣일 때 天津에서 僧格林沁이 洋夷(英-佛 聯合艦隊)를 防禦해내는 것을 목격도 하였지만은 수 년 만에 양이가 결국에는 北京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면서 양이가 만약 북경에 침입하지 않았다면 어찌 우리나라를 침범했겠느냐며 여기에는 奸細의 和應이 이르지 않았을 리 없으니 그렇지 않다면 저들이 어찌 肆然히 내침했겠느냐고 하였다. 그리고서 지금도 邪孽이 잠복하면서 朝廷의 시책을 朝夕으로 통보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머리털이 뻗뻗해진다고 하며 깊이 우려하였다. 이는 병인양요기에 김영작의 절친한 중국인 벗 翰林偏修 張丙炎(호 午橋)이 쓴 몇 줄의 논설과도 논리가 닿아 있는데, 최소한 奸細의 暗導가 없었다면 감히 타국(중국)의 경계에 들어설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禦洋之策으로 我境을 固守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으며 奸細를 물리친 뒤 더불어 相戰하지 않는다면 그들 스스로 물러갈 것이고 부득이 통상해야 한다면 물물교환만 해야 하며 金銀 무역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한 내용이 보인다. 『赤虎記』, 165면.

데, 참깨 잎이 섬돌에 날 정도로 인적이 없어진 마을에도 봄바람이 불고 백가지 꽃들 피어나 봄이 어김없이 다가왔지만 詩人 자신은 나라를 걱정하여 憂國의 情緒를 떨쳐 버릴 수 없다는 점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마치 두보가 난리 속에서 나라를 염려하고 고향의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쓴 「春望」시와도 詩想이 동일한 듯하다. 제37구의 ‘取次’는 자유로이, 임의대로라는 뜻도 있고<sup>105)</sup> 차례대로, 순서대로라는 뜻도 있으나 첫째 뜻을 따랐다. 또한 이 시가 對偶를 계속해서 구사하는 등 排律에 가깝게 지어진 점은 두보가 五言排律에 능숙했던 점<sup>106)</sup>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 한다.

다음은 20구로 된 칠언고시 「同天遊賦古梅憶友石尚書」<sup>107)</sup>이다.

亂後湖榭門常扃	병인양요 후 호수 정자의 문은 항상 잠겨 있고
親朋落落如晨星	친한 벗들은落落하여 새벽의 희소한 별과 같다
老夫離索無情緒	늙은이는 홀로 쓸쓸히 무리와 떨어져 情緒가 없고
鷗鷺宿盟祗眼青	鷗鷺와의 宿盟만을 푸른 눈으로 반갑게 바라볼 뿐
隣巷賴有天遊客	인근에 다행히도 天遊 객이 있는 덕분에
詩家聲調探幽蹟	詩家の 聲調의 그윽하고 깊숙함을 탐구하네
一樽共賞一樹梅	술 한 잔에 매화나무 한 그루 함께 감상하니
單瓣淺紅高韻格	單瓣淺紅梅라 韻格이 높구나
此種移自月沙祠	이 품종은 月沙의 祠堂에서 옮겨 심은 것인데
昔從石農求得之	예전에 石農에게서 구해 얻은 것이다
中華鉅公以心貺	中華의 鉅公께서 마음을 담아 하사하셨으니
流傳三百年于茲	삼백년을 전해내려 와 지금에 이르렀도다 <sup>108)</sup>
我忽因梅憶良友	나는 홀연 매화로 인해 良友를 떠올리니
沙翁後孫今樞部	月沙 翁의 후손 지금 樞部에서 직책을 맡고 있네
翩翩冠蓋入薊門	월월 날듯이 冠服과 수레덮개는 薊門으로 들어가매
更或有人贈梅否	다시 혹시 누군가가 있어 매화를 줄지도 <sup>109)</sup>

105) 杜甫의 「送元二適江左」詩에서 “經過自愛惜，取次莫論兵”이라 쓰였다.

106) 강민호(2004), 61~62면.

107) 金永爵, 『邵亭詩稿』 卷2, 「同天遊賦古梅憶友石尚書」.

108) 原註: “예전 月沙 李文忠公이 북경에 조천했을 때 단판천홍매를 받아 왔는데 지금 사당 앞에 심어져 있다. 내가 일찍이 石農 尚書를 통해 한 본을 구하여 원림 안에 심었다.(昔月沙李文忠朝京, 有贈單瓣淺紅梅者, 今種祠堂前, 余曾從石農尚書, 乞一本, 栽園中.)”

109) 原註: “이중우 判樞는 월사의 후손이며 지금은 사신으로 入燕해 있다.(友石判樞, 月沙後孫, 今奉使入燕.)”



春樹舊緣儘堪誇	春樹胡同에서의 옛 인연도 자랑함을 참기 어렵노니
隴頭一枝驛路愁	邊境의 한 나뭇가지를 驛使 길을 통해 보냈다네
折花與君吟新什	꽃 꺾어 그대에게 주며 새로운 시를 읊으매
三月待返銀河槎	3월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노니 은하수 비껴 있네

첫구의 ‘亂後’는 병인양요를 가리킨다. 난리로 인해 인근의 여러 벼들이 희소한 별처럼 뿔뿔이 흩어지고<sup>110)</sup> 자신만이 남아 있는데, 마침 홍재철의 막객 박문규도 남아 있었으므로 함께 詩家의 聲調를 논하기도 하고 자신의 집에 있는 單瓣淺紅梅를 감상하기도 하며 지내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 매화는 예전에 月沙 李廷龜(1564~1635)가 北京 使行을 다녀오며 받아온 것으로, 월사의 後孫이자 少論으로서 石農體로도 알려진 石農 李鍾愚(1801~?)에게서 품종을 구한 것이다. 이종우 역시 현재 燕行을 떠나 있다. 제13, 14구에서 “나는 홀연 매화로 인해 良友를 떠올리니/ 月沙 翁의 후손 지금 樞部에서 직책을 맡고 있네”라 한 것은 이종우를 가리킨다. 이어서 제15, 16구에서는 “훨훨 날듯이 冠服과 수레덮개는 薊門으로 들어가매/ 다시 혹시 누군가가 있어 매화를 줄지도”라고 하며 당당한 연행을 떠난 이종우의 모습을 형용한 뒤, 그가 연행을 통해 매화를 받아올 수도 있으리라는 희망을 언급하였다. 제17~20구는 江南一枝春의 故事<sup>111)</sup>가 쓰인 듯하다. ‘隴頭’는 본디 중국 隴山을 가리키며 邊塞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곧 남쪽 변경에 있는 김영작이 이종우의 연행을 계기로 남쪽의 매화가지를 北京의 春樹胡同에 사는 중국인 벼들에게 보내었다는 내용이라 생각된다. 마지막 두 구인 “꽃 꺾어 그대에게 주며 새로운 시를 읊으매/ 3월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노니 은하수 비껴 있네”에서 연행을 떠난 벼이 돌아오기를 銀河水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마음이 詩的으로 잘 형용된 듯하다. 이어서 살펴 볼 「厚齋將歸三峰詩以奉別用拗體」<sup>112)</sup>시는 김영작이 장차 三峰으로 떠나는 홍재철에게 拗體를 써서 지어준 것이다.

110) 전쟁 소식에 겁을 먹고 서울 양반의 열에 아홉은 다투어 시골로 도망가 버렸다고 한다. 김용태(2006); 趙冕鎬, 『玉垂集』, 卷11, 西事雜絕 제17수.

111) 江南에서 梅花 가지 하나를 친구에게 보내 봄소식을 알린다는 뜻으로, 친구 사이의 돈독한 우정을 대신하는 정표를 보낼 때 쓰이는 말이다. 南朝의 시인 陸凱가 강남에서 장안에 있는 范曄에게 매화 한 가지를 부치며 「贈範曄」詩를 지어 “매화 꺾어 驛使를 만나/ 농두 사람에게 부치노니/ 강남에서는 가진 것 없어/ 애오라지 한 가지 봄을 보내노라(折梅逢驛使, 寄與隴頭人, 江南無所有, 聊贈一枝春)”라는 시를 보냈다. 이를 계기로 ‘一枝春’은 매화의 별칭으로 사용되고 서로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典故로 쓰였다.

112) 金永爵, 『邵亭詩稿』 卷2, 「厚齋將歸三峰詩以奉別用拗體」.

蓉江鷗鷺摠情含	蓉江의 갈매기와 해오라기들 모두 정을 머금고 있고
握手相看酒未酣	손잡고 서로 바라보니 술자리도 아직 무르익기 전이네
勝事如夢固難再	뛰어난 사적은 꿈과도 같아서 본디 다시 있기 어렵고
病懷將離其可堪	병든 몸 회포는 장차 떠날 계획이라 그것을 견딜만하다
憂時白髮盡成雪	시절을 근심하느라 白髮이 되어 온통 눈을 이루었으며
娛老靑山初破嵐	늙음을 즐거워하며 靑山에는 비로소 산바람이 불어오네
後約乘春携竹杖	훗날 봄 계절 타기로 기약하고 대나무 지팡이를 이끄니
水鍾淸響一古菴	水鍾寺의 맑은 소리 울리는 곳은 한 채의 옛 암자로다

김영작은 홍재철과 작별하며 蓉江에서 鷗鷺와 짝하며 벗들과 술자리 하던 시절이 마치 뛰어난 사적과도 같이 다시 찾아오기 어렵다고 화상한 뒤, 경련에서 “시절을 근심하느라 白髮이 되어 온통 눈을 이루었으며/ 늙음을 즐거워하며 靑山에는 비로소 산바람이 불어오네(憂時白髮盡成雪, 娛老靑山初破嵐)”라 하여 ‘憂時’의 정서를 여전히 드러내고 있다. 제8구에서 “水鍾寺의 맑은 소리 울리는 곳은 한 채의 옛 암자로다”라고 한 점에서 수종사 방면으로 간 듯하다.<sup>113)</sup>

趙冕鎬(1804~1887)<sup>114)</sup>의 『玉垂集』에는 「既憶瓏齋又憶又憶憶是同志之近日蟬聯者止各有屬意」라는 오언고시가 있는데,<sup>115)</sup> 그중 김영작에게 쓴 첫수 제1구 ‘赫奕宰相多’부터 제8구 ‘圖證主客榻’까지가 강상사재를 언급한 부분이다. “찬란하고 눈부신 재상들도 많지만/ 허여하는 이 적게 두고서 크게 화합했네/ 강가에 이 분들 있으니/ 어찌 혼자 참선하듯 앉아 있겠다고 하리요/ 작은 집에 매화 향/ 때로는 산의 승려도 들른다/ 四傑들의 題襟 풍부하며/ 그림은 주인과 손님의 下榻을 증명하네”<sup>116)</sup>라 하여 ‘赫奕’한 다른 고관들도 많지만 이들 四傑들의 작은 모임은 때때로 강가의 매화 향 나는 김영작의 小屋에서 主客의 만남을 가지고서 한시를 지으며 그곳에 때로는 승려가 방문하기

113) 水鍾寺는 배를 타고 춘천으로 향하거나 충주나 단양으로 향할 땐 두미포를 지나 양근으로 가는 도중에 운길산에 위치한 이 절이 바라보였으므로, 많은 문인들이 이곳의 풍광을 사랑하여 시들을 남겼다고 한다. 심경호(1997), 45면.; 朴文達의 『天游集古』에서도 「水鍾寺 1」, 「水鍾寺次前韻」, 「水鍾寺 2」와 같이 수종사 관련 시가 다수 보인다.

114) 조면호는 동시대의 커다란 詩社인 北村詩社를 이끌었고 병인·신미양요에는 우국시 「西事雜絶」과 「後西事雜絶」을 지었으며, 그의 시는 朝鮮詩風을 보이고 있어 19세기 한시사에서 중요하게 연구되는 시인이다. 김명호(2001); 김용태(2008), 56~72면, 237~277면, 315~317면.

115) 金永爵에게 준 첫수에 이어서 桂田, 瓏齋, 經臺, 薇西까지 이어지는 5수의 시이다.

116) 趙冕鎬, 『玉垂集』 卷12, 「既憶瓏齋又憶又憶憶是同志之近日蟬聯者止各有屬意」 제1~8구, “赫奕宰相多, 寡與措大合, 江上有斯人, 云何獨坐臘, 小屋梅花香, 時過山僧衲, 四傑富題襟, 圖證主客榻”

도 한다는 내용이다.<sup>117)</sup> 이 시의 原註에는, “이 당시에 洪厚齋·曹烟巖·申韋史·金邵亭이 ‘四傑’이라 일컬어졌는데, ‘傑’은 읽으면 ‘구걸하다(乞)’이며 四公이 淸貧한 데에서 연유한다”<sup>118)</sup>고 되어 있어, 강상사재가 기본적으로 청빈한 생활태도를 지녔음을 알 수 있다. 이 시에 대해 김영작은 「次韻答玉垂見寄」<sup>119)</sup>로 차운하였다. 김영작은 조면호의 시에 對가 되게끔 제1구인 ‘湖上有四老’부터 제8구인 ‘雪積冷侵榻’까지를 강상사재에 대한 내용으로 썼다. 김영작은 시를 받고 매우 감사해하면서도 병인양요로 인해 적막해진 일상이 나타남으로 인해 詩想은 다소 어둡게 그려져 있다. 호숫가의 네 명의 노인이 漁人과 樵夫에 짝하여 은거하며 술을 마시며 마음으로 합치했음을 드러낸 후, 병인양요 이후<sup>120)</sup>에 각자 고독하게 흠어져, 마른 승려와도 같이 지내면서 차가운 눈기 운과 매화향이 스며드는 龕室의 의자에 앉아 쓸쓸하게 지내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내었다.<sup>121)</sup> 김영작이 조면호에게 차운한 이 시에 박문규도 또한 「次韻邵亭侍郎和趙玉垂(冕鎬)作」으로 차운시를 남기고 있다.<sup>122)</sup> 시에서 박문규는 일전에 조면호와 문학을 나누는 자리에서 만났고 헤어져 그리워한지도 2년이 되었으며, 자신은 미끄러져 넘어지듯 일시에 가난해진 점을 언급한 뒤, ‘閨彥’ 즉 재능이 걸출한 선비인 김영작이 누더기인 자신을 집으로 초대하여 길을 쓰고 의자를 마련하여 詩友로서 따뜻하게 환대해준 사실을 기술하였다. “산의 동자는 잠든 채 응답하지 않고/ 뜰에는 술방울 떨어지네”<sup>123)</sup>라는 운치 있는 시구도 보인다.<sup>124)</sup>

117) 조윤제(1937), 360면에서는, “또 韓巖에는 方外の 友로서 詩僧이 있었으나 倂仰亭에도 亦是 같은 友僧이 있어 一層 그의 閑情을 도왔다.”고 하여 이들 교유에 詩僧의 존재도 중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시 제13, 14구의 “홀로 造詣를 이루기를 곧 神妙로서 하여/ 나무의 높은 끝이 마치 구름 속의 塔인 듯하네(孤詣乃以神, 標如雲中塔)” 구절은 조면호가 김영작의 시를 評한 것이라 생각된다.

118) 趙冕鎬, 『玉垂集』 卷12, 「既憶巖齋又憶又憶憶是同志之近日蟬聯者止各有屬意」 原註, “時以洪厚齋·曹烟巖·申韋史·金邵亭謂四傑, 傑讀作乞, 爲四公拯淸貧.”

119) 金永爵, 『邵亭詩稿』 卷2, 「次韻答玉垂見寄」.

120) 제5구의 ‘亂後’를 “병인양요 이후”라고 번역한 것은 이 시가 1866년 병인양요 이후인 1867년 작인 점과, 박문규의 『천유시집』, 「亂後送安進士(兢速)歸廣州」, 「李承宣席上遇黃漢案(五)共賦」 경련, “亂後衣冠皆幻境, 瘦來顏髮摠疑團” 등에서도 동일한 상황에서 ‘亂後’라고 쓰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작의 “병인양요 이후에 각자 流蕩하였으니(亂後各流蕩)” 시구는 뒤에 살펴볼, 신작모가 쓴 「屬江上四宰冠字韻(并序 丁卯)」에서 홍재철, 신석희, 조석우가 먼 곳에 뿔뿔이 흠어져 있다고 한 점과 합치한다.

121) 시 제15, 16구에서 “어떻게 하면 이 분과 함께/ 좋은날 즐겁고 화기에애함을 펼 수 있을까(安得與斯人, 良辰展歡洽)”라 한 구절은 아작은 ‘良辰’ 즉, 호시절이나吉日이 다가오지 않았다는 점을 암시한듯하다.

122) 朴文達, 『天游詩集』, 「次韻邵亭侍郎和趙玉垂(冕鎬)作」.

123) 朴文達, 『天游詩集』, 「次韻邵亭侍郎和趙玉垂(冕鎬)作」 제13, 14구, “山童睡不應, 庭院下松塔”

124) 박문규는 이 시에 이어 같은 운을 써서 江樓에서 홀로 잠들며 「江樓獨宿疊前韻」을 짓기도 하였다. 한편, 조면호의 『옥수집』에는 신석희에게 준 서찰도 있으며, (趙冕鎬, 『玉垂集』 卷28, 「與韋史提學(申錫禧)書」.)

申佐模(1799~1877) 『澹人集』의 1867년작 「屬江上四宰冠字韻(并序 丁卯)」<sup>125)</sup> 역시 강상사재에 관한 중요한 설명들을 수록하고 있다. 그는 江上四宰에 대해 一時의 重望되는 자들이었다고 하였다.<sup>126)</sup> 이어서 홍재철이 龍山の 一碧亭으로 물러나서 지내고 있던 사실과 정자 근방의 淸華亭·換月亭·涵碧亭이 모두 名亭으로 김영작·조석우·신석희가 거쳐하고 있었다는 점,<sup>127)</sup> 名士들이 자주 왕래했다는 점, 詩酒의 모임을 자주 가지며 서로 즐거워하므로 사람들이 德星같은 賢人 무리라 일컬었다는 점 등을 기술하였다. 신좌모는 1867년 봄이 되자, 양요 후 어느새 적막해진 일벽정에 도착하여 일전에 홍재철이 후대하였던 막객시인 박문규와 상봉하여 그의 증언을 통하여 홍재철·신석희·조석우가 각각 다른 곳에 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김영작 만이 홀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찾아가 보니 김영작이 마침 편익, 복건 차림으로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김영작은 그간 쓸쓸히 지내던 차에 신좌모를 발견하고는 매우 반가워하며 함께 書樓에 올라 그동안 오래 떨어져 지냈음과 만남과 헤어짐 등을 이야기하였으며 서로 함께 탄식하며 이별하였다. 12월이 되자 신좌모는 홍재철이 있는 三峯을 찾아가 만나기로 마음을 먹고 길을 떠났는데 날이 어둑해지자 村舍에서 묵으며 예전에 홍재철과 헤어질 때 冠字 운으로 증별시를 지었음이 떠올라 같은 운으로 四宰에게 속하는 詩 각 한 수씩을 지었으며, 그리 머지않았던 지난날 애호하던 한 조각 깊은 마음을 또한 족히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 시가 첨부되어 있는데,<sup>128)</sup> 여기에는 原註가 많이 달려 있어 并序와 더불어 강상사재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이다. 시를 직접 인용하지는 않지만 시와 原註에서 추가

김영작과의 교유 작품도 몇몇 추가로 들 수 있다.(趙冕鎬, 『玉垂集』 卷3, 「溟邸遇定遠倅金邵亭(永爵)永清倅洪維承(鍾茂)鶴山倅洪春湖(鍾序)剪燭携尊極其奇遇盖洪醉裘致誠爲西都主今巡相之弟也」, 卷28, 「與金邵亭侍郎書」, 卷29, 「金邵亭永爵赴燕序」.) 신석희의 『위사시고』에서도 신석희, 조면호, 김영작의 교유를 확인할 수 있다.(申錫禧, 『韋史詩稿』, 「洪悠齋侍郎江墅陪伯氏同玉垂芍玉晉齋邵亭夜飲」, 「次玉垂寄示韻」.)

125) 申佐模, 『澹人集』 卷7, 「屬江上四宰冠字韻(并序 丁卯)」; 『澹人集』은 중국 국가도서관에도 소장되어 있다.

126) 并序에는 신좌모가 “壬戌年(1862)경에 나는 서울에서 지내는 것이 달갑지 않아 온 가족을 이끌고 귀향하게 되었는데”라고 했지만 정자 歸鄉한 地名이 나타나 있지 않은데, 『澹人集』 卷8, 「花樹軒集序」에서 신좌모의 아들 申昇求(1850~1932, 자 道鄉, 호 石軒)는 “歲壬戌, 先君築室于文義花山, 扁之曰花樹軒, 仍退老, 每因大朝會, 上火在旅. 辛未, 不肖家洛, 就養爲三載, 自壬戌後在鄉第諸作, 並附于此, 不肖孤昇求謹識.”라 하여 先君이 임술년에 文義 花山에 花樹軒을 지었다고 하였으므로 文義로 갔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박문규 『천유시집』에 수록된 「送申澹人侍郎歸文義」시는 박문규가 1862년에 고향으로 떠나는 신좌모를 전송해준 시이다.

127) 朴文達, 『天游詩集』, 「疊前韻謝韋史烟巖二尚書」의 원주에는 “韋史自名其亭, 曰鯁飯.”이라는 구절도 보인다.

128) 申佐模, 『澹人集』 卷7, 「屬江上四宰冠字韻(并序 丁卯)」의 詩 1~4수.

적으로 알 수 있는 몇 가지 점들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홍재철에 속하는 첫째 수에서는 지난해 가을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홍재철이 畿輔慰撫使가 되었다고 하였다.<sup>129)</sup> 김영작에 속하는 둘째 수에서는 신좌모가 김영작과 사귀지 布衣 때부터인데 對面하지 않고 마음으로 알고 지낸지가 오래이며 후에 처음 벼슬길에 올라 宣陵 秋夕祭官일 때 인데 당시 김영작은 靖陵郎이었으며 한번 보니 평생 만나온 것 같았다고 하였다. 靖齋의 매화가 중간에 絶種되려 하자 김영작이 절에서 한 本을 구해와 靖陵에 옮겨 심은 일이라든지, 김영작이 太寢郎으로 있을 때 임금의 下問에 잘 응답하여 임금의 知遇를 입었던 일, 그리고 최근 김영작이 日講官이 되어 經筵講義를 하며 때로는 江樓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사실 등을 소개하고 있다. 조석우에 속하는 셋째 수에서는 예전에 신좌모가 試事에 연좌되어 嶺外로 유배될 때 조석우가 이별의 말을 해줘서 만나절이 지나서야 떠났던 일, 조석우가 자신과 같은 乙未年 榜인 점, 丙辰年 正月에 신좌모가 三行人으로서 燕行에서 돌아 올 때 조석우가 그 府에 유배와 있었는데 그 舍人에게起居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물었으며 조석우를 만나보고자 했으나 그러지 못하고는 조석우가 강가로 돌아왔을 때 신좌모가 다시 그 근처를 지나게 되었으나 차마 들어가지 못하여 평생의 커다란 한이라고 할 만하다며 안타까워하였다. 신석희에 속하는 넷째 수에서는 海藏 申錫愚(1805~1865)와 韋史 형제가 함께 文盟을 주관하며 당대의 冠冕임을 언급한 뒤, 연전의 신석우의 捐館에 山陽之感을 떨쳐낼 수 없었음을 말하였다. 아울러 신석희가 白氏 喪을 당한 뒤에 서울 궐내에 있고 싶지 않아 龍山 강가로 물러나게 되었음을 이야기 하였다. 신석우의 入燕에는 『輶行日史』가 있으며, 이전 세대의 翠微 申在植(1770~?)도 입연했을 때 중국명사들과 시문을 창수하여 『相看編』을 남겼으며 신재식이 곧 신석희의 從叔이며 신좌모 자신의 座主였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네 수 모두 강상사제가 용산으로 들어오게 된 배경이라든지 강상사제와의 에피소드 등을 잘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130)</sup>

129) 고종 3년 9월 17일에 경기 연해 도위무사에 지사 홍재철을 차하하라는 전교가 있었으며 다음날인 9월 18일, 이조가 경기 연해 도위무사에 홍재철을 단부하였다. 『承政院日記』 고종 3년 9월 17일; 朴文達, 『天游詩集』, 「厚翁尚書見和拙詩作此奉答」시에도 “時, 公以慰撫使, 巡沿海諸邑而歸.”라는 원주가 있다. 『천유시집』에서 박문규의 이 시는 순서상 최소한 「丙寅九月十二日古金陵道中記所見」의 뒤에 놓여야 할 듯하다.

130) 신좌모는 이어서 「臨行用前韻敘別醉箕尚書」, 「復疊前韻贈朴天游(霽鴻○並小序 二首)」 등을 짓기도 하였다. 이 박문규에게 준 시 첫수는 박문규의 『천유시집』, 「申澹人侍郎官罷還鄉以七言長句二篇見贈次韻奉答」 2수에 붙은 元韻 1수와 일치한다. 박문규의 『천유집고』의 집구시 「澹人侍郎官罷還鄉集此二首奉送」도 이때 지은 것으로 보인다.

홍재철을 三峰으로 떠나보낸 뒤 정월대보름을 맞게 된 김영작은 홍재철을 그리워하며 다시 「元宵有懷厚齋」<sup>131)</sup>를 지어 보냈다.

湖閣上元夜	호수 누각에서의 정월대보름 밤
團圓月正中	둥근 달이 한 가운데에 떠있네
荒江惟我在	황량한江에 오직 나뿐이라서
清景與誰同	맑은 경치 누구와 더불어 할까
兩地應相照	兩地는 응당 서로를 비추지만
前塵倏已空	前塵은 문득 이미 쏜이로구나
籬西樓一角	울타리 서쪽 누각 한 귀퉁이에서
盼望悵難窮	간절히 바라봐도 슬픔 다하기 어렵네

경치는 맑으나 벗들이 없이 황량한 강가에서 홀로 정월대보름을 맞으며 벗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쏜이라는 선불교적인 시상을 통해 잘 나타나 있다. ‘前塵’은 妄心の 앞에 나타나는 六塵의 경계를 뜻한다.

김영작은 江上四宰를 통한 作詩活動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高宗을 輔導하여 經筵講義를 몇 년 간 맡아왔으나<sup>132)</sup> 老臣이라 점차 병이 깊어져 갔다.<sup>133)</sup> 1868년에 과거 시험에 급제한 아들 金弘集에게 준 마지막 시 「示弘集」의 미련에서 “致君澤民의 마음으로 힘써 노력하여/ 太倉의 녹을 저버리지 말거라”<sup>134)</sup> 라고 하여 아들에게 치군택민의 마음을 갖도록 한 뒤, 김영작은 그해 7월 15일 病으로 서거하였다. 김영작이 作故한 후, 박문규는 슬퍼하며 挽詩인 「挽金侍郎(永爵代人作)」을 지었는데 그 頷聯에서 “문장으로 나라에 보답하여 마음은 인하여 간절하고/ 청백리는 가문을 이어 道가 다시

131) 金永爵, 『邵亭詩稿』 卷2, 「元宵有懷厚齋」.

132) 김세은(2000), 130면에는 經筵의 일부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金永爵은 고종이 진강에서 한번 질문하는 외에는 다시 묻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면서, 자주 질문할 것을 권하였다. 또한 김영작은 君臣의 관계는 父子와 같고, 진강은 차대나 법강과는 달리 體貌를 간편히 하는 것이니, 설령 말이나 행동에 실수가 있더라도 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신하들을 자주 만나 上下의 情과 뜻이 통하도록 한다면 민의 아픔과 괴로움도 저절로 上達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곧 진강에서 고종과 경연관의 대화가 당시의 정치 현실을 의논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승정원일기』 高宗 4년 5월 3일자, 高宗 5년 4월 14일. 이 내용은 金永爵, 『邵亭文稿』 卷4, 「經筵講義」의 같은 일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숙종~고종 연간 書筵과 經筵의 教育内容에 대해서는 강태훈(1990) 참조.

133) 金永爵, 『邵亭詩稿』 卷2, 「病中恭聞進講有命喜而志忱且試病腕(戊辰)」 전구, “老臣病臥漳河側”, 「病中遣懷」.

134) 金永爵, 『邵亭詩稿』 卷2, 「示弘集」 미련, “勉旃致澤心, 無負太倉祿”

빛나네(文章報國心仍切, 清白傳家道更光)”라고 하였다.<sup>135)</sup> 김영작과 절친한 벗이자 同僚였던 璫齋 朴珪壽(1807~1877)는 김영작이 남긴 遺墨을 대하여「題邵亭遺墨帖」을 지어 “소정의 묘의 풀은 이미 무성한데 이 유묵첩은 여전히 내 처소에 남아 있구나. 펼쳐 읽어보면 슬퍼짐을 금할 수 없구나.”라고 한 후 김영작이 1864년 봄에 자신과 같은 날에 講官에 임명되어 經筵의 講官으로서 충성을 다하여 고종을 보도하였음을 말하고는, 김영작이 臥病 중에도 아픔과 싸우며 詩들을 지었는데 ‘忠愛’가 간절하여 훗날 이를 열람하는 자는 비록 그를 본 적이 없는 자라도 立朝本末에 있어서의 그 사람됨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sup>136)</sup> 옥수 조면호 또한 김영작이 작고하고 墓에 찾아가 「哭金邵亭墓(高浪之龍山)」<sup>137)</sup> 시를 지어 김영작을 그리워하였다.

#### 4. 맺음말

以上으로 厚齋 洪在喆, 邵亭 金永爵, 烟巖 曹錫雨, 韋史 申錫禧로 이루어진 1865년~1868년간의 시인집단 江上四宰와 그 漢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홍재철의 幕客詩人으로서 강상사재 交遊에 同參하여 一翼을 담당하였던 개성출신의 우수한 시인 天游 朴文達를 조명하여 그의 『천유시집』 및 『천유집고』에 散見되는 강상사재 관련 한시들 중 일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강상사재의 존재를 同時代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心菴 趙斗淳, 玉垂 趙冕鎬, 澹人 申佐模 등과 같은 同僚 詩인들이 남기고 있는 證言들도 고찰하였다. 본고의 ‘江上四宰’라는 用語는 신좌모의 기록에 근거한다.

강상사재의 한시는 그 문예미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文藝의 類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溪山風流 系列’과 ‘憂國愛民 系列’이 그것이다. 계산풍류는 樣式에 있어서 국문시가와 한시를 포함하는 문학사적 용어로서, 기존에는 江湖歌道(自然美의 發見) 개념이 엄밀하게는 국문시가에서만 논의 가능 했었다면, 본고에서는 ‘계

135) 朴文達, 『天游詩集』, 「挽金侍郎(永爵代人作)」, “漢上逍遙雲水鄉, 朝衣留帶講筵香, 文章報國心仍切, 清白傳家道更光, 此日仙遊歸岱嶽, 當時人望在巖廊, 吾邦尚有棠陰在, 感泣私襟涕自滂”

136) 朴珪壽, 『璫齋集』 卷4, 「題邵亭遺墨帖」(『璫齋叢書』 六, 244~245면).

137) 趙冕鎬, 『玉垂集』 卷13, 「哭金邵亭墓(高浪之龍山)」, “소나무 가득한 사이에 두견새 있고 꽃이 핀 곳/ 吏部の 풍류는 적막 한가해졌네/ 오늘 옛 벗이 찾아와 통곡하노니/ 사생일로가 용산이었네(杜鵑花發萬松間, 吏部風流寂寞閑, 今日故人來慟哭, 死生一路是龍山)”

산풍류' 개념을 도입하여 한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國文詩歌 方면의 '강호가도'일지라도 문예 이론상 그것의 미적 이념·미적 내용에까지 가면 韓國漢詩에서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며 다만 양식적인 면에서 그 문예미를 달리 논할 수 있을 뿐이라는 판단에서다.

강상사재 중, '계산풍류 계열'에는 홍재철, 조석우, 신석희를 배정하였다. 신석희에게서는 『위사시집』, 『위사시고』, 『위사시초』 등의 시집이 남아있으므로 오늘날 그의 詩風을 어느 정도 파악해내기에 충분한데, 그의 한시는 특히 京華士族의 분위기를 담은 화려한 名士風流의 성향이 짙다고 할 수 있겠다. 홍재철, 조석우의 경우는 안타깝게도 詩文集이 현전하지 않아 박문규 시에 첨부된 그들의 原韻 몇 수 만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시에서 난해한 부분도 있지만 江湖閒情을 읊은 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만약 後日 문집이 발견된다면 다른 성향의 한시가 수록되어있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예를 들어 홍재철은 1866년 말 丙寅洋擾가 발발하자 御命에 의해 畿輔慰撫使의 직책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때 우국적인 한시를 노래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추론해 보더라도 그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思料된다. 실제로 홍재철의 막객시인 박문규도 西洋戰艦이 강가에 침입하자 시에서 憂慮의 목소리를 냈지만 單發의일 뿐 지속성을 가지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병인양요 때 義勇軍으로서 衛正斥邪를 지지하였던 承命周의 문집 『正粹錄』의 1868년 승명주의 61세 술회 한시에 대해 홍재철이 차운한 祝壽詩에서도 승명주의 忠孝가 언급되긴 했으나 우국애민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재까지 살펴본 시에 근거하더라도 홍재철, 조석우도 신석희와 같은 溪山風流 계열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았다. 홍재철은 박문규의 패트런으로서 그를 飲中五仙으로 두텁게 후대하며 그 시를 감상하고 애호하였으므로 그러한 점에서도 계산풍류에 홍재철의 풍류적인 功勞가 있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한편으로 병인양요가 일어난 이듬해 1867년에 홍재철, 조석우, 신석희는 각자 龍山을 떠나 다른 곳으로 흩어졌으며 이후 寂寞해진 용산 한강가에 홀로 남아있던 강상사재는 김영작 뿐이었던 점은 김영작을 별도의 계열로 분류할 수 있는 이유들 중 한 요소가 되고 있다.

'우국애민 계열'로 분류한 김영작 老年의 憂國愛民詩는 그가 直面한 삼정의 문란이라는 '內憂'와 병인양요라는 '外患'을 스스로 간과할 수 없었고 이를 詩로 읊어내기 시작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는 絶句의 連作詩에서 가을 풀벌레의 天機와 자신의



志士의 心情을 표출하며, 순식간의 가을햇볕에 달려있는 나라의 豊凶 및 수 년 간 지속된 疫病과 三政에 시름하고 있는 萬民을 걱정하였다. 1866년 8월, 프랑스의 로즈 제독의 戰艦이 국경을 침범하여 강화도 甲津에서 흰 돛이 寅堡를 가리키고는 紅夷들이 매가 그려진 깃발을 휘날리며 총포소리를 울리는 상황을 提報하며 “가을을 느끼며 나라를 근심하고 情緒가 없으니(感秋憂國無情緒)”라 한 데서도 外勢의 침입에 가을을 슬퍼하며 憂國의 심정을 읊는 김영작의 지사적 면모를 살필 수 있다.

金永爵의 文學觀으로, 그는 박문규와 시에 대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나누며 “성정을 뚜렷이 드러내고/ 머물러 노닐며 경치를 사랑하네(刻露見性情, 流連愛光景)”라 하여 性情의 가치와 情景交融의 예술미를 피력하였다. 한편 그는 박문규와 시의 平仄, 聲調에 대해 논하며 杜甫의 四聲遞用과 관련된 시를 짓기도 하였고 清朝의 翰林學士 董文煥의 『聲調四譜』를 轉寫하기도 하였으며, 박문규의 시는 동문환에게서 극찬을 받기도 했다. 박문규가 김영작에게 처음 지어준 集句詩에는 두보의 시구가 대부분인데, 늘그막의 詩人 김영작은 실제로 두보의 시에 좀 더 다가서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영작이 홍재철에게 바친 五言古詩 「走筆呈厚齋(丁卯)」에서는, 양요 후 인적이 없어진 마을인데도 봄바람 불고 백가지 꽃들 피어나 봄이 어김없이 다가왔지만 詩人 자신은 나라를 걱정하는 憂國의 情緒를 떨쳐버릴 수 없다는 詩想을 띤다. 이는 시를 읽는 이로 하여금 두보의 「春望」을 떠올리게 하고, 그 형식은 古詩이면서도 對偶를 계속해서 이룸으로써 두보가 功을 들었던 五言排律과도 가깝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두보의 拗體를 본받기도 하였는데, 장차 三峰으로 떠나는 홍재철에게 拗體로 지어준 시의 頸聯에서는 “시절을 근심하느라 白髮이 되어 온통 눈을 이루었으며/ 늙음을 즐거워하며 靑山에는 비로소 산바람이 불어오네(憂時白髮盡成雪, 娛老靑山初破嵐)”라 하여 ‘憂時’의 정서를 금치 못하고 여전히 시에 담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영작의 憂國愛民 의식은, 그 詩의 根底에는 自然詩가 상당부분 바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 살펴본 김영작의 많은 시 역시 自然을 投影하고 있었으며, 洋夷에 대한 憂患意識도 그의 여타 시에서보다는 國亂을 함께하는 강상사재 및 박문규와의 交遊 內에서 이들과의 문학적 성취 속에 더욱 鮮明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內憂外患의 時期를 맞는 19세기 후반 舊韓末로 넘어오면서부터 김영작의 한시는 溪山風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憂國愛民의 문예미를 띠게 되었던 것으로 歸結된다. 그리고 바로 이점에서 계산풍류의 문예미는 우국애민의 문예미와 相補的

개념이 되고 있다고 보며, 江上四宰 漢詩는 文學史的 價値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近代로 나아가는 19세기 후반 경에 임하여, 이 시기의 漢詩가 역사와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스스로의 悠久한 문학적 전통을 여전히 有效하게 발휘하고 있었던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또한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 愛國啓蒙期 漢詩와의 유사점도 응당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참고문헌

『承政院日記』.

『哲宗實錄』.

『憲宗實錄』.

金永爵, 『邵亭詩稿』,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_\_\_\_\_, 『邵亭文稿』,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소장.

\_\_\_\_\_, 『存春軒詩鈔』(謄抄本), 中國 國家圖書館 소장.

朴珪壽, 『臚齋叢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6.

朴文達, 『天游詩集』,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_\_\_\_\_, 『天游集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承命周, 『正粹錄』, 아세아문화사, 『栖碧外史海外蒐佚本』 15, 1990.

申錫禧, 『韋史詩稿』,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_\_\_\_\_, 『韋史詩集』,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_\_\_\_\_, 『韋史詩草』, 고려대학교 한적실 소장.

申佐模, 『澹人集』, 민족문화추진회, 『한국문집총간』 309, 2003.

趙冕鎬, 『玉垂集』,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趙斗淳, 『心菴遺稿』, 민족문화추진회, 『한국문집총간』 307, 2003.

洪在喆, 『科宦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저자미상, 『赤虎記』, 아세아문화사, 『栖碧外史海外蒐佚本』 15, 1990.

성균관대학교 박물관(2009), 『근묵 槿墨 Geun Muk』,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이가원(1965), 『李朝名人列傳』, 乙酉文化社.

韓國人名大事典編纂室 編(1967), 『韓國人名大事典』, 新丘文化社.

- 朝鮮總督府中樞院 編(1937), 『朝鮮人名辭書』上, 下, 景仁文化社 影印, 1976.
- 崔成德 主編(1992), 『朝鮮文學藝術大辭典』, 長春: 吉林教育出版社.
- 강민호(2004), 「杜甫 排律의 成就에 對한 小考」, 중국어문학 제44집, 영남중국어문학회, 61~62면.
- 강석화(2003), 「조선 후기의 한강 진보 체제와 楊花鎮」, 『教會史研究』 제20집, 한국교회사연구회.
- 강전섭(1985), 「心庵 趙斗淳의 「景福宮營建歌」에 對하여」, 『韓國學報』 제11집, 일지사.
- 강재언(1994), 『한국근대사』, 한울.
- 강태훈(1990), 「朝鮮后期 書筵과 經筵의 教育内容 比較 — 肅宗~高宗을 中心으로」, 『教育研究』 제9집, 圓光大學校 教育問題研究所.
- 고순희(2008), 「〈景福宮營建歌〉 연구」, 『古典文學研究』 제34집, 한국고전문학회.
- 김동준(2013), 「韓國漢文學史에 표상된 中國 西湖의 전개와 그 지평」, 『한국고전연구』 제28집, 한국고전연구학회.
- 김명호(2005), 『초기 한미관계의 재조명 — 셔먼호 사건에서 신미양요까지』, 역사비평사.
- \_\_\_\_\_(2008), 『한재 박규수 연구』, 창비.
- \_\_\_\_\_(2013), 「조운제의 삶과 국문학 연구」, 『한국 근대 초기의 어문학자』, 태학사.
- \_\_\_\_\_(2001), 「玉垂 趙冕鎬의 〈西事雜絶〉前後篇에 대하여 — 丙寅·辛未洋擾의 詩的 形象化」, 『古典文學研究』 제20집, 한국고전문학회.
- 김문경(1994), 「西湖と不忍池」, 『俳諧と漢文學』, 汲古書院.
- \_\_\_\_\_, 「西湖在日韓 — 略談風景轉移在東亞文學中的意義」, 『東亞文化意象之形塑』 系列演講 발표논문, 2008년 7월 30일.
- 김세은(2000), 「고종초기(1864년~1873년)의 經筵」, 『진단학보』 제89집, 진단학회, 130면, 146면.
- 김용태(2008), 『19세기 조선 한시사의 탐색 — 옥수 조면호의 시 세계』, 돌베개.
- \_\_\_\_\_(2006), 「李是遠의 士意識과 利用厚生의 논리」, 『韓國實學研究』 제12집, 한국실학학회, 220면.
- 大韓民國文教部 國史編纂委員會 編(1970), 『高宗時代史 一』, 探求堂.
- 노대환(1997), 「1860~70년대 전반 조선 지식인의 대외인식과 洋務 이해」, 『韓國文化』 제20집,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327면.
- 백종기(1983), 『韓國近代史研究』, 博英社.
- 심경호(1997), 「水鍾寺와 조선 후기 문인」, 『韓國漢詩研究』 제5집, 한국한시학회, 45면.
- 오영교 편(2007), 『세도정권기 조선사회와 대전회통』, 해안.
- 이선근(1973), 『大韓國史 — 鎭國에서 開國으로(高宗-甲申政變)』, 新太陽社.

- 이은주(2011), 「朴文達의 集句詩集 『天游集古』 연구」, 『韓國漢詩研究』 제19집, 한국한시학회, 57~58면, 74면.
- 이종건(2003), 「近體詩의 篇法과 時調 歌辭 形式의 共通點 考察」, 『時調學論叢』 제19집, 한국시조학회.
- 이종묵(2001), 「16세기 한강에서의 宴會와 詩會」, 『韓國詩歌研究』 제9집, 한국시가학회.
- 이흥식·신석호·한우근·조좌호(1961), 『國史新講』, 一潮閣.
- 이희목(2005), 「애국계몽기의 漢詩」, 『애국계몽기 한시자료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_\_\_\_\_(2010), 「梅泉 黃玄의 山水詩 小考」, 『漢文學報』 제23집, 우리한문학회, 24면.
- 임형택(2006), 「國文詩의 전통과 陶山十二曲」, 『韓國文學史의 視角』, 창비, 52~53면.
- \_\_\_\_\_(2002), 「16세기 光·羅州 지역의 사람층과 송순의 시세계 — 溪山風流의 발전」, 『한국 문학사의 논리와 체계』, 창작과비평사, 161~162면.
- 정민(2002), 「16·7세기 조선 문인지식층의 江南熱과 西湖圖」, 『古典文學研究』 제22집, 한국 고전문학회.
- 조윤제(1937), 『朝鮮詩歌史綱(訂正版)』, 博文出版社.
- \_\_\_\_\_(1954), 『國文學史』, 東國文化社.
- \_\_\_\_\_(1962), 『國文學概說』, 東國文化社.
- \_\_\_\_\_(1987), 『韓國文學史』, 探求堂.
- 지용환(2011), 「朝鮮時代 西湖圖 研究」, 『美術史學研究』 제269집, 한국미술사학회.
- 최진원(발행년 불명), 『江湖歌道研究』, 발행처 불명, 영남대학교 도서관 소장.
- \_\_\_\_\_(1973), 「自然과 人間存在」, 『韓國思想大系 I — 文學·藝術思想篇』,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하영섭·황필홍(2009), 『漢詩作法의 定石』, 단국대학교출판부, 102~103면.
- 홍인희(2010), 「哲宗代 政局과 哲宗의 王權 確保 努力」,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6~36면.



# **한문과 교수·학습 방법 사례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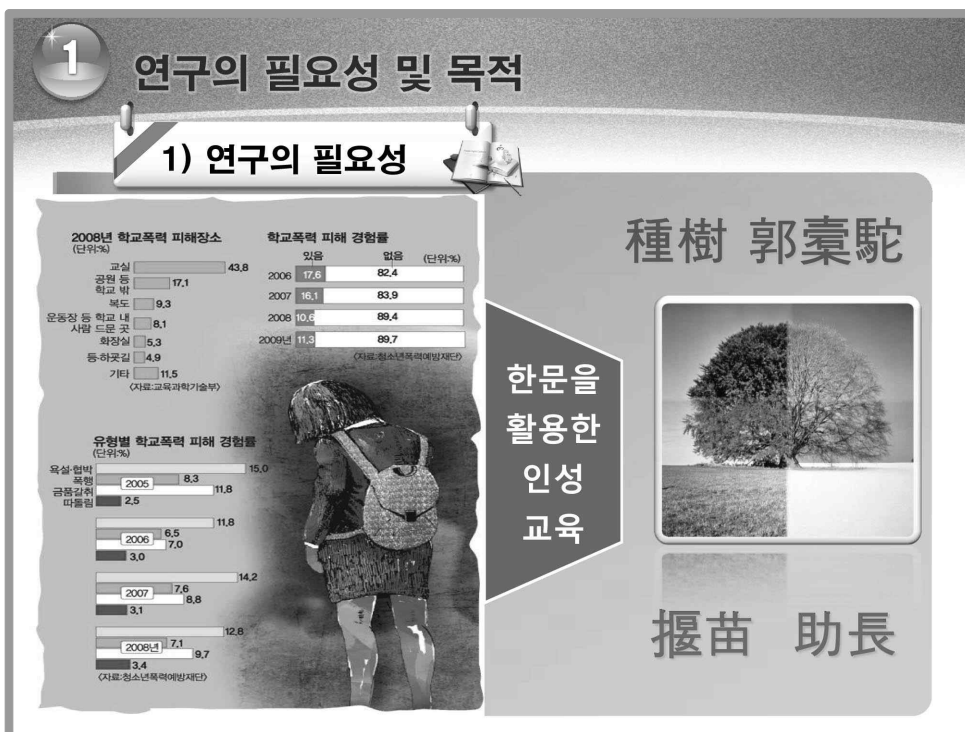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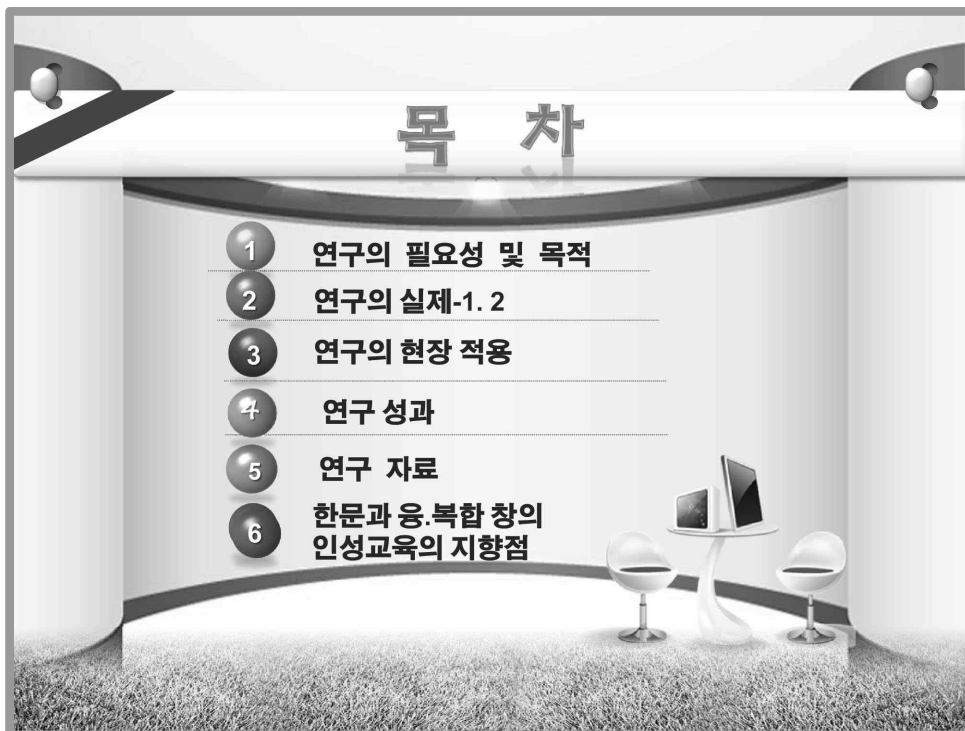


## 한문과 융·복합 창의 인성 교수 학습 사례

김 은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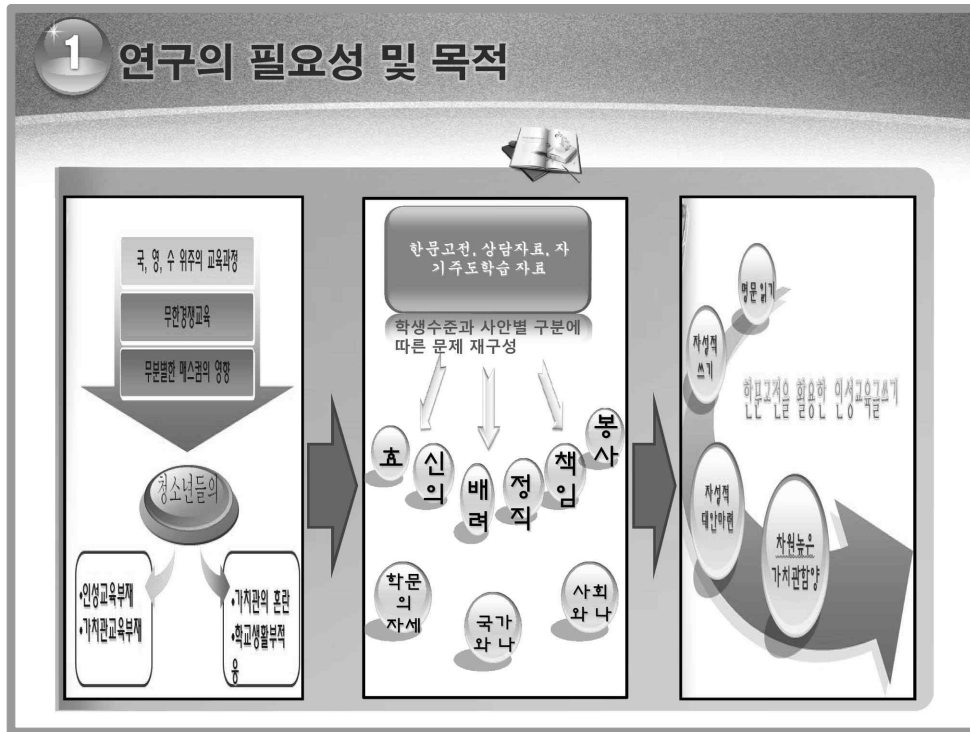


\* 대진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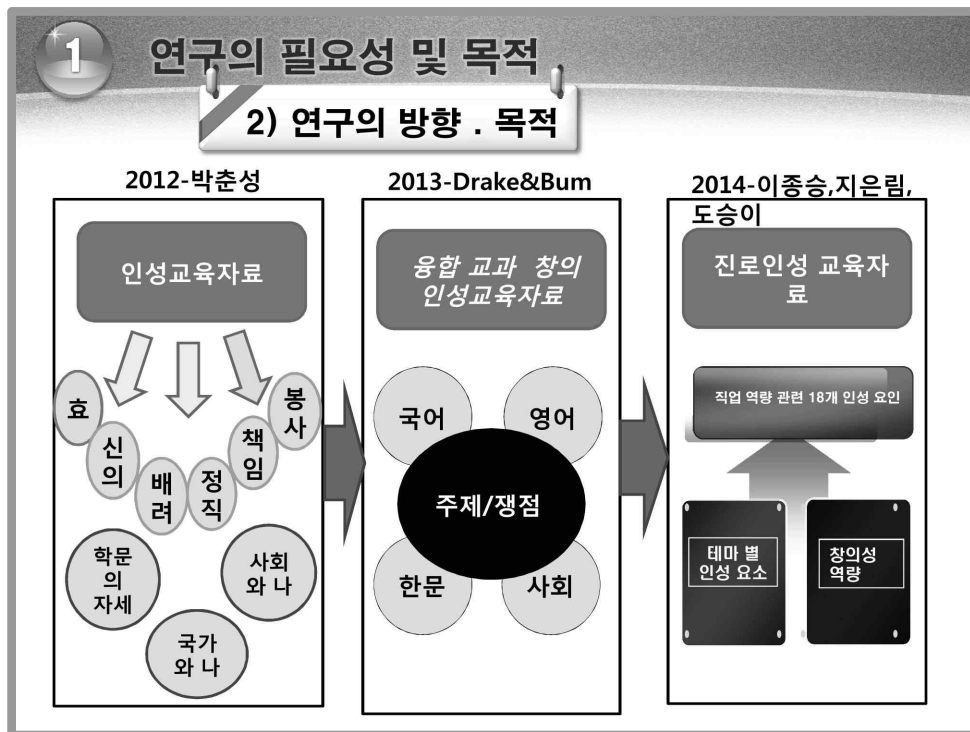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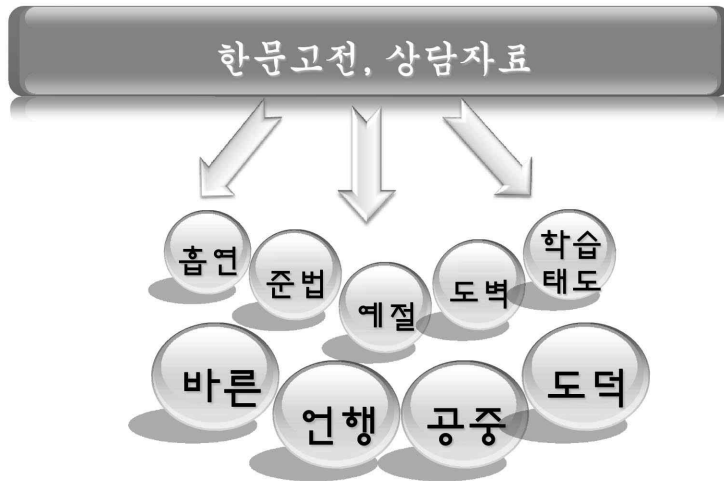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의 방향 . 목적



## 2 연구의 실제-1

### 1) 중학인성교육 책자 및 특별교육자료-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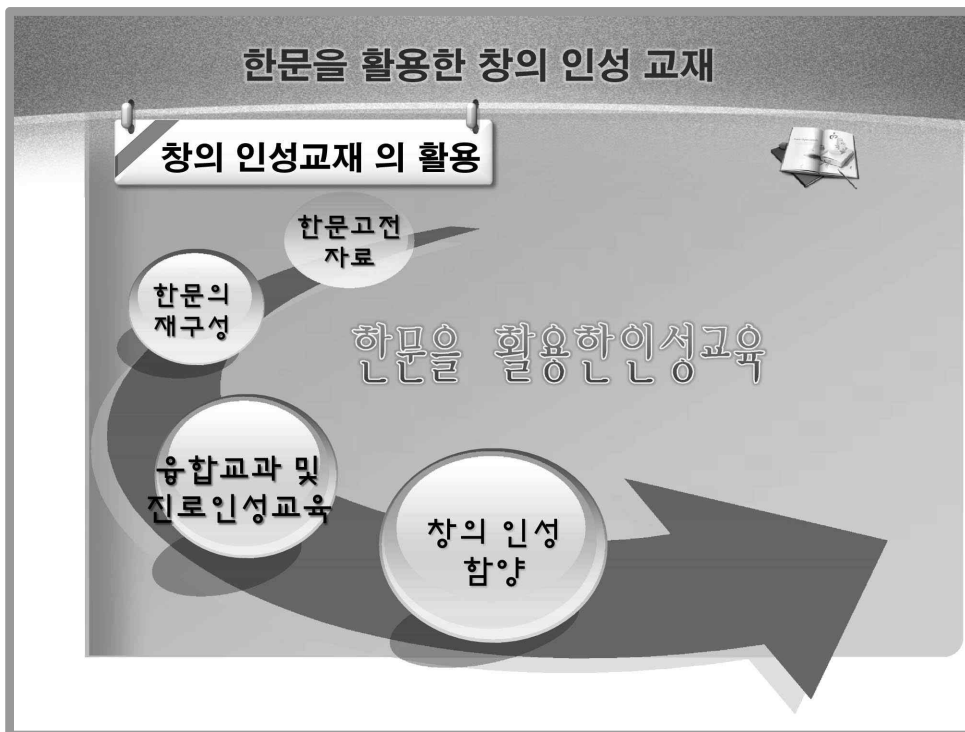
## 2 연구의 실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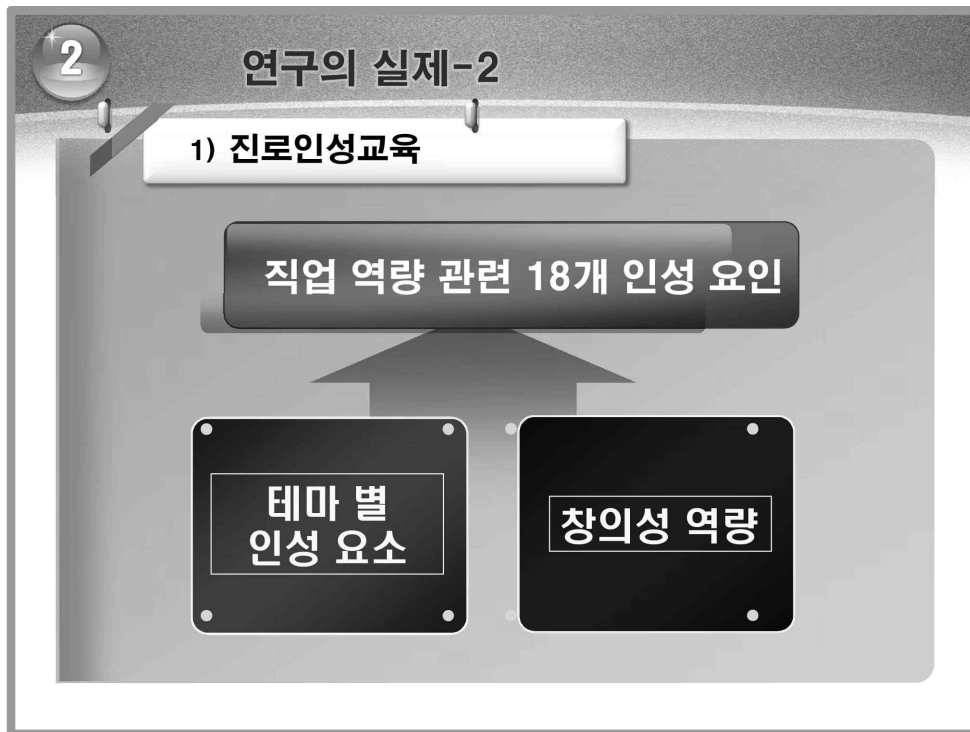
### 2) 창의 인성 교육 자료 - 2013년

소학, 사자소학, 명심보감, 채근담, 논어, 맹자, 사기, 통감, 사자성어, 한문10종 교과서등

학생수준과 사안별 구분에 따른 문제 재구성







### 3

## 연구의 현장 적용

2011

연번	장학지원 일시	내용
1	2011.5.13	목일중학교
2	5.20	증산중학교
3	6.29	장원중학교
4	7.4	재현중학교
5	9.12	양천고등학교
6	10.5	한산중학교
7	10.7	서울고등학교
8	10.12	난우중학교
9	10.27	덕산중학교
10	10.29	창동중학교
11	11.15	덕산중
12	11.21	창동중
13	11.22	명지고
14	12.2	오주중
15	12.5	청원여고

2012

연번	장학지원 일시	내용
1	2012.5.9	재현고
2	5.22	중대부고
3	5.24	상명중
4	5.25	상계고
5	5.29	고대부고
6	6.5	풍문여고
7	6.11	염광고
8	6.13	성동고
9	6.26	환일고
10	6.28	한광고
11	7.9	경희여고
12	9.18	등촌중
13	9.25	중계중
14	9.26	문화고
15	10.16	동양고
16	10.23	북공고
17	10.30	진선여고
18	11.27	한양공고
19	12.11	양천고

2013

연번	장학지원 일시	내용
1	2013.6.12	염광고
2	6.26	재현고
3	7.17	경인고
4	9.23	도봉고
5	10.16	대원외고
6	10.23	광신고
7	10.24	덕성여고

2014

연번	장학지원 일시	내용
1	2014.6.12	경복고
2	7.9	염광고
3	9.16	재현고
4	9.20	청원여고

### 3

## 연구의 적용 현황

2011~2014 중등인성 컨설팅장학위원 (55개교 컨설팅)

2011~2013 창의 인성 동아리 팀장 (2011년 인성부문 대상)

2012, 2013년 국회 위즈덤 교육포럼 창의 인성교육 논문 2회 발표

2012년 중학 성찰교실 인성교육 프로그램 집필 및 350개교 생활 지도부장, 상담부장 연수(서울시교육정보원)

2012년 특별교육 자료집 개발 및 서울 11개 지역 교육청 담당자 750개교 연수(서울특별시교육청)

2013~2014년 창의 인성 책자 및 융합교과 창의 인성 시연수업

## 연구의 적용 현황

**① 중앙일보**

중앙일보 2012년 5월 2일 수요일

열려라 공부 S7

'지루한' 한문 수업' 편견 깨 서울 대진고

과탐 속 한자어 노래 만들어 부르고, 만화·뉴스 보며 뜻 이해 도와

[illegible][illegible]

고전 철학하면 논문을 전개 내용 같아지는 것을 매우 고전을 활용하면 인용되어 있는 글들을 찾아 고전 속 고전들을 별로 분해하면 있다는 의미는, 때로는 나, 첫째는 학문을 한다는 자세, 둘째는 공평한 의식으로 다뤄야, 이가 가장 중요하고요 있다면 어떤 논문 주제가 나 자신으로 논문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사의 정경이다.

그 "자율"은 논문을 쓴다는 것이 상상하고 고전과 인간에 대한 교육은 정말 대 "논문을 쓰는 수단이 될까" 같은 어떤의 생각이 아니라, 것을 보며 쓰는, 어떻게든 고전과 인간 교육에 시도하고 싶다.

출판도 책과 관련된 사상이자 지식으로 융합해 나가고 그 융합에 있는 고전을 통해 인간의 삶을 위한 목적을 지향

[illegible]

만민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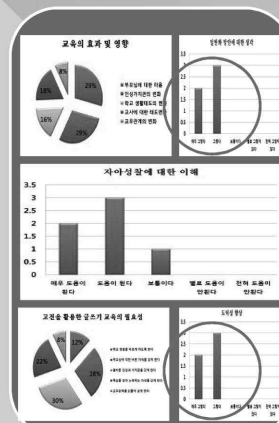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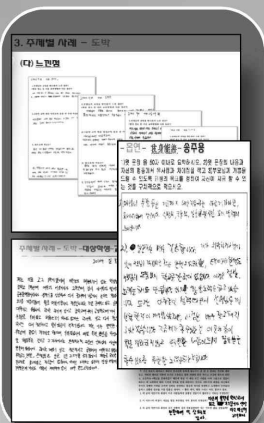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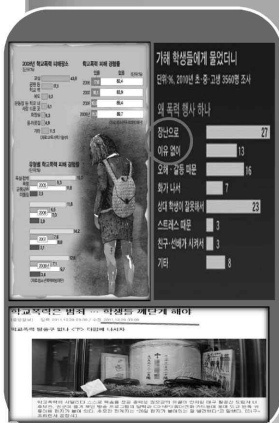


김경희 교사

212

## 4

## 연구 성과-2011년



③. 부모님께 기쁨을 드릴라 면 학교에서  
이런과 같은 일을 하면 안 되고 밖에서도  
사고를 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럴라 면 학교  
생활을 못하로 하고 밖에서 사고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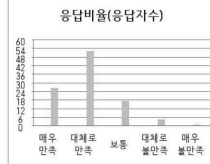
### 1) 중학인성 교육 및 특별교육 내용구성

차시	내용	출처
바둑 이해 2차	부도일과 신성일의 영작을 공감하는 마음, 공감을 영작 자기 수양의 출발	四子小學 小學 論語
바둑 이해 3차	남다른 나를 발견 눈은 나무에 올라간 지식 부도일과 신성일의 운명	論語 四子小學 小學
바둑 이해 5차	착한 본성의 회복 사부와 존경의 실천 나를 이해해 주시오 정원 스승의 가르침	論語 論語 小學 古文選
예비 1차 공통도제 2차시	효도는 모든 행동의 바탕 착한 일을 행하는 것	孝經 孝經
예비 2차 공통도제 3차시	포유과 이해 서로 화합하는 마음 일만년 국은 영구한 위	史記, 史記 孟子 國朝雜學
예비 2차 공통도제 5차시	대화를 사는 삶 흔들린 마음 흔들기 올바른 사물인식 물어보는 순례	漁菴雜學 易經 論語 春秋左氏傳
한글 2차시	한글로 나를 알아주는 법 친한 사람만 찾아다니는 법	史記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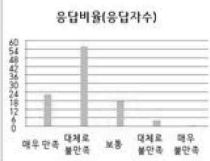
## 1. 인성교육 프로그램 책자를 사안별로 구성한 것은 적절합니까?

설문문항	응답비율(응답자수)
매우 만족	26.2%( 38 명)
대체로 만족	51.8%( 75 명)
보통	17.2%( 25 명)
대체로 불만족	4.1%( 6 명)
매우 불만족	0.7%( 1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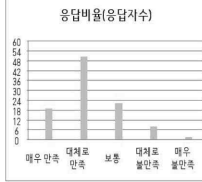
## 2. 인성교육 프로그램 책자는 활용하기가 편리하게 구성되었습니까?

설문문항	응답비율(응답자수)
매우 만족	22.1%( 32 명)
대체로 만족	55.9%( 81 명)
보통	17.3%( 25 명)
대체로 불만족	4.0%( 6 명)
매우 불만족	0.7%( 1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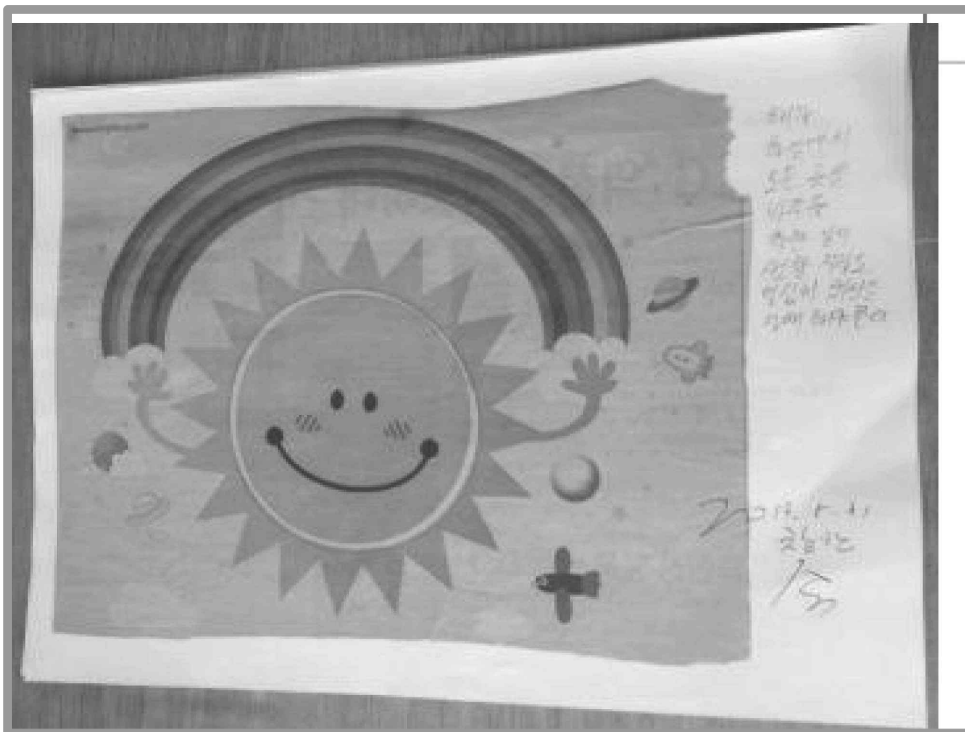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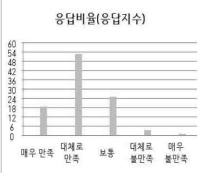
## 3.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내용이 성실교실에서 활용하기에 적절합니까?

설문문항	응답비율(응답자수)
매우 만족	18.6%( 27 명)
대체로 만족	50.3%( 73 명)
보통	22.1%( 32 명)
대체로 불만족	7.6%( 11 명)
매우 불만족	1.4%( 2 명)



## 4.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강의 내용이 책자활용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설문문항	응답비율(응답자수)
매우 만족	18.6%( 27 명)
대체로 만족	52.5%( 76 명)
보통	24.8%( 36 명)
대체로 불만족	3.4%( 5 명)
매우 불만족	0.7%( 1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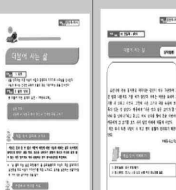







## 연구 자료

연구과제 : 한문을 활용한 창의·인성 교재  
교수·학습과정안 개발

2013

구 분	단원의 개관	창의 인성 수업 교재 / 학습과정안	관련 동영상 자료	학생 활동지	학생활동 결과물																																										
	<table border="1"> <thead> <tr> <th>차시</th> <th>주제</th> <th>주요내용</th> <th>주요활동</th> <th>평가</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차시</td> <td>인성교육의 필요성</td> <td>인성교육이란 무엇인가? 인성교육의 필요성</td> <td>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기</td> <td>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기</td> <td></td> </tr> <tr> <td>2차시</td> <td>인성교육의 내용</td> <td>인성교육의 내용</td> <td>인성교육의 내용에 대해 발표하기</td> <td>인성교육의 내용에 대해 발표하기</td> <td></td> </tr> <tr> <td>3차시</td> <td>인성교육의 방법</td> <td>인성교육의 방법</td> <td>인성교육의 방법에 대해 발표하기</td> <td>인성교육의 방법에 대해 발표하기</td> <td></td> </tr> <tr> <td>4차시</td> <td>인성교육의 효과</td> <td>인성교육의 효과</td> <td>인성교육의 효과에 대해 발표하기</td> <td>인성교육의 효과에 대해 발표하기</td> <td></td> </tr> <tr> <td>5차시</td> <td>인성교육의 과제</td> <td>인성교육의 과제</td> <td>인성교육의 과제에 대해 발표하기</td> <td>인성교육의 과제에 대해 발표하기</td> <td></td> </tr> <tr> <td>6차시</td> <td>인성교육의 결론</td> <td>인성교육의 결론</td> <td>인성교육의 결론에 대해 발표하기</td> <td>인성교육의 결론에 대해 발표하기</td> <td></td> </tr> </tbody> </table>	차시	주제	주요내용	주요활동	평가	비고	1차시	인성교육의 필요성	인성교육이란 무엇인가? 인성교육의 필요성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기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기		2차시	인성교육의 내용	인성교육의 내용	인성교육의 내용에 대해 발표하기	인성교육의 내용에 대해 발표하기		3차시	인성교육의 방법	인성교육의 방법	인성교육의 방법에 대해 발표하기	인성교육의 방법에 대해 발표하기		4차시	인성교육의 효과	인성교육의 효과	인성교육의 효과에 대해 발표하기	인성교육의 효과에 대해 발표하기		5차시	인성교육의 과제	인성교육의 과제	인성교육의 과제에 대해 발표하기	인성교육의 과제에 대해 발표하기		6차시	인성교육의 결론	인성교육의 결론	인성교육의 결론에 대해 발표하기	인성교육의 결론에 대해 발표하기					
차시	주제	주요내용	주요활동	평가	비고																																										
1차시	인성교육의 필요성	인성교육이란 무엇인가? 인성교육의 필요성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기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기																																											
2차시	인성교육의 내용	인성교육의 내용	인성교육의 내용에 대해 발표하기	인성교육의 내용에 대해 발표하기																																											
3차시	인성교육의 방법	인성교육의 방법	인성교육의 방법에 대해 발표하기	인성교육의 방법에 대해 발표하기																																											
4차시	인성교육의 효과	인성교육의 효과	인성교육의 효과에 대해 발표하기	인성교육의 효과에 대해 발표하기																																											
5차시	인성교육의 과제	인성교육의 과제	인성교육의 과제에 대해 발표하기	인성교육의 과제에 대해 발표하기																																											
6차시	인성교육의 결론	인성교육의 결론	인성교육의 결론에 대해 발표하기	인성교육의 결론에 대해 발표하기																																											

[illegible]

## 1. 국어과 창의 인성교육

[illegible]

## 2. 영어과 창의 인성교육

『주문공권학문』

창의 영어 인성 학습 지도안

[illegible]

### CHALLENGE QUESTIONS

- What is the main idea of this passage? (you will get one point)
- What is the author's purpose in writing this passage? (you will get one point)
- What does the author think about the subject, and how does he/she feel about it? (you will get one point)
- What is the author's attitude towards the subject? (you will get one point)

### 友誼



1. What is the main idea of this passage?

2. What is the author's purpose in writing this passage?

3. What does the author think about the subject, and how does he/she feel about it?

4. What is the author's attitude towards the subject?

### 禮仁信義義



1. What is the main idea of this passage?

2. What is the author's purpose in writing this passage?

3. What does the author think about the subject, and how does he/she feel about it?

4. What is the author's attitude towards the subject?

1. What is the main idea of this passage?

2. What is the author's purpose in writing this passage?

3. What does the author think about the subject, and how does he/she feel about it?

4. What is the author's attitude towards the subject?

## 사회과 적용 학생 활동 결과물

### 3. 사회과 창의 인성교육

『孟子』梁惠王 與民偕樂후의 맹자(孟子)께서 왕(梁惠王)을 만나셨는데, 왕(王)이 늙 가에 서서 크고 작은 기러기와 크고 작은 새들을 돌아보면서 “현량(賢良)한 사람 역시 이런 것을 즐기니까?” 하고 말했다. 맹자(孟子)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현량(賢良)한 사람이 된 후에야 이런 것을 즐깁니다.** 현량(賢良)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즐기게 되지 않습니다. 시(詩)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영대(鷹犬)의 기지(基地)를 계기 시작하였나니, 제고서 그 둘레에 표를 하였다. 여러 사람들 그것을 지어 날짜의 기약도 없이 그것을 완성시켜 놓았다. 기지(基地)를 깨며 서두르지 말도록 하였으나 여러 사람들 자식들 같이 모여 왔다. 왕(王)이 영유(鷹犬)에 있으면 왕사슴 얻드려 있으나, 왕사슴은 윤이 들고 백조(白鳥)는 희디희다. 왕(王)이 영소(鷹犬)에 있으면 아이, 그득하니 물고기를 뛰어오른다. **문왕(文王)은 국민의 힘을 가지고 대(德)를 만들고 높을 만들고 하였으나 국민들은 그것을 기쁘고 즐겁게 여겨 그 대(德)를 열대(德)라고 불렀고, 그 높을 영소(鷹犬)라고 불렀으며, 거기에 크고 작은 새들, 물고기와 자라들이 있는 것을 즐겨워하였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국민들과 함께 즐겼기 때문에 즐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탕서(湯)에 ‘이 해는 어느 때가 되어야 없어지려나? 나는 너와 함께 죽어버리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국민들이 함께 죽어 버리기를 원한다면, 대(德)와 뜻과 새와 짐승이 있다 한들 어찌 혼자서 즐길 수 있었습니까?”

#### 사회과 창의 인성 지도안

구분	주제	내용	비고
1차시	사회과 창의 인성 교육의 필요성	사회과 창의 인성 교육의 필요성	
2차시	사회과 창의 인성 교육의 방법	사회과 창의 인성 교육의 방법	
3차시	사회과 창의 인성 교육의 결과	사회과 창의 인성 교육의 결과	

#### 활동 결과물



## 미술과 적용 학생 활동 결과물

### 4. 미술과 창의 인성교육

내 몸이 약하면 욕됨이 부모님께 이르고,  
내 몸이 선하면 명예가 부모님께 이른다.  
새벽에 반드시 먼저 일어나고 저물면 모름지기 뒤에  
잠들려라.  
아버지 앞에 계시면 다른 사람에게 성내어 꾸짖지 말  
라.  
스승께서 정성으로 가르치시거든 스승의 가르침을  
거역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곡식으로 공부하게 해주시거든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말라.  
아버지 섬기기를 이같이 하면 사람이라 말할 수 있고,  
이와 같지 못하면 짐승과 다름이 없다.

『사자소학』

#### 미술과 창의 인성 관련 활동

구분	주제	내용	비고
1차시	미술과 창의 인성 교육의 필요성	미술과 창의 인성 교육의 필요성	
2차시	미술과 창의 인성 교육의 방법	미술과 창의 인성 교육의 방법	
3차시	미술과 창의 인성 교육의 결과	미술과 창의 인성 교육의 결과	

#### 활동 사진 및 작품



## 한문과 적용 학생 활동 결과물

### 5. 창체과 창의 인성교육

#### ▶ V. 도덕성 회복 - 2차시

##### 작한 본성의 회복

##### 도덕(道徳)

중국의 유학자 장이천 선생이 이렇게 말하였다.  
“옛 성인들의 말은 모든 사람들이 내릴까진, 천으로부터 저마다 받은 학한 본성을 찾아오게 하며, 그 학한 본성을 회복하도록 하는 말씀들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공부를 통해 스스로 학한 본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것은 먼저 일상을 속여서 일어난 실천을 함으로써 하늘의 이치(리)를 내게 준 학한 본성을 깨닫게 한다는 말이다.”

『소학』

##### ◆ 역임 단어 이해하기

- ▷ 도덕(道徳): 위로부터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및 그에 맞는 행위.
- ▷ 본성(本性): 사람이 본디부터 가진 성질, 천성(天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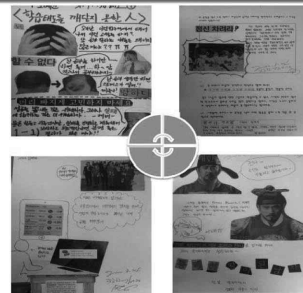
##### ◆ 내용 이해하기

1. 위 글을 읽고 깨끗하게 타고난 학한 본성을 잃거나 그릇으로 자유롭게 표현해 보세요.
2. 위 글의 내용을 이해하여 자신의 생각을 간단한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 한문고전을 활용한 창체 수업 지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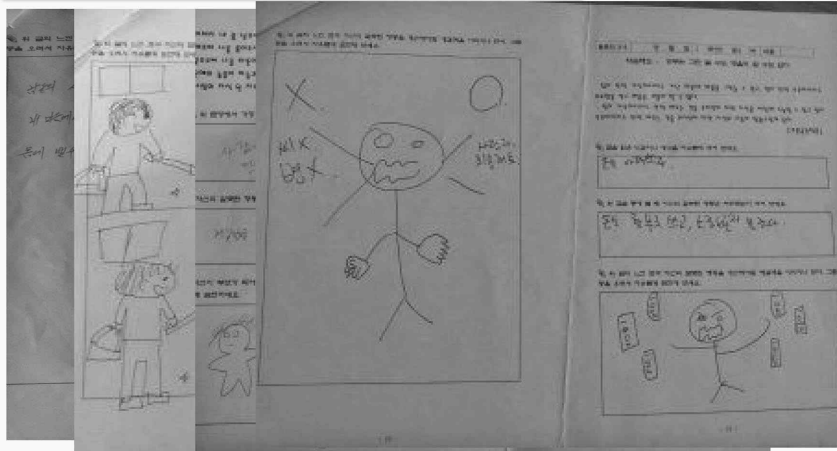
수업명	학문
창의적체험활동 영역	인성교육, (진로교육), 창의성교육
차시	1, 2, 3, 4, 5, 6, 7차시 / 총 7차시
인성교육 덕목	효, 신의, 배려, 정직, (책임), 봉사, (학문의 자세), 도덕적 책임, (사회와 나), (공동체 의식)
창의적 교육 요소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창의적 표현력, (합리적 사고력), 융합 능력, 의사 결정력, 탐구 능력, (사회 적응 능력), (균형성)

#### 학생 활동 결과물



## 학생 동아리 활동 결과물

### 1. 대진고등학교 자치법정 D-court





## 연구 효과(인성교육 효과)

### 2011 -중등 인성 성찰 교실 매뉴얼 자료집

### 학생 결과물

2011년 1학기

▶ 2011학년도 1학기 인성교육 활동 결과물 사진  
교과별 수업활동, 체험 활동, 학교생활 기록부, 1학기 2학기  
활동결과물 등 학교 기록부와 2학기 1학기 활동결과물  
자료집

▶ 2011학년도 2학기 인성교육 활동 결과물 사진  
교과별 수업활동, 체험 활동, 학교생활 기록부, 2학기 1학기  
활동결과물 등 학교 기록부와 2학기 1학기 활동결과물  
자료집

2011년 2학기

▶ 2011학년도 2학기 인성교육 활동 결과물 사진  
교과별 수업활동, 체험 활동, 학교생활 기록부, 2학기 1학기  
활동결과물 등 학교 기록부와 2학기 1학기 활동결과물  
자료집

### 교과

### 2012 -중학 성찰교실 인성교육 프로그램

### 학생 결과물

2012년 1학기

▶ 2012학년도 1학기 인성교육 활동 결과물 사진  
교과별 수업활동, 체험 활동, 학교생활 기록부, 1학기 2학기  
활동결과물 등 학교 기록부와 2학기 1학기 활동결과물  
자료집

2012년 2학기

▶ 2012학년도 2학기 인성교육 활동 결과물 사진  
교과별 수업활동, 체험 활동, 학교생활 기록부, 2학기 1학기  
활동결과물 등 학교 기록부와 2학기 1학기 활동결과물  
자료집

### 교과

### 2013 -창의 인성 교재

### 학생 결과물

2013년 1학기

▶ 2013학년도 1학기 인성교육 활동 결과물 사진  
교과별 수업활동, 체험 활동, 학교생활 기록부, 1학기 2학기  
활동결과물 등 학교 기록부와 2학기 1학기 활동결과물  
자료집

2013년 2학기

▶ 2013학년도 2학기 인성교육 활동 결과물 사진  
교과별 수업활동, 체험 활동, 학교생활 기록부, 2학기 1학기  
활동결과물 등 학교 기록부와 2학기 1학기 활동결과물  
자료집

### 교과

## 연구 자료

## 2013~14년 한문을 활용한 창의 인성교재 구성

[illegible][illegible]

## 2013.14년 한문을 활용한 창의 인성교재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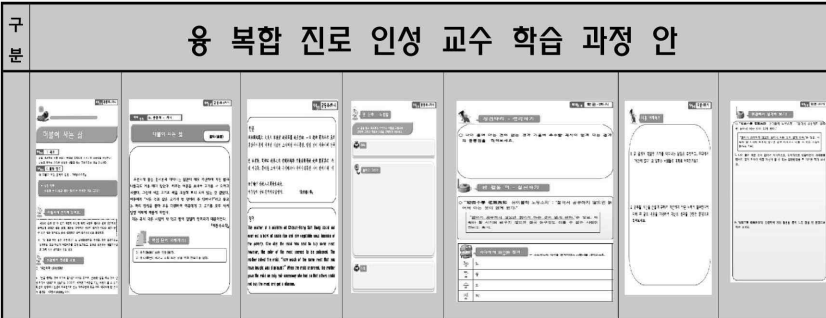
[illegible][illegible]

## 2013.14년 한문을 활용한 창의 인성교재 구성

[illegible][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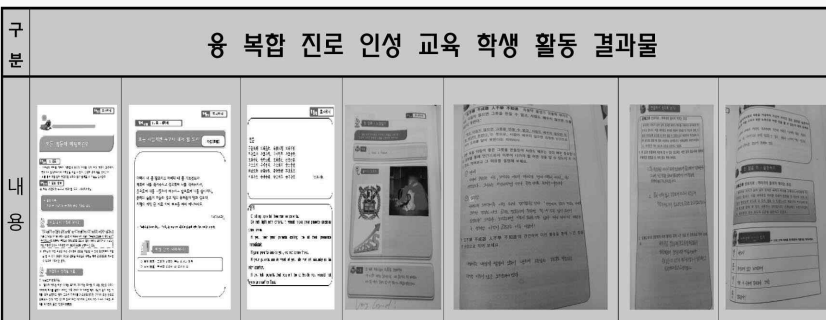
연구과제: 한문을 활용한 융·복합 진로 인성  
교수 학습 과정 안

2014



연구과제: 창의 인성 교재를 활용한 융·복합 진로 인성 교육 학생 결과물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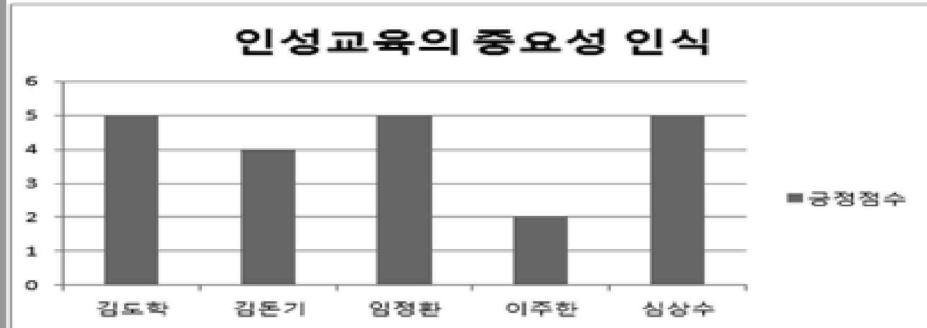




## \*융복합 진로 인성교육 학생 설문조사

### 1.창체시간 한문고전을 활용한 인성(창의성)교육에 대한 학생 인식

#### 1.인성교육의 중요성 인식



김도학 :나의 인성이 좋아진 것이 느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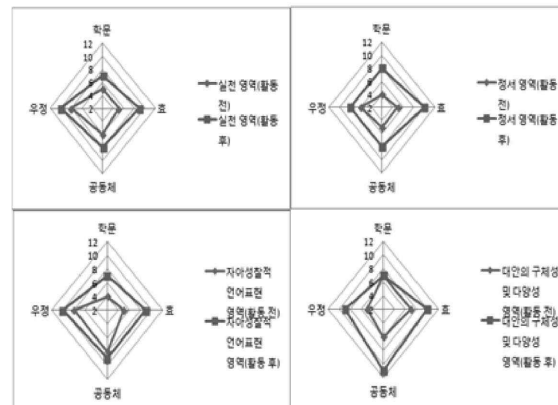
김돈기 : 우리가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았던 도덕적 가치를 인식하게 되었다.

임정환 :인성교육을 통해 나의 모습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주한 : 반복되고 흔히 들던 말로 감흥이 없어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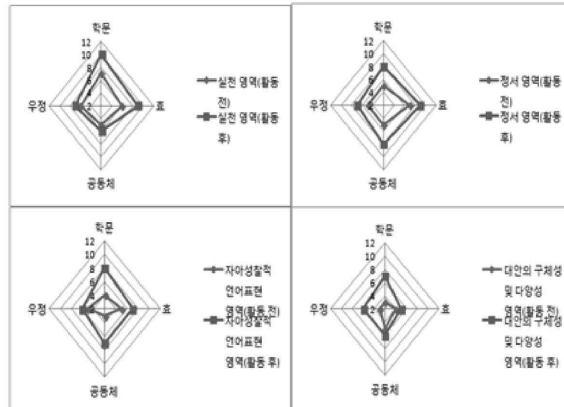
심상수 : 인성교육을 통해 나의 모습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김도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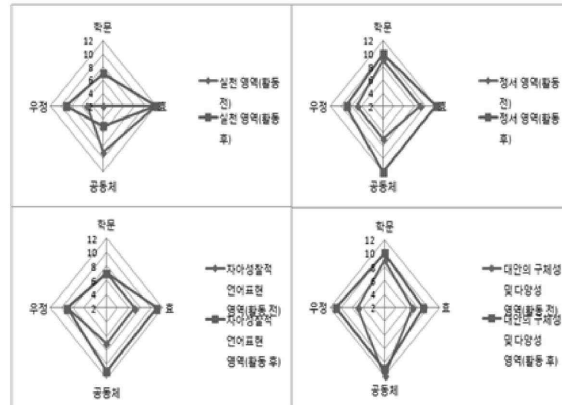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수치가 전체적으로 상승하였다.

### 김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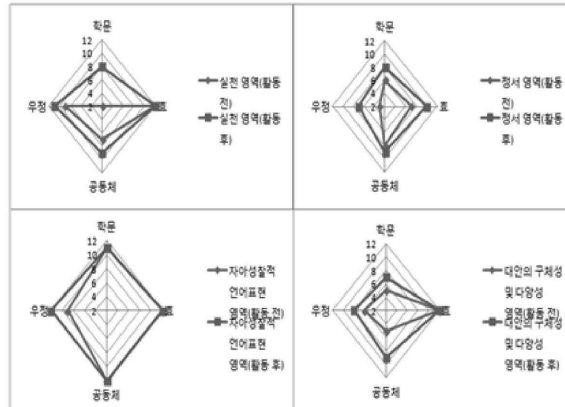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수치가 뚜렷하게 상승하였다. 특히 자아성찰적 언어표현 영역과 대안의 구체성 영역에서 이것이 두드러진다.

### 임정환



전체적인 영역에서 유지, 혹은 상승의 모습을 보였다. 특이한 점은 실천 영역에서 수치가 오히려 줄어든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 이주한



전체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며 이는 자아성찰적 언어표현 면에서 두드러진다. 실천 영역에서의 괄목할만한 수치 상승이 눈에 띈다.

## 진로인성 세부능력 특기사항란

### 21401장재호

장래 희망은 엔지니어로 지망하는 학과는 기계공학과이며 2학년 때 물리과목에 힘쓰고, 기계공학과와 연관된 물리과목 성적의 향상을 이룬. 창·체 한문 진로인성 융합교육 토론수업시간에 조장의 역할을 하며 남을 배려하는 자세를 익혔으며 함께 협동하는 자세를 배우게 됨. 창·체 한문 진로인성 융합교육 수업시간 1차시 사자소학의 내용을 외우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이를 통해 배려하는 자세를 익혀 엔지니어의 꿈을 다지게 되었으며, 2차시 주문공의 권학문을 외우면서 학업의 과정에 필요한 인내의 자세를 통해 엔지니어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진정한 노력의 자세를 인식하여 실천하게 되었으며, 3차시 맹자의 불만 지심의 문장을 외우고 익혀 참되고 바른 품성을 바탕으로 성실한 노력의 자세를 인식하여 실천하게 되었으며, 4차시, 5차시 사기의 계합패검의 내용과 판포지교의 내용을 배우면서 신의의 중요성을 깨닫고 애국을 바탕으로 한 진로 방향의 대해 생각하고 6차시 삼국사기의 김유신전의 문장을 통해 꿈의 실현을 통하여 사회적인 역할을 구체화 하게 됨.

### 21402김상원

장래 희망은 기계공학자로 지망하는 학과는 컴퓨터공학과이며 2학년 때 국어 과목에 힘쓰고, 컴퓨터공학과와 연관된 수학과목 성적의 향상을 이룬. 창·체 한문 진로인성 융합교육 수업시간 토론수업에 기록자 역할을 하며 조별활동에서 리더로서 올바른 자세를 익혔으며 구성원으로 책임감을 배우게 됨. 창·체 한문 진로인성 융합교육 수업시간 1차시 사자소학의 내용을 외우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이를 통해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자세를 익혀 기계공학자의 꿈을 더욱 다지게 되었으며, 2차시 주문공의 권학문을 외우면서 학업의 과정에 필요한 인내의 자세를 통해 기계공학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노력의 자세를 인식하여 실천하게 되었으며, 3차시 맹자의 불만 지심의 문장을 외우고 익혀 참되고 바른 품성을 바탕으로 참된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자세를 인식하여 실천하게 되었으며, 4차시, 5차시 사기의 계합패검의 내용과 판포지교의 내용을 배우면서 신의의 중요성을 깨닫고 믿음을 바탕으로 한 진로 방향의 대해 생각하게 됨. 6차시 삼국사기의 김유신전의 문장을 통해 꿈의 실현을 통하여 사회적인 역할을 구체화 하게 됨.



## I. 입시 환경의 변화

### 인성교육 강화 (한문과 진로인성교육 방안제시)

2017학년도(고2) 대입 전형부터 인성평가 내실화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대학 참여 유도



※ 2015/01/22 교육부 발표

#### 인성평가 내실화

- 대입에서 인성 평가 확대 반영 유도  
(사범대, 교대 중심 확대)
- 학생부종합전형 인성 관련 면접  
강화 예상

#### 체육·예술 교육 활성화

- 고교 전 학기 체육수업 실시(?)
- 스포츠클럽, 예술동아리 등 학  
교예술 교육지원

6

## 한문과 융·복합 창의 인성 교육의 지향점



6

## 한문과 융·복합 창의 인성 교육의 지향점

인성(창의성)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도록 돕는것

정치로 이끌고 형벌로 제재하면 죄만 면하고 부끄러움이 없게 된다.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以無恥.



덕으로 이끌고 예의로 이끌면 부끄러움도 있고 법도 지키게 된다.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





# 한문과 창의·인성 교수·학습 사례\*

오 예 승\*\*

## •目次•

- |                            |                        |
|----------------------------|------------------------|
| I. 緒言                      | IV. 창의·인성 교수·학습 사례     |
| II. 한문과 창의·인성 교육           | 1. 심미적 감성을 높이는 사례      |
| 1. 한문과 교과 역량과 창의·인성 교육 요소  | 2. 자기관리 능력을 높이는 사례     |
| 2. 창의·인성 한문 수업 내용 체계·목표 모형 | 3.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사례      |
| III. 연구 적용의 일반             | 4. 의사소통능력을 높이는 사례      |
| 1. 적용 대상                   | 5. 창의·융합 사고 능력을 높이는 사례 |
| 2. 적용 시기                   | 6. 정보처리 능력을 높이는 사례     |
| 3. 한문과 창의·인성 수업 개관         | V. 結言                  |

## I. 緒言

최근 교육은 ‘따뜻한 인성과 올바른 판단력을 가진 창의적 인재 육성’에 방향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의 근본 목적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다.<sup>1)</sup> 미래 사회는 다양한 학문과 기술들이 융합되어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sup>2)</sup> 따라서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융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창의력’이 중요시된다. 그러나 창의력이 바른 방향으로 쓰이기 위해서

\* 이 연구는 필자가 2013년에 발표한 「집중이수제 기반의 창의·인성 한문 수업 사례」의 후속 연구의 성격을 갖는다.

\*\* 송내중앙중학교

1) 창의·인성 교육 기본방향, 2009.12. 교육과학기술부, 1면.

2) 교육과학기술부(2009), 창의와 배려의 조화를 통한 인재 육성(창의·인성 교육 기본 방안), 1쪽 참고.

는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의 양성은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이에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인성 교육’<sup>3)</sup>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으며, 최근 발표된 2015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서는 학교교육을 통해 인문학적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지향하고 있다<sup>4)</sup>고 밝혔다.

그렇다면 한문과 수업에서는 어떻게 창의·인성 역량을 키울 수 있을까? 창의성이나 인성 요소와 관련된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는 것만으로 학습자가 실질적인 역량을 획득하기란 제한적이다. 학습자가 텍스트를 ‘읽고’, ‘풀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자신의 언어로 ‘이해’하고 ‘감상’하며 나아가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체험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습자의 창의·인성 함양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한문과 교과역량과 창의·인성 요소를 살펴보고,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한문과 수업 내용 체계·목표 모형을 제시하겠다. 연구자가 실행해 본 창의·인성 교수·학습 사례를 한문 교과 역량별로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실제 현장에서 실천되고 있는 창의·인성 한문 수업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통해 현장 교사들의 수업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II. 한문과 창의·인성 교육

### 1. 한문과 교과 역량과 창의·인성 교육 요소

최근 교육계의 흐름은 ‘지식 전달’ 보다는 미래사회 필요한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방

3) 교육부에서는 창의·인성 교육이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동시에 더불어 살 줄 아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2009), 창의와 배려의 조화를 통한 인재 육성(창의·인성 교육 기본 방안), 7쪽.

4) 김영수(2015.5), 2015 한문과 교육과정 시안 검토를 위한 공개 토론회 환영사, 연구자료 ORM 2015-3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 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표방하고 있다.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시안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의사소통 능력’, ‘창의·융합 사고 능력’, ‘정보처리 능력’, ‘자기관리 능력’, ‘공동체 의식’, ‘심미적 감성’의 6가지 핵심역량을 제시하였다. 교과역량 요소와 의미, 하위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문 교과 역량 요소<sup>5)</sup>

교과역량 요소	의미	하위 요소
의사소통 능력	한자와 한문 자료 및 언어생활에서 사용되는 한자 어휘를 활용하여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며 소통하는 능력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한문 고전 작품 이해
창의·융합 사고 능력	한자와 한문 자료에 담겨 있는 다양한 영역의 폭넓은 지식과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소양을 바탕으로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해 내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창의적 사고기능(인지적능력):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유추성 창의적 사고성향(정의적 특성): 민감성, 개방성, 독립성, 자발성 타 교과 학습 용어의 이해·활용 능력
정보처리 능력	한자와 한문 기록에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그 의미를 평가·선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활용하는 능력	논리적, 비판적 사고를 통한 문제 인식/정보 수집, 분석, 활용 등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의 탐색/해결 방안의 실행, 평가/매체 활용 능력
자기관리 능력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기초적 능력 및 자질을 지속적으로 계발·관리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자아정체성 확립, 자기 절제, 기초학습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 기본 생활 습관, 진로개발능력

5) 장호성(2015), 중학교 한문 교육과정 개정 시안의 주요 내용, 연구자료 ORM 2015-31, 5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동체 의식	한문 기록에 담긴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며,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수용·실천함으로써, 공동체의 문제 해결 및 발전을 위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능력	윤리의식, 봉사정신, 환경 의식, 규범 및 질서의식, 협동, 배려, 신의, 참여와 책임, 가치 다양성의 이해와 존중, 타 문화와 다문화 이해
심미적 감성	다양한 유형의 한문 고전 작품이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에 대한 향유를 통해 삶의 질과 행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정서적 안정감, 예술적·문화적 감수성과 상상력, 타인의 경험에 대한 공감 능력

창의·인성의 교육 요소에는 여러 가지 관점이 존재할 수 있으나, 선행 연구<sup>6)</sup>에서 다음과 같이 한문과 창의·인성 교육요소를 제시하였다.

한문과 창의·인성 교육요소

창의적 교육 요소			인성 교육 요소	
인지적 요소	성향적 요소	동기적 요소	인간관계 덕목	인성판단력
사고의 확장 (확산적 사고, 상상력/시각화 능력, 유추/은유적 사고) 사고의 수렴 (논리/분석적 사고,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력 (문제 발견, 문제 해결)	독립성 (용기, 자율성, 독창성) 개방성 (다양성, 복합적 성격, 애매모호함에 대한 참을성, 감수성)	호기심 흥미 몰입	정직 약속 용서 책임 배려 존중 소유 협력 경청	도덕적 예민성 도덕적 판단력 의사결정능력 행동실천력

한문교과의 교과 역량 하위요소와 한문과 창의·인성 교육 요소를 비교하여 보면, 많은 부분이 중첩된다. 교과역량 중 ‘창의·융합 사고 능력’과 ‘정보처리 능력’은 ‘창의적 교육요소’와 관련이 많다. ‘자기 관리 능력’, ‘공동체 의식’, ‘심미적 감성’은 ‘인성교

6) 오예승(2013), 「집중이수제 기반의 창의·인성 한문 수업 사례」, 한자한문교육 제32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창의인성 교육넷에 제시된 자료와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중등학교 교육 개선 포럼 개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년 10월 13일 자료 참고함.

육 요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사소통 능력'은 하위요소를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한문 고전 작품 이해'로 제시하여 다소 창의·인성 역량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서는 교과역량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한자와 한문 자료 및 언어생활에서 사용되는 한자 어휘를 활용하여 생각과 감정 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며 소통하는 능력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창의지성역량을 7가지로 제시<sup>7)</sup>하였는데, 이 중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다양한 텍스트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의사소통능력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언어 이해적 측면 뿐 아니라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상호 소통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상호 소통을 위해서는 상대를 존중하고 경청하고 공감하며, 대화 상황의 맥락에 맞게 표현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성적인 자질이 요구된다.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은 이전의 '창의·인성 교육'의 기저를 이어나가고 있는 듯하다. 또한 교과역량은 이전에 교육부에서 제시한 창의·인성 요소를 조금 더 세분화하여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의 창의·인성 수업 사례 제시에서는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교과 역량을 중심으로 각 각의 수업 사례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 2. 창의·인성 한문 수업 내용 체계·목표 모형

한문과 수업에서 창의·인성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창의성·인성 주제의 한문 텍스트를 통해 인지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그러나

7) 경기도교육청(2013), 2013 중등 서술형·논술형 평가 예시자료 한문. 장학자료 2013-1호, 11쪽.

창의성이나 인성 요소와 관련된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는 것만으로 학습자가 실질적인 창의·인성 역량을 획득했다고 보기란 제한이 따른다.

둘째, 학습자가 한문 텍스트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체험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학습자가 텍스트를 ‘읽고’, ‘풀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자신의 언어로 ‘이해’하고 ‘감상’하며 나아가 ‘읽’과 ‘삶’을 연결짓고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체험의 과정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지식알기’를 넘어 ‘느끼고’ ‘실천’하고 ‘창조’할 수 있도록<sup>8)</sup> 수업을 디자인해야 한다.

셋째, 교사의 수업 철학과 방법, 학교의 문화와 풍토 등을 통해 잠재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창의·인성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교사의 학생관, 교사관과 지식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학생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주체자라는 인식이 전환이 필요하다. 즉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지식을 암기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상호 작용 속에서 스스로 사고하고 지식을 만들어 나가는 존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들은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조력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학생과 교재,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생이 상호작용을 활발히 하며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가르쳐야 할 지식은 문화의 지적유산 보다 미래사회의 역량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수업 철학의 변화와 더불어 수업 방법의 변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창의·인성 역량 함양에 적합하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학생 참여식 수업 방법을 활용하며 수업의 각 과정을 평가와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창의성과 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직된 학교의 문화를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학교 풍토로 바꾸어 나가야한다.

위에서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창의·인성 능력 신장을 위한 한문 수업의 내용 체계와 목표 모형을 제시하면 <표 1>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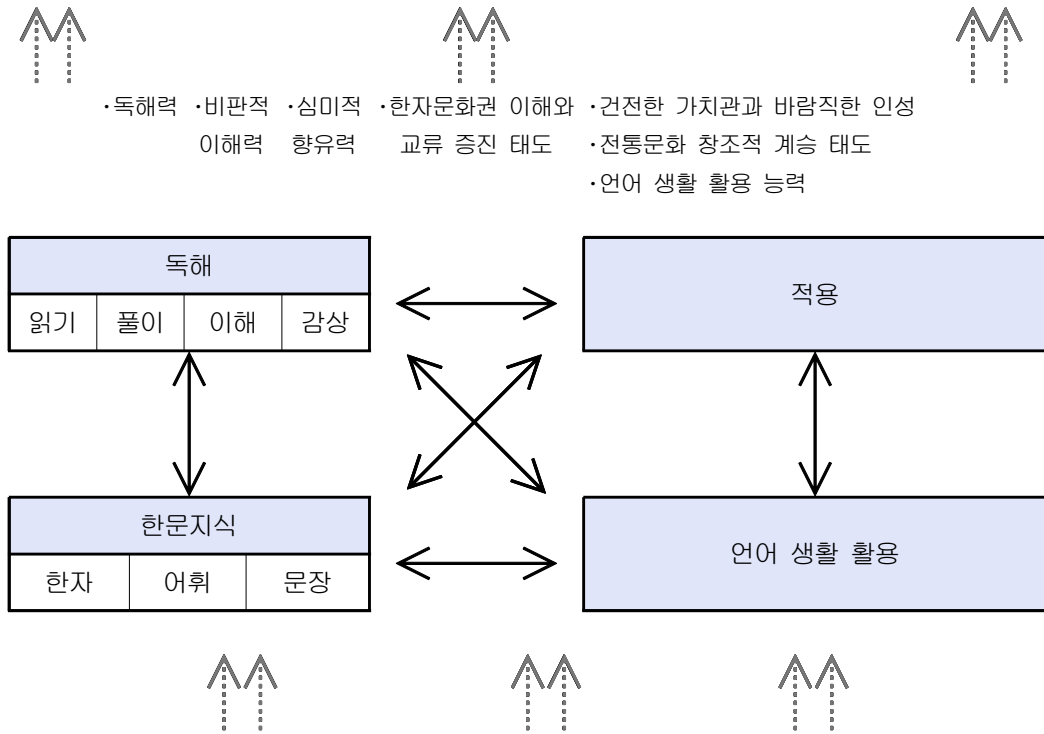
<표 1>은 창의·인성 한문 수업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 요소와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교과목의 목표를 나타내고 있다. 내용요소로 2009 개정 교육과정 한문 교과목의 내용 체계<sup>9)</sup>를 참고하여 ‘독해’, ‘한문지식’, ‘언어생활 활용’을 제시하였고, 창의·인성 한문과

8) 경기도교육청(2014), 배움중심수업 함께하기, 5쪽.

9) 2009 개정 교육과정 내용 체계

수업 내용의 필수 요소라 파악되는 ‘적용’ 요소를 추가하였다.

〈표 1〉 창의·인성 한문 수업 내용 체계·목표 모형<sup>10)</sup>



교육 철학(수업관, 교사관, 학생관, 지식관, 개인적 신념), 교육방법, 학교 문화와 풍토

영역	내 용		영역	내 용	
독 해	읽기	소리 내어 읽기	한문지식	한자	한자의 특징
		끊어 읽기			한자의 짜임
	이해	풀이하기		어휘	단어의 짜임
		이해하기			단어의 갈래
		감상하기			성어의 의미
문 화	한자 문화	전통문화의 이해와 계승	문장	문장의 구조	문장의 구조
		한자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			문장의 유형
	언어생활과 한자 문화	언어생활 속의 한자 어휘 알고 활용하기			

10)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참고하여 창·인성 한문 수업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내용 요소를 첨가하고 조정하였다.

현장에서 한문을 지도해 본 결과, 학생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창의·인성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업의 내용에 ‘적용’ 요소가 필수적이라 사료된다. ‘적용’ 요소는 한문을 문자적으로만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자신의 삶과 접속시켜 반성적으로 삶을 돌아보고, 삶을 실천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요소이다.

한시를 ‘감상’하기 위해, ‘4단 그림으로 나타내기’, ‘육색 사고모 모형으로 감상하기’, ‘한시내용으로 노래 가사 바꾸어 부르기’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듯이 ‘적용’ 요소에도 ‘자화상 수업을 하고 나의 자화상과 자찬 만들어보기’, ‘한문 문장을 내 삶에 적용한 반성적 글쓰기’, ‘고사성어를 삶에 적용한 사례나 동영상 찾기’, ‘덕담 학습 후 친구의 고민을 듣고 친구에게 덕담을 만들어 주기’ 등 배운 내용을 삶에 적용해보고 실천해 보는 다양한 활동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기존 한문 수업에서는 ‘독해’, ‘한문지식’, ‘언어생활 활용’에 중점을 두었다면, 창의·인성 한문 수업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내 삶에 ‘적용’하는 단계를 필수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창의·인성 한문 수업의 ‘독해’, ‘적용’, ‘한문 지식’, ‘언어생활 활용’ 4가지 요소는 각각 상호 작용을 통해 한문과 목표까지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독해’는 ‘한문지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한문 독해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독해’나 ‘한문지식’의 내용을 ‘언어 생활에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언어생활 활용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독해’의 내용이나 ‘한문지식’을 내 삶에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과 ‘전통문화를 창조적 계승하려는 태도’를 신장시킬 수 있다.

내 삶에 ‘적용’한 내용을 ‘언어생활에 활용’할 수도 있고, ‘언어 생활에 활용’한 내용을 내 삶에 ‘적용’해 볼 수도 있다.

‘독해’나 ‘한문지식’의 학습과정에서 내 삶에 ‘적용’이나 ‘언어 생활 활용’ 요소를 학습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만, 거꾸로 내 삶에 ‘적용’이나 ‘언어 생활 활용’에서 ‘독해’, ‘한문 지식’을 학습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SBS 라디오 컬투쇼에 ‘할아버지의 임기응변’이라는 유머있는 이야기를 들으며 궁금함이 생겨 ‘臨機應變’을 학생 스스로 독해와 연계시켜 학습할 수도 있다. 박물관 체험 프로젝트 학습을 수행하며, 내가 원하는 직업과 관련된 유물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와 관련된 텍스트를 찾고 (‘적용’) 이를 ‘독해’ 학습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 따라서 창의·인성 한문 수업에서 각

각의 요소들은 서로의 상호 작용을 통해 한문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창의·인성 한문 수업은 교사의 교육 철학(수업관, 교사관, 학생관, 지식관, 개인적 신념), 교육방법, 학교 문화와 풍토의 기저에서 실시 될 수 있다. 교사의 철학과 방법, 학교의 문화와 분위기가 어떠하냐에 따라 창의·인성 한문 수업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 Ⅲ. 연구 적용의 일반

#### 1. 적용 대상

경기도 내 A 중학교 1~2학년, B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본 수업을 적용하였다. 중학교 1학년 시기는 공교육에서 처음 한자를 배우는 시기이다. 한자에 대한 기초 지식부터 자전 찾거나 독해하는 법, 생활 속에 적용하는 법까지 하나 하나 지도해야 한다. 두 학교의 학생들은 지역적 특색으로 사교육에서 한자를 접한 경험이 거의 없고, 생활 수준이나 학업성취도가 타지역에 비해 낮고 한문에 대한 관심 또한 낮은 편이었다. 따라서 학습자의 수준에 맞춰 학습내용을 재구성하고, 학습자의 흥미를 높이면서 창의성과 인성 함양에 적합한 활동들을 구안하여 수업에 적용해 보게 되었다.

#### 2. 적용 시기

2010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연구자가 실제 수업에 적용하였다. 적용 초기에는 협동학습 방법을 많이 활용하였으나 2012년 배움의 공동체를 접하면서, 두 수업의 방법을 학습자의 상황에 맞춰 적용하고 있다.

#### 3. 한문과 창의·인성 수업 개관

연구자가 실시해 본 창의·인성 수업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고에서는 이 중 ‘자화상’, ‘자존’, ‘덕담 만들기’, ‘경청’, ‘공감’, ‘한자포스터 만들기’, ‘고사성어 독서 논술 토론’ 7개의 수업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문과 창의·인성 프로그램

대 주제	소 주제	핵심 교과 역량	수업 형태	주제 선정 이유	비고
나	자화상	심미적 감성	협력, 개별	자화상 감상을 통해 작가의 감정과 욕구를 발견하고, 이를 본인에게 적용하여 본인의 감정과 욕구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내면 치유 효과	
	자존	자기 관리 능력	협력, 개별	스스로 소중한 사람임을 내면적으로 깨닫는 기회 부여	
너	나와 다름 알기	공동체 의식	협력, 개별	나와 친구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존재임을 인정	
	배려(덕담 카드)		협력, 개별	친구의 고민을 듣고 그 친구에게 배려와 격려	
우리	경청	의사소통능력	협력, 개별, 역할극	경청하는 것이 공동체의 관계 형성에 기본임을 인식하고 실천	
	공감		협력, 개별, 역할극	타인의 말에 공감하는 것이 대인관계의 중요가치임을 인식하고 실천	통합교과 수업 진행
	한자 포스터 캠페인	창의적사고 능력	개별, 토론	한자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학교 폭력을 예방	창의적 체험 활동(동아리 연계)
과거와의 만남	고사성어 독서 논술 토론	정보처리능력	개별, 토론	독서 논술을 통한 고사성어의 이해와 적용, 토론 활동을 통해 사고력, 정보처리력 신장	

#### IV. 창의·인성 교수·학습 사례

수업자가 현장에서 실시해 본 창의·인성 교수·학습 사례를 교과역량에 따라 살펴 보도록 하겠다.<sup>11)</sup> 이하의 수업 사례는 수업에서 의도하는 핵심적인 교과 역량을 중심으로 분류하였으나, 하나의 수업 사례가 다수의 교과 역량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11) 교육과정 내용이나 성취기준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를 수업 사례 소개 시 ‘교과 역량’에 추가로 기술하겠다.

### 1. 심미적 감성을 높이는 사례

작년 말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다가 우연히 한국의 자화상에 관한 책<sup>12)</sup>을 한 권 발견하게 되었다. 한국의 자화상과 그에 대한 배경을 소개하는 있는 책이었다. 이 중 흥미로운 자화상을 발견하게 되었다. 강세황의 자화상인데 검은 오사모에 옥색 도포를 입고 앉아 있는 모습이다. 이 책의 작가는 강세황의 모습을 마치 운동복에 중절모를 쓴 것과 같다고 표현했다. 강세황은 자찬에서 그의 마음이 자연에 있지만, 이름이 관리명부에 올랐다고 자신의 처지를 슬회하고 있다. 자신의 마음을 그림에 담아낸 것이다.

연구자가 만나고 있는 중학생 아이들은 시기적으로 정서가 매우 불안정하고 감정의 기복이 크다. 또한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 왜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는지, 그것에 숨겨진 나의 욕구는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그야말로 감정의 홍수 속에서 헤엄치고 있을 때가 많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긍정적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자화상과 자찬에 나타난 작가의 감정과 욕구를 발견하고 이를 내 삶에 적용하게 한다면 ‘예술적·문화적 감수성과 상상력’과 ‘타인의 경험에 대한 공감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게 되어, ‘정서적 안정감’과 힐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

12) 조인수(2013), 군자의 삶, 그림으로 배우다. 다섯 수레.

## ‘자화상’ 수업을 통한 정서적 안정감 신장

교육과정 내용	독해, 문화	배움 방법	협력학습	
단원	自畫像			
성취기준	· 한9121-2. 한문 산문에 사용된 단어, 구절, 문장의 의미를 문맥을 고려하여 말할 수 있다. · 한9122/9123-2. 한문 산문의 중심 내용과 지은이의 의도를 말할 수 있다. · 한9211-1.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다. · 한9211-2. 전통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배움 주제	· 자화상과 자찬에 나타난 작가의 감정과 욕구를 이해하기 · 나의 자화상과 자찬을 표현하며 나의 감정과 욕구를 알아차리기			
교과 역량	· 심미적 감성(정서적 안정감, 예술적, 문화적 감수성과 상상력, 타인의 경험에 대한 공감 능력), 창의·융합 사고 능력(독창성), 정보처리능력(매체 활용 능력)			
평가 반영	·지필평가(강세황의 자찬과 관련된 문항)·수행평가(자화상 그리기와 발표)			
배움의 흐름				
도입	풀이	이해·감상	적용·활용	평가
1. 현대 자화상을 보고 느낌과 작가의 욕구 자유롭게 말하기	1. 배경지식 활성화 · 조선 시대 양반의 복장에 대한 설명 2. 자화상 보고 질문 만들기 · 강세황의 자화상을 보고 모둠별로 질문과 답변 만들기 3. 문장 풀이 · 자찬의 내용 개인별, 모둠별 해석, 전체 공유 · 문장 풀이하며 모둠 질문에 대한 답 생각하기	1. 그림에 나타난 작가의 감정과 욕구 말풍선으로 완성하기 2. 작가의 감정과 욕구에 대한 자기 생각 글쓰기	1. (적용)자기 자화상, (활용)자찬 만들기 2.(적용)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대한 자기 생각 글쓰기 3.(적용)친구들의 작품에 댓글 써주고 공감하기	1. 자화상 발표

### 가. 도입

현대 작가들의 자화상을 보며, 그림에 대한 느낌과 작가의 마음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토론을 통해 이 그림들의 공통점과 공통된 장르를 찾고 이를 自畫像이라는 수업 주제를 도출해낸다.

### 나. 풀이

1) 배경 지식 활성화 : 자화상과 자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조선시대 양반의 복

장에 대해 설명한다.

2) 자화상 보고 질문 만들기 : 강세황의 자화상을 보며 궁금한 점을 모둠 토론을 통해 질문을 만든다. 자신이 생각하는 답을 표현하고, 전체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손을 왜 그리지 않았을까?’, ‘그림 옆에 글씨는 왜 쓰여져 있을까?’, ‘왜 오사모에 도포를 입었을까?’, ‘옷이 왜 이렇게 클까?’, ‘자화상을 왜 그렸을까?’ 등의 질문을 제시하였다. 각 각의 질문들을 스스로 만들고 함께 그 답을 토론해보는 과정을 통해 ‘심미적 상상력’과 ‘창의적 사고력’이 자극되었다. 또한 ‘왜 오사모에 도포를 입었을까?’라는 질문은 문장 해석을 진행하는 동안 계속 궁금함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수업에 대한 몰입도를 높일 수 있었다.

 <p>현대 자화상 보고 느낌 말하기</p>	 <p>조선시대 양반의 복장 살펴보기</p>	 <p>강세황의 자화상을 살펴보기</p>
--	--	---

3) 문장 풀이 : 개인별 1차 풀이 후 모둠이 함께 2차 풀이를 실시하고 이를 학습지에 정리한다. 발표할 학생이 나와 자찬의 내용을 독음, 음 뜻, 풀이의 순서로 발표하되 칠판에 적힌 한자 하나 하나를 짚어가며 발표한다. 다른 학생들은 대표 학생의 발표 시 따라 읽는다. 발표가 끝나면 혹시 다르게 해석한 부분이 있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자유롭게 발표한다. 친구들의 해석을 들으며 어떤 해석이 가장 자연스러운지 사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석을 수정한다.

Q 왜 강세황은 왜모이 도를 안았는지?

A. 강세황이 검소함을 표현하려고.

Q. 왜 순화 밧을 그리지 않았는지?

A.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모듬별로 그림에 대한 질문과 예상 답변 만들기

○○○ ○○○

1. 頂烏帽 하고 2. 被野服 하니

뜻	경 오 모	패 야 복
패설	頂: 모자를 쓰다. 烏(오모)=오사모(烏紗帽) 관리들이 쓰던 모자. 被(야복): 관리가 아닌 사람이 입면 옷. 野(야복)	
모듬	( )을 ( )하고 ( )을 ( )하니	
패설		
모듬		
패설		

② ① ④ ○○○ ⑥ ○○○

3. 於以見心山林 4. 而名朝籍

뜻	於 이	以 이	見	心	山	林	而 이	名	朝	籍 이
패설	於(이)것에서부터	以(이)를	見(볼 수 있다)	心(심)	山(산)	林(림)	而(조절)	名(이름)	朝(조)	籍(적)
모듬	이것에서부터 ( )을 ( )에									
패설										
모듬										
패설										

자찬의 내용 개인별, 모듬별 해석하기

## 다. 이해와 감상

1) 그림에 나타난 작가의 감정과 욕구 말풍선으로 완성하기 : 해석을 통해 완성된 자찬의 전문을 한문으로 읽는다. 이것을 바탕으로 작가의 감정과 욕구를 말풍선으로 표현해본다. 이 과정에서 ‘타인의 경험에 대한 공감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으며, 해석한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학습한 문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마음이 지친다. 소신은 이 늙은 나이에 벼슬에서 물러나 자유로와 지고 싶소!	나의 마음은 산림에서 쉬고 싶지만 내가 맡은 일 때문에 그러지 못한 다네. 그래서 다음에라도 숲으로 쉬러가고 싶다네.	살기 힘들군. 산으로가 쉬고 싶군!	내 재능을 아무도 알 아주지 않아 슬프구나. 그러니까 누구라도 내 재능을 알아주었으면 좋 겠구나.
작가의 감정과 욕구 말풍선 그리기 결과물			

2) 작가의 감정과 욕구에 대한 자기 생각 글쓰기 : 지금까지 자화상과 자찬을 통해

파악한 작가의 감정과 욕구에 대해 자기 생각 글쓰기를 한다. 다음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자기 생각 글쓰기 작품이다.

강세황의 자화상은 자신의 마음은 숲과 산에 있지만 몸은 조적에 있을 뿐이라. 강세황은 허무하기도 하고 자신의 업적을 사람들이 몰라주니 우울하기도 하고 슬플 것 같다. 사람들이 강세황의 업적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나 같아도 자신의 업적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서운할 것 같다. 강세황이 벼슬에 올라 편안한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생각을 해보니 몸은 편해도 마음이 불편하면 답답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든다. 나도 가끔 그럴 때가 있다. 몸은 편하지만 마음에 뭔가가 걸린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이 자화상을 보고 여러 활동을 했는데 이런 활동을 더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감정이나 욕구를 그림이나 글로 알아내는 것이 새롭고 재미있는 일인 것 같다. 이런 활동을 자주 했으면 좋겠다. (나\*\*)

이 사람의 마음은 자연에 있으나 이름은 조정문서에 있다. 이 사람의 마음을 보면 외롭고, 슬프고 우울해 보인다. 왜냐하면 그림 속 작가는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이 홀로 생활하며 쓸쓸하게 시간을 보낸 것처럼 무표정하고 힘이 없고 눈이 풀려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작가는 자신을 세상에 알리고 싶고,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아져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 같다. 나는 아는 사람이 많지만 이 사진 속의 작가처럼 무표정하고 외롭고 나 혼자 이런 저런 슬픈 생각을 했을 때가 많았던 것 같다. 오늘 이 활동을 하면서 나는 자화상 그림을 보고 그 사람의 감정, 욕구 등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 (황\*\*)

이 과정에서 작품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감상을 할 수 있었으며 자기를 돌아보고, 작가의 마음에 공감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 라. 적용

1) 자화상, 자찬 만들기 : 자화상을 그리기 전에 우선 요즘 나의 느낌이나 감정을 파악하고 그 이유와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학생들에게 요즘 나의 느낌을 표현하라고 하면 ‘행복하다’, ‘우울하다’, ‘짜증난다’, ‘행복하다’ 등의 몇가지 단어로 제한된다. 그래서 감정코칭이나 비폭력대화에서 사용하는 감정 목록을 나누어 주고 여기서 자신의 현재 감정을 다양하게 찾아 써 보도록

했다. 그러자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자신의 현재 감정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비록 현재 갖는 감정이 없어지지는 않아도 이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흘러 나가서 정서적 안정감을 찾게 되었다. 또한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봄으로써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서 이를 그림이나 잡지를 오려서 자신의 자화상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그림으로 자신을 잘 표현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도서관에서 과년도 잡지를 준비하여 주고 자신의 모습과 가장 비슷한 사진을 오려 붙이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의 자신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대표 한자를 써보고 말풍선으로 나타내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나타내는 자찬을 지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자찬을 지을 때는 국어사전, 자전, 교과서, 스마트 폰, 컴퓨터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한자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신의 현재 모습을 憔悴로 표현한 작품, 꿈의 계단을 한 발씩 밟고 올라가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며, 熱學成夢 공부를 열심히 하며 꿈을 이루겠다는 작품, 개와 함께 걷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望活與犬 개와 함께 살기를 바란다는 작품, 未來라는 고래가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상황에서 살려달라며 逃亡하며 現實逃避를 외친 작품 등 자신의 현재 상황을 거칠지만 솔직하면서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아이가 느껴보았을 만한 감정어?					
기쁨	행복감	고마움	유대감	사랑스러움	자랑스러움
행운	행운감	안락감	귀차심	쾌활함	자랑심
슬픔	슬픔감	불행감	우울	후회스러움	후회심
슬픔	슬픔	마련함	비통함	가엾이 처짐	가엾음
흥미	기대감	불확감	열심	재미있음	재미
충분	충분	관심	열심	재미있음	재미
분노	분노감	사기심	짜증	불만	가난
광명	무례함	비판적	슬픔함	가부장	가부장
원오	증오감	심어함	구약질	가부장고 심음	가부장고 심음
공포	두려움	예민함	경악	걱정스러움	걱정
	겁심	무서움	불안	불안함	불안

감정 목록에서 자신의 요즘 감정 찾아보고, 이유와 자신에게 필요한 욕구 써 보기



그림이나 잡지로 자화상으로 표현하기



자신의 감정을 한자와 말풍선으로 표현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찬 만들기

2)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대한 자기 생각 글쓰기 : 자화상과 자찬으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한 후에 자신의 마음을 글쓰기로 연계시켰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내면을 다시 한 번 반성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친구들의 작품에 댓글 써주고 공감하기 : 완성된 작품을 친구들에게 돌려가며 好問樂感 기법<sup>13)</sup>을 활용하여 댓글을 써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자기 생각 만들기 글쓰기



공감하는 댓글 쓰기



발표하고 친구들의 의견 듣기

## 마. 평가

1) 자화상 발표 : 자화상과 자찬에 나타난 자신의 요즘 마음과 이유, 욕구를 소개하고 이에 친구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다. 그리고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친구의 작품에 좋았던 점, 질문할 점, 작품을 본 자신의 느낌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간혹 친구의 작품을 폄하하거나 친구의 감정을 비난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때는 친구의 감정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현재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그것에 공감해주고, 발표한 친구와 내가 함께 감정을 치유하는 시간을 갖자고 안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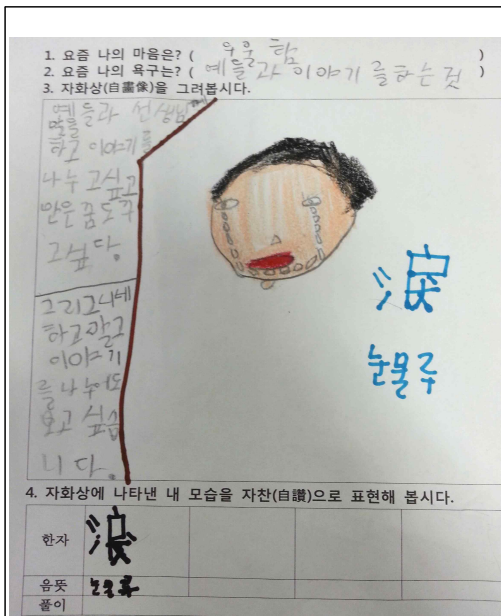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온 감정은 피로하고, 지쳐서 쉬고 싶다는 감정이었다. 학업적 스트레스로 인해 학생들이 갖는 부담감이 큰 것을 볼 수 있었다. 비

13) 好問樂感 기법은 연구자가 PMI 기법을 변용한 것이다. PMI 기법은 창의성 신장 기법 중 대표적 기법 중의 하나로 제안된 아이디어의 장점(P), 단점(M), 흥미로운 점(I)을 따져 본 후 그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기법이다. 하나의 아이디어에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할 때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연구자의 2013년도 논문에서는 PMI 기법을 好(좋은 점), 問(질문하고 싶은 점, 고칠 점), 樂(즐겁고 재미있는 점), 感(한시 비평을 하면서 느낀 점)으로 변용하여 한시 비평에 적용해 보았다.



슷한 고민을 갖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의 마음에 공감하는 시간을 갖을 수 있었다.

그 중 A 학생의 발표는 인상에 깊이 남는다. A의 현재 감정을 나타내는 한자는 涙였다. 이 학생은 도움반 친구로 아이들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우울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듯 하였다. 이날 발표에서 지금까지 친구들이 자신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 가지는 답답함, 외로움과 슬픔, 그리고 아이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소망을 어눌하고 서툴지만 진솔하게 표현했다. A의 발표를 들으며 그 반 학생들은 그동안 A와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다. 일부 학생들은 A와 더 가깝게 잘 지내보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하였다.



- 요즘 나의 마음은? 우울함.
- 요즘 나의 욕구는? 애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
- 말풍선 : 애들과 선생님께 말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많은 꿈도 꾸고 싶다. 그리고 네네하고 말과 이야기를 나누어도 보고 싶습니다.
-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는 대표 한자 : 涙 눈물



\* 요즘 나의 마음, 나의 욕구, 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이유, 활동 과정에서 느낀 점을 자유롭게 써 보시다.

[illegible]

나는 니네랑 친해지고 싶어. 왜냐하면 내가 요새 니네한테 말을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니네한테 말을 안하고 있었어. 왜냐하면 나는 말을 하는 게 너무 싫은 게 아니라 말을 해 봐도 내 말을 못 알아볼까봐 그런 거야. 정말 미안하고 앞으로 잘 지내 봤으면 해.

선생님 저도 이야기와 얘기는 저한테 안 맞아요.  
정말 실망시켜서 죄송해요. 저도 어쩔 땐 심심하고  
외로워요. 눈물이 날 때도 있어서 정말 미안해요.



이름: 김민재, 학년: 5학년 2학기

1. 요즘 나의 마음은? (가끔씩 우울하다, 슬프다, 지루하다, 어이없다, 쉬고 싶다.)

2. 요즘 나의 목표는? (다른 곳으로 여행가고 싶다.)

3. 자화상(自画像)을 그려봅시다. 여행가고 싶다.

4. 자화상에 나타낸 내 모습을 자찬(自讚)으로 표현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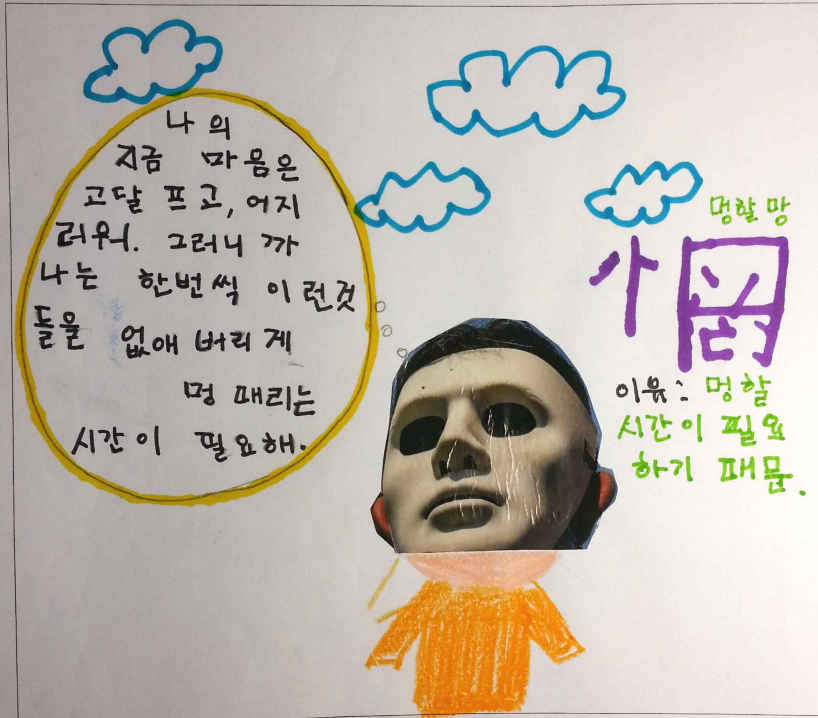
한자	他	地	旅	行
음 뜻	타	지	여	행
풀이	다른	곳에	가서	여행하다

요즘 나는 기말고사를 준비하느라 바쁘다. 그리고 요즘 엄마, 아빠와 사이가 좋지 않다. 그래서 요즘 화나고, 피곤하고 쉬고 싶다. 내가 자화상을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나의 마음을 쇄사슬을 끊고 날아가는 새, 그리고 의자를 그렸다. 새는 놀고 싶고, 구속에서 벗어남. 의자는 휴식이다. 이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자화상을 그리면서 한자로 표현하면서 생각해보지 않았던 내 속마음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 自畫像, 自讚 만들기

1학년 2반 19번 이름 : 이재혁

1. 요즘 나의 마음은? (고달프고, 어지럽다.)
2. 요즘 나의 욕구는? (멍 때리기)
3. 자화상(自畫像)을 그려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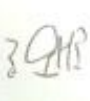


4. 자화상에 나타낸 내 모습을 자찬(自讚)으로 표현해 봅시다.

한자	멍	時	間	반드시	필요
음뜻	멍할 망	때 시	사이 간	반드시	필요
풀이	반드시 멍때릴 시간이 필요하다.				

요즘 내 마음은 고달프고 어지럽고 정신이 없어. 왜냐하면 뭔가를 할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야. 그래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생각들을 정리하기 위해 멍 때릴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나는 이 활동을 하면서 요즘 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었고, 나 자신을 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은 인상 깊은 수업 중에 하나로 남을 것 같다.

자화상 · 자찬 학생 작품

<p>&lt;좋은 점&gt;</p> <p><b>好</b> 선영: 많데릴 시간이라... 그 나드 새막이아 갓구만 다인! 아! 많데릴 시간을 한번들기해보는것도좋은것같구나! 태용: 너두장포헌 힘장. 아구</p>	<p>&lt;질문하고 싶은 점&gt;</p> <p><b>問</b> 선영: 왜 웃을 할때 마봉머도 되지 않아? 다인! 웃기 마음대르 되리잖아? 태용: 어지러워? 왜? 왜? </p>
<p>&lt;즐거고 재미있는 점&gt;</p> <p><b>樂</b> 선영: 많데릴 시간이 필요하단걸. 다인! 그걸로 마네킹단문 쓴명애지은듯한 것은 불인것이대원다 태용: 그림다섯지다짐</p>	<p>&lt;느낀 점&gt;</p> <p><b>感</b> 선영: 나는거로 못어워서 고달픈데 너는 그냥 고달프다... 힘내구구 다인! 너는 아저를 비우고 마복생각없이 함여지면서 힘잡을 하고있구나! 태용: 그림이 막서... (힘내)</p>

好問樂感 기법으로 친구 작품에 댓글달기

이 수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창의·인성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먼저 자화상과 자찬을 감상하고 작가의 마음과 욕구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예술적 감수성과 작품에 대한 심층적 감상 능력이 신장될 수 있다. 또한 작가의 마음에 공감하는 능력이 자라날 수 있다.

그림이나 잡지책을 활용해 자신의 자화상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창의적 사고능력과 상상력, 시각화 능력이 자라날 수 있다. 휴대폰, 자전 등의 도구를 활용하여 자찬을 만드는 과정에서 매체 활용 능력이 신장될 수 있다.

친구들의 작품에 댓글을 써 주는 과정에서 친구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신장될 수 있다.

학습한 내용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 봄으로써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대해 알아차리는 능력이 신장될 수 있으며, 감정을 긍정적으로 방향으로 표현해 낼 수 있다.

이 수업을 진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한다.

먼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할 때 감정표현 카드에서 최대한 여러 가지 표현을 찾아 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에 대해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한다. 전체적으로 자유로우면서도 진지한 분위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하도록 한다.

자신의 자찬을 한자로 바꿀 때 문장의 배열 순서에 대해 기본 원리를 가르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도록 주지시키도록 한다.

친구들의 발표를 들을 때 충고보다는 친구의 감정을 그대로 존중해 주도록 한다.

## 2. 자기관리 능력을 높이는 사례

우리 반 학생 중에 B라는 학생이 있다. 얼굴도 예쁘장하고 밝은 아이이다. 그러나 별수롭지 않은 말 한마디에도 크게 분노하고, 유난히 남들에게 상처 되는 말을 많이 한다. B의 말 때문에 주변 학생은 물론 교사인 나도 때론 마음이 상할 때가 있다. 그런데 이 학생을 상담하다 알게 된 것이 하나 있다. 유난히 자존감이 낮다는 것이었다. 자신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작은 충고 하나에도 쓰나미 급의 화를 분출하는 것이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남들도 존중한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는 능력이 미흡하다. 더불어 남을 배려하는 마음 또한 부족하다. 사람은 누구나 소중하며, 자신만이 가진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다.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自尊’을 주제로 한 수업을 설계하게 되었다. 자신이 사랑받기 충분하며,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 충만한 자존감으로부터 세상을 긍정의 눈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 ‘자존’ 수업을 통한 자아 정체성 확립

교육과정 내용	독해, 문화	배움 방법	협동학습, 협력학습	
단원	自尊			
성취기준	· 한9121-1. 한문 단문에 사용된 단어, 구절의 의미를 문맥을 고려하여 말할 수 있다. · 한9122/9123-1. 한문 단문의 중심 내용과 지은이의 의도를 말할 수 있다. · 한9211-1.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다. · 한9211-2. 전통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배움 주제	· 나의 소중함 인식하기			
교과 역량	· 자기관리능력(자아 정체성 확립), 정보처리 능력(매체 활용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유창성, 융통성)			
평가 반영	· 지필평가(문장과 관련된 문장) · 수행평가(나의 소중함 한문으로 표현하기)			
배움의 흐름				
도입	풀이	적용	적용 및 활용	적용 및 평가
1. 동기유발 말콤엑스에 관 한 동영상을 보 며 학습할 주 제에 관심 갖 기	1. 문장 풀이 개인별, 모둠별 해석, 전체 공유	1. 자존감 검사 -자존감 검사 후 자 기 점수 알아보기 -학급 학생들의 평 균 점수 알아보기 2.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의 생활 방식 모 둠 토론 후 전체 공유	1. ‘나의 소중함을 한문으로 표현하기’ 2. ‘나의 소중함을 한 문으로 표현하기’ 발표 및 서로의 작 품에 대해 피드백 하기 3.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라는 노래를 서 로를 향해 불러주 며 축하하기	1. 활동 과정 중 느낀 점 자기 생각 글쓰기

### 가. 도입

1) 동기유발 : 말콤엑스에 관한 동영상이나 글을 읽으며, 이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도록 한다.

## 나. 풀이

1) 문장 풀이 : 개인별, 모둠별 해석 후 전체가 공유한다.

<p>1. 두근두근 생각 놀기</p> <p>黒黒(Black is beautiful)</p> <p>한번씩 생각해 보고 있는 흑인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올 것입니다. 한 사람은 유명한 인물 중 한 사람이지만 흑인인 독자일지도 모를 한 사람은 물론 흑인이거나 아닐지라도, 둘 다 존경하는 인물로 흑인으로 생각됩니다. 둘 다 존경하는 인물도 나열해보십시오. 이 활동의 목적은 흑인의 특징을 알아보고 흑인으로서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활동의 목적은 흑인의 특징을 알아보고 흑인으로서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입니다.</p> <p>① 활동 목적은 왜 '흑인'이 되고자 했을까?</p> <p>② 활동 목적은 흑인과 관련된 지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p> <p>③ 나의 꿈의 주제는?</p>	<p>3. 동해왔는지 문장풀이</p> <p>自信者 人亦信之</p> <p>자신자는 인역신지라</p> <p>我有我身 至重至貴</p> <p>아유아신하저중저귀라</p> <p>自信者 人亦信之</p> <p>我有我身 至重至貴</p>	 <p>전체가 함께 해석</p>
---	--	---

## 다. 적용

1) 자존감 검사 :

문장을 내 삶에 적용하는 활동으로 자신의 자존감의 정도를 파악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본 수업에서는 로젠버그(심리학박사)가 개발한 검사지를 활용하였는데 10개의 문항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에 자신의 자존감의 정도를 볼 수 있다. 검사 후 바로 자신의 자존감 점수를 파악하고, 앞에 나와 자신의 점수대에 스티커를 붙인다. 그리고 학급 학생들의 평균 점수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현재 자신이 어느 정도 자존감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고, 자신의 성향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다. 실제 수업을 실시해 본 결과 연구자가 수업한 학생들의 자존감이 일반인들에 비해 비교적 낮았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존감이 높으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도 높으며, 장애를 극복하는 힘이 크다. 일에 대한 만족도와 성취도도 높다. 그러나 자존감이 낮으면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고, 무기력하며,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높다. 화를 잘 내고 매사에 두려움을 갖게 된다. 다른 사람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으며 인생을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자존감 신장이 필요함을 인식시키도록 한다.



## 2)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생활 방식 모두 토론 후 전체 공유

‘학생 회장 선거에 나갔을 때’, ‘시험을 잘 보지 못했을 때’ 등의 상황을 제시하고 ‘이 때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를 모두 토론 후 모두 칠판에 적어 칠판에 부착하고 발표한다. 활동의 내용을 ‘自信者 人亦信之’와 연계하여 이야기 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행동방식에 차이가 있고, 삶을 풍요롭게 살기 위해 자존감을 향상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 하는 시간을 갖는다.

**4. '내 양해 들어온 질문' - 나의 자존감은 어느 정도일까?**

이 질문은 문명학교(심리교육과)가 기본과 이상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자신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문장과 척도표가 있습니다.

1. 나는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대체로 그렇다. (2) 보통이다. (3) 대체로 그렇다. (4) 물론 그렇다.
2. 나는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	(1) 대체로 그렇다. (2) 보통이다. (3) 대체로 그렇다. (4) 물론 그렇다.
3. 나는 대체적으로 심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1) 대체로 그렇다. (2) 보통이다. (3) 대체로 그렇다. (4) 물론 그렇다.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다.	(1) 대체로 그렇다. (2) 보통이다. (3) 대체로 그렇다. (4) 물론 그렇다.
5. 나는 가장 큰 것이 보통이다.	(1) 대체로 그렇다. (2) 보통이다. (3) 대체로 그렇다. (4) 물론 그렇다.
6.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다.	(1) 대체로 그렇다. (2) 보통이다. (3) 대체로 그렇다. (4) 물론 그렇다.

▶ 평가 방법  
1) 1번, 2번, 4번, 6번, 7번의 결과는 아래쪽 같이 산출합니다.  
보기(1) : 1점 / 보기(2) : 2점 / 보기(3) : 3점 / 보기(4) : 4점

5. 나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6. 나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7. 나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8. 나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9. 나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10. 나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11. 나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12. 나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13. 나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14. 나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15. 나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16. 나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17. 나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18. 나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19. 나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20. 나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21. 나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22. 나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23. 나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24. 나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25. 나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26. 나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27. 나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28. 나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29. 나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30. 나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31. 나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32. 나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33. 나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34. 나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35. 나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36. 나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37. 나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38. 나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39. 나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40. 나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41. 나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42. 나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43. 나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44. 나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45. 나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46. 나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47. 나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48. 나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49. 나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50. 나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51. 나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52. 나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53. 나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54. 나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55. 나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56. 나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57. 나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58. 나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59. 나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60. 나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61. 나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62. 나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63. 나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64. 나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65. 나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66. 나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67. 나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68. 나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69. 나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70. 나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71. 나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72. 나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73. 나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74. 나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75. 나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76. 나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77. 나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78. 나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79. 나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80. 나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81. 나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82. 나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83. 나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84. 나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85. 나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86. 나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87. 나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88. 나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89. 나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90. 나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91. 나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92. 나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93. 나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94. 나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95. 나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96. 나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97. 나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98. 나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99. 나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100. 나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개인별로 자존감 테스트를 실시 후 자기 점수 확인하기

자기의 점수에 스티커 붙이고, 우리 반 친구들의 자존감 분포도를 확인,

상황에 따라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행동 방식의 차이에 대해 토론하고 자존감의 필요성 인식하기

## 라. 적용 및 활용

### 1) '나의 소중함을 한문으로 표현하기'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활동의 하나로 '나의 소중함을 한문으로 표현하기' 활동을 제시하였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자신의 장점을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이야기하기 힘들어한다. 수업 시간에 매 번 지적을 받는 학생들의 경우 '저는 잘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다. 따라서 먼저 친구들이 자신에 대해 돌아가며 칭찬의 글을 쓰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많이 적어보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장점을 한문 문장으로 바꾸어 보는 활동으로 연계한다. 이 활동의 구체적인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 모둠별로 학습지를 서로를 칭찬하는 글 써주기
- 나의 단점 1가지와 장점 10가지 쓰기
-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켜 표현하기
- 자전,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한자로 바꾸어 표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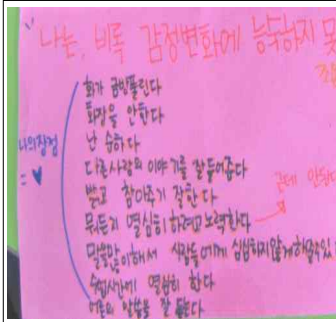
최근 인터넷 콘텐츠와 통신기기의 발달로 한문 작문 수업이 수월해졌다. 본 수업에서는 스마트 폰으로 웹 자전을 검색하여 자신의 장점을 한문 문장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한문 문장의 의미를 자신의 삶 속에 내면화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개인마다 독특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 사고력이 신장될 수 있었다.

2) ‘나의 소중함을 한문으로 표현하기’ 발표 및 서로의 작품에 대해 피드백하기 : 친구들의 발표를 들으며, 좋았던 점, 질문할 점, 느낀 점을 나누고 문장 표현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눈다. 발표를 들을 때는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태도로 경청하도록 한다. 아이들이 자신의 문장을 발표하는 시간을 통해 한 명 한 명이 주인공이 되었고, 자신이 비록 부족하지만 나름대로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모둠에서 돌아가며 친구를 칭찬하는 글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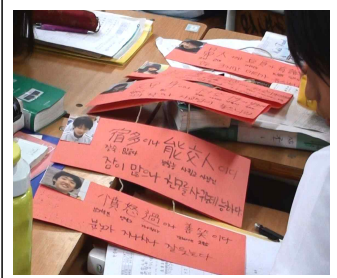


자신의 단점 1가지와 장점 10가지 적기

3) 나의 소중함을 한문으로 표현하기  
-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켜서 표현합니다.

	단점	장점
한글	나는 비록 ( )하지만	나는 ( )하다.
한문		
은듯		
품이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되 강점으로 승화시켜 표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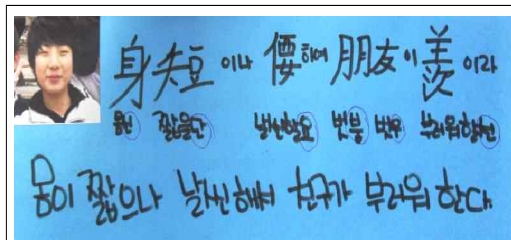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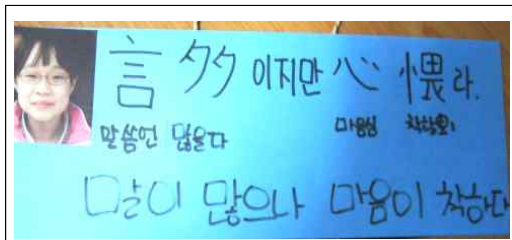
자전, 국어사전,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한자로 바꾸어 보기



만든 작품 발표하며 친구들의 의견 나누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를 부르며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기



나의 소중함을 한문으로 표현하기 학생 작품

3)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 함께 부르며 서로를 축복하기  
활동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과 친구를 축복하는 노래를 부르며 ‘자존’이란 가치를 내면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조금 쑥스러워하지만, 활동 내내 웃으며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되었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과 교사가 모두 정서적 안정감과 행복감을 맛볼 수 있었다.

## 마. 적용·평가

마지막으로 배운 문장을 활용한 자기 생각 글쓰기를 통해 배운 내용을 자신의 삶에 내면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은 문장에 관한 자기 생각 글쓰기 학생 작품이다.

2013년이 되기 전, 나는 별 다른 재능이 없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내가 갑자기 사라져도 그것을 눈치 채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2013년, 나는 나의 재능, 나의 아름다움을 찾았다. 그리고 지루했던 삶이 늘 재미있게만 느껴졌다. 공부할 때 빼고, 자신의 재능, 자신의 흥미를 가지면 이렇게나 재미있어 지는구나라고 생각했다. 아무튼 지금 내가 소중하고, 귀하다고 생각한다. 조\*빈

“나는 나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 지극히 소중하고 지극히 귀하다.” 내 친구가 시험, 수행평가를 다 망치고 자기는 정말 잘하는 게 없다고 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너의 장점을 찾아보라고 했다. 그 친구는 키도 크고 운동도 잘하고 사교성도 좋았다. 그 친구는 자신의 장점을 많이 알게 됐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 그 친구에게 너는 정말 소중하고 귀하다고 말을 해 줬다. 성\*우

我有我身하니 至重至貴라 이 문장은 “나는 내 몸이 있으니, 지극히 중요하고 지극히 귀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학교 폭력, 왕따 이런 것들이 생각났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본인처럼 몸도 있고 머리도 있는 똑같은 인간인데 무심코 “난 재 싫어!”라며 다른 애들을 괴롭히고 욕을 하는데 그 아이도 나도 귀한 사람인데 저렇게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김\*진

我有我身하니 至重至貴라 문장의 주제는 “나는 소중하다”라는 자존감을 높여주는 뜻 깊은 문장이다. 난 이 문장을 보고 내가 살면서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서 자존감 검사에도 너무 낮게 나와서 엄마께서 걱정하신 적도 있고, 친구들이 내 외모와 성격을 비판할 때 나는 정말 그런가 보다고 생각한 적도 많아서 이 문장이 나에게 와 닿는다. 난 특별하고 소중하다. 난 나에 대해 감사한 것을 항상 생각하고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져야 겠다. 장\*수

학생들의 글을 읽어보면 自尊 단원을 학습하며 문자적으로만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소중함을 느끼고 깨달았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자존의

가치를 확장해서, 학교 폭력을 당하는 학생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다른 친구가 시험을 못 봐 상심하며 자신을 부정할 때 배운 문장을 적용해 위로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 수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창의·인성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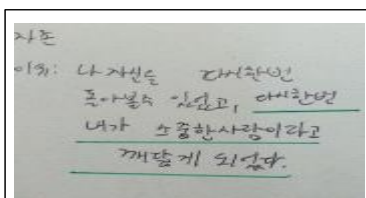
자존감 검사를 통해 자신의 자존감의 정도를 확인함으로써 자기 행동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 이로써 자기절제 능력이 형성될 수 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생활 방식 토론 활동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적으로 돌아봄으로써 자기 절제 능력이 신장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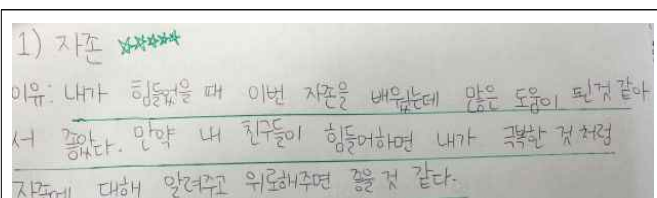
나의 장점을 최대한 많이 찾아보는 과정에서 유창성이 발휘 될 수 있다. 스마트폰이나 자전을 활용해 ‘나의 소중함을 한문으로 표현하기’ 과정을 통해 정보처리 능력(매체 활용 능력)이 신장 될 수 있다.

자기 생각 글쓰기를 하는 동안 학생들은 문장의 의미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아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다.

학년말에 이 수업에 대한 평가서를 받았다. 학생들은 자존 수업을 통해 내 자신이 소중한 사람인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자존을 알려 주고 위로해 주고 싶다고 밝혔다.



나 자신을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었고, 다시 한 번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깨닫게 되었다.



내가 힘들었을 때 이번 자존을 배웠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좋았다. 만약 내 친구들이 힘들어하면 내가 극복한 것처럼 자존에 대해 알려주고 위로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서로 서로에게 칭찬하는 것이 어렵다면 먼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명의 학생에게 칭찬 세례를 주어 시범을 보일 수 있다. 스스로 장점을 찾기 어려우면 모둠원들이 최대

한 그 친구의 장점을 많이 발견해 줄 수 있도록 한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한문 문장으로 바꿀 때 한자 변환이 어렵다면 글자의 수를 줄여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 3.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사례

상대방을 비하하면서 유희를 추구하는 교실, 거친 욕이 난무한 교실 문화 속에서 학생들은 정신적 황폐함을 느끼게 된다. 이런 교실 문화를 칭찬이나 격려로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를 고민하던 가운데 상대방을 축복하는 수업을 설계하게 되었다.

우선 관련된 문장에는 산문 중에 새해가 되면 덕담을 주고받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중1 처음 한문을 접하는 학생들에게 다소 길이가 길고 내용이 평범하다. 이보다는 간결하고 서정적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한시를 통해 덕담을 학습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축복과 관련된 한시를 학습하고 이를 패러디하여 덕담을 주고받으면 한시가 주는 문체의 심미적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여운도 오래 남을 것이다. 그래서 ‘樂只君子 邦家之基로다, 樂只君子여 萬壽無期로다’라는 현자의 덕을 찬미하고 축복하는 시경의 지문과 교과서에 실린 활동<sup>14)</sup>을 활용하여 친구에게 ‘덕담하기’ 수업을 기획하였다.



모

답

활

동



본문 “시경”편에 나오는 시는 잔치에서 흔히 불리던 것으로, 이 시를 연주하며 빈객을 축복하였다고 한다. 이 시의 형식을 바탕으로 친구에게 축복하는 말을 만들어 보고, 돌아가며 이야기를 해 봅시다.



**덕담만들기 관련 교과서 활동**

14) 이명학, 강민구, 이군선, 오예승(2011) 중학교 한문 3, 금성출판사 28~31쪽.

## ‘덕담 만들기’ 수업을 통한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능력 신장

교육과정 내용	독해, 문화	배움 방법	협동학습, 협력학습	
단원	德談			
성취기준	·한9121-3. 한시에 사용된 단어, 시구의 의미를 문맥을 고려하여 말할 수 있다. ·한9122/9123-3. 한시의 중심 내용과 지은이의 의도를 말할 수 있다. ·한9211-1.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다. ·한9211-2. 전통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배움 주제	·친구 축복하기			
교과 역량	·공동체의식(배려, 가치 다양성의 이해와 존중), 정보처리 능력(매체 활용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유창성, 융통성)			
평가 반영	·지필평가(문장과 관련된 문장) ·수행평가(덕담 만들기)			
배움의 흐름				
도입	풀이	적용	적용 및 활용	적용 및 평가
1. 동기유발 - ‘축복’에 관한 노래 듣기 -고대시대 ‘시’를 노래로 부르며 현자를 축복했던 경우를 소개	1. 문장 풀이 개인별, 모둠별 해석, 전체 공유	1. 나의 고민과 바라 는 점쓰기 2. 모둠안에서 돌아 가며 친구에 대한 칭찬과 축복의 말 쓰기 3. 친구의 축복 중 마음에 드는 것에 ○ 그리기	1. ○ 처진 글을 써 준 친구가 상대방을 축복하는 덕담 만들 기 2. 덕담 읽어주며 친구 축복하기	1.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노래를 들으며 활동 과정 중 느낀 점 자기 생각 글 쓰기

### 가. 동기유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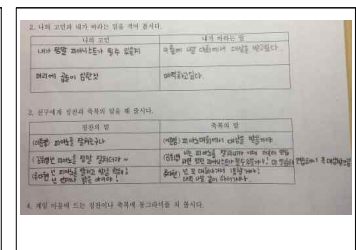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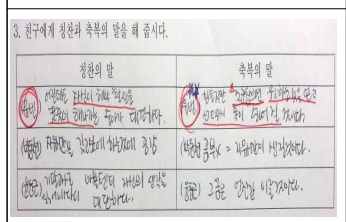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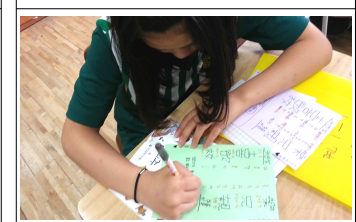
‘축복’에 관한 노래 들으며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을 열어 나간다. 오늘날 축복하는 노래를 불러 주는 것처럼 고대시대에도 잔치에서 시를 연주하며賓客을 축복하였음을 설명하고 문장을 제시한다.

### 나. 풀이 : 개인별, 모둠별 해석 후 전체가 공유한다.

## 다. 적용

학생들에게 바로 덕담 만들기를 진행하는 것은 단계가 비약적이다. 친구가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떠한 것들을 이루고 싶은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덕담을 만든다면 피상적인 활동에 그친다. 따라서 먼저 학생들이 현재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모둠 안에서 삶을 나누도록 한다. 그 후 친구에게 필요한 칭찬과 축복을 모둠원들이 돌아가면서 적어준다. 친구들이 적어 준 축복 중 가장 본인에게 감동이 되는 것에 ○를 친다. 그 항목을 적어준 친구가 상대방에게 적절한 덕담을 한시의 형태로 만든다. 이를 서로에게 읽어주고 축복한다. 이 과정을 순서대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1) 나의 고민과 바라는 점 쓰기
- 2) 모둠 안에서 돌아가며 친구에 대한 칭찬과 축복의 말 쓰기
- 3) 친구의 축복 중 마음에 드는 것에 ○ 그리기
- 4) ○ 쳐진 글을 써 준 친구가 상대방을 축복하는 한시 덕담 만들기
- 5) 덕담 읽어주며 친구 축복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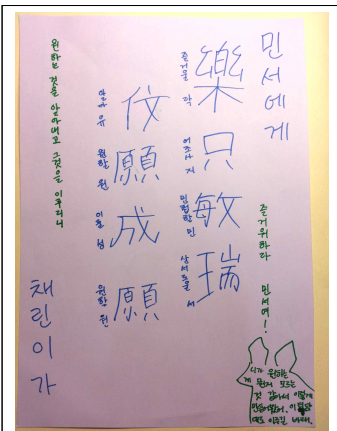
		
<p>문장 학습</p>	<p>나의 고민과 바라는 점 쓰기</p>	<p>모듬에게서 학습지 돌려 칭찬과 축복의 댓글 써주기</p>
		
<p>마음에 드는 축복에 동그라미 쳐 주고 그 사람에게 학습지를 주기</p>	<p>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덕담 만들기</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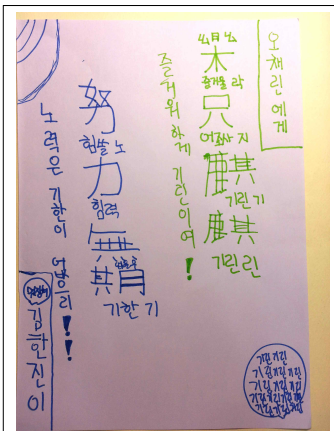


덕담 읽어주며 상대방을 축복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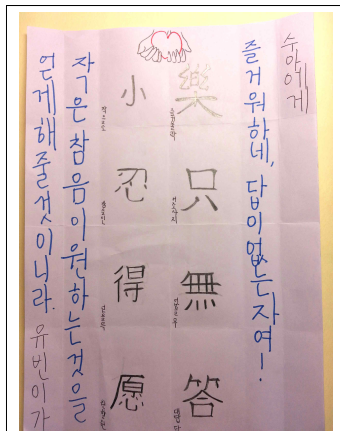
라. 적용 및 평가 : ‘당신은 특별한 사람’ 이라는 노래를 들으며 활동 과정 중 느낀 점을 자기 생각 글쓰기로 연계하였다.



이런 덕담을 받으니 절로 웃음이 났다. 삶에 찌들어 있는 나에게 정말 오랜만에 웃음이란 것을 선물해 준 것 같다. 덕담의 내용은 “원하는 꿈을 알고, 그 꿈이 실현 될 것이다” 이었는데 내 꿈이 무엇인지 고민되는 상황에서 이런 덕담은 내 마음을 차분하게 해 주었고, 앞으로 내 꿈을 정할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덕담을 써 준 내 친구 채린이에게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요즘 나의 고민은 포레 중에 나보다 그림을 더 잘 그리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불안하고, 그림 그릴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 초조하다. 내가 받은 덕담은 ‘락지기린 노력무기로’ ‘즐거워하게 기린이어! 노력은 기한이 없으리라’는 뜻이 있다. 나는 이 활동을 하면서 내가 정확히 뭘 원하고 뭘 어려워하는지 알게 되었고, 그것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될 지 알게 됐다.



유빈이에게  
요즘 기말고사 준비도 그렇고 수행평가도 많아서 피곤하고 지쳐있었는데 네가 써 준 덕담 중에 ‘작은 참음이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 줄 것이라’는 말 덕분에 앞으로 조금 피곤하고 지쳐도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유빈이도 키랑 성적 꼭 오르길 바라고 남은 일 학기 생활도 즐겁게 보내자! 사랑해♡ -수아가-

덕담 카드와 자기생각 글쓰기

<p>피아노 대회를 준비하는 아름이에게 즐거워하네! 아름이여! 대회에서 대상을 받을 것이다!</p>	<p>서인국을 좋아하는 희영이에게 즐거워하네! 서망(서인국 바라기)이 여! 서인국을 좋아하네!</p>	<p>농구를 좋아하는 준영이에게 즐거워하네! 농망(농구 바라기)여! 농구를 즐겨워하고 행복해하네!</p>
<p>덕담 카드</p>		

좋은 소리 어른들에게 많이 들었을 텐데, 친구의 한 마디 덕담이 아이들의 마음에 많이 와 닿았던 것 같다. 덕담을 만들 때 사뭇 진지했던 아이들이 친구에게 덕담을 읽어주는 시간에는 웃음꽃이 떠나질 않았다. 쑥쓰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는 아이, 부끄러워 친구에게 덕담을 선물 받을 때 고개가 살짝 틀어지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순수하고 아름다웠다. 서로가 만든 덕담을 읽어 줄 때에는 모두 친구들의 감탄과 박수가 절로 나왔다.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행복한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이 활동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느끼고 있었다.

이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는 한자로 덕담을 만드는 게 어려울 것 같았다. 하지만 의외로 별로 안 어렵고 재미있었다. 덕담이 적힌 종이를 주고받으면서 재미있기도 하고 나한테 써 준 이준영한테 생각보다 성의 있게 써 줘서 고맙기도 했다. 이 활동을 통해 덕담, 문장을 쓸 때 순서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앞으로 이런 활동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중학교 한문 시간 때 친구에게 덕담을 만들어 들려주는 활동을 했다. 아나운서가 되지 못하면 모델을 하려는 내가 성장이 멈춘 것과 성적으로 인한 내 고민을 듣고



덕담을 들려준 수아에게 고맙고 한문 선생님께도 감사드려요. 그리고 내가 피곤한 수아에게 덕담을 들려 줄 수 있어 도움을 주는 것이니 내가 도움이 된다는 것이 행복하다. 이 활동으로 우정이 더 돈독해졌다.

자신을 소중하게, 귀하게 느끼게 해 준 수업 이었던 것 같다. 그것을 한문과 같이 배우며 친구의 고민과 걱정을 덜어주고 칭찬해 주고 격려해 준 이 시간에, 마음에 기쁨이 들어온 것 같다. 친구가 종이를 건네며 말한 한 마디가 마음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며 그 친구의 진심이란 것을 알았다. 한문의 활용성도 좀 더 이해하게 된 것 같다. 오늘 수업으로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이 수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창의·인성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친구의 고민과 바라는 점을 듣고 그것에 대한 칭찬과 축복의 말을 써주면서 배려와 존중을 경험할 수 있다. 친구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스마트폰이나 자전 등을 활용하여 덕담을 만드는 과정에서 매체 활용 능력이 신장될 수 있으며, 덕담의 내용을 참신하게 표현함으로써 창의적 사고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이 활동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였다.

자전이나 스마트 폰으로 한글 문장을 한자로 변환할 때는 대체로 우리말 순서를 따르되 ‘~을 ~하다’에서 ‘~을’에 해당하는 말은 뒤에 배치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아직 문장의 구조까지 학습하지 않은 단계이고, 자세한 문법 설명은 학생들이 작문 활동을 해 보기도 전에 지쳐버릴 수 있으므로 간략하게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덕담을 지을 때 자기에게 해 준 덕담 중 가장 마음에 와 닿는 덕담에 ○를 치고 그 말을 써 준 친구가 덕담을 만들어 주도록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소외되어 자기의 덕담을 자신이 만든 친구도 한 반에 1~2명 있었다. 소외되는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스마트 기기를 주로 사용하는 학생들에게는 문장을 한역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나,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으면 모둠원들이 협동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 4. 의사소통능력을 높이는 사례

##### ‘경청’ 수업을 통한 상호 이해와 소통능력 신장

교사가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 아마도 ‘조용히 하세요.’, ‘잘 들으세요.’ 일 것 같다. 학생 참여식 수업을 하다 보면, 발표는 많이 이루어지나 친구의 생각을 공유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생각하고, 그것에 따른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배움이 자라날 수 있는데, 저마다 자기 말만 쏟아 놓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배움이 커지기 어렵다.

경청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존경심을 보여주는 최고의 기술이다. 현대 경영학의 대부인 피터 드러커는, “21세기를 이끌어가는 리더는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소통에는 네 가지 방법이 있다.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다.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어려울까? 듣기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경청을 통하여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경청하는 사람에게 우호적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sup>15)</sup>

본 수업은 어떻게 하면 경청하는 교실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서 기획하게 되었다.

본 수업에서는 경청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상황을 몸소 체험함으로써 경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청과 관련된 문장을 학습한다. 경청의 정의와 실천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경청과 관련된 문장과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글쓰기로 표현하여 문장의 의미를 자신에게 내면화한다.

15) 테일 카네기(2009), 리더가 알아야 할 카네기 리더십 31가지, 삼진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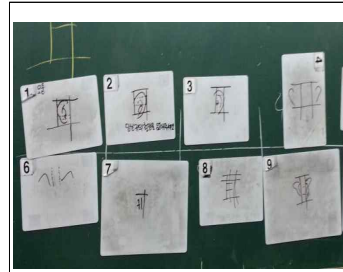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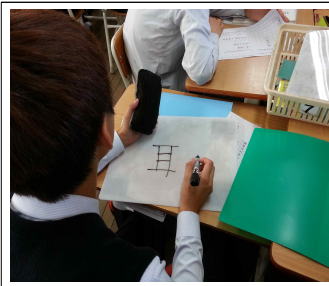
교육과정 내용	독해, 문화	배움 방법	협동학습, 협력학습	
단원	傾聽			
성취기준	· 한9121-1. 한문 단문에 사용된 단어, 구절의 의미를 문맥을 고려하여 말할 수 있다. · 한9122/9123-1. 한문 단문의 중심 내용과 지은이의 의도를 말할 수 있다. · 한9211-1.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다. · 한9211-2. 전통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배움 주제	· 경청의 의미와 방법을 알고 내 삶에 실천하기			
교과 역량	· 의사소통능력(말하기, 듣기), 공동체의식(배려, 신의)			
평가 반영	·지필평가(문장과 관련된 문장) ·수행평가(자기생각 글쓰기)			
배움의 흐름				
도입	풀이	적용	적용 및 활용	적용 및 평가
1.동기유발 -‘경청에 관한 포스터’ 친구의 설명 듣고 모듬별로 그림그리기 -원래의 그림과 달라진 점 찾기 -원래 그림과 달라지게 된 이유 토론하며 경청의 중요성 깨닫기	1. 문장 풀이 개인별, 모듬별 해석, 전체 공유	1. 짝끼리 ‘경청했을 때’, ‘경청하지 않았을 때’ 역할극하고 소감 말하기 2. 모듬별로 경청을 하는 태도(언어적, 비언어적)태도에 대해 다양하게 써보기	1. 모듬끼리 聽자의 퍼즐 조각을 배열하여 ‘듣기의 정의’ 이나 ‘듣기의 방법’에 관한 스토리 만들기	1. 경청에 관한 ‘자기 생각’ 만들기

## 가.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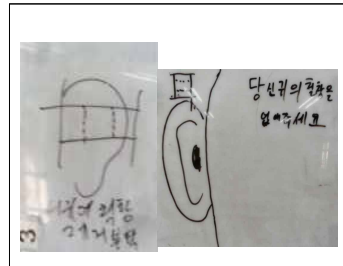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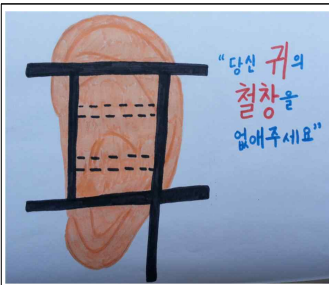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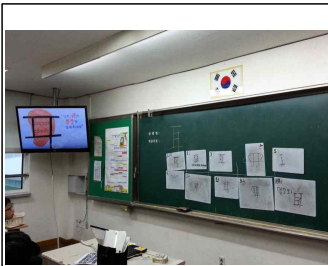
학생 한 명이 나와 '경청에 관한 한자 포스터'를 보고 그림을 설명하면, 나머지 친구들은 설명을 듣고 모둠별로 모둠칠판에 그림을 그린다. 모둠 칠판을 칠판에 부착하고 원래의 그림과 달라진 점을 찾는다. 원래 그림과 달라지게 된 이유를 토론하며 경청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을 갖는다.



‘한자포스터’ 설명을 듣고 모듈별로 그림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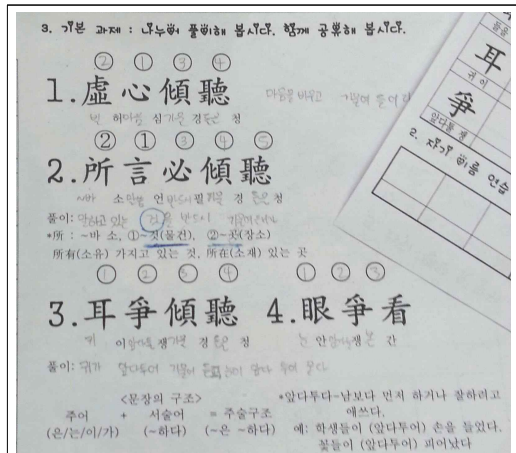


모듈별 그림 칠판에 붙이기



원래의 그림과 비교해 보기, 그림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 토론하기

나. 문장 풀이 : 개인별, 모듈별 해석 후 전체 공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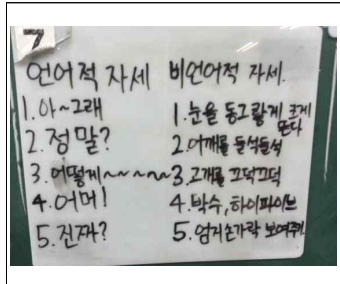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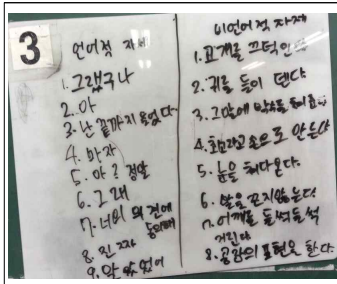
개인별 · 모듈별로 토론하여 해석하기

다. 적용

1) 짝끼리 ‘경청했을 때’, ‘경청하지 않았을 때’를 역할극하고 그 때의 소감을 말해

본다. 이 과정에서 경청의 중요성을 몸으로 깨닫는 시간을 갖는다.

2) 모듈별로 경청을 하는 태도(언어적, 비언어적)태도에 대해 다양하게 써보고 전체가 공유하며 경청의 태도에 대해 익힌다.



모듈별로 경청을 하는 태도(언어적, 비언어적)태도에 대해 다양하게 써보고 이에 대해 의견 나누기

## 라. 적용 및 활용

모듈끼리 聽자의 한자 조각을 배열하여 ‘듣기의 정의’이나 ‘듣기의 방법’에 관한 스토리를 만든다. 이 과정에서 ‘듣기’에 대한 자신 만의 정의를 말함으로써 듣기의 가치를 내면화한다. 이 활동을 시행해 본 결과 듣기란 ‘귀에서 마음까지 전달되는 것’, ‘마음으로 보는 것’, ‘마음과 눈과 귀를 하나로 하는 것’, ‘보고 들어야 = 뜻을 안다’, ‘서로 다르게 보아도 잘 들으면 마음이 하나가 된다.’ 등 듣기의 정의를 다양하고 참신하게 표현하였다. 이 활동 후 聽의 갑골문을 제시하여 ‘여러 사람의 말을 커다란 귀로 듣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자원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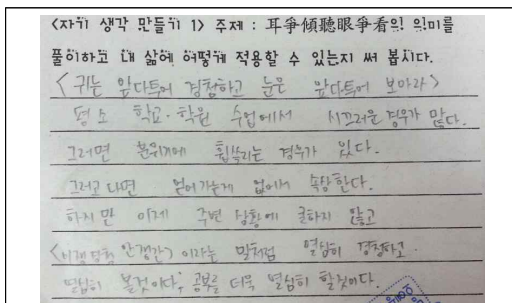
이 활동과정에서 창의적 사고력이 신장되고 공동체의 삶 속에서 듣는 것에 대한 가치를 내면화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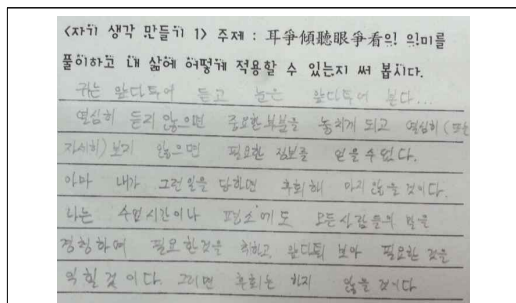
聽자의 퍼즐 조각을 배열하여 ‘듣기의 정의’이나 ‘듣기의 방법’에 관한 스토리 만들기

## 마.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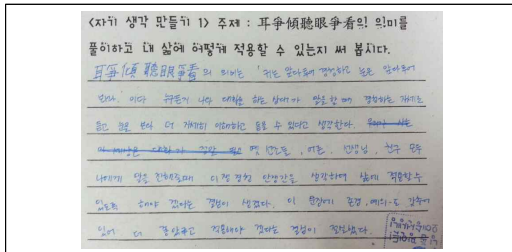
경청에 관한 ‘자기 생각 만들기’ 통해 경청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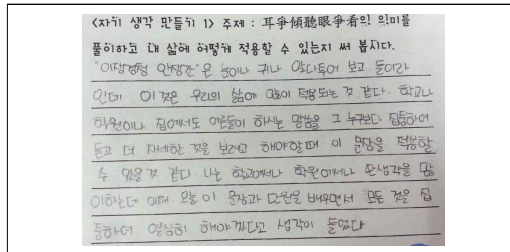
귀는 앞 다투어 경청하고 눈은 앞 다투어 보아라. 평소 학교·학원 수업에서 시끄러운 경우가 많다. 그러면 분위기에 휩쓸리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나면 얻어가는 게 없어서 속상하다. 하지만 이제 주변 상황에 굴하지 않고 <이 쟁경청 안쟁간>이라는 말처럼 열심히 경청하고 열심히 볼 것이다.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할 것이다.



귀는 앞 다투어 듣고 눈은 앞 다투어 본다. 열심히 듣지 않으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되고 열심히(또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아마 내가 그런 일을 당하면 후회해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수업시간이나 평소에도 모든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며 필요한 것을 취하고 앞 다투어 보아 필요한 것을 익힐 것이다. 그러면 후회는 하지 않을 것이다.



耳爭傾聽眼爭看的의 의미는 '귀는 앞 다투어 경청하고 눈은 앞 다투어 보라'이다. 누구든지 나와 대화를 하는 상대가 말을 할 때 경청하는 자세로 듣고 눈을 보아 더 자세히 이해하고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옛 선조들, 어른 선생님, 친구 모두 나에게 말을 전해 줄 때 이경경청 안쟁간을 생각하며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결심이 생겼다. 이 문장에 존경, 예의도 갖추어 있어 더 좋았고 적용해야겠다는 결심이 결실했다.



‘耳爭傾聽眼爭看’은 눈이나 귀나 앞 다투어 보고 들어라인데 이것은 우리의 삶에 많이 적용되는 것 같다. 학교나 학원에서 집에서도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그 누구보다 집중하여 듣고 더 자세한 것을 보려고 해야 할 때 이 문장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탄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제 오늘 이 문장과 단원을 배우면서 모든 것을 집중하여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이 수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창의·인성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청에 관한 역할극을 하며, 학생들은 공동체의 삶 속에서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 듣는 것에 대한 방법을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경청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聽 한자 퍼즐로 듣는 것에 대한 정의 내리기 활동을 통해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신장 될 수 있다.

문장의 내용을 삶에 적용한 글쓰기 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삶 속에서 듣는 것에 대한 가치를 내면화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다양한 모둠활동 과정을 통해 말하고 듣는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그러나 1회적 수업으로 경청이 몸에 배기란 쉽지 않다. 경청을 몸으로 체득하기까지는 개인의 노력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꾸준히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장의 의미를 되내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 ‘공감’을 주제로 한 통합 수업을 통한 상호 이해와 소통능력 신장

집단 따돌림, 학교 폭력, 친구들 사이의 갈등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가치가 무엇일까? 경청, 배려, 존중, 협력 등 다양한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 감정처럼 느껴주는 ‘공감’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동교 선생님들과 공감 수업을 기획하게 되었다. 연구자의 재직교는 혁신학교가 아니다. 아직 학교 전체에서 통합 수업을 하기 위한 여건이 갖추어진 상태는 아니다. 때문에 이 주제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모여 비록 학년은 달라도 각 각의 교과에서 ‘공감’이라는 가치를 주제로 통합수업을 시도해 보았다.

먼저 한문과에서는 과거 황희정승의 일화 속에서 황희와 형이 되어 이야기를 완성해 보고, 여기에 나타난 공감을 이야기해 본다. 이를 한문 문장으로 학습 한 후, 공감을 생활 속에 적용한 활동을 진행한다. 고민을 쓰고 친구의 이야기에 공감하거나, 공감하는 구체적 방법을 토론해 본다. 또한 공감을 주제로 한자포스터를 만들고 이를 동아리 활동의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으로 연계한다. 캠페인 활동에 대해서는 ‘창의·융합 사고 능력을 높이는 사례’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1학년 국어과 수업에서는 공감하는 말하기가 왜 필요한지, 실제 언어 생활 속에서 어떻게 공감하는 말하기를 할 수 있는지 실천해본다.

도덕과에서는 학교에서의 공감을 사회에서의 공감으로 확대한다. 타인과 약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실천하기 위해 장애 체험을 하고 여기에서 느낀 점들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한다.

3학년 국어과 수업에서는 ‘거미’라는 시에 나타난 체험에 공감하여 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시 속 화자나 거미의 입장에서 상황을 공감해볼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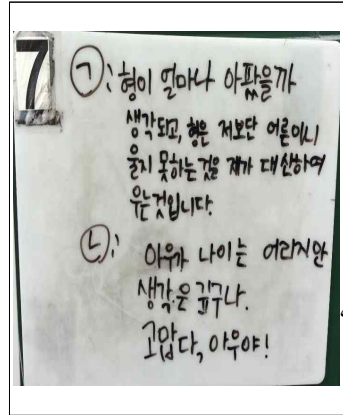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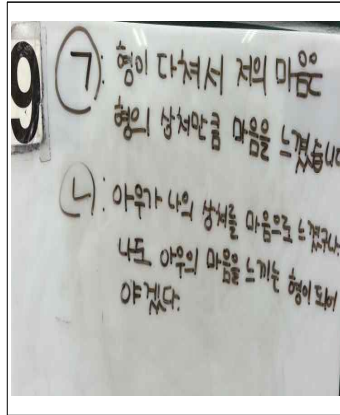


교육과정 내용	독해, 문화	배움 방법		협동학습, 협력학습
단원	傾聽			
성취기준	· 한9331-1.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을 구분하고 그 특성을 말할 수 있다 · 한9331-2. 문장의 구조를 구분하고 그 특성을 말할 수 있다. · 한9121-2. 한문 산문에 사용된 단어, 구절, 문장의 의미를 문맥을 고려하여 말할 수 있다. · 한9122/9123-2. 한문 산문의 중심 내용과 지은이의 의도를 말할 수 있다. · 한9211-1.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다.			
배움 주제	· 공감의 의미와 방법을 알고 내 삶에 실천하기			
교과 역량	· 의사소통능력(말하기, 듣기), 공동체의식(배려, 협력, 참여와 책임)			
평가 반영	· 지필평가(문장과 관련된 문장) · 수행평가(자기생각 글쓰기)			
한문과 배움의 흐름				
도입	풀이	적용	적용	적용 및 평가
1. 동기유발 · ‘공감과 관련 된 일화의 내 용( 황희정승 이야기) 말풍 선 채우고 역 할극 · ‘공감’이란 주 제 도출하기	1. 한자 카드 맞춰 회 화가 한 말 문장으로 만들기 -개인별 한자 카드 음 뜻 찾기, -모듬별 문장 맞추고 해석하기, -전체 공유	1. 공감 댓글 쓰기 -고민 쓰고 모듬별로 돌아가며 공감 댓 글 달기 -제일 감동이 되는 댓글에 ○ 치고, 감 동이 되었던 이유 이야기하기	1. 상황에 따른 공감 하는 방법 토론하 여 발표하기	1. ‘공감’에 관한 ‘자 기 생각 만들기 2. ‘공감’을 주제로 한 한자포스터 제작 및 발표
동아리 활동 배움의 흐름				
도입	전개			정리
1.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필요성 이야기	1. 한문 수업 시간에 작성한 한자 포스터 중 우수작 선정	2.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위한 피켓 으로 한자포스터 재 제작 3. 한자 포스터 플로 토로 뽑아 교내 게시	4.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캠페인 활동에 대한 소감이야기

1학년 국어과 배움의 흐름				
도입	전개			정리
1. 동기유발 대화가 통하지 않아 싸움이 일어난 영상을 보고, 이들의 갈등 원인을 말해보기.	1. 상황별 대화 글을 몇 가지 보고, 자신이 평소 하는 말처럼 대답하는 말 써보기. 2. 써 본 글을 토대로 공감하는 대화를 한 친구를 찾기.	3. 모듈에서 제시된 상황에 맞게 공감하는 대화로 역할극 대본 짜기	4. 모듈별로 나와 역할극 하고, 다른 모듈은 공감하는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	1. 공감하는 말이 사용되지 않는 제시문 보고, 어떤 점이 문제인지를 적고 공감하는 말하기가 왜 필요한지를 적어보기
도덕과 배움의 흐름				
도입	전개			정리
1. 학습 주제 파악 - 학습지를 보며 어떤 내용을 배울 것인지 추측하고 나의 학습목표 세우기	1. 맹인 체험하기 - 두 사람이 짝이 되어 맹인과 안내자가 되어 제한 시간 안에 달팽이 그림 그려보고 역할 바꾸어 체험해보기	2. 소감 말하기 - 맹인 역할을 했을 때 어떤 점이 힘들고 어떤 말이 편안하게 느껴졌는지 적어보기.	3. 장애인 공감하는 글쓰기 - '내가 맹인이라면' 어떤 점이 가장 힘들지 글 쓰기	4. 다큐이치치의 동영상 시청 5. 장애인을 대할 때 마음가짐 이야기 나누고 글쓰기
3학년 국어과 배움의 흐름				
도입	전개			정리
1. '벌레'와 관련된 퀴즈 및 벌레와 관련한 자신의 경험 발표하기	1. 시 낭송 후 시를 읽고 느낀 점을 공유하기 2. 시에서 일상의 체험을 자신의 말로 나타내보기	3. 모듈별로 시의 등장하는 역할에 공감하기 위한 인터뷰하기 ① 모듈원 역할(화자, 큰 거미, 새끼 거미, 작은 새끼 거미) 정하기 ② 모듈원이 돌아가며 서로를 인터뷰하기, 각자가 그 역할에 공감하는 답하기 ③ 반 전체 공유하기	4. 내용을 들으며 '나'의 입장, '거미' 입장 중 어느 것에 더 공감했는지와 그 이유 말하기	1. '나' 또는 '거미' 중 하나의 입장을 선택해서 시의 상황 및 느낌을 써보며 시에 나오는 체험에 공감하기 및 전체 공유하기

## 가. 동기유발

‘공감과 관련된 일화의 내용(황희정승 이야기)의 말풍선을 채우고 역할극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공감’이란 주제를 도출해낸다.



‘형이 다친 상황에서 동생인 황희가 왜 울었을까?’라는 질문에 ‘형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이 되기 때문에’라고 답한 학생이 많았다. 그러나 ‘동생이 우는 것에 대해 형은 뭐라고 생각했을까?’라는 질문에서 ‘고맙다. 아우야’라고 답한 학생들도 있었지만 동생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고 ‘제가 왜 저러지?’라고 반응한 아이들도 있었다. 아이들의 공감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느낄 수 있었다. 간단한 역할극이지만, 이를 통해 ‘공감’이라는 주제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었다.

## 나. 풀이

### 1) 한자 카드 맞춰 황희가 한 말 문장으로 만들기

동생이 했던 말 부분의 해석을 제시하고, 이를 한자카드를 조합하여 문장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 해석 제시
- 개인별 한자 카드 음 뜻 찾기
- 모둠별 문장 순서 맞추기
- 전체 공유

비교적 어렵지 않게 문장을 완성하였는데, 많은 모둠이 ‘兄雖泣不 豈手痛不乎’라고 완성하였다. ‘不’이 쓰여야 할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不’이 활용되는 언어 생활의 예를 다양하게 말해 보도록 하였다. 여기서 공통점을 찾도록 하

였다. 그리고 다시 문장에서 이상한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자 많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오류를 발견하였고, 이를 통해 한문 문장의 구조를 익힐 수 있었다.



## 한자 카드 조합하여 문장 완성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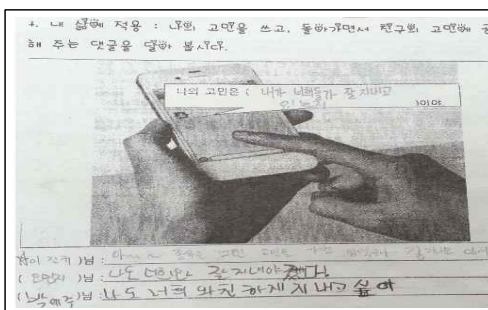


### 1차 완성된 문장

## 다. 적용

### 1) 공감 댓글 쓰기

공감하는 것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기 위해 각자 자신의 고민을 쓰고 모둠별로 돌아가며 공감하는 댓글을 달도록 하였다. 제일 감동이 되는 댓글에 ○를 그리고, 감동이 되었던 이유를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말 풍선 : 나의 고민은 내가 너희들과 잘  
지내고 있는지야

이\*규님 : 아~ 우리 성우가 그런 고민을 가  
지고 있었구나~ 잘 지내고 있어~ 괜찮아^^

오\*주님 : 나도 너희와 잘 지내야겠다.

박\*주님 : 나도 너희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속 깊은 고민은 잘 쓰지 않을 것 같아 친구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정도의 고민을 쓰도록 지도했다. 의외로 많은 아이들이 ‘성적, 외모, 친구와의 관계’ 등 자신의 고민을

솔직히 털어 놓았다. 또한 친구의 고민에 진솔하게 반응하고 있어 놀랐다.

2년 동안 학교를 쉬고 복학한 한 학생의 경우에는 ‘내가 너희들과 잘 지내고 있는지’를 고민으로 적었는데, 그 모둠 친구가 ‘아~ 성우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구나~ 잘 지내고 있어~ 괜찮아~’라고 댓글을 달아주었다. 그날 성우는 친구에게 받은 댓글을 발표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공감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혹은 장난으로 쓰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고, 진지하게 공감하는 방법들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다. 한문 문장을 자신의 삶과 연결 짓고 내면화 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 2) 공감하는 방법 토론하여 발표하기

모둠마다 토론한 결과를 칠판에 붙이고, 발표를 진행하였다. 친구의 감정을 이해해주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혔다.

5. 공감을 하는 자세에 대해 토론하여 봅시다.	
언어적 자세	비언어적 자세
1. <del>어떻게</del> 괜찮니?	1. 압박을 준다
2. 왜 우니?	2. 토닥토닥 쳐준다.
3. 정말 아프겠다... 아시	3. 어깨동무
4. 힘내	4. 박동해준다.
5. 괜찮을 거야	5. 안아준다.

공감하는 자세 토론 및 발표

## 라. 평가

‘共感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주제로 한 ‘자기 생각 글쓰기’를 실시하고, 수행평가로 ‘공감’을 주제로 한 한자포스터 만들기를 후속적으로 실시하였다. 많은 아이들이 자신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共感의 경험들을 꺼내놓았다. 다음은 학생들의 ‘자기 생각 만들기’ 작품이다.

보영여중에 간 율이, 지현이가 나와 미란이를 만났을 때 고민을 털어놓았다.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자기를 무시하면서, 뒷담을 하고 빼놓고 논다고 힘들다면서 말했다. 나도 그 기분을 잘 알기 때문에 괜찮다고, 내가 옆에 있어 준다고 말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애들이 울었다. 나는 지현이를 미란이는 채울이를 안아주고 달래줬다. 율이 지현이가 나와 미란이에게 그 고민을 털어 놓을 때 화나고 ‘정말 공감이가 필요하겠다’, ‘나도 아마 저 상황의 당사자라면 어땠을까’ 등이 생각이 들면서 나도 같이 울었다. 율이, 지현이가 힘을 냈으면 좋겠다.

저는 저희 엄마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저희 엄마께서는 엄마도 사춘기 시절이 있었기에 너의 기분을 알아. 그래서 혼자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시며 저의 입장을 배려해 주십니다. 저 때문에 불편하시지만 배려해 주셔서 거실에 계시고 저 때문에 제가 자기 전까지는 되도록 이면 방에 들어오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가 시끄럽게 음악을 틀어도 피곤하실 때나 힘들실 때가 아니면 꾸짖으시거나 혼내는 일이 별로 없고, 제가 힘들다는 걸 안다면서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화가 나도 금방 풀려 하시고, 외출 시간을 가끔 풀어주시기도 하고, 일상생활에서 많은 것을 배려해 주시며 저를 생각해 주시고, 저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시는 저희 엄마께 저는 항상 감사하고 죄송하고 힘내시라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친구들의 글들을 발표를 들으면서 공감이라는 것이 생활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 인가를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

학년말 평가서에 학생들은 공감수업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었다.

- A - 자신의 고민을 친구들에게 말하며 공감하였던 시간, 사소한 것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조금은 짐을 털어 준 것 같아 좋았다.
- B - 공감이 무엇인가를 실천하여 보여 주었던 수업. 다른 시간이라면 공감은 이런 것이다 설명만 해 주었을 텐데, 직접 실천하는 수업이 좋았다.
- C - 서로 의견을 나누어 가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는 생각을 느끼게 만들었다.

실제 자신의 고민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공감을 받는 경험을 통해 공감이란 무엇이라는 개념과 방법을 조금이나마 체득할 수 있었다. 공감에 관한 한문 문장을 지식적으로 해석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읽’을 ‘삶’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이 되었다.

이 수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창의·인성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황희의 일화를 역할극으로 경험하고, 친구의 고민에 대해 댓글을 달아주는 과정을 통해 타인의 경험에 대한 공감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한자 카드로 문장을 맞추고, 공감하는 방법을 토론하는 등 다양한 모둠활동의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능력과 협동과 참여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공감에 관한 자기 생각 만들기 과정을 통해 ‘공감’이라는 가치를 내면화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신장될 수 있다.

인성교육의 효과는 한 번에 나타나기 어렵다. 모둠안에서 친구들이 의견을 말할 때, 전체가 토론할 때 친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5. 창의·융합 사고 능력을 높이는 사례

집단 따돌림 등의 학교 폭력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울증, 학업 포기, 자살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한자·한문 교육을 통하여 학교를 바꿀 수 있는가?’<sup>16)</sup>

바꿀 수 있다면 한자·한문교육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고전을 텍스트로 활용한 다양한 인성교육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지만, 이 수업에서는 한자포스터를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에서 그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본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삶과 밀접한 주제를 한문 수업 시간에 ‘한자 포스터’로 제작하고 이를 동아리 시간의 ‘캠페인 활동’에 활용한다. 이것이 학생들의 문화를 바꿀 수 있다면 한자는 죽은 지식이 아니라 학생들의 삶에 살아있는 지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앎’이 ‘삶’으로 전환될 것이다.

한자포스터 만들기 수업은 지난 연구자의 2013년 논고에 소개한 바 있으나 단계별 상세한 과정과 캠페인 활동으로 연계한 과정을 좀 더 심화시켜 제시하고자 한다.

---

16) 강민구(2014), 공익광고를 활용한 한자·한문 교수, 평가에 대한 연구, 한자한문교육 제 33집, 한국한자한문 교육학회. 참고, “본고가 갖는 기본적 문제의식은 ‘한자·한문 교육을 통하여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공익광고의 기능이 한문교육과 결합된다면, 한문교육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

## ‘한자 포스터 제작’ 을 통한 창의적 사고 능력 신장

교육과정 내용	독해, 문화	배움 방법	협동학습, 협력학습	
단원	傾聽			
성취기준	·한9221-2. 한자 어휘를 뜻에 맞게 언어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 ·한9211-1.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다. ·한9211-2. 전통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배움 주제	·‘공감’에 관한 한자포스터 창의적으로 만들기 ·‘한자 포스터’를 활용하여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교과 역량	·창의·융합 사고 능력(창의적 사고기능-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공동체의의식(윤리의식, 규범 및 질서의의식, 배려, 신의)			
평가 반영	·지필평가(문장과 관련된 문장) ·수행평가(자기생각 글쓰기)			
한문과 배움의 흐름				
도입	적용	적용	적용	적용 및 평가
1. 동기유발 -생활 속에 활용되는 한자포스터 소개 -한자 포스터의 주제 이야기하기	1. ‘공감’, ‘학교폭력 예방’을 주제로 한 한자 포스터 제작 -포스터 제작 방법 설명	2. 포스터 제작	3. 포스터의 주제에 관한 ‘자기 생각 글쓰기’	1. ‘한자 포스터 발표’ 및 발표 내용에 관한 토론
동아리 활동 배움의 흐름				
도입	전개			정리
1.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필요성 이야기	1. 한문 수업 시간에 작성한 한자 포스터 중 우수작 선정	2.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위한 피켓으로 한자포스터 재 제작 3. 한자 포스터 플로토로 뽑아 교내 게시	4. 또래상담부 학생들이 각 반 교실을 다니며, 소외된 친구의 마음을 공감하여 학교 폭력을 예방하자는 캠페인 활동 실시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에 대한 소감이야기



## 가. ‘한자 포스터 만들기’ 수업 과정

### 1) 도입

생활 속에 활용되는 한자 포스터를 소개하고 포스터에 나타난 주제를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한자 포스터를 제작하는 목적과 효과에 대해 이야기한다.

### 2) 적용

#### 가. 한자 포스터 제작 방법 설명

먼저 한자 포스터 학생 작품을 예시로 보여주며, 한자 포스터를 제작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교과서 부록에 나와 있는 기초한자 일람표를 참고하여 내가 표현하고 싶은 주제를 담은 한자를 선정한다. 한자 1~2자만을 활용하여 간결하게 표현하도록 한다. 포스터의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짧은 문구도 함께 표현하도록 한다.

#### 나. 포스터 제작

포스터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모둠 친구들이나 교사와 먼저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포스터를 수정해 나간다. 완성된 초고는 색을 입히고 완성한다.

#### 다. 포스터의 주제에 관한 ‘자기 생각 글쓰기’

포스터를 제작하게 된 배경과 포스터에서 표현하고 싶은 주제, 포스터를 만들면서 느낀 점을 ‘자기 생각 글쓰기’로 연계한다. 완성된 포스터는 돌려가며 감상하고 친구들이 이에 대해 好問樂感 기법을 활용하여 댓글을 쓰도록 한다.

### 3) 평가

제작한 한자 포스터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토론의 시간을 갖는다. 발표를 들으며 포스터의 좋은 점, 질문할 점, 느낀 점 등을 자유롭게 발표한다. 학생들의 작품을 보면 그림의 표현력은 비록 부족하지만, 학생들의 삶과 밀접한 생생한 아이디어와 주제들이 돋보이는 작품이 많았다. 발표를 들으면서 포스터를 볼 때에는 파악되지 않은 숨은 의도들도 알게 되어 절로 감탄이 흘러나오는 경우도 많았다.

		
<p>포스터 제작 방법 소개하기</p>	<p>한자 활용 우정 포스터 제작</p>	<p>포스터 배경 글쓰기</p>
		
<p>발표하고 돌러가며 리플달기</p>	<p>한자 포스터 발표</p>	<p>한자 포스터 발표</p>
		
<p>공감 포스터 通 공감하면 통한다.</p>	<p>공감 포스터 聞 잘 듣고 말하는 것! 공감의 시작</p>	<p>공감 포스터 聞 상대방과 같은 입장이 되어 경청하자</p>

이 수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창의·인성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담아내는 주제에 관한 사고 과정을 통해 윤리의식, 규범 및 질서의식 등의 공동체 의식이 함양 될 수 있다.

주제를 한자 포스터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한자 자형이 가지는 형태적 특성을 더 잘 이해하고 한자의 조어력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신장된다.

포스터라는 회화 작품을 표현하는 과정은 예술가가 예술작품을 만드는 과정과 흡사

하다. 이 과정에서 예술적·문화적 감수성과 상상력이 신장될 수 있다. 사고를 시각화하는 능력과 융통성, 독창성 등의 창의적 사고기능이 신장될 수 있었다.

포스터에 대한 발표 과정을 통해 친구가 왜 그런 작품을 만들게 되었는지 듣고, 작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 친구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집단따돌림이나 학교 폭력 예방을 실천해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발표 시간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경청하고, 모두가 한 번은 주인공이 되어 마음껏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면, 한자 학습 이상의 인성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sup>17)</sup>

이 수업을 진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한다.

포스터에 1~2자의 한자를 사용하여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주제의 전달력을 높일 수 있다. 활동이 되도록 블록수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사고의 흐름을 끊지 않을 수 있어 좋다. 아이디어를 생성해내기 힘든 학생들은 친구들과의 협의 과정을 통해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자 포스터를 제작과 활용을 통해 ‘한자’라는 문자가 의사소통의 도구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들어와 삶을 변화 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한다.

## 나. 동아리 활동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시행 과정

### 1) 도입

포래상담부 학생들과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 토론을 하며, 캠페인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게 되었다.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에 수업시간에 만든 한자 포스터를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 2) 전개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17) 오예승(2013), 집중이수제 기반의 창의·인성 한문 수업 사례, 한자한문교육 제32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 가) 한문 수업 시간에 작성한 한자 포스터 중 우수작 선정
- 나)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위한 피켓으로 한자포스터 재 제작
- 다) 한자 포스터 플로토로 뽑아 교내 게시

라) 또래상담부 학생들이 각 반 교실을 다니며 ‘소외된 친구의 마음을 공감하여 학교 폭력을 예방하자’는 캠페인 활동 실시

### 3)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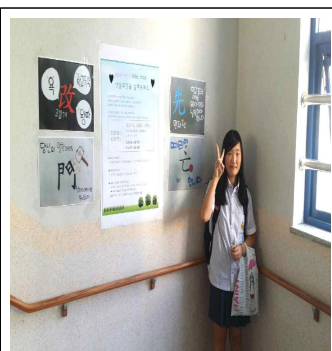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한자 포스터를 활용하여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을 하고 난 소감과 친구들의 반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직접 캠페인 과정에 참여한 또래상담부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우선 친구들이 만든 포스터의 내용과 형식이 참신하고 기발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亡’의 경우 때리면 망한다는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획의 마지막 부분을 권투 장갑의 형태로 익살스럽게 표현하였고, ‘男’의 경우 원래 발 전과 힘 력이 합한 형태인데, 발 전의 테두리를 강조하여 색칠함으로써 입구의 형태를 만들었다. ‘멋진 남자는 힘보다 대화’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門’의 경우 ‘말(言)’이라는 망치로 내려 쳐서 ‘門’이 부서지는 형태로 표현함으로써, 상처 주는 주는 말 한 마디의 파괴력을 나타내고 있다.

또래상담부 친구들은 처음에 모든 반에 들어가 캠페인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떨리기도 했으나, 자신들이 만든 작품으로 친구들 앞에서 학교 문화를 바꾸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한 것에 대해 ‘뿌듯하다’, ‘다음에 또 해 보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래상담부 동아리 학생들이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한자 포스터 재 제작



한자포스터 교내 게시



한자 포스터를 활용한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

<p>             고칠 개 - 학교 폭력, 왕따, 욕 이제는 고칠 때입니다.              망할 망 - 때리면 망 합니다.              사내 남 - 멋진 남자는 힘 보다 대화! 대화로 해결합니다.              여자 녀 - 아름다운 여자는 외모 보다 따뜻한 마음!              소외되는 친구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문 문 - 당신의 상처주는 말 한 마디로 상대의 마음의 문이 부숩니다.              생각 사 - 상대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송내인이 됩시다.              먼저 선 - 학교 폭력 예방! 이제 우리가 먼저 실천합니다!         </p>		
<p>학교 폭력 예방 포스터와 캠페인 내용</p>		

캠페인 활동을 지켜본 학생들의 반응은, 한자를 활용해서 포스터로 캠페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흥미로워 했다. 더구나 캠페인에 활용된 포스터의 내용이 자신이나 혹은 친구가 만든 내용이라 더 큰 관심을 갖었다. 포스터의 내용이나 수준이 자신들이 이해하기 쉽다고 하였다.

한 달 동안 교내에 포스터를 게시하였다. 학생들이 오가면서 포스터를 계속 보게 되었는데 한자가 주는 시각성 때문에 포스터의 내용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다고 한다. 교실에 들어가서 캠페인 활동을 할 때 캠페인의 문구를 따라하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망할 망! 때리면 망(亡)! 합니다”를 외치며 다니는 학생들이 많았다. 포스터란 형식의 간결성, 한자의 음 뜻을 따라 읽는데서 오는 청각성, 한자의 시각성이 결합되어 캠페인의 효과를 높였다고 생각된다.

한자를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을 통해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규범, 질서 의식, 윤리의식 등의 공동체 의식을 신장시킬 수 있다. 그리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자기 절제, 기본 생활 습관 등의 자기 관리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다.

## 6. 정보처리 능력을 높이는 사례

### ‘한문 교과 독서’를 통한 문제 인식과 해결 방안 탐색 능력 신장

요즘 교과마다 독서를 활용한 교육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한문과에서도 재미있게 독서를 하면서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지도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에 최근 한문 교과 전문적 학습 공동체 등에서 추천하는 책들을 종류별로 사 보았다. 그러나 본교 학생이 소화해 내기 어려운 책들이 많았고, 한 학기 동안 1권의 책을 읽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독서 자료를 직접 한글 파일로 제작해 나눠주고 교과 독서를 실시해 보기도 하였는데 교사의 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라 기록치 않았다.

한문 교과 독서 자료를 찾아 만나게 된 것이 고사성어 동화책이었다. 고사를 이해하기 쉬운 스토리로 제시한 그림책이다. 책 중간 중간 한자를 노출하여 고사성어 이외의 한자를 익히기에도 괜찮았다. 무엇보다 학습 수준이 낮고, 글 읽기를 힘들어하는 본교 1학년 학생들에게 쉽고도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되었다. 평상시 고사성어를 가르칠 때 성어 하나 하나에 담겨 있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 소요

되는데, 동화책을 통해 자연스레 고사의 의미를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동화책 전질을 사서 바로 교과 독서에 활용하였다. 학생들이 한문 독서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2~3주에 한 번씩 교과 독서 시간을 운영하였다. 수업자의 경우 주당 3시간의 수업시수가 확보되어 한 학기에 5회 고사성어 독서 활동을 기획하였는데 시험 직후나 밀도 있는 수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때 활용하기 좋았다. 단순히 독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논술과 토론 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수업을 디자인하였다.

이 활동을 진행해 본 결과 학생들이 부담없이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다. 동화책을 읽고 1시간에 1편의 독서·논술 학습지를 썼는데, 남은 시간에는 자유롭게 책을 바꿔서 읽었다. 한문 교과 독서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1차적 목표이므로 되도록 독서 논술 학습지는 간단하게 제작하였다. 아이들이 학습지 작성에 지나치게 힘들이지 않고 부담 없이 고사의 내용을 정리하며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아이들이 몇 번의 교과 독서를 진행하여 흥미가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독서 논술, 토론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1인 1개의 고사성어 주제 발표를 진행하였다. 고사성어의 풀이와 자기 삶에 적용한 글쓰기, 토론 질문 등을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주제 발표의 진행 순서나 형식은 김준영(2013)<sup>18)</sup>의 수업 방법을 참고하되, 중학교 수준에 맞춰 변용하였다.

PPT 제작 부분은 본교 컴퓨터실의 열악한 상태로 PPT 제작 부분은 집에서 과제로 해 오도록 했는데, 반 마다 편차가 컸다. 전원이 제출한 학급도 있었으나 한 개 반은 제출한 학생의 수가 적었다. PPT를 준비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주제발표 학습지를 발표하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주제 발표 후에는 토론 질문을 던져 학급 구성원이 함께 토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책을 읽다가 생긴 궁금함이나, 성어의 주제에 알맞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질문을 할 때 ‘예/아니오’라는 답이 나오는 질문보다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는 확산적 질문을 만들도록 권장하였다.

18) 김준영(2013), 한문과 창의 인성 수업 방안,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지,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139쪽.



교육과정 내용	어휘	배움 방법	개별학습, 토론학습	
단원	故事成語			
성취기준	·한9323. 성어의 의미에 대해 말하고 이를 언어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 ·한9211-1.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다. ·한9211-2. 전통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배움 주제	·독서를 통해 고사성어의 유래와 의미 알고 내 삶에 적용하기			
교과 역량	·정보처리능력(논리적, 비판적 사고를 통한 문제 인식, 정보 수집, 분석, 활용 등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의 탐색, 매체 활용 능력), 의사소통 능력(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평가 반영	·지필평가(고사성의 의미와 활용), 수행평가(주제 발표)			
배움의 흐름				
도입	독해	적용	적용	적용·평가
	독서·논술	주제 발표 준비	주제 발표 준비	발표·토론
1.동기유발 - ‘수주대토’ 이 이야기 그림 동 화책으로 소개 - 고사성어는 옛 날 있었던 일 에서 만들어진 어구라는 것 설명 - 고사성어 독 서·논술·토 론 활동 과정 에 대해 소개	1. 개인별 고사성어 동 화책 독서 2. 고사성어 독서·논 술 학습지 작성 - 고사성어 음뜻, 겉뜻, 속뜻, - 줄거리 - 마음에 드는 장면 찾 아 그림 그리고 이유 설명 - 기억나는 장면 그림, 그림 설명, 궁금한 점, 생활 속 사례, 책을 읽고 든 생각	1. 주제 발표 학습지 작성 - 고사성어 음뜻, 겉 뜻, 속뜻, - 줄거리 - 내 삶에 적용하는 글쓰기 - 고사성어에 관한 질문과 답 만들기	2. 주제 발표 PPT 제작 - 동화책 사진 찍기 - 고사성어와 관련된 자료 검색(텔레비 전, 인터넷, 영화, 동영상, 다른 책 등) 관련자료 검색 - PPT 자료 제작 (고사성어 음뜻, 겉 뜻, 속뜻, 동화책 줄거리, 내 삶에 적 용 내용 발표, 관련 자료 제시)	1. 고사성어 주제 발표 2. 토론하기 - 질문 제시 - 토론하기 - 자신이 생각하는 답 이야기하기 3. 발표자의 발표에 대해 좋은 점, 질문할 점, 느낀 점, 자유롭게 토론

## 가. 도입

고사성어는 옛날 있었던 일에서 만들어진 어구라는 것 설명하고, 고사성어 그림책 독서 활동을 통해 고사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이해할 수 있음을 소개한다. 고사성어 독서·논술·토론 활동이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 질 것인지 과정에 대해 소개한다.



## 나. 독해(독서·논술)

### 1) 개인별 고사성어 동화책을 독서 후 고사성어 독서·논술 학습지 작성

이 학습지에는 고사성어 음 뜻, 겹 뜻, 속 뜻, 줄거리, 마음에 드는 장면 찾아 그림 그리고 이유 설명, 기억나는 장면 그림, 그림 설명, 궁금한 점, 생활 속 사례, 책을 읽고 든 생각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독서·논술 학습지는 본교 1학년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크게 부담스럽지 않도록 제작하였다. 학습지를 작성할 때는 독서 과정에 즐거움을 발견하고 성어 학습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정도로 운영한다.

## 다. 적용(주제 발표)

어느 정도 고사성어 독서에 흥미를 갖게 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고사성어 주제 발표 학습을 진행한다.

### 1) 고사성어 주제 발표 학습지<sup>19)</sup> 작성하기

고사성어 독서·논술 학습지 ( )회 책번호 ( )권 1학년 ( )반 ( )번 ( )					고사성어 주제 발표 학습지 책번호 ( )권 ( )학년 ( )반 ( )번 ( )				
한자					한자				
음					음				
뜻					뜻				
겹 뜻					겹 뜻				
속 뜻					속 뜻				
줄거리					줄거리				
기억나는 장면 그림					고사성어의 주제 :				
그림 설명					자기 생각 만들기 제목 :				
궁금한 점					자기 생각 만들기 (실생활 사례, 내 삶에 적용, 책을 읽으며 든 생각)				
생활 속 사례									
책을 읽고 든 생각									
고사성어 독서·논술 학습지					고사성어 주제 발표 학습지				

19) 김준영(2013), 한문과 창의 인성 수업 방안,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지,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139쪽 참고하여 변용함.

고사성어 주제 발표 학습지에는 고사성어의 음 뜻, 겉 뜻, 속 뜻, 줄거리, 고사성어의 주제, 자기 생각 만들기, 토론 질문 만들기과 자신이 생각하는 답 적어 보기, 발표 시 활용할 보조 자료를 쓰는 칸을 제시하여 독서·논술 학습지보다 난이도를 높였다.

## 2) 주제 발표 PPT 제작

- 동화책 사진을 찍어 줄거리를 소개하는 데 활용한다.
- 고사성어와 관련된 자료(텔레비전, 인터넷, 영화, 동영상, 다른 책 등)를 검색하여 발표 보조 자료로 활용한다.
- 고사성어 음 뜻, 겉 뜻, 속 뜻, 동화책 줄거리, 내 삶에 적용 내용 발표, 보조 자료를 활용하여 PPT 자료를 제작한다.

## 3) 고사성어 주제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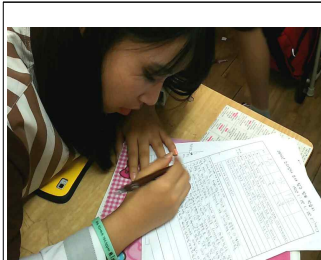
학습지와 PPT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고사성어를 발표한다.

## 라. 평가(토론)

- 발표 후 발표자가 토론 주제를 제시하면, 자유롭게 토론한다. 토론 후 발표자가 생각하는 답을 이야기한다.
- 발표자의 발표에 대해 좋은 점, 질문할 점, 느낀 점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고사성어 동화책 독서



주제 발표 학습지 작성



주제 발표 학습지 작성



PPT 작성



동화책 사진 찍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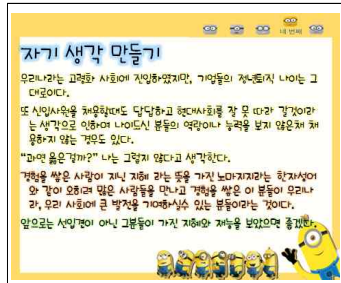
토론



PPT 자료 음뜻, 겉뜻, 속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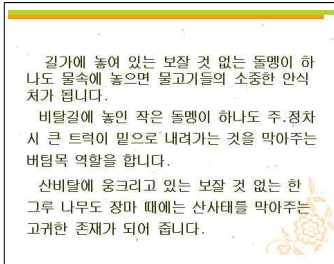
PPT 자료 줄거리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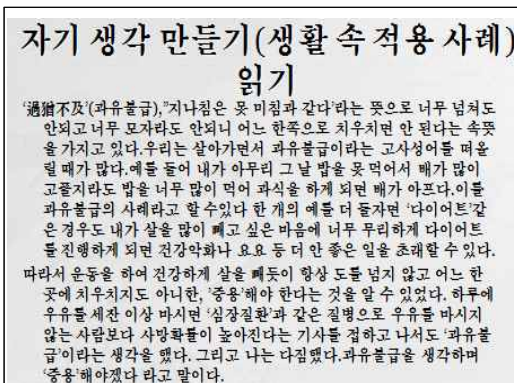
PPT 자료 자기 생각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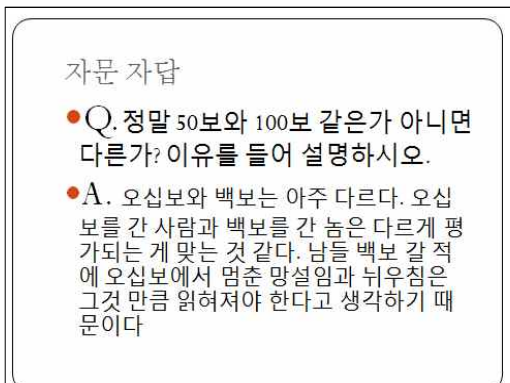
PPT 자료 자기 생각 만들기(생활 속 사례)



PPT 자료 토론 질문



PPT 자료 자기 생각 만들기(생활 속 사례)



PPT 자료 토론 질문

### 자문 자답

- Q. 정말 50보와 100보 같은가 아니면 다른가? 이유를 들어 설명하시오.
- A. 오십보와 백보는 아주 다르다. 오십보를 간 사람과 백보를 간 놈은 다르게 평가되는 게 맞는 것 같다. 남들 백보 같 적에 오십보에서 멈춘 망설임과 느우침은 그것 만큼 위험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 문이다

이 수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창의·인성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사성어가 현재의 삶에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는가?’, ‘나는 고사성어가 갖는 의미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에 대한 자문과 자답을 하는 과정을 통해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 신장될 수 있다.

현재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실생활의 사례를 각종 매체에서 찾고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정보 수집, 분석, 활용 능력이 신장 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문제 해결 방안의 탐색 능력과 매체활용능력이 함께 신장될 수 있다.

주제 발표 한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여 나의 생각을 키우고 표현하면서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이 수업을 실시한 후 학생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A - 모든 학생이 자신이 선택한 고사성어를 발표함으로써 선생-학생이 아닌 학생-학생의 수업 방식을 적용하여 이해가 더 쉽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수업이었다.
- B - 36개의 고사성어를 친구의 발표를 통해 들을 수 있는 좋은 수업이었다.
- C - 처음에 선생님이 동화책을 주시며 독서논술 학습지를 기록하는 일이 나를 좋았지만 속뜻과 내용을 이해하는 데 힘들었다. 하지만 마지막 PPT 발표 때 긴장을 하고 만드느라 힘들었다. 발표할 때 앞에서 발표하고 내 의견도 얘기해 돋보이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인상이 깊었다.
- D - 여러 상황에서 접하고 알고 있는 것을 응용하여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주제가 잘 선정되어 내 생각을 타 수업보다 더 많이 부각시켜 줄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 E - 고사성어 동화책은 읽어서 기억에 잘 남고 고사성어 발표는 준비가 오래 걸리고 힘들었다.
- F - 고사성어의 뜻은 쉬웠지만 자기생각 만들기 실생활의 예는 생각하기 어려웠다.
- G - 자문자답을 결정 못하고 고민하느라 시간이 오래가 그것이 힘들었다.
- H - 독서가 가장 힘들었다. 왜냐하면 책을 읽고 줄거리, 그림, 자문자답. 자기생각 만들기가 힘들었다.
- I - PPT 만드는 데 며칠 씩 고쳐가면서 만드는 게 힘이 들었다.
- J - PPT 만드는 것을 잘 몰라서 어려웠다.

많은 학생들이 독서 활동 자체의 흥미가 높았으며, 학생들이 가르쳐 주는 수업 방식,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기회 부여 등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반면 실생활의 예나 자문자답 등을 사고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PPT 제작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 학생들이 있었다. 평상시 독서활동을 많이 해보지 않은 학생의 경우 독서·논술 수업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보완점을 제시하면, 학생들이 독서 활동 자체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스스로 잘 참여할 수 있으므로 동화책 읽는 기회를 자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실생활의 예, 자문자답을 혼자서 생각해내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1단계에서는 먼저 모둠별로 주제 발표를 시행한 후 2단계 개인별 주제 발표를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혹은 개인별 발표로 진행하되, 모둠별로 함께 협의하고 사고하는 기회를 부여해서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PPT 제작의 경우 재직 교의 컴퓨터실 기자재 노후화로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몇 대 되지 않았다. 때문에 PPT 제작 과정을 개인에게 맡겼는데, 제작을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었다. 다음 번 활동에는 다만 몇 대의 컴퓨터라도 활용하여 모둠별로 제작하는 방법을 익히고 활동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V. 結 言

지금까지 한문과 창의·인성 교수·학습 사례를 살펴보았다. 먼저 창의·인성 수업을 하는 데 필요한 한문 교과 역량과 창의·인성 요소를 살펴보고, ‘한문과 수업 내용 체계·목표 모형’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한문 교과 역량에 따른 창의·인성 수업 사례를 다양하게 살펴보았다.

### 1. 심미적 감성을 높이는 사례로 ‘자화상’ 수업을 살펴보았다.

자화상과 자찬에 나타난 작가의 감정과 욕구를 살펴보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반영하여 자화상과 자찬을 만들었다. 작품을 감상하는 과정에서는 ‘예술적·문화적 감수

성과 상상력'과 '타인의 경험에 대한 공감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자화상과 자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긍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감'을 가져올 수 있다.

## 2. 자기관리 능력을 높이는 사례로 '자존' 수업을 살펴보았다.

'자존'에 관한 문장을 익히고 이를 삶에 적용하여 '나의 소중함을 한문으로 표현하기' 활동을 하였다. 먼저 자존감 검사, 자존감의 정도에 따른 행동방식 토론 활동을 통해 자존감 향상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였다. 다음으로 친구 장점 찾기, 나의 장점 찾기 활동을 통해 자신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이를 한문으로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배운 문장을 주제로 한 '자기 생각 글쓰기' 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성찰하고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하였다.

## 3.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사례로 '덕담 만들기' 수업을 살펴보았다.

'축복'에 관한 한시를 익히고 이를 삶에 적용하여 '덕담 만들기' 활동을 하였다. 친구의 고민과 바람을 듣고 해 줄 '덕담'을 말을 한문으로 표현했다. 친구에게 '덕담'을 읽어주며, 서로를 축복하였다. 이를 통해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 4. 의사소통능력을 높이는 사례로 '경청' 수업과 '공감' 통합 수업을 살펴보았다.

'경청' 수업에서는 '경청'에 관한 문장을 익히고 삶에 적용한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경청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상황 역할극을 통해 경청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토론을 통해 경청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聽 한자 조각을 활용한 '듣기'의 정의 내리기와 '자기 생각 글쓰기'를 통해, 경청의 가치를 느끼고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갖었다.

'공감' 수업에서는 타교과와 통합수업을 통해 '공감'의 가치를 알고,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한문과에서는 황희정승의 일화에서 동생과 형의 입장을 역할극으로 표현하면서 공감의 의미를 파악하고, 한자카드를 조합해서 관련 문장을 익혔다. 친구의 고민에 공감하는 댓글을 달아주며 공감을 직접 경험하고, 토론을 통해 공감의 실천 방법을 살펴 보았다. 마지막으로 ‘자기 생각 글쓰기’를 통해, 공감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였다. 이를 ‘공감에 관한 한자포스터 만들기’로 연계시켰다.

동아리 활동에서는 한자 포스터를 활용하여 ‘친구의 마음을 공감해주어 학교 폭력을 예방하자’는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활동을 실시하였다. 1학년 국어에서는 언어 생활 속에서 공감하는 말하기를 체험해 보는 수업을 실시하였다. 도덕과에서는 장애인의 마음을 공감하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실시하고 느낀 점을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3학년 국어 문학 수업에서는 ‘거미’라는 시의 화자와 거미의 입장을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수업을 통해 ‘경청’과 ‘공감’의 가치를 실현하고, 상호 이해와 소통의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 5. 창의·융합 사고 능력을 높이는 사례로 ‘한자 포스터’를 활용한 ‘캠페인 활동’ 수업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앞서 제시한 공감에 관한 ‘한자포스터 만들기’와 동아리 활동의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의 수업 과정을 자세히 서술하였다.

‘한자 포스터 만들기’ 활동에서는 1~2개의 한자를 사용하여 ‘공감’, ‘학교 폭력 예방’ 주제의 포스터를 다양하게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 창의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포레상담 동아리 활동에서는 한자를 활용한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을 통해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규범, 윤리의식 등의 공동체 의식을 신장시키고, 실천의지를 높일 수 있었다.

##### 6. 정보처리 능력을 높이는 사례로 ‘고사성어 독서 논술·토론’ 수업을 살펴보았다.

‘한문 교과 독서’ 활동을 ‘논술’과 ‘토론’ 활동으로 연계시켰다. 우선 ‘고사성어 동화

책'을 읽으며 성어를 익히고, '독서·논술 학습지'를 작성한다. 이후 고사성어가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고사성어 주제 발표 수업을 진행한다. 고사성어를 현실의 삶에 적용함에 따른 자신의 생각을 질문으로 제시하고 토론 활동을 진행한다. 고사성어 학습 과정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주제 발표 과정을 통해 매체활용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이상의 수업 사례는 다양한 한문 자료를 문자적으로 해독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문의 의미를 자신의 삶에 창조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다. 학습자가 지식을 아는 과정을 넘어서, 느끼고 체험하고 창의적으로 실천하는 배움을 갖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고에서 제시한 수업은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교과 지식의 습득보다 활용에 중점을 두었으며,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린다. 따라서 제한된 시간 안에 교과 지식을 많이 가르치지 못할 수 있다. 연구자도 한 해에 본고에 제시한 모든 수업을 실천해 본 것은 아니다. 수년에 걸쳐 실천해 본 수업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취사해서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고에서는 한문 수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싶었다. 그동안 주력했던 교과 지식 수업만이 아니라 삶을 돌아보는 수업을 제안하고 싶었다. 한문 수업에서 한자 습득과 문장 해석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돌아보고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짧게라도 갖자는 것이다.

읽고 쓰고 하나라도 더 외우게 하는 수업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 하나의 지식이라도 그것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체험으로 배운 지식은 잊혀지지 않는다. 삶으로 실천된다. 세상을 변화시킨다. 개인의 삶 뿐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 나는 그 힘의 가능성을 한문교육에서 찾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강민구(2013), 「중등교육에서 창의·인성 교육을 위한 한문 교육」, 『2013 한국한문교육학회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한문교육학회.
- 강민구(2014), 공익광고(公益廣告)를 활용(活用)한 한자(漢字), 한문(漢文) 교수(教授), 평가(評價)에 대한 연구, 한자한문교육 제 33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 경기도교육청(2013), 2013 중등 서술형·논술형 평가 예시자료 한문. 장학자료 2013-1호, 11쪽.
- 경기도교육청(2014), 배움중심수업 함께하기, 5쪽.
- 고양시한문과교육연구회(2012), 「블록타임을 적용한 한문과 집중이수제 모델」, 창의인성 교육넷(<http://www.crezone.net>).
- 교육과학기술부(2009), 창의와 배려의 조화를 통한 인재 육성(창의·인성 교육 기본 방안)
- 교육과학기술부(2011),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4면.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3), 『2013학년도 중학교 성취평가제 운영 매뉴얼』,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병철(2013), 한문과 창의·인성 교수·학습 방법, 한문교육연구 제40호, 한국한문교육학회.
- 김영수(2015), 2015 한문과 교육과정 시안 검토를 위한 공개 토론회 환영사, 연구자료 ORM 2015-3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왕규(2013), 「한문과에서 창의·인성 학습내용 선정 및 조직」, 한문교육연구 제40호, 한국한문교육학회.
- 김인숙(2011), 「창의·인성 교육을 적용한 한문과 수업방안」,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한문교육 전공, 석사학위논문.
- 김준영(2013), 한문과 창의 인성 수업 방안,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지,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139쪽.
- 김진숙 외(2010), 「창의·인성 교육의 현장 적용성 제고 방안」, 연구보고 CRO2010-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남수극(2013), 「창의적 체험 활동과 한자·한문 교육」, 한문교육연구 제40호, 한국한문교육학회.
- 남창렬(2013), 『2013 혁신학교 일반화를 위한 6월 전문직 수요 포럼』. 경기도교육청.
- 문용린·최인수(2010),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과학창의재단
- 백광호(2014), 한자한문교육 현장실천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자한문교육 제 34집, 한자한문교육학회.
- 신승균(2013), 『2013 혁신학교 일반화를 위한 6월 전문직 수요 포럼』. 경기도교육청.
- 안동규(2014), 한자 한문 교육 현장 실천 교수·학습 이론 연구 현황과 과제, 한자한문교육 제 34집, 한자한문교육학회.

오예승(2013), 집중이수제 기반의 창의·인성 한문 수업 사례, 한자한문교육 제32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이명학, 강민구, 이군선, 오예승(2011) 중학교 한문 3, 금성출판사 28-31쪽.

장호성(2013), 「한문과에서 창의·인성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한문교육연구 제40호, 한국한문교육학회.

장호성(2015), 중학교 한문 교육과정 개정 시안의 주요 내용, 연구자료 ORM 2015-31, 5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재철(2013), 「한문교육과 창의·인성 교육 - 이론적 기반의 모색」, 한문교육연구 제40호, 한국한문교육학회.

조인수(2013), 군자의 삶, 그림으로 배우다. 다섯 수레.

창의·인성 교육 기본방향, 2009. 12. 교육과학기술부, 1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1),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중등학교 교육 개선 포럼 개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은수(2013), 「초등교육에서 창의·인성 교육을 위한 한자·한자어 교육」, 한문교육연구 제40호, 한국한문교육학회.



# 토론문





# 〈‘主題’ 파악하기 敎授·學習 方法 試論〉에 대한 토론문

朴 英 鎬\*

본고는 주제 파악하기에 활용할 수 있는 한문과 교수 학습 방법을 탐구한 연구이다. 평소 수업에서 교수 학습 방법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별다른 조예가 없던 토론자로서는 본고를 통해 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은 물론 많은 공부가 되었음을 밝힌다. 발표자의 문제제기와 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해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하는 입장이며 특별히 논쟁할만한 거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교과에서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이론적 탐색은 매우 긴요하고도 필요한 작업이다. 이와 아울러 실제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인 방법을 실천하고 그 결과를 검증하는 작업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론과 실제의 상관성을 통한 수업의 효과에 대한 연구와 검증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II장의 ‘한문과 교수·학습 방법의 概念과 原理’와 III장의 ‘주제 파악하기 관련 교수·학습 내용’은 한문과 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에도 두루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며 내용이다. 그렇다면 학습자의 수준이나 현실적인 학습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한문과 교수 학습에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주제 파악하기 교수 학습 방법을 통해 한문과의 교육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과 그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IV장에서 제시한 ‘주제 파악하기 교수·학습 방법’은 글감(제제)이나 글의 구성 방식 등에 따라 그 절차나 방법이 다를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모색되고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

\* 경북대학교

마지막으로, 토론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발표자는 ‘餘言’을 통해 향후 세 가지의 과제로 제시하였는데,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다.

아무쪼록 본고의 성과를 확산시켜 한문과 교수 학습의 방법론에 대한 다각적이고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효과적인 한문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한문과 문화 영역의 성격과 교육 방향〉에 대한 토론문

이 병 주\*

교육과정은 교과서를 제작의 지침이 됩니다. 교육과정 내용의 虛實 여부는 교과서의 내용으로 구성하면서, 교사에 의해 학습 내용으로 선택되는 과정에서의 실효성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질문자는 본 논문을 교과서 제작자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발표자의 한문과 문화의 교육목표에 관한 문제 제기를 통해, 현재 교육과정에서의 교과서보다 더 나은 내용으로 문화 영역을 구성할 수 있으면서, 한문과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제안을 기대하며 읽었습니다.

## 1. 1쪽 29줄의

한문과 문화 교육에서 - ‘전통문화’와 ‘한자문화권’이 한문 교과 문화 영역의 주요 내용이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지만 그 구체성은 상당히 모호하다. 전통문화나 한자문화권 문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질문자는 2009 개정교육과정의 문화 관련 내용이 ‘잘’까지는 아니어도 ‘대체적으로’는 그 의미가 드러났다고 이해해왔습니다.

(1) 선인들의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며,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 문화의 개념 자체가 광범위한데다, 이 성취기준은 情意的 영역이기 때문에 학습 요소(성취기준)를 구체화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 경문고등학교

(2)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익혀,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 교육과정 내용에는 절기, 간지 등이 사례로 제시되어있습니다. 간지는 그 활용법과 함께 연도표기 문화의 배경지식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시 외에도 그 사례는 매우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문교과에서의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은 위계보다는 사례로 나열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과목이 ‘문화’라면 위계를 세워야하겠지요. 사례도 교과서 저자가 취사선택합니다. 문화 배경 지식 중에 어느 것을 택할지, 교과서 전체 학습 양에서 문화 영역으로 어느 곳에 어느 정도로 배분할지의 결정은 순전히 저자의 몫입니다.

(3) 언어생활에 사용된 한자 어휘를 이해하고 뜻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 한자 어휘에 관련한 학습 요소는 단어의 짜임, 겉뜻과 속뜻, 활용 등으로 모호하지 않다. 이 때문에 발표자도 이 부분은 자세히 다루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2009 개정교육과정의 문화 관련 내용이 ‘잘’까지는 아니어도 ‘대체적으로’는 그 의미가 드러났다고 질문자 스스로 이해해왔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제작에도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논문은 ‘모호성’이라는 문제점을 전제로 출발했기 때문에, 전제에 대한 공감의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 교육과정 記述보다 구체화된 기술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가? 질문자는 지금의 내용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해왔는데, 문제의식을 공유하지 않고서는 다음 내용을 편하게 읽어나가기 힘들었습니다.

## 2. 4쪽 7줄

이처럼 학문적 정체성을 다지기보다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하는 한문학의 연구경향은 한문과의 교육과정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판단된다. 한문학의 학문적 영향력이 증대되는 상황이 중등학교 한문 교과에서 ‘한문’의 성격을 보다 강화하기를 요구하였고, 동시에 문학에 한정되지 않고 한문으로 기록된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소개하는 문화학적 연구 경향이 한문과의 정체성에 문화적 성격을 부여하려는 의도로 작동한 것이다.



‘영향을 미쳤으리라 판단된다.’라는 개인의 판단으로 시작해서 ‘의도로 작동한 것이다.’라는 단정으로 끝나는 부분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한문학의 연구경향에서 문화학적 연구 경향이 없었다면 한문과의 정체성에 문화적 성격을 부여하지도 않았다’는 결론 도출도 가능합니다.

중등학교의 한문 교과는 한자-한문으로 된 모든 기록을 다루는 과목입니다. 교육과정 상의 교과의 내용체계를 분류할 때는 연구진들의 토의 속에서 결과물이 나오게 마련인데, 무엇을 근거로 한문학의 연구경향이 교육과정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논지를 펼쳤는지 의문이 듭니다. 두 번째는 질문보다는 부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3. 6쪽 8줄

‘한문 문화’라고 지칭되는 것은 단순히 한문 문어를 사용하는 집단들이 공유하는 문화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한문 문화’를 한문이라는 문어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음성언어까지 아울러 고려하는 시각이 마련되어야 한다.

음성언어까지 고려하는 시각과 이와 관련한 서술을 읽으면서는 공부를 하는 자세로 읽었습니다. 발표자의 학문적 역량에도 감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 거리가 떠올랐습니다. 첫째, ‘漢譯 속담도 한문문어와 민족구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사례로 볼 수 있나?’입니다.

### 4. 13쪽 29줄의

현재 우리의 언어문화 속에 한문과 민족어의 자질이 함께 녹아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언어문화적 주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것이다.

이 내용은 좋은 말인 느낌은 오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의 방향까지는 그려지지 않습니다. 漢譯 속담을 그 사례로 볼 수 있다면(혹 볼 수 없다면 중고등학생들에게 전할 수 있는 쉬운 사례를 이용하여) ‘민족어의 자질’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 〈漢文科에서의 問題中心學習法 研究〉에 대한 토론문

김 경 익\*

‘거꾸로 교실[수업](Flipped Learning)’, ‘배움의 공동체’ 그리고 발표문에서 언급한 ‘질문이 있는 교실’, ‘학생 중심 교육과정’, ‘학생 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 인재 양성’ 모두 최근 학교 현장에 話頭로 던져진 수업 방식입니다. 핵심은 학생 활동 중심의 학습 [Active Learning]입니다.

UN미래보고서 2040은 2030년 즈음 전통적 교실 수업의 90%는 개방형 온라인 무료 교육의 바뀔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의 우수 대학들은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강의를 개설하고 소정의 과제와 시험을 거치면 이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해외 碩學들의 유명 강의는 Podcast 등을 통해 무료로 접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교육 현장과 거리가 있는 이야기 같지만 변화의 방향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 지식 전달 위주의 교실 수업 탈피는 앞으로 교실 수업과 교사의 역할이 어떻게 변해야 할지를 가늠하게 해 줍니다. 교실 수업은 학생의 활동과 상호 작용 중심으로, 교사의 역할은 teaching에서 coaching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변화의 맥락에서 백광호 교수님의 발표는 많은 것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PBL과 한문과 교육의 접점을 검토하고, ‘한문 산문’, ‘성어’, ‘한자’ 등 다양한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는 교수·학습 설계안을 구안하고 적용 사례를 소개해 주신 점이 좋았습니다. 발표문의 말미에 ‘한문과에서의 문제중심학습법’을 별도로 정리해 주셔서 향후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 개발에도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글의 대부분에 공감하였고,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 울산여자고등학교

첫째, 한문과 교실 수업에서 ‘문제중심 학습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문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에는 각 영역에 적합한 방법을 적용하도록 진술되어 있습니다. 또는 ‘독해’, ‘문화’, ‘한문지식’의 영역에 따라 적용 가능한 방법들을 열거하였습니다. ‘문제중심학습법’을 적용한 설계안을 구안하고 실행해 보신 경험으로 볼 때, 적용이 가장 적합한 영역과 반대로 적용이 어려운 영역과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 타교과에 비해 한문과는 PBL에 맞는 문제를 개발하는 데 애로 사항이 많다고 하셨는데, 연구를 진행하시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의 부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한자’와 ‘어휘’ 수업 사례의 ‘수업 성찰’에 따르면 학생들의 한자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부족이 문제 해결의 장애 요인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아마 현장 교사들이 활동 중심의 수업을 적용하지 못하는 큰 걸림돌도 학생들의 한자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부족이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얼핏 일정량의 한자의 형·음·의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활동을 하게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자전을 활용하게 하는 방법이 해결책으로 제시되었으나, 실제 학생들이 자전을 활용하여 한문 학습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발표자가 생각하시는 보완 방법은 무엇인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발표문의 첫 머리에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를 제시하셨고, 각주에서 ‘하부루타’를 언급하셨습니다. 교수·학습 설계안이나 수업 사례에는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학생 상호 간의 의사소통을 통한 학습을 중시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막연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한문 학습 특히 한문 독해 학습에서 활용한 사례나 방안이 있으신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한문과 ‘배움의 공동체’ 수업의 실천적 모색〉에 대한 토론문

최 현 선\*

혁신학교에서 ‘배움의 공동체’ 수업을 도입한 한문교과 수업 혁신 과정을 담은 선생님의 발표문을 읽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이 중심이 되어 ‘배움’ 자체가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수업은 교사들이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수업 형태라 생각합니다. 그런 수업을 위해 한문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교과간의 통합 수업을 이끌어내는 일련의 과정을 보며 선생님의 열정과 노고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자유학기제를 앞두고 새롭게 구상해야 할 한문과 교육과정을 고민하고 있던 저에게는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토론자로 나서기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개인적으로 궁금한 몇 가지 질문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 1. 발표문을 보면 ‘공부’와 ‘배움’을 구분하였습니다.

- ‘공부’가 지배해온 교실문화를 ‘배움’을 중심으로 하는 교실문화로의 전환 p.2
- 장곡중 수업의 형태가 공부로부터 ‘배움’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수업활동이 ‘디자인’된다 p.3

여기에서 ‘공부’를 ‘지배한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 보통 생각하는 ‘공부’의 의미-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힘-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와 ‘배움’은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

\* 창일중학교

## 2. 배움의 공동체에서는 협동적인 배움을 실현하기 위해 ‘ㄷ’자 모형으로 교실을 배치한다.(p.4)

협동학습을 할 때 배치하는 모듈별 ‘ㄷ’자 모형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시된 ‘ㄷ’자 모형 교실 배치도가 2가지인 것은 개별학습과 모듈학습의 진행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개별학습과 모듈학습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매시간 1~2회 정도 모듈편성이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모듈 편성과 자리 배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듈을 구성하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지요?

## 3.

저는 좀 더 즐거운 수업, 살아있는 수업을 위해서 협동학습을 종종 이용하고 있습니다. 협동학습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흥내내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활동을 잘 할 때는 칭찬스티커를 붙여주기도 합니다. 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 돌아다니며 점검하기도 합니다. 이런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이 됩니다. 또 학생들이 활동을 잘 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활동지를 잘 완성한 것만으로 확인하는 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마침 선생님의 발표문을 읽으면서 ‘공유’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공유’라는 의미가 배움의 공동체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전체 학생들과 공유한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배움의 공동체에서 수업을 진행할 때 중요한 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吾唯知足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를 모듈별로 의논한 후 학급 전체가 공유하기 p.11
- 한자성어 大器晚成을 모듈별로 풀이하고 공유하기 p.11
- 전체 공유 과정에서도 학생들 간에 다양한 토론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깊이 있는 공유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p.12
- 자신이 선택한 한자가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가를 전체 학생들과 공유하도록 수업을 진행하였다 p.13

4.

선생님께서서는 역사과와 ‘실학의 시대를 만나다’ 통합 수업을 할 때 실학 관련 용어를 수업하고 정약용의 애절양을 풀이하였습니다.(p.15) 또 과학과와의 통합 수업에서 心房과 心室을 설명하는데 房과 室의 한자만 알아도 학생들은 신체 구조도를 보면서 쉽게 구별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체 각 기관의 명칭에 대한 한자어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p.17)

제가 생각할 때 이 때 학생들이 학습할 한자는 상당히 어려운 수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애절양의 풀이는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한자어의 선택은 어떤 수준으로 하였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문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토론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 〈어휘 교수·학습 방법 연구〉에 대한 토론문

김 성 중\*

어휘 교수 학습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정효영 선생님의 발표문을 통해 접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연구할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 교육 과정의 단어, 어휘 개념에 대한 문제 제기 또한 일정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2009 개정 교육과정 어휘 영역 개발을 담당했던 토론자로서 깊은 성찰을 하게 됩니다. 변명 아닌 변명과 간단한 제언을 드리는 것으로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 한문 교과서는 표면적으로는 하나의 언어, ‘한문’에 대한 교과서이지만 기실 그 내부에는 두 언어 체계, 즉 국어와 한문의 언어 체계가 혼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문 교과서는 문자 기호인 漢字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한자로 기록된 ‘단어’(word)가 한국어 체계, 한국어 ‘문장’(문법 단위[grammatical unit]로서의 문장[sentence]. 이하 같음)에도 있고, 한문 체계, 한문 ‘문장’에도 쓰이기 때문입니다.

한문은 단음절어 위주여서 보통 漢字 1개가 하나의 단어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국어에서 말하는 이른바 한자어는 1음절어가 드물고 대부분 2음절 이상이어서, 漢字 2개 이상이 하나의 단어를 뜻합니다. 한문교과서에서 국어의 ‘한자어’로 ‘단어의 짜임’을 상정하는 것은 한문 ‘문장’의 구조를 학습하기 전에 단어의 짜임에 대한 학습이 필요해서 이기보다, 한자어가 왜 그런 뜻을 갖게 되었는지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결국 한문 교과서는 두 가지를 다 아우르며, 교육과정도 이를 고려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단어’의 개념 설정이 일견 모순처럼 보일 수 있을 듯합니다.

---

\* 계명대학교

발표자께서 제기한 ‘단어’와 ‘어휘’ 개념 문제는, 토론자의 소견으로는, 언어 생활 한자 어휘와 한문의 한자 어휘로 구분하는 견해[발표문에 인용된 송병렬 선생님의 「한자 어휘 교육의 방법 모색과 실행 방안」에서 제시한 것]이 대가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라 생각합니다. 2015 교육과정에서 이 구분을 토대로 접근하고, 교사용지도서 등에 두 어휘 간의 同異를 설명하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2. 발표문에는 어휘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최근까지의 연구 성과가 소개되어 있고 각각의 연구 논저에서 주장하는 바가 일목요연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실제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시들이 제시되고, 이러한 예시들을 통해 각 방법들에 대한 적절성, 유효성 등이 검증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발표자께서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신 방법 중에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를 이끌면서 어휘 학습에 효과적이었던 것들이 있으면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자 교육에서 행복 찾기〉에 대한 토론문

한 은 수\*

2015년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에 대비하기 위하여 한국한문교육학회에서 ‘한문과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이론과 사례들을 중심으로 학술대회를 연다고 하여 많은 기대를 하였습니다. 타교과에 비하여 한문과 교육에서는 학교의 수업 현장에서 진행되는 교사의 노력에 비하여 교수학습에 관련된 내용의 이론화가 상대적으로 덜 집적되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하여 그동안의 축적물을 접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정 토론으로 배정된 논문을 받아보고서 참신한 주제와 연구 방법이란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당혹스러운 면도 있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며 ‘한자 교육에서 행복 찾기’란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신 이미애 선생님(이하 연구자)의 연구 의도에 공감을 합니다. 연구자께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하여 제시한 여러 가지 동영상상을 보면서 학습 프로그램의 효과를 위해 애쓴 흔적을 곳곳에서 발견하였고, 저도 ‘학습자가 행복한 삶’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학회에서 부여한 임무가 있어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문의하여 토론자의 소임을 할까 합니다.

## 1. 한문 교과에서의 ‘김종욱 찾기’

‘한자 교육에서 행복 찾기’란 논제는 마치 영화 ‘김종욱 찾기’를 떠올리게 하여 참신하고 반가웠습니다. 영화 ‘김종욱 찾기’에서는 주인공이 과거의 사랑 찾기를 통해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고 볼 수 있는데, ‘한자 교육에서 행복 찾기’를 읽으며 저는 새로운 사랑(－한자 교수학습 이론)을 찾지 못했습니다. 학습자에게 행복감을 심어주기 위해

---

\* 서울난향초등학교

기존의 교수기법(마인드맵, 부수 노래 부르기, 부수중심 학습법 등)을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논문의 문면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연구자께서 이 논문을 진행하면서 새롭게 적용한 교수학습 방법이나 기법이 있으면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2. 연구 실험 설계의 적정성

이 논문은 연구자가 ‘행복 한자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과 강의식 수업을 실시한 통제집단을 비교 연구한 실험 연구이다. 일반적으로 실험연구는 변인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정의한 한 가지 이상의 실험변인을 포함하는 연구이다.<sup>1)</sup> 그러므로 현상을 파악하기 보다는 처치, 자극, 환경 조건을 의도적으로 통제하여 그 변화를 분석하여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연구 목표라 할 수 있다.

연구주제 1은 ‘실험집단 학생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를 주제로 하였으며, 인구통계적 특성으로 개인별, 성별, 한자자격증 유무, 학부모 직업, 초등학교 때 한문을 배운 시기를 준거로 하여 행복감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연구자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기술하였는데 이는 연구 설계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논제의 경우 실험의 독립변인(treatment variable)은 ‘행복한자 프로그램의 적용’이고, 종속변인은 ‘학습자의 행복감’이라 할 수 있다. 연구주제 1에서 제시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각 항목들은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는 외재변인(extraneous variable)으로 연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나이, 성별, 사회 계층 등의 변수이다.<sup>2)</sup> 일반적으로 독립변인 이외에 종속 변인에 영향을 주는 외재변인들에 의한 효과를 실험처치의 효과로 잘못 해석하지 말아야하며, 외재변인들에 의한 효과는 실험설계를 통해서 분리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적절한 실험 통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실험 통제’를 수행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연구주제 1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 박도순(2003), 『교육연구방법론』, 도서출판 문음사, 21면.

2) 성태제(2004), 『교육 연구 방법의 이해』, 학지사, 195면.

### 3. 소소한 질문

1) ‘한자 교육에서 행복 찾기’는 논문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행복 한자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학습자의 행복감 비교 연구’(예시)와 같이 논제를 분명히 하는 것이 독자를 위한 배려로 보인다.

2) 4p 주석 19번의 인용 부분은 출처가 불분명하다. 이 논문에서는 ‘유지혜(2012), 42면’이라 하였는데, ‘유지혜(2012)’의 논문에서는 ‘가족 관계가 긴밀하고 가치지향적일 때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구현영, 2005)’, ‘친구 관계에 따라 행복감에 매우 많은 영향을 주며, 친구 관계가 긴밀할수록(이미리, 2003)’, ‘자아존중감이 높을 때,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좋을 때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구현영, 2006)’ 등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원저자를 밝혀야 한다.

3) 6p 1~2줄 ‘Rosenberg 등(1995)의 연구에서 10학년 학생 2,213명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은 행복과의 상관이 .50으로 매우 강한 상관이 있음을 나타냈다’라고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는 0.7~1.0이면 매우 강한 상관이 라고 보고, 0.4~0.7은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해석하므로 기술적 오류가 있다.

우종완(2008) 10면에는 “Veehoven(1994)은 자기존중감과 행복과의 상관이 .50 혹은 그 이상을 밝혔으며 Grob 등(1996)은 자기존중감과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의 상관관계를 .82로 보고하였다. Rosenberg 등(1995)의 연구에서도 10학년 학생 2213명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자기존중감은 행복과 매우 강한 상관이 있음을 나타냈다.”고 기술되어 있다.

4) 8p ‘4.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행복 「한자 영역」 분석’이란 표현은 연구자의 의도는 알 수 있으나 ‘행복 「한자 영역」’이 실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한자 영역」 분석 및 행복 「한자 영역」의 재구성’ 등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5) 각주 16, 17, 22, 23, 24, 25, 26 등은 독자를 위하여 참조한 곳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 〈漢字教育,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문

양 원 석\*

본 논문은 漢字教育의 내용[무엇]과 방법[어떻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입니다. 기존 문자학 연구 성과를 수용하면서 한자 교육을 진행할 때에 유용한 내용과 참신한 방법을 제시한 본 논문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참고하거나 바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 154면-157면 : 2) 甲骨文 解釋에 있어서의 異見 檢討

“학자들이 제시한 여러 설들 중에 가장 타당성이 있는 학설을 찾는 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여러 설을 가진 글자들을 소개하고 그 중 하나의 설을 결정해 보겠다.”

⇒ 한자 자원 교육을 위해서는 가장 타당성이 있는 하나의 학설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하나의 학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문자학 관련 서적, 예를 들면 『갑골문자전』이나 『갑골문고림』 등에서 하나의 학설을 제시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주요 설을 모아 놓고 있는 것을 보아도 그러한 작업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타당성이 있는 하나의 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할텐데, 어떠한 기준을 세워야 할지도 고민스럽습니다.

본 토론자는 이전 논문에서 “주요 문자학자들의 자원 설명을 수집하고 정리하고, 또한 기존의 여러 학자들의 견해 중에서 학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것을 요약하여 제시하

---

\* 단국대학교

자’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즉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가장 타당성이 있는 하나의 설’을 제시하기 위해, 기존 연구성과들을 정리하고 그 가운데에 가장 인정받는 설을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자	출전	자원 해설
許慎	說文解字 (卷13 力部)	𠂔, 筋也. 象人筋之形. 治功曰力, 能禦大災. 凡力之屬皆从力. 𠂔은 ‘힘줄’이라는 뜻이다. 사람의 힘줄 모양을 본뜬 것이다. 천하를 다스리는 힘을 일컬어 力이라고 하는데, 큰 재앙을 물리칠 수 있다. 무릇 力에 속하는 글자들은 모두 이 力을 따른다.
徐中舒	甲骨文字典 (478면)	象原始農具之耒形. 殆以耒耕作須有力, 故引申爲氣力之力. 원시 농기구인 가래의 모양을 본뜬 것이다. 아마도 가래를 사용하여 경작을 하려면 마땅히 힘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신하여 氣力の 力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
林義光	文源 (161면)	象奮臂形. 팔을 흔드는 모습을 본뜬 것이다.
裘錫圭	甲骨文字詁林 (4冊, 3305면)	晚近治農業史的同志, 多以爲力是由原始農業中挖掘植物或點種用的尖頭木棒發展而成的一種發土工具, 字形裏的短畫象踏腳的橫木. 這應該是可信的. 최근 농업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力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 力은 원시적인 농업에서 식물을 캐내거나 혹은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파서 씨를 파종하는 데 사용되는 뾰족한 끝을 가진 나무 막대기에서 발전되어 만들어진 흙을 파는 하나의 공구인데, 자형에 보이는 짧은 한 획은 발을 디디는 가로목을 본뜨고 있다. 이것은 믿을 만하다.
李孝定	甲骨文字詁林 (4책, 3302면)	徐中舒耒耜考謂力象耒形是也. 徐中舒의 『耒耜考』에서 ‘力은 가래의 모양을 본뜬 것’이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高鴻緒	金文詁林 (13卷 297면)	此託肩臂肘掌用力之狀, 以寄用力之意. 力은 어깨, 팔, 팔꿈치가 힘을 쓰는 일을 맡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그것으로 힘을 쓴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許進雄	古文諸聲字根 (5면)	耒之形. 古時男子耕田用具. 行使需用氣力. 가래의 모양이다. 옛날에 남자가 밭을 갈 때에 사용하는 도구이다. 밭을 갈 때에는 힘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
季旭昇	說文新證 (下冊, 241면)	耜之初文. 古代最需用力者爲以耜耕田, 因此‘力(耜)’引伸有‘力氣’義. ‘耜’자의 초기 형태이다. 고대에 가장 힘 쓰는 것이 필요한 경우는 보습으로 밭을 가는 것이다. 이로 인해 ‘力(보습)’이 인신되어 ‘힘’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曹先擢 蘇培成	漢字形義分析 字典 (317면)	古文力字象耒形. 用耒耕作需用力, 故指力量. 古文的 ‘力’자는 가래의 모양을 본뜬 것이다. 가래를 사용하여 경작하는 데에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힘’이라는 뜻을 가리키게 되었다.



白川靜	字統	象形, すきの形.
		상형이다. 가래의 모양이다.
종합 의견		力の 자원에 대해 ‘힘줄’이나 ‘팔’의 모양을 본떠서 ‘힘’이라는 뜻을 나타내었다는 견해도 있지만, 각종 고문자의 자형 및 다수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力은 발을 갈 때 사용하는 농기구인 가래의 모습을 상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裘錫圭는 “徐中舒의 『耒耜考』에서 ‘耒(가래)’의 상형이라는 견해가 제출되고 이에 대한 논증이 진행된 이후에, 그의 견해가 학술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하였다.

#### □ 157면-160면 : 3) 形聲字에 대한 인식의 전환

“聲部는 단순히 소리부분만 담당할 뿐만 아니라 뜻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이에 대해서는 許慎의 『설문해자』에서는 ‘亦聲’이라고 설명하였고, 北宋 王聲美는 ‘友文說’을 주장하였으며,<sup>1)</sup> 宋 戴侗은 ‘因聲求義’를 주장하였습니다.<sup>2)</sup> 물론 亦聲, 右文說, 因聲求義 등은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聲符가 義符를 겸하거나 聲符를 통해 뜻을 구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또한 현대 문자학자들은 이를 ‘形聲兼會意’ 또는 ‘會意兼形聲’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자학계에서는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形聲字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한자 교육 분야에서는 아직 보편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形聲字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기존 문자학사의 논의들을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 □ 175-177면 : 4) 의미 변화와 그 이유에 대한 설명

“예를 들어 𢇛[𢇛]는 본래 오른손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 ‘오른손’이 본뜻이지만, 지금은 주로 ‘또’라는 뜻으로 쓰고 있다. 그렇다면 ‘오른손’이 본뜻인 글자가 어떻게 ‘또’라

1) 右文說은 晉代 楊泉의 《物理論》에 처음 보인다고 할 수 있으며, 北宋 王聲美의 《字解》에서 우문설이 정식으로 시작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후 宋의 王觀國·張世南·戴侗, 明의 黃生, 淸의 段玉裁·王念孫·焦循·郝懿行·阮元·陳師庭·黃承吉, 근대의 劉師培·梁啟超·楊樹達·沈兼士 등이 우문설을 더욱 발전시켰다. 하지만 章炳麟은 右文說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2) 戴侗의 ‘因聲求義’는 淸代의 王引之 등에 의해 더욱 系統化되고 理論化되어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因聲求義는 訓詁方法과 결합하여 ‘字族’이나 ‘詞族’ 연구로까지 이어지고, 同源字 理論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는 뜻으로 변화된 이유는 무엇일까? 단지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가차된 것이라고 답할 것인가? ‘오른손’이라는 뜻에서 ‘또’라는 뜻으로 파생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오른손을 사용하고 또 사용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라는 뜻으로 변화한 것이다.”

⇒ 발표자의 취지에는 백분 공감합니다만, 의미 변화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에 근거가 없을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오른손”이라는 뜻에서 ‘또’라는 뜻으로 파생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오른손을 사용하고 또 사용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라는 뜻으로 변화한 것이다.”라는 설명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도표로 설명된 “변화된 뜻”에서도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派生義와 引伸義의 경우 의미적 연관이 있지만, 假借는 “단지 본자의 자형만을 빌린 것이지 의미상으로는 어떠한 관련도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sup>3)</sup>

## □ 기타

① 147면: “실로 한자의 최초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갑골문이나 금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현명한 사람의 심사숙고의 결과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 특정 인물에 의해 한자가 만들어진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을 듯 합니다.

② 148면: “조선시대에 무수한 학자가 배출되었지만 字學에 대한 저술을 남긴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 소수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文論과 著作이 있습니다. 하영삼 선생님은 李瀾(1681~1763)의 「說文」, 沈有鎮(1723~?)의 『第五游』, 洪良浩(1724~1802)의 「六書經緯序」, 李忠翊(1744~1816)의 「說文新義序」, 李德懋(1741~1793)와 朴齊家(1750~1805)의 「六書策」, 李圭景(1788~?)의 「說文辨證說」, 朴瑄壽(1823~1899)의 『說文解字翼徵』, 朴致馥(1824~1894)의 「字訓序」를 제시하였습니다.<sup>4)</sup>

이 외에도 李衡祥(1653~1733)의 『字學』, 徐漚修(1749~1824)의 「答金婿元益魯謙

3) 이규갑, 『漢字學教程』, 차이나하우스, 2009. 156면.

4) 하영삼, 「韓國 歷代 《說文解字》 研究 綜述」, 『중국어문학』 56, 영남중국어문학회, 2010. 184-199면.

」, 柳得恭(1749~1807) · 李書九(1754~1825) · 尹行恂(1762~1801)의 「六書策」, 丁若鏞(1762~1836)의 「字說」과 「千文評」, 成海應(1760~1839)의 「毛許異訓」 등이 있습니다.

③ 151면: “1899년에 갑골문이 발견되고 본격적으로 연구된 이후 『설문해자』의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 너무 과도한 평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④ 152-154면: 『설문해자』 원문을 제시해 주면 이해에 더욱 도움이 되겠습니다.



# 〈『孟子』「梁惠王」篇의 構成에 대한 研究〉에 대한 토론문

김 종 구\*

본고는 『孟子』 「梁惠王」편을 중심으로 구성에 대한 연구이다. 논의는 편집자가 왜 「梁惠王」편을 首篇에 두었는지 확인하고 「梁惠王」편을 하나의 독립된 편으로 보고 그 구성방식을 진행하고 있다. 본 논의에 대해 목차 및 체재, 내용, 논의의 초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먼저 목차에 관해서다. 2장과 3장, 절의 제목의 구체화 및 수정이 필요하다.

2장은 『맹자』의 사상과 학문을 집대성, 총괄할 수 있는 제목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수편에 나타난 맹자의 사상의 집대성 또는 맹자 사상의 총괄체인 수편, 등으로 강조할 수 있는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3장의 1) 2) 3)은 구성의 직접적인 내용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특히 3)의 제목은 수사법의 하나로 대화법을 제시하여 전체적인 구성방식과의 거리가 있고 1) 2)의 체재와 거리가 멀다. 3)을 새로운 4. 장으로 구성하여 논의를 종합하고 정리하여 의미를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2. 본 논의가 각각의 장을 단락군으로 분류하여 그 주제만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관해서다.

「梁惠王」章句 上은 ‘仁義→與民·養民·愛民→仁政→王道’로 순차적으로 표현하고

---

\* 경북대학교

있고 『梁惠王』 下는 ‘王政→治道→革命·征伐→仁政→天命’로 순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仁政이 중복되는 경우와 與民(8면, 9장 설명)과 관련된 내용 등 중복되는 경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한편으로 정이천은 “중니는 다만 하나의 仁字만을 말씀하셨는데 맹자는 입을 여시면 곧 仁義를 말씀하셨다.”라고 하였다. 이미 맹자의 사상을 ‘仁義’로 정립하고 있고 그 내용을 대체적으로 요약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로운 구성 체계와 방식을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근사록』에 『논어』와 『맹자』에 관한 총평이 있다. 『논어』와 『맹자』는 초학자가 덕에 들어가는 문이고 정미하다고 한다. 『논어』와 『맹자』 등은 義理를 마음에 충족시킬 수 있고 大本—原의 妙理를 탐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물론 修己와 致知와 관련된 내용이지만)이 본론에 언급되고 구성의 기준으로 삼는 방법은 어떨까?

### 3. 논의의 초점에 관해서다.

본고는 『孟子』 「梁惠王」편의 구성에 대한 연구만을 하고 있다. 수사법과 혼용하여 서술하는 게 어떨까 한다. 대화법, 문답법, 비유법(힐난, 부연), 대조법, 반복법 등 다양한 수사법이 이미 내제되어 있다. 함께 서술하였으면 한다.

# 〈江上四宰와 그 漢詩에 대하여〉에 대한 토론문

甘 智 然\*

먼저, 박상환 선생님의 이번 발표문을 통해 ‘강상사재’라는 시인집단과 그와 관련된 다양한 한시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고 나아가 앞으로 제가 연구하는 분야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논문은 문학사에서 아직까지 거론된 적이 없는 시인집단인 ‘강상사재’와 이와 관련된 한시에 대한 연구라는 면에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아직 연구경험도 적고 19세기 한시에 대한 연구 경험은 더더욱 전무합니다. 따라서 토론을 하기보다는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서 지엽적이거나 제가 궁금한 점을 질의하고, 발표하신 내용에 대부분 공감하지만 일부분 저와 생각이 상이한 곳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선생님과 다시 검토해 보면서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합니다.

## 1. 한시의 형식적 측면에 대해

발표문 6쪽, 박문규가 차운하여 지은 칠언고시에 강상사재 인물의 특징이 언급되어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하셨고, 발표문 16쪽, 김영작의 시에서 연작시가 매수 6구씩 되어 있는 점과 강상사재 구성원들이 포착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시 형식적 특징이 조선 후기 장편 연작 한시 양식 중 크게 유행한 ‘懷人詩’라는 양식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는 이 시기 한시에서 주석을 사용한 부분도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이 시기 한시라는 장르에서 보편적으로 주석이 활용된다거나 이전 시기의 한시에서

---

\* 경북대학교

도 활용되고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이 된다면 문학사적으로도 의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발표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 19세기 한문학 연구 방향에 대해

맺음말에서 근대로 나아가는 19세기의 한시가 문학적 전통을 발휘하고 있었던 점에서 의미가 깊고 애국계몽기 한시와의 유사점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신 부분에서도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이 시기뿐 아니라 나아가 근대기의 한문학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라는 바인데, 발표자께서는 19세기 한문학의 어떤 부분이 더 연구되어야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3. 인용한 한시의 번역에 대한 의견

1) 발표문 12쪽, 박문규의 『천유시집』에 수록된 「蓉湖舟中陪洪輔國(在喆)曹尚書(錫雨)申尚書(錫禧)金侍郎(永爵)共賦」에 붙어있는 附韋史詩에서 제 3수의 경련, ‘객에게 알리노니 어느 산에서 처음 학을 풀어놓았는지, 이사한 집에서 요즘 나는 갈매기와 맹약을 맺었네[報客何山初放鶴, 移家近日已盟鷗]’에서 ‘巳’가 번역문에 ‘나는’으로 되어 있는데 대우가 되는 구라서 원문으로 ‘이미’ 정도라고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2) 발표문 13쪽, 7월 3일 홍재철의 일벽정에서 탁주를 마시며 지은 시 「七月三日厚翁一碧亭飲濁酒」의 함련인 ‘남은 周禮를 읽고 蒹葭의 물에서, 초나라 離騷 읊으니 社가 마치 洲갈구내讀殘周禮蒹葭水 吟遍楚騷社若洲’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고, 특히 ‘社가 마치 洲갈구내’라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社若洲’는 ‘杜若<sup>1)</sup>洲’로 보아 해당 구절의 번역을 ‘두약의 물가’ 정도로 봐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발표문 22쪽, 1867년에 홍재철에게 보낸 「走筆呈厚齋(丁卯)」의 ‘참깨 잎이 섬돌에까지 났고 봄바람은 올해는 이르구내靑陽遍除至, 春風今歲早’(27~28구) ‘靑陽’을

---

1) 杜若: 香草로 물가에 나며 잎은 菱荷와 비슷하고 줄기 끝에 꽃이 핀다.



‘참깨 잎’으로 보고 해당 구에 대한 설명(24쪽)에서 인적이 없어진 마을을 묘사한 것으로 보셨는데 ‘靑陽’을 28구의 ‘春風’과 참깨 잎이 나는 시기를 고려할 때 ‘봄 별’정도로 보는 것은 어떨까하는데 발표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 국가공인 한자시험 YBM 商務漢檢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취득한 YBM 商務漢檢은 단순한 한자 낱 글자의 음과 뜻 풀이 출제형식에서 벗어나 일상생활 및 사회 실무에서 사용되는 한자와 한자어에 대한 이해 능력과 한자를 바르게 활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실용적인 한자능력 평가 시험입니다.

본 시험은 YBM이 주관·시행하고 한국한문교육학회가 후원합니다.

## ▶ YBM 商務漢檢 시험 구성 및 유형

문제 유형		출제	문항 수	시간	총점
생활 한자어	신문 헤드라인 한자어	객관식	70 문항	70분	1,000점
	생활 한자어 이해				
	한자어 변환				
	상대어				
	동자이음(同字異音)				
	약자(略字)				
	한자성어(漢字成語)				
	그림 한자성어	주관식			
한자어 퍼즐					
실무 한자어	한자어 이해	객관식	80 문항		
	한자어 완성				
	한자어 찾기				
	한자어 전환	주관식			
	한자어 바로 쓰기				
	문장 독해				
	간체자 활용 어휘	객관식			
합 계			150 문항		

## ▶ 정기 시험: 일반인 대상 年 5회 정기시험 실시 (응시료 ₩25,000원)

회 차	시험 일자	접수 기간	성적 발표일
43 회	15. 08. 23(일)	15. 05. 20(수) ~ 15. 08. 18(화)	09. 07(월)
44 회	15. 10. 18(일)	15. 08. 19(수) ~ 15. 10. 13(화)	11. 02(월)
45 회	15. 12. 27(일)	15. 10. 14(수) ~ 15. 12. 22(화)	16. 01. 11(월)

## ▶ 특별 시험: 대학, 기업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수시 단체 시험으로, 최소 20명 이상 사전 협의(일시, 장소, 인원) 후 실시

관련 문의: (02) 2280 - 7231 / [www.bizhanja.co.kr](http://www.bizhanja.co.kr)





## 韓國漢文教育學會 2015年 夏季學術大會 發表集

**발행일** \_ 2015년 6월 20일

**발행처** \_ 한국한문교육학회

**주소** \_ 경북 경산시 대동 214-1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한문교육과  
송병렬 교수 연구실

**전화** \_ (053) 810-3175

**E-mail** \_ 10012@hanmail.net

**Homepage** \_ <http://www.hanmunedu.or.kr>

**인쇄제작처** \_ 중문출판사 (053) 424-9977

**후원** \_ (재) 국제교류진흥회